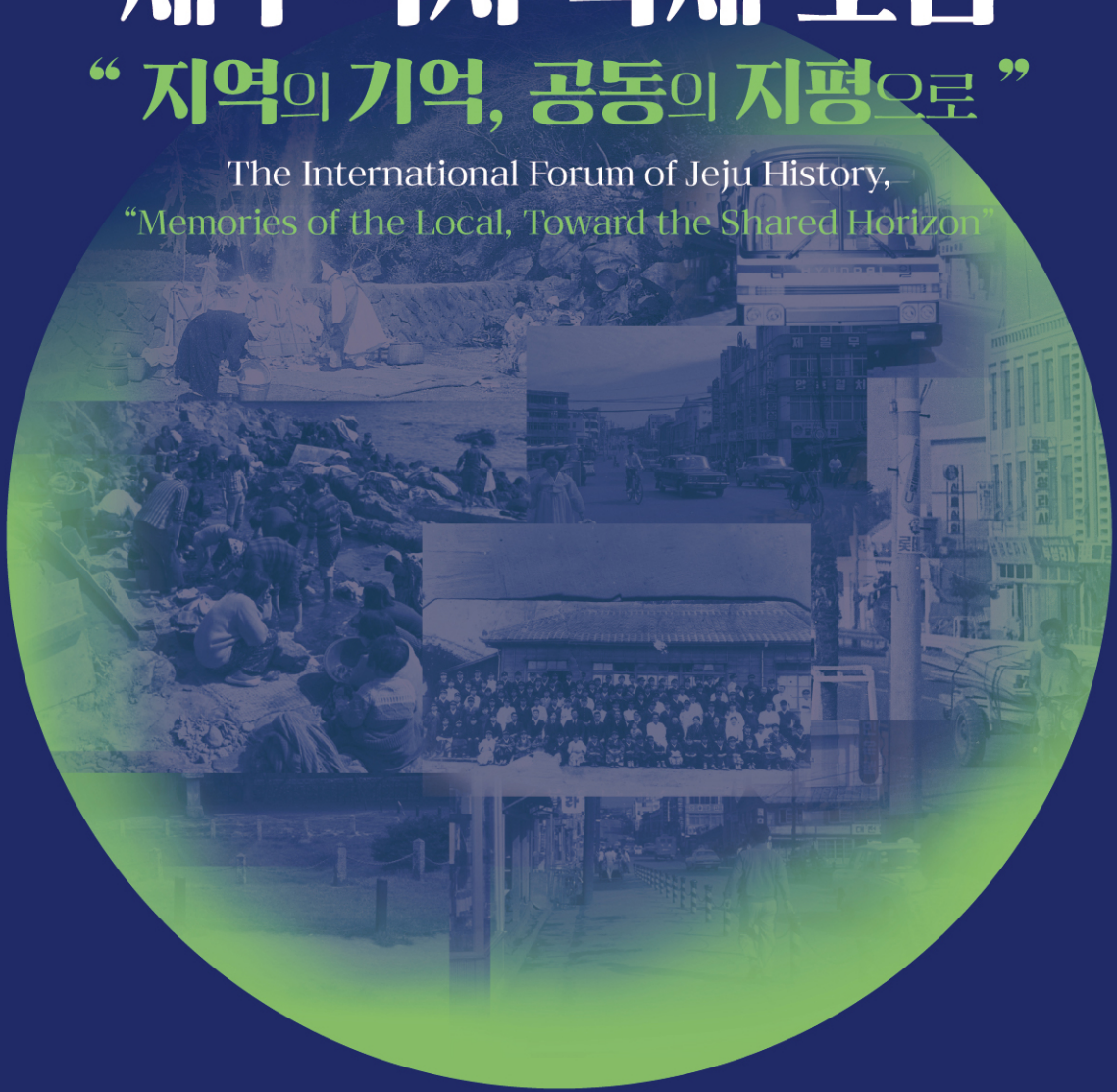
도제 80주년·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제주역사 국제 포럼

“ 지역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 ”

The International Forum of Jeju History,
“Memories of the Local, Toward the Shared Horizon”



2026. **10.29.** Thu ~**10.31.** Sat 제주 아스타 호텔

주최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주관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미디어 파트너 제주의소리

제주역사 국제 포럼

“ 지역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 ”

The International Forum of Jeju History,
“Memories of the Local, Toward the Shared Horizon”

10. 30.Fri Program

시간 Time	내용 Contents	발표자 Speaker
09:30~10:00	▪ **등록 Registration**	
10:00~10:30	▪ **개회식 Opening Ceremony** **사회: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Moderator: Lim SeungHee(Staff Researcher, Center for Jeju Studies)	
	<기조 강연 Keynote Speech> 제주역사의 오늘과 내일 The Current and the Future of Jeju History **좌장: 심규호(제주 중국학회 회장)** Moderator: Shim GyuHo(President of the Jeju Society for Chinese Studies)	
10:30~11:00	▪ **제주역사 연구의 궤적과 새로운 지평** The Trajectory and Horizon of Jeju History Studies	**김동전 Kim DongJeon**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 지역의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How Should We Watch Local History **좌장: 심규호(제주 중국학회 회장)** Moderator: Shim GyuHo(President of the Jeju Society for Chinese Studies)	
11:00~12:00	▪ **'태평양 세계'를 넘어: 관계적 방법론으로서의 트랜스-토착민 역사** Beyond 'Pacific Worlds': Trans-Indigenous Histories as Relational Methodology	**모니카 C. 라브리오라 Monica C. LaBriola** 하와이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University of Hawai'i
	▪ **모두를 위한 박물관 만들기: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Building a Museum for Everyone: A Field Report from Taiwan	**장룽즈 張隆志 Zhāng Lóngzhì** (전)국립대만역사박물관장 Former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12:00~12:30	▪ 질의 응답 Q&A	
12:30~13:30	▪ 점심 Lunch	
	<Session 2> 지역의 기록, 어떻게 남길 것인가 How Should We Preserve Local Records **좌장: 송원섭(제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Moderator: Song WonSeob(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13:30~14:30	▪ **주민의 기억은 어떻게 역사자료가 되는가: 지역사회 기록화와 살아 있는 유산** How Do Community Memories Become Historical Sources?: Community Documentation and Living Heritage	**테라 배럿 Terra Barrett** Heritage NL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기획자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Planner of Heritage NL
	▪ **학교 민속자료집에서 Dúchas.ie까지: 공공 아카이브 구축에서 교육·디지털화·시민참여** From the Schools' Collection to Dúchas.ie: Education, Digitis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a Public Archive	**우나 브래너흐 Úna Bhreathnach** 더블린 시립대학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at Dublin City University
14:30~15:00	▪ 질의 응답 Q&A	
15:00~15:20	▪ 휴식 Break Time	
	<Session 3> 공공의 역사, 어떻게 함께 쓸 것인가 How Should Write Public History **좌장: 강만생(제주역사정립위원회 위원장)** Moderator: Kang ManSaeng(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s Historical Identity)	
15:20~16:50	▪ **서울 제2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시사점 : 조례·평가·조직·시행계획을 중심으로** What Does Formulation of the Second Master Plan for Seoul as a Historic City Suggest?: Focusing on Ordinances, Evaluations,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Plans	**채경진 Chae KyungJin**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Head of the Policy Research Laboratory at the National Heritage Policy Institute
	▪ **충남지역 지역학 연구의 궤적과 전망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The Trajectory and Prospects of Regional Studies in Chungnam Province : Based on the Case of the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문광균 Moon KwangKyun**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충청학연구부 책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of the Division of Baekje and Chungcheong Studies at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공간 조성과 운영** The Spac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Gaya History and Culture Center	**홍밝음 Hong BalKeum**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학예연구사 Curator of the National Gaya History and Culture Center
16:50~17:20	▪ 질의 응답 Q&A	
17:20~19:30	▪ 폐회 및 만찬 Closing and Dinner	

Contents

1. 제주 역사 연구의 궤적과 새로운 지평 009

2. Beyond "Pacific Worlds":
Trans-Indigenous Histories as Relational Methodology 041

'태평양 세계'를 넘어서: 관계적 방법론으로서의
원주민 공동체 횡단적 역사 059

3. Building a Museum for Everyone: A Field Report from Taiwan 077

모두를 위한 박물관 만들기: 대만 현장 보고서 091

4. How Do Community Memories Become Historical Sources?
Community Documentation and Living Heritage 103

주민의 기억은 어떻게 역사적 자료가 되는가?
지역사회 기록화와 살아 있는 유산 121

5. From the Schools' Collection to Dúchas.ie:
Education, Digitis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a Public Archive. 141

학교 민속자료집에서 아일랜드 민속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공공 아카이브 구축에서 교육, 디지털화, 시민 참여 157

6. 서울 제2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시사점 173

7. 충남지역 지역학 연구의 궤적과 전망 193

8. 축적된 가야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가야 문화유산의 대중적 활용과 고고역사 공간 조성의 결합 215

개 회 사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제 실시 80주년과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역사 국제 포럼 '지역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에 와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와이·대만·캐나다·아일랜드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주신 해외 연구자 여러분과, 서울·충남·가야 지역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함께해 주신 국내 발표자·좌장·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토크 콘서트에서는 서로 다른 시대와 삶의 현장에서 제주의 변화를 겪어 온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80년의 시간이 공식 기록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 속에 깊이 쌓여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제주는 정치·사회적 격변과 경제적 성장, 삶과 생활공간의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쌓여 온 기억을 미래를 여는 역사로 가꾸어 가는 길을 묻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탐라·제주사를 비롯하여 신화, 해녀, 4·3, 제주어, 한라산 등 고유한 유·무형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각 지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쌓아 온 경험과 방법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오늘의 자리가, 제주에 필요한 길을 찾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에 제정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2027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논의된 열정과 성과를 촘촘히 정리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공동연구와 역사자료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하 지속가능한 미래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울러 흩어져 있는 역사 자료와 연구를 하나로 잇고, 희미해지거나 사라져가는 제주 사람들의 기억과 정체성을 도민과 함께 제주역사를 정립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마다의 기억이 공동의 지평에서 만나 제주역사의 내일을 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축 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역사 국제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완병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를 찾아주신 국내외 연구자와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지역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는 제주가 지나온 시간을 깊이 살피는 동시에, 그 경험을 세계의 역사와 연결해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제주의 역사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됐지만, 결코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를 통해 이웃과 만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건너온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제주를 이뤘습니다.

그 안에는 변화를 일군 선택과 기억해야 할 아픔, 다음 세대에 전할 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살피는 일은 과거를 정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 묻는 과정입니다.

이에 포럼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서로의 시각과 방법을 나누고, 제주의 경험을 세계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제 80주년과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자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미래의 발전 동력으로 잇고자 합니다.

나아가, 포럼의 논의를 제주역사 정립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충실히 담기도록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주역사 국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축 사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제 실시 80주년과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제주역사 국제 포럼 '지역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학연구센터 김완병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역사의 내일을 함께 그려 보기 위해 제주를 찾아 주신 국내외 연구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토크 콘서트에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제주는 정치·사회적 격변과 경제 성장, 삶과 생활공간의 큰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간은 공식 기록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물질을 해 온 해녀의 기억,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삶, 동네 서점이 지켜 온 이야기처럼 그 시대를 살아온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 속에도 깊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공공의 역사를 어떻게 함께 써 갈 것인지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폭넓게 논의합니다. 제주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여는 역사로 가꾸어 갈 길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주에는 탐라사와 제주4·3, 해녀문화와 생활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와 기록이 쌓여 왔지만, 그 성과가 기관과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고 2027년부터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포럼이 흩어진 자료와 연구를 하나로 잇고, 도민과 함께 제주역사를 정립해 나갈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의 경험을 기억하고 어떤 자료를 남기며, 그 기록을 다음 세대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따라 우리가 제주를 이해하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역사로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은 제주의 정체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도민의 기억과 기록이 공공의 자산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역사 국제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제주역사 연구의 궤적과 새로운 지평

- 탐라사관과 해역사적 전환 -

김 동 전(제주대 사학과 교수)

제주역사 연구의 궤적과 새로운 지평

- 탐라사관과 해역사적 전환 -

김 동 전(제주대 사학과 교수)

Ⅰ. 머리말

제주는 바다 위에 놓인 섬이다. 그러나 섬이라는 사실이 곧 고립을 뜻하지는 않았다. 북으로 한반도, 서로 중국 대륙, 동으로 일본열도, 남으로 류큐열도가 둘러싼 바다의 한가운데에서, 제주는 선사시대 이래 해류와 계절풍을 따라 북방과 남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바닷길의 중계지 구실을 하였다.[1] 제주를 둘러싼 바다는 제주를 고립시킨 경계이면서 동시에 세계와 연결한 통로였다. 제주인은 물·바람·돌·오름·곶자왈로 이루어진 화산섬의 한정된 환경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터전〕, 바다를 통해 끊임없이 외부세계와 만났으며〔연결〕, 외부문화를 받아들이되 자신들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변형하였고〔주체〕, 그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다〔삶〕. 이 네 가지가 서로 얽혀 온 과정 그 자체가 제주역사이다.

제주 역사를 어떠한 공간과 주체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인가. 이 물음은 제주가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리적 사실을 넘어, 제주인의 역사적 경험을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나아가 세계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적 질문이다. 오랫동안 제주사는 중앙의 통치와 지방의 대응이라는 구도 속에서 서술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행정제도와 정치적 변동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지만, 섬에 살아온 사람들의 주체성과 바다를 통한 다방향의 연결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해방 이후 제주사 연구는 향토사가들의 사료 수집과 지역사 정리에서 출발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고고학과 탐라국사, 사회경제사와 생활사, 표류·해양교류사, 재일제주인 연구, 제주4·3의 기억과 평화 연구 등으로 연구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개별 연구가 심화된 만큼 그 성과를 관통하는 역사인식과 종합적인 서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뚜렷해졌다. 사료와 연구주제의 양적 확대가 곧바로 제주사의 전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먼저 1945년 이후 제주사 연구의 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역사주체와 연구공간, 자료와 방법론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브로델의 지중해세계와 류큐·대만·태평양 도서의 역사서술 사례를 비교하여 섬과 바다를 하나의 관계공간으로 파악하는 해역사적 접근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핀다. 이를 토대로 제주를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 놓는 '탐라사관'을 제안하고, 제주를 기점으로 형성된 항해공간인 '탐라해'와 인적·물적·문화적 교류의 관계공간인 '

1) 김동전, 「제주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217쪽.

탐라해역세계'를 구분하여 제주 전체사의 구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탐라사관은 과거 탐라국의 독립성을 현재의 민족국가 개념으로 소급하거나 제주를 배타적인 중심으로 세우려는 관점이 아니다. 제주인의 삶과 선택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되, 그 역사를 한반도와 동아시아 해역, 세계사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검증하려는 역사인식이다. 또한 탐라해역세계는 시대를 초월하여 고정된 영토나 단일한 교역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변화·소멸한 연결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을 통해 정치·사회·경제·문화·환경·이동과 기억의 역사를 함께 읽는 제주 전체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만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타자의 시선으로 쓰인 제주역사는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섬에서 바다를, 바다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역사인식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제주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제주인이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를 그려 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Ⅱ. 제주역사 연구의 궤적과 성과

해방 이후 제주사 연구는 향토사가의 자료 발굴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전문 역사학,고고학 연구로 제도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해역사, 비교사, 기억연구로 시야를 넓혀 왔다. 제주역사 연구의 동향과 성과를 2000년으로 기준을 삼은 것은 이 무렵 1945~1999년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는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졌고,[2] 그 이후 연구기관의 다원화와 사료 역주의 대량화라는 새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 제주역사 연구동향과 성과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3]

또한 2000년 이후 역사 연구 동향은 2018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다.[4] 따라서 이들 연구동향과

2) 김동전, 앞의 논문,『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217~276쪽. 그 외에 필자의 연구동향 관련 글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종업.김동전,「회고와 전망(1980년대):총설」,『濟州島史硏究』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김동전,「제주도 지역의 고문서 조사.수집 현황과 과제」, 제16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 발표요지, 1999. 국사편찬위원회; 김동전,「제주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 편,『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김동전,「탐라국의 중앙으로의 귀속(1105~1402년)」,「제주사 시대구분에 대한 一試案」,『탐라국의 여명을 찾아서』,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1; 김동전, 2003.「제주지역 사료 수집.정리의 현황과 향후 과제」,『제주지역 사료수집.정리를 위한 워크숍 발표 자료집』(2003. 4. 29), 국사편찬위원회; 김동전,「제주역사 연구의 검토와 전망」,『학술발표논문집』36차, 제주학회, 2011.

3) 金宗業.權仁赫.高昌錫.金容完, 1983,〈解放後 濟州硏究槪觀(Ⅱ):歷史.考古分野〉,《탐라문화》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金宗業 외, 1984,〈濟州硏究의 現況과 展望〉,《耽羅文化》3; 任孝宰, 1986,〈濟州島 先史文化硏究의 現況과 問題點〉,《濟州島硏究》3; 權仁赫, 1986,〈朝鮮後期 濟州島史 硏究現況과 課題〉,《濟州島硏究》3; 김항구, 1987,〈제주근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濟大新聞》306.307호; 玄春植, 1990,〈濟州道 鄕土史硏究 現況〉,《韓國鄕土史硏究現況》; 金宗業.金東栓 외 4인, 1991,〈회고와 전망:濟州島史 硏究(1980년대)〉,《濟州島史硏究》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이청규,〈제주도의 고고학 조사연구〉,《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박원실, 高橋公明, 김동전, 1997,〈耽羅史 연구의 회고와 전망〉,《탐라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회제주사정립 학술 심포지엄 발표요지; 양정심, 1998,〈제주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역사와 현실》27, 1998; 박찬식, 1998,〈제주학연구의 성과와 과제 : 인문학적 측면에서〉,《제주학, 세계와 미래로》(제주학회 제14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강경희,「일본에서의 제주도연구의 성과와 과제」,『濟州島硏究』50, 제주학회, 2018; 홍기표,「해방 이후 제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濟州島硏究』50, 제주학회, 2018, 강창화,「濟州考古學의 硏究成果와 課題」,『제주학회창립40주년기념 전국학술대회』자료집, 제주학회, 2018; 허호준,「제주4·3 연구 30년: 진실과 정의 추구를 위한 과정」,『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학회, 2018; 고지영·문순덕·현혜경,「제주여성

성과를 참조하고, 제주 역사 연구 영역의 확장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지난 25년의 연구 궤적을 살펴보겠다. 지면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일일이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 1945-1999년: 연구기반의 형성과 성과

이 시기는 한 마디로 제주역사 연구가 향토사가들에 의한 기반 형성과 향토사적 연구 단계에서 전문역사가들에 의한 연구로 이행하였다. 제주역사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는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향토사가들이 연구를 주도한 제주역사 연구의 개척기였다. 김태능·김봉현을 비롯하여 김봉옥, 김찬흡, 홍순만 등 향토사가들이 제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를 정리하였다. 주된 관심은 제주도의 고대 명칭, 삼별초의 제주입도와 활동, 목민관과 유배인관련 비석, 조선 및 근대 제주교육, 김만덕이나 항일운동 등의 인물사였다. 이 시기 전문 역사학자들이 제주 역사에 관심을 가진 주제로는 김철준·최몽룡의 제주 지석묘, 김원룡·정영화의 제주무문토기, 혈거유적, 남도영의 목장·마정, 김양선의 표도와 대외관계, 김진봉의 철종대 제주민란, 박광성의 1901년 제주민란, 이원순과 현계순의 한말 제주도 通漁 문제 등이 주목받았다. 일본인 학자로는 岡田英弘의 元 순제와 제주도, 森克己의 일·송 교통과 탐라 등 이었다.

2단계(1980~1989)인 1980년대는 전문 역사학자들이 향토사가들의 자료 축적 성과에 힘입어 향토사가들과의 협력 속에 제주역사 연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1981년 제주대학교 사학과의 설치는 중요한 전환이었다. 제주에 기반을 둔 전문 역사연구자 양성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고고학에 이청규를 비롯하여 김병모·임효재·정영화, 탐라국과 고려시대 제주에 고창석·진영일·전경수, 일본인 학자로 森公章·筧敏生·高橋公明·陳祝三 등의 연구가 있다. 조선시대 제주분야는 연구인력이 가장 확산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 대표적인 연구자로서 고창석·권인혁·김병하·한영국 등이다. 근대사 제주분야에서는 강만생·김양식·김옥희·조성윤, 현대사에서 제주연구는 제주4·3연구가 중심을 이루었고, 고창훈·박명림·양한권과 제주4·3연구소의 일련의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해외 일본에서는 재일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동경에서는 1985년 탐라연구회를 창립하여 정기적으로 『濟州島』 잡지를 발간하였고, 대판에서는 1987년 일본탐라학회를 창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연구는 고고학 분야에서 지석묘와 토기, 곽지패총, 용담동 분묘유적, 상모리 토기, 고산리 융기문토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본격적인 발굴을 토대로 제주도 선주민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시도해 나갔다. 고대 탐라사 분야는 제주도의 고대 문헌기록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탐라의 왕권, 탐라국의 대외관계, 탐라사회의 기본구조, 탐라국 성주·왕자에 대한 연구가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는 탐라의 군현설치, 탐라와 고려·원과의 관계, 원대의 제주도 목장, 목호난 등이 주 관심 대상이었으며, 조선시대는 유배인 및 교학활동, 19세기 제주의 사회경제구조, 1813년의 양제해 모변, 1862년의 제주민란, 토관제도, 을묘왜변, 두모악 등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다. 근대사 분야는 일본어민의 제주침탈과 도민의 대응, 1898년의 제주민란, 1901년의 제주민란, 1932년의 해녀투쟁,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 등이었다. 현대사는 해방공간 제주에서 일어났던 제주4·3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었다.

3단계인 1990년대 제주역사 연구는 새로운 연구인력이 확충되면서 제주역사를 지방사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0년대 연구자들 외에 우선 선사·고고학 분야에서 강창화·고재원,

역사문화 연구현황과 과제」, 『제주여성가족연구』2,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3.

고려시대에서는 김일우·김창현·윤용혁·池田榮史 등이 제주 역사연구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분야는 강창용, 김동전, 김병화, 高橋公明, 근대사 분야는 강창일·김인덕·김창후·박찬식·양진건·염인호·진관훈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가담하였다.

제주4·3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 분야에서는 김동만·김종민·박찬식·서중석·양정심·양조훈 등 연구인력이 매우 확산되어 나갔다. 특히,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한 연구가 제주4·3연구소, 제민일보 4·3 취재반 등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나아가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제주의 4·3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주4·3은 전문학자들의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1998년에 간행된《제주4·3연구》는 전문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제주4·3을 연구해서 내놓은 그 결과물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자료집으로 김봉옥 중심으로『조선왕조실록중 탐라록』(1986),『속탐라록』(1994)이 제주문화방송에서 발간되었고 고창석은『탐라국사료집』(1995)을 발간하여 제주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김봉옥은『제주통사』(1987)를 대대적으로 보완하여『제주통사』(증보판, 2000)을 발간하여 선사에서 현대까지의 제주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중심적 시각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해방 후에서 2000년까지의 성과를 검토하면서 향후 제주사 연구가 단순한 향토사나 중앙사의 부속사가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지방사 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5] 그러면서 제주 지방사를 제주지역민들의 일상생활의 역사로 정의하며, 과제와 전망으로 7개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해양의 중심축인 제주를 보는 인식을 바꾸고 연구주제를 넓혀야 한다. 둘째, 제주는 사면이 바다라서 많은 제주인이 주변 지역으로 표류했다가 송환되었고, 이국인도 제주에 떠밀려 왔기때문에 표류·표도 연구가 시급하다. 셋째, 제주와 원 지역의 문화를 포함한 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넷째, 관찬 사료뿐 아니라 문집 등에 나오는 제주 관계 기사도 지속적으로 발췌·영인하고, 나아가 제주 지방민의 생생한 삶을 보여주는 가장 값진 자료인 호적중초 등 고문서를 발굴하고, 탈초와 번역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고학 자료는 고고학 발굴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자료를 적극 개방하여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주역사 자료를 수집·정리할 기관을 세워야 한다. 일곱째, 국내외 제주역사 연구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과 활동,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등 부분적으로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어떻든 1990년대 제주사 연구가 남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제주역사를 하나의 독립적인 전문 연구영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이다.[6]

2. 2000년 이후: 연구영역의 다원화와 성과

제주역사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선사시대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축적되었고, 탐라국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었다. 고려시대 탐라국 위상과 고려 군현 편입, 탐라와 여·몽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서는 지방행정, 제주향촌사회의 구조와 향촌질서, 고문서 자료 수집과 생활사, 표류·표도와 해양교류, 목축문화, 방어체제, 유배와 교육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5) 각 시대사별 연구현황과 특징은 통사류, 선사·고고학, 고대·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김동전, 앞의 논문,『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230~258쪽).

6) 김동전, 앞의 논문,『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258~262쪽)

이루어졌다.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제주도 읍성과 진성, 이원진의 탐라지, 묘비건립과 사회변화, 제주어사 파견과 지방통치, 김정희의 세한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분야가 점차 확대되었다.[7] 근대 이후 일본으로의 이동과 재일제주인사회, 일제강점기 제주사회와 사회운동, 제주항일운동, 근대 제주불교, 태평양전쟁기 전쟁유적, 제주4·3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주변적인 분야로 간주되었던 주제들이 오늘날 제주사를 구성하는 핵심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았다.[8]

지난 25년의 제주역사 연구를 되돌아보면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의 확장, 공간의 확장, 역사주체의 확장, 역사자료의 확장, 그리고 연구인력의 확장이다. 고고학 연구는 문헌 이전의 제주를 역사 속으로 끌어들였고, 탐라국 연구는 제주를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질서를 형성했던 역사적 주체로 보게 하였다. 표류와 표도 연구는 제주를 고립된 섬이 아니라 동아시아 해역과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재일제주인 연구는 제주사의 공간을 제주도라는 지리적 경계 밖으로 확장하였다. 태평양전쟁 연구는 전쟁이 제주인의 일상과 생활공간을 어떻게 군사화시켰는지를 보여주었고, 제주4·3 연구는 국가의 기록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웠던 주민의 경험과 기억,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역사연구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제주대학교 사학과의 석·박사 연구인력의 양성과, 도외 및 일본 전문연구자들의 제주역사 연구 참여로 연구인력이 많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문화원 등 제주역사 관련 기관의 제주역사 관련 자료의 영인 및 번역,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고문자료집 발간, 고문헌, 고문서집성, 호적중초 자료 영인, 개인 문집 발간,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의 공유, 제주 4·3 구술자료 발간 등 역사자료를 크게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청규·강창화·고재원·김경주·박근태·김봉찬·오연숙·박경민·박재현 등으로 이어지는 제주 고고학은 제주사의 출발점을 크게 바꾸었다. 고산리유적은 제주 선사문화의 시간적 깊이를 크게 확장시켰으며, 삼양동의 대규모 취락과 용담동 철기부장묘 등은 기원전후 제주사회의 취락구조, 사회분화, 외부지역과의 교류를 논의할 수 있는 물질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청규가 제주 고고학의 편년과 비교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강창화는 고산리 초기 신석기문화와 동북아시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9] 고재원 등의 연구는 무문토기문화와 석기·동굴유적 등 제주 선사문화의 실증적 기반을 정밀하게 하였고,[10] 김경주는 축적된 발굴자료를 바탕으로 탐라 형성기의 취락구조, 사회분화, 생산체계와 대외교류를 역사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11]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시기구분, 생업, 주거체계 및 구조 등을 유물과 유구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 남부 및 남해안과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하였다.[12]

이러한 연구를 관통하는 질문은 탐라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 발굴과 연구의 축적이 없었다면 탐라국 형성사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고학의 발굴 성과는 탐라국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다만 외래계 유물의

7) 변성훈, 『조선시대 제주도 읍성과 진성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24; 김영란, 『17세기 지방관의 읍지편찬과 이원진의 "탐라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4; 백종진, 『17~18세기 제주지방 묘비 건립과 사회변화』,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2025; 임승희, 『조선후기 제주어사 파견과 지방 통치』,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2026; 오창림, 『19세기 완당 김정희의 제주유배와 <세한도>』,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2026.

8) 홍기표, 앞의 논문, 『濟州島硏究』50, 제주학회, 2018.

9) 강창화,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0) 고재원, 「고산리식 토기의 분류와 편년」, 『한국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진인지, 2014.

11) 김경주, 「탐라 전기의 취락구조와 사회상」, 『탐라문화』 5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12) 박근태, 『제주도 신석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존재가 곧바로 직접교역을 의미하거나, 사회적 위계가 곧 통합된 국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고고학과 문헌사의 결합은 이러한 단계별 추론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선사·탐라초기 제주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육지의 특정 문화가 언제 제주에 전파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주사람들이 외부의 물질과 기술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제주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유적의 발굴성과를 넘어 제주 전체의 취락체계와 생산체계, 해안과 중산간의 관계, 교환망과 이동경로를 장기적인 시계열 속에서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창화는 제주도 고고학의 향후 연구과제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석기문화 연구는 빌레못동굴과 '생수궤' 동굴(바위그늘) 유적을 통해 석기의 부정형성(不定形性), 층위의 불명확성, 문화층의 절대연대, 동물뼈 분류(학명)의 이견 등을 다시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신생대 제4기의 고지질, 동·식물상의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육지에는 고산리식토기 단계가, 제주에는 전형적 태선침선문토기가 없으며, 생업·자연생태 연구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고산리유적은 동북아 전체 맥락에서 구석기 최말기에서 신석기 조기 전환 양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동기시대 제주 무문토기문화가 예전에는 육지보다 한참 늦은 것으로 봤으나, 최근에는 본토와 같은 흐름으로 정리되는 추세로 향후 주변 지역과의 비교, 마을 공간 배치, 주거지 유형, 유물 조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탐라형성기와 탐라전기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급증하고 있어서 마을 간 관계, 중심과 주변, 생업·교류·생산체제 등 복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탐라후기 연구는 문헌자료에 비해 고고학적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탐라국주 무덤과 왕궁의 발견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주 중·근세 고고학 연구는 사찰지, 관아지, 분묘, 방어·생활유적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주제별 분석과 연계 정리. 1300년(충렬왕 26) 대촌현 등 16현촌의 구조, 생활사, 네트워크를 마을고고학과 문헌사를 접목해 종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13)]

제주고고학의 흐름으로 보면, 구석기·신석기는 기초 자료의 신뢰성과 해석 문제가 핵심이고, 탐라형성기와 탐라전기는 고고학 자료가 충분하지만 복합적 연구가 미흡하며, 탐라후기는 고고학자료 부족을 메우는 일과 자료를 엮어 내는 종합 연구가 핵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고학연구는 발굴보고서의 공유와 역사학 뿐만 아니라, 지질학, 지리학, 해양학, 동·식물학 등 융복합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탐라해역을 공유하는 지역간 물질문화에 대한 국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주역사의 탐라시대 연구는 대대적인 고고학 발굴에 힘입어 많이 진전하였다. 그 결과 탐라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새롭게 쓴 탐라사』가 출간되었다.[14)] 탐라국이 1105년(숙종 10) 탐라군 설치까지 장기간 독립국가로서의 실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왕국이라는 조건과 동아시아 조공·책봉 질서 속에서 주변국과의 공존·공영한 결과로 보았다. 탐라국의 정체성을 고고학적, 문헌사학, 신화·서사무가의 관점에서 찾고, 탐라국 시대를 탐라초기(기원전후~200), 탐라전기(201~660), 탐라후기(661~900), 탐라말기(901~1105), 탐라재편기(1106~1404)로 구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15)] 특히, 명칭으로 본 탐라사의 궤적(장창은), 건국신화로 본 탐라국의 탄생(허남춘), 물질문화로 본 탐라(고재원), 탐라의 국제관계와 외교(김영관),

13) 강창화,「濟州考古學의 硏究成果와 課題」,『해방 이후 제주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학회 창립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제주학회, 2018, 67쪽.

14)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새롭게 쓴 탐라사』, 한그루, 2024.

15) 김동전,「독립왕국, 탐라의 실체를 찾아서」,『새롭게 쓴 탐라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한그루, 2024. 탐라국의 명칭, 건국신화, 물질문화,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탐라와 고려와의 관계, 탐라의 유물과 유적 등에 새로운 구체적인 내용은『새롭게 쓴 탐라사』(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한그루, 2024)를 참고할 것.

탐라와 일본의 인적·물적 교류(강은영), 탐라 말기 탐라국의 활동과 고려와의 관계(김창현), 발굴 유적·유물로 본 탐라(고재원), 문헌으로 본 탐라 유적(홍기표)은 기존 자료를 탐라 중심의 주체적 역사로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탐라 건국신화에 보이는 3신녀의 역할과 위상, 탐라시대 전기의 취락구조와 대외교류, 사서에 남겨진 고대 탐라국 운위 실체의 재검토, 탐라국의 동아시아 교섭과 신라, 탐라의 대일교섭, 탐라국의 대외교섭과 항로 등 탐라국 관련 신화, 고고학,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탐라국 역사를 재조명하였다.[16)]

향후 탐라국에 대한 연구는 탐라는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위에서 정치체를 형성하였는가, 탐라는 주변의 여러 정치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섬이라는 공간조건과 해상교통은 탐라의 정치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탐라의 지배세력은 외부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일정 기간 독자적인 정치질서와 대외관계를 유지한 역사적 주체로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탐라국 연구에서는 고고학·문헌학·자연과학 분석을 결합하고, 제주와 한반도 남부만이 아니라 류큐열도·규슈·중국 연해지역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해역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탐라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곧바로 근대적 의미의 독립국가를 탐라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 정치체의 위상은 시대별로 변화하였고, 대외관계의 성격 역시 단일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탐라를 주변부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국가 개념을 과거에 소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엄밀성이야말로 제주 중심적 역사인식과 지역주의적 역사서술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고려시대 제주 역사연구는 탐라국이 고려와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 고려시대 제주 연구는 군현설치,[17)] 삼별초[18)]와 몽골 지배[19)]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었다. 고창석은 탐라와 고려와의 관계, 군현설치, 고려전기 민란, 몽골과의 관계, 원의 관부 설치, 원·명교체기의 제주 등 고려시대 전반적인 제주 내용을 다루었다.[20)] 진영일은 고려 숙종 10년 탐라군, 고려기 탐라와 성주, 탐라 부임 외관, 영주지와 한라산 문제 등을 다루었다.[21)] 김일우는 고려와 탐라의 관계 형성, 지방행정체제, 삼별초, 원과 탐라, 법화사, 해상활동 등을 종합하여 고려시대 탐라사의 기본구조를 체계화하였다.[22)]

김창현은 중세 탐라국의 도약과 변천, 고려의 탐라 강점과 탐라의 독립항쟁, 몽고의 탐라 진출과 탐라국의 독립과 양상, 원간섭중후기 탐라국과 제주목 반복, 원명교체기 국제정세와 탐라의 대응, 중세 탐라제주의 불교와 사원 등을 다루었다. 특히, 탐라는 12C 중반에 고려에 의해 멸망당해 탐라현으로 되지만 치열하게 독립항쟁을 벌이더니 1273년에 몽고군의 탐라진입을 이용해 탐라국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1295년에 고려의 제주목으로 편입되지만 이후 정세에 따라 탐라국과 제주목을 반복했고, 결국 탐라는 최영 고려군의

16) 채미하 외,『고대 동아시아와 탐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17) 고창석,「耽羅의 郡縣設置에 대한 考察:고려전기를 중심으로」,『論文集』14, 濟州大, 1982; 진영일,「高麗前期 耽羅國 硏究」,『탐라문화』1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 고창석,『제주역사연구』, 세림, 2007.

18) 尹龍爀,「고려 삼별초의 제주 항전」,『제주도연구』11, 1994.

19) 고창석,「麗元과 耽羅와의 關係」,『논문집』17, 제주대학교, 1984; 고창석,「元ㆍ明 交替期의 濟州島:牧胡亂을 중심으로」,『耽羅文化』4, 1985; 고창석,「元代의 濟州島牧場」,『濟州史學』창간호, 1985; 고창석,「獻馬使臣 金甲雨의 斷罪事件」,『제주도사연구』3, 1994.

20) 고창석,『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21) 진영일,『고대중세 제주역사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2) 김일우,『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2006.

목호토벌과 차현유 독립항쟁 실패로 독립성을 잃어간 것으로 파악하였다.[23]

나아가 기존 논문을 모아서 탐라, 한반도, 중국, 몽골 등과의 대외 교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가 편찬되었다.[24]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사회를 해석한 '제주 삼별초와 몽골·동아시아 세계', 쿠로시오 해류의 연계선상에서 삼별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고려시대 동아시아의 해양과 국제교류 양상', 법화사의 중창과 원나라의 건축문화 등을 다룬 '고고자료로 본 고려시대 제주의 몽골문화', 몽골의 탐라목장 설치와 운영을 다룬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용혁은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스크의 고려기와, 고려·조선대 오키나와와의 문물교류 등을 분석하여 한국과 오키나와 사이의 초기 교류사 연구를 밝혔다.[25]

한편, 고려시대 연구에서는 지배의 시각에서 자율과 국제관계의 시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박종기는 1034년 팔관회에서 탐라국이 송상(宋商), 여진과 같은 반열에서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을 근거로 고려 전기의 탐라를 고려 중심 천하질서의 번국(蕃國)으로 규정하고, 1011년 주기(朱記) 요청을 예속의 표현이 아니라 탐라 지배층의 자율성 확대 행위로 재해석하였다. 나아가 탐라의 성주층이 원과 고려의 지배 의도를 꿰뚫고 타협과 비타협을 오가는 고도의 정치력을 구사하며 고려 말까지 지배세력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보았다.[26] 몽골사 연구자인 양혜숙·박원길은 몽골이 탐라에 처음 주목한 것은 남송과 일본으로 통하는 해로였다는 점, 1293년 탐라에서 압록강 하구에 이르는 11개 수역(水驛)이 설치되었다는 점을 들어 탐라를 제국 해상루트 위의 독립적 단위로 평가하였다.[27]

조선시대 제주역사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국가의 지방지배에서 지역사회의 내부구조와 주민의 삶으로 연구의 시선이 이동한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호적중초와 고문서의 활용이다. 제주에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호적중초를 이용하여 답한·향리 등 신분층의 존재와 신분변동, 호적제도의 운영, 가문과 가족의 사회생활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28] 1801년 공노비 해방을 전후한 제주지역 신분구조의 변화가 분석되기도 하였다.[29] 몽골의 제주 직할 통치 및 탐라목장 설치로 제주에 거주했던 대원본관 가문이 19세기까지 존재하였음을 호적중초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몽골의 100년 제주간섭과 통치가 오랜기간 제주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30] 군역자료와 연계하여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에 대한 연구도 실제 제주인들이 지방군에 어떻게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연구였다.[31] 대정현 동성리 호적중초에 기재된 장인 직역자를 추적해 그들의 직역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정리하고, 이들의 가계 구성을

23) 김창현,『주제로 본 탐라국사』(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집옥재, 2023; 김창현,『생동하는 탐라국 역사』(제주대학교 탐라문화학술총서), 온샘, 2025.

24) 김일권 외,『중세 동아시아의 해양과 교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

25) 윤용혁,『한국과 오키나와』, 서경문화사, 2020.

26) 박종기,「고려시기 제주지역 이해의 방향」,『탐라문화』7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2, 5~30쪽.

27) 양혜숙·박원길,「몽골사에서의 탐라의 가치」,『濟州島硏究』51, 제주학회, 2019.

28) 김동전,「18·19세기 답한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분석」,『역사민속학』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61~89쪽; 김동전,「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향리층의 신분변동」,『사학지』28, 단국사학회, 1995, 217~243쪽; 김동전,「조선후기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실태와 그 성격」,『역사민속학』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117~164쪽.

29) 김동전,「18세기 후반 濟州地域 公奴婢의 存在樣態:대정현 東城·中文·自丹·今勿路里 호적중초의 사례분석」,『역사민속학』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199~230쪽.

30) 김동전,「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지방사와 지방문화』13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10, 301~328쪽.

31) 임승희,「조선후기 제주지역 지방군의 편제와 실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08.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장인 직역의 사회적 지위와 성격을 규명한 연구도 돋보인다.[32]

고창석은 토지매매문서·분재기·소지 등 각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조선후기 제주지방 전답매매의 실태, 의귀리 김만일 후손가의 전답문서, 장전리 강태복 소장 전답문서, 금악리 수산강씨 종가의 전답문서, 노비매매실태와 노비소유권분쟁, 분재문서 실태를 밝혀냈다.[33] 제주인과 직접 관련된 생생한 생활사 자료인 고문서 자료 발굴과 활용연구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제주 주민의 삶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 이는 중앙의 법전이나 관찬사료를 통해 제주를 설명하던 연구에서 벗어나 제주사람들이 실제로 남긴 지역자료를 통해 제주사회의 내부구조와 일상생활을 복원하려는 중요한 연구방법상의 전환이었다. 나아가 고문서 연구와 함께 지역자료의 활용은 제주사 연구의 자료적 기반을 크게 확대하였다. 조선이 제주를 어떻게 지배했는가에서 그 지배체제 속에서 제주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로 연구 주제가 이동한 것이다. 향후에는 호적중초를 족보·호구단자·토지문서·향교와 서원 입록자·유생성책·문무과 급제자·군역자료 등과 연결함으로써 개인에서 가족, 가문, 마을, 면리, 제주사회로 이어지는 사회관계망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사에서도 수취체제, 지방관아 재정, 민란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연구됨으로써 제주민의 경제생활과 중앙 및 지방권력과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되기 시작하였다. 권인혁의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수취체제와 주민 경제, 조선후기 제주 '事例'를 분석한 지방관아 재정의 운영 실상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냈다.[34] 이는 조선후기 제주지역 사회경제에서 매우 귀중한 과제로 19세기 제주지역 민란의 배경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연구는 정치·행정사 중심에서 사회경제사·신분사·생활사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한편, 표류·표도 연구는 제주사 연구의 공간을 크게 확장하였다.[35] 기존 표류 연구가 개별 표해록이나 외교적 송환과정에 관심을 두었다면, 김나영은 출륙금지령으로 공식 이동이 제한된 시기에도 표류와 송환 체계가 제주를 중국·류큐·일본·동남아와 잇는 비공식 네트워크로 기능하였음을 보여 주었다.[36] 제주인의 해외 표류와 외국인의 제주 표도를 함께 분석하면서 표류·표도인을 사람·정보·지식의 이동을 매개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37] 이러한 연구는 제주에서 바다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 바다는 제주를 고립시키는 경계가 아니라, 제주와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따라서 질문도 누가 어디로 표류했는가에서 제주사람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어떻게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람·정보·지식이 이동했는가로 확장된다. 이와 같이 표류·표도 연구가 해양교류사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표류·표도가 제주사람이 바다를 건너 세계와 만나는 역사였다면 19세기 이양선의 출몰은 그 방향을 역전시켰다. 즉, 제주가 근대적 해양공간으로 편입되는 시초가 된 것이다. 18세기 말 이후 조선 연해에

32) 김우리, 「18~19세기 제주지역 匠人의 호적 기재 양상:'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사림』 87, 수선사학회, 2024, 302~335쪽.

33) 고창석, 『제주도 고문서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1.

34) 권인혁, 『조선시대 화폐유통과 사회경제』, 경인문화사, 2011. 이 책 제2부 조선후기 제주도의 사회경제(260~329쪽)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5) 해양수산부, 『동아시아의 표류』(해양문화총서 2), 해양수산부, 2019.

36)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도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 발생 배경과 실태」, 『탐라문화』 5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8; 김나영, 「19세기 제주 표도 呂宋人 송환을 둘러싼 동아시아 교류 양상」, 『도서문화』 6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8.

37)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도 漂流·漂到人을 통한 정보·지식의 유입 양상」, 『역사민속학』 54, 역사민속학회, 2018.

서양선박이 출현하였고, 제주 역시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와 접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40년 아편전쟁기 영국선박의 제주 해역 출현과 가축 약탈, 조선 관원과의 충돌은 중국 연안에서 전개되던 영국의 군사적 해양진출이 제주 해역까지 연결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38]

1845년 에드워드 벨처가 지휘한 영국 해군 사마랑호(HMS Samarang)의 제주 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마랑호는 우도를 기점으로 제주 해안과 주변해역을 조사하고 수심과 해안선을 측량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국선박이 제주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영국 선박의 제주해역 출몰, 제주 탐사, 제주 해안 측량, 그리고 제주를 영국식 해도 제작에 편입하였다는 사실이다. 근대 제국의 해양팽창에서 측량과 지도제작은 군사·상업적 진출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행위였다. 제주 해안이 영국의 해도와 지식체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주가 조선의 변방인 동시에 서구 해양세력이 인식하고 측량하는 동아시아 해양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39]

1900년 영국 상선 Socotra호가 제주 남방의 수중 암초와 접촉하고, 1901년 영국 해군이 이를 측량하여 해도에 'Socotra Rock'으로 표시한 사건 역시 이러한 장기적 변화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40] 1845년 사마랑호가 제주 해안과 주변해역을 측량하였다면 20세기 초에는 제주 남방의 수중 암초까지 근대 수로측량과 해도제작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소코트라 암초 사건을 단순한 이어도 발견사로 한정하기보다 19세기 이후 제주 해역이 근대 세계의 항해·측량·지도제작 체계 속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현대사 제주역사 연구는 해녀, 디아스포라, 4·3을 축으로 해역적·비교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제주 해역에서는 일본 어민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진출은 더욱 확대되었다.[41] 이러한 변화는 식민지기에 이르러 제주사회의 경제·사회구조와 이동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심에 출가해녀와 제주인의 오사카 노동시장 진출이 있었다. 해녀 연구는 2016년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급증하였으며, 출향 해녀의 이동은 한반도 연안의 20여 어촌과 일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렌까지 추적되었다.[42]

20세기 제주인의 일본 이주는 제주사의 공간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제주-오사카 항로의 형성과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동,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제주인 공동체의 형성, 해방 이후 귀환과 재도일, 4·3과 분단, 재일제주인의 고향사회 지원은 제주도와 일본을 하나의 생활권과 관계망으로 연결하였다.[43] 따라서 재일제주인 연구는 제주인의 역사를 제주도라는 섬 안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제주를 떠난 사람도 제주와 관계를 지속했다면 오사카·도쿄 등 이주지 역시 제주사의 역사공간이 된다. 제주사는

38) 김동전, 「1845년 영국 사마랑호의 제주 탐사와 대응」, 『인문학연구』 41,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13~315쪽.

39) 김동전, 앞의 논문, 『인문학연구』 41, 328~341쪽.

40) 김동전, 「이어도와 이어도과학기지에 대한 역사학적 인식」, 『한국학연구』32, 인하대학교 한국학ㅇ녀구소, 2014, 539~542쪽.

41) 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의 논문을 참조 할 것. 강만생,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 3, 제주도연구회, 1986.

42) 김수희, 「독도어장과 제주해녀」, 『대구사학』 109, 대구사학회, 2012, 123~153쪽; 안미정, 「식민지시대 한·일해역의 자원과 해녀의 이동」,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481~517쪽; 안미정, 「문화의 세계화와 민족주의 담론:제주해녀(잠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117, 부산경남사학회, 2020, 167~200쪽.

43) 김동전,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변천, 그리고 미래」, 『제주역사문화』13·14, 제주도사연구회, 2005; 전은자, 「제주인의 일본도항 연구」, 『탐라문화』 3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고광명, 『재일 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이창익, 「재일한국인 개념의 일고찰: 渡日의 역사성과 호칭을 통해」, 『대구사학』 114, 대구사학회, 45~68쪽.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의 역사에서 이동하는 제주인의 역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주인의 표류연구와 마찬가지로 섬 밖에서 전개된 제주인의 경험도 중요한 제주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제주인이 바다 건너로 이동하던 시기, 섬은 제국의 군사공간으로 재편되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에는 비행장, 진지동굴, 해안특공기지, 군사도로와 각종 군사시설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었다.[44] 제주도 전체가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군사공간으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유적 연구는 군사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제주라는 공간이 제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 어떻게 재편되었으며 제주사람의 토지·노동·일상생활이 어떻게 동원되었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사마랑호의 측량에서 태평양전쟁기의 군사기지화까지는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다. 제주를 둘러싼 바다가 근대 제국주의의 공간질서 속으로 점차 편입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일제의 축산정책을 살피고, 제주도 한라산지의 초지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마을공동목장 운영조직체인 목장조합의 설립과정, 운영체계, 재정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45] 그리고, 근대 제주 불교계의 모습을 일제강점기 국권회복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항일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반면에 친일활동에 나선 제주불교협회와 제주불교연맹 활동 분석, 1940년대와 해방 이후 제주도 승려대회와 불교혁신운동을 통해 제주4·3사건에 적극 참여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46]

현대사에서 제주4·3 연구는 제주사 연구의 자료와 주체를 가장 크게 확장시킨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오랫동안 4·3은 공적인 역사서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증언 채록, 희생자 조사, 마을별 실태조사, 국내외 문서 발굴, 진상규명 과정이 축적되면서 국가의 공식문서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이 역사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47]

양정심은 1980년대 이전까지 제주 4·3항쟁은 사건, 반란, 폭동, 인민무장투쟁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으나, 민주화운동과 소장학자들의 연구성과에 힘입어 4·3은 '항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항쟁의 주체는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원했던 제주도민이라 하였다.[48]

박찬식은 『진상조사보고서』[49] 이후의 연구 지형을 정리하여, 3·1사건, 형무소 재소자, 북한의 4·3 인식으로 연구 폭을 넓혔고, 4·3을 세계냉전체제와 중앙권력에 맞선 주변부 제주의 시각에서 바라 보았다. 그는 향후 과제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4·3을 둘러싼 국제정세, 4·3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위상과 중앙당과의 연계, 무장대 지도부의 구성·노선, 대량 양민학살에 대한 마을별 사례 분석, 냉전시대 양민학살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 토벌대와 우익세력에 대한 연구, 4·3이 미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집단기억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제시하였다.[50]

허호준은 4·3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노사이드, 평화문제 등 이론적 쟁점을

44) 조성윤,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45) 강만익, 『일제시기 목장조합 연구』, 경인문화사, 2013.

46)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47) 양조훈, 『4·3 그 진실을 찾아서』, 선인, 2015. 그는 1988년 4·3취재반을 결성하여 『제주신문 』(1~57회), 이어 『제민일보』(456회, 1990. 6~1999. 8)에 연재하여 4·3 진상규명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48) 양정심, 「제주4·3항쟁에 대한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 제27호, 한국역사연구회, 1998;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13~24쪽.

49)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0)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492~495쪽. 박찬식은 1901년 제주민란에서 일제강점기 사회운동, 해방공간, 1947년 3·1사건과 4·3으로 이어지는 제주 근현대사의 장기적 흐름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51] 이러한 시각에서 제주4·3은 지역적 차원의 사건이었는가, 제주4·3의 진압 과정에서 왜 수많은 제주도민이 죽임을 당했는가, 제주4·3은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의 구현 무대였는가라는 물음에 그리스에서 발발한 내전을 끌어들여 해답을 시도하였다.[52] 나아가 제주의 민중 저항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폭력적 민중 저항은 왜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 발생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제주도민 학살과 관련해 미국의 개입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53] 또한, 4·3의 시작점인 1947년 3월 1일 관덕정 발포사건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로 끝난 시점까지, 4·3의 시대적 배경, 그 원인, 진행 과정을 세계사 안에서 냉전 체제의 산물로 바라보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었다.[54]

<표 1> 시기별(1954~2025) 4·3연구 동향 [55]

시기	성격 규정	주요 사건·성과	연구지형
연구이전 (1954~1987)	탄압과 금기	• 관변자료가 '폭동·반란' 담론을 독점함 • 4·19 직후 진상규명시도 • 현기영「순이삼촌」(1978) • 일본 도쿄위령제(1985)	• 국내 학술연구는 전무함 • 대항서사는 문학과 재일제주인사회에서 형성됨
1기 (1988~1997)	대항기억	• 40주년 첫공개 위령제 •『제주민중항쟁』(1988) 간행 • 제주신문·제민일보4·3취재반 456회 연재 • 제주4·3연구소설립(1989)『이제사말햄수다』,『제주신보』발굴.	• '폭동론'에서 '항쟁론'으로 전환 •학위논문 8편 중 6편이 진상 연구 • 관변측은 폭동론 유지
2기 (1998~2007)	진실추구	• 50주년『제주4·3연구』(학제간연구) • 잃어버린마을조사 •특별법제정(1999~2000) •『진상조사보고서』확정(2003) • 대통령공식사과(2003, 2006)	• 계엄령·군법회의 불법성, 미군정 책임 대두 • 학위논문 24편 중 13편이 진상연구
3기 (2008~2017)	재억압과 낙관적 투쟁	• 보수정부의 '4·3 흔들기'(교과서 수정요구) • 평화재단·평화기념관 개관(2008) • 유족회와 경우회 화해(2013) • 국가추념일지정(2014) • 수형인 재심 청구(2017)	• 진상연구에서 문학·기억·트라우마 연구 급증
4기 (2018~2025)	정의 실현과 기억의 세계화	• 70주년 대통령 참석(2018) • 특별법 전부개정(2021), 보상, 특별재심·직권재심 •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2024) •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25)	• 재심 기록·아카이브·세계문학으로 사료와 연구 영역 확장 • 정명(正名) 논쟁, 입법 쟁점

51) 허호준,「제주 4.3 연구의 새로운 모색 -연구현황과 과제탐색」,『평화연구』제22권 2호,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2012.

52) 허호준,『그리스와 제주, 비극의 역사와 그후:그리스 내전과 제주 4·3 그리고 미국』, 선인, 2014.

53) 허호준,『4·3, 미국에 묻다』, 선인, 2021.

54) 허호준,『4·3, 기나긴 침묵 밖으로:19470301~19540921』, 혜화, 2023,

55) 허호준,「제주4·3 연구 30년: 진실과 정의 추구를 위한 과정」,『제주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자료집, 제주학회, 2018, 112~122쪽. 4기 연구 동향은 필자가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최근 제주4·3 연구는 4·3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제주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고, 그 경험은 가족·마을·제주사회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았는가로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국가와 제도 중심의 역사에서 주민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의 전환이었다. 4·3 연구는 진실규명 연구에서 기억·트라우마·문학 연구로 중심이 이동하였고,[56] 대만·오키나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과거사와 평화·인권 문제로 지평을 넓혔다.[57]

그러나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활발하게 전개된 4·3 正名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4·3의 역사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제주 역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민중운동,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항쟁 혹은 통일운동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4·3정명의 쟁점은 현행 제주4·3특별법 제2조다. 특별법에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정의에서 '소요사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제주4·3사건'을 '제주4·3항쟁'으로 바꾸는 방안이 최근 입법 논의에서까지 제시되었다.[58] 성격 규정은 연구사의 기준축이라고 볼 때, 1948년 이후 군·경 등에서는 폭동·봉기·반란, 1988년 이후 진상규명운동에서는 항쟁·민중항쟁, 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사건(주민희생), 학살이나 국제법 연구에서는 학살·국가폭력·제노사이드, 최근 분단반대와 제주 공동체의 자치란 측면에서 통일운동·민중운동으로 규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이름 대신 국면별 규정을 결합하는 '항쟁과 학살'이라는 다층 명명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4·3 연구가 미해명 진상의 규명, 동아시아 냉전 폭력의 비교, 해외 사료의 국제 공동 발굴이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진행해 나가면서 세계사적 비교, 국제법적 해석, 사회적 함의 등 다양한 검토과정에서 정명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제주 역사연구의 궤적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관점은 '중앙에서 본 지방사'에서 '섬과 해역에서 본 역사'로 이동해 왔다. 1990년대까지의 연구가 제주사를 한국사의 지방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탐라를 해역의 결절점으로 재해석하며 동아시아사의 한 단위로 읽고 있다.

둘째, 사료 구조의 특수성이 연구 방법의 확대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탐라에 관한 초기 기록이 중국·일본 사료에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은 탐라사 연구가 국내 사료만으로 완결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 사료의 비교 검토와 고고학의 결합을 필수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해역 연결성은 시대마다 그 성격을 달리하였다. 탐라국 시대의 주체적 다방향 외교, 원 간섭기 제국 해상루트로의 편입, 조선시대 표류와 송환의 비공식 네트워크, 근대 출가해녀와 재일제주인의 노동 이동, 냉전기 동아시아 제주·대만·오키나와 지역의 공통 경험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결이다. 이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의 편중과 공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탐라국과 고려시대 연구의 상대적 부족과 통사적 탐라사의

56) 4·3문학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동윤,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대학교출판부, 2013.

57) 김민환,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경계 위의 과거청산:제주4·3사건과 대만2·28사건 비교사 연구를 위한 시론」

58)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4차 공동토론회(26. 10. 6. 국회 의원회관, 제주도·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 공동 개최)에서 특별법의 정의가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다. 이재승 교수는 '제주4·3사건'을 '제주4·3항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고, 유족회 측은 '소요사태' 표현을 삭제하고 2003년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법률의 정의 조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재, 4·3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질적연구의 부족, 국외 연구 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이다.

이 네 가지 과제는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연구성과의 축적이 곧바로 제주역사에 대한 새로운 전체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 분야가 세분되고 개별 연구가 심화될수록 각 연구성과를 어떤 관점에서 서로 연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오히려 중요해졌다.

III. 해역사적 전환의 이론과 사례

1. 브로델의 '지중해세계'와 해역사 연구의 확장

바다를 역사의 중심에 놓고 섬과 해역을 하나의 역사 단위로 읽으려는 시도에는 참조할 만한 선행 모델이 있다. 프랑스 아날학파, 그중에서도 페르낭 브로델의 지중해 연구이다.[59] 브로델은 바다 자체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웠고, 섬을 고립된 땅이 아니라 항로가 교차하는 결절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바다에서 탐라·제주를 읽으려는 작업은, 먼저 아날학파가 바다를 어떻게 역사의 공간으로 확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프랑스의 아날학파는 국가·정치·영웅 중심의 전통적 역사학에서 벗어나 민중의 일상, 집단 심성(Mentalities), 장기적 구조를 탐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와 종합사로서의 역사를 주도하였다. 아날학파의 바다 인식은 지리적 환경으로서의 바다, 역사서술 주체로서의 바다, 경제공간으로서의 바다, 심성·표상으로서의 바다, 연결망과 해역사로 확산되는 바다로 해양인식이 단계별로 변화하여 왔다.

브로델은 역사서술 주체로서 바다를 주목한 대표적인 아날학파이다. 그는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60]를 통해 해역을 더 이상 인간 활동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단위이자 서술의 주체로 인식하였다. 브로델의 해역전 전환은 서술의 주체가 국왕 펠리페 2세가 아니라 지중해라는 해역 그 자체였다는 데 있다.[61] 다시 말해 에스파냐,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은 서로 다른 정치체이자 상이한 종교 전통에 속하였으나, 동일한 기후와 바람의 조건 아래 공통의 작물 체계를 공유하고 동일한 해로를 통해 물자와 인간을 교환하였다. 브로델은 정치적·종교적 경계를 가로질러 이들을 하나의 역사적 단위로 묶는 매개가 바다였다고 보았다.

브로델은 역사적 시간을 세 층위로 구분하였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지리적 시간, 완만하게 변하는 사회·경제적 시간, 그리고 표면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사건의 시간이다. 그에게 바다는 가장 깊은 층위인 장기지속의

59) 현재열, 「브로델의 지중해와 '해역세계(Maritime World)'」, 『역사와 세계』 42, 효원사학회, 2012, 193~220쪽.

60) 이 책은 1~3부로 모두 4권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페르낭 브로델 저/주경철, 조준희 역,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1부 환경의 역할』, 까치, 2017; 페르낭 브로델 저/남종국, 윤은주 역,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2부(1) 집단적 운명과 전체적 움직임(상)』, 까치, 2017; 페르낭 브로델 저/남종국, 윤은주 역,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2부(2) 집단적 운명과 전체적 움직임 (하)』, 까치, 2017; 페르낭 브로델 저/임승휘, 박윤덕 공역, 『지중해 :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3부 사건, 정치, 인간』, 까치, 2019.

61) 브로델은 1947년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를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브로델은 아날학파 1세대인 뤼시앵 페브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페브르의 답장은 '펠리페 2세와 지중해' 대신에 '지중해와 펠리페 2세'는 어떠냐는 것이었다. 역사의 주인공이 펠리페 2세에서 지중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페르낭 브로델, 강주현 옮김·고원 해제, 『지중해의 기억』, 한길사, 511, 512쪽).

무대였고, 정치적 사건은 그 위에 이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았다.[62] 브로델이 그린 지중해는 하나의 균질한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작은 바다와 해안, 섬과 반도가 서로 이어진 바다들의 복합체였다. 지중해의 경계도 해안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교역로와 사람들의 이동이 미치는 곳까지, 곧 사하라 사막과 알프스 너머까지 확장된 지중해세계가 펼쳐졌다. 또한 그는 섬을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해로가 경유하는 중계지, 본토에서 소멸한 요소를 간직하는 보존소, 대륙 세력이 다투는 전략적 요충으로 파악하였다.[63]

브로델은 이 시각을 고대로까지 밀고 올라갔다. 1969년에 집필되어 사후인 1998년에 출간된『지중해의 기억』에서 그는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의 지중해를 서술하며, 다시 한번 지리와 지질을 갖춘 바다를 주인공으로 세웠다.[64] 지중해가 대륙에 둘러싸인 바다였기에 여러 문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동과 서는 교류하면서도 각자의 세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로델의 이론에는 한계도 있다. 환경과 구조의 강조는 인간의 행위성을 축소하였고, 장기지속의 구조와 단기적 사건의 상호작용은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의 지중해는 에스파냐와 오스만이라는 제국의 각축장이었으며, 섬 주민의 시선에서 재구성된 해역은 아니었다.

브로델의 지중해 이론은 탐라해를 바라보는 데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탐라를 둘러싼 바다를 탐라사의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섬을 해역의 결절점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라산을 이정표 삼아 오가던 항로와 그 위에 형성된 교류의 구조는, 국가사의 연대기로는 드러나지 않는 탐라의 장기지속을 보여준다. 또한『지중해의 기억』이 문헌 이전의 시간부터 바다의 역사를 서술했듯이, 탐라의 바다 역사 역시 고고학적 시간에서부터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연결망과 해역사로서의 해양인식은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를 구성하는 데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첫째, 해역은 국가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탐라해·탐라해역세계는 고대 국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탐라를 결절점으로 백제·신라·왜·중국 연안이 이어진 교류의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결성의 관점은 탐라를 거대한 국가들 사이의 주변이 아니라 관계망의 한 매듭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셋째, 국가사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탐라의 역사는 해역 전체의 사료를 교차해서 본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브로델에서 시작해 동아시아 해역사로 이어진 바다 인식의 흐름은 이렇게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를 다루기 위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2. 섬 중심 역사인식과 해역적 시각

본 절에서는 대만, 류큐,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도서의 섬 중심 역사서술을 비교하여, 제주중심적 역사인식을 해역적 관점으로 확장하려는 본고의 시도가 지니는 의미와 유의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 지역은 모두 대륙과 대국의 주변에 위치한 섬으로서 독자적 정치체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 국가에 편입된 뒤 섬을 단위로 한 역사서술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해 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키나와〔류큐〕와 대만은 표류와 냉전의 경험을 통해 광의의 탐라 해역세계와 실제로 연결된 지역이다. 하와이는 탐라·제주와의 직접적 교류는 약하지만,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도서 연구가 섬에서 바다를 보는 인식론을 가장 명시적으로 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해역 개념의 비교 사례로 선택하였다.

62) 민석홍,「하나의 새로운 역사: Annales 학파에 관하여」,『역사학보』79, 1978, 158~172쪽; 장세룡,「탈근대와 지방사 연구 :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대구사학』93, 2008.

63) 현재열, 앞의 논문,『역사와 세계』42, 효원사학회, 2012.

64) 페르낭 브로델, 강주헌 옮김,『지중해의 기억』(개정판), 한길사, 2012.

1)류큐:'아시아 속의 류큐'와 해역 교역사 서술

류큐는 15세기 전반 통일 왕국을 이룬 뒤 명의 책봉을 받으며 중국·일본·조선·동남아시아를 잇는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다. 1609년 사쓰마의 침공 이후 정치적으로는 중국,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속하는 이중적 지위에 놓였고, 1879년 류큐처분으로 일본의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근대 오키나와 역사 서술의 출발점은 오키나와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하 후유(伊波普猷)가 류큐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탐구한 데서 비롯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일본과 류큐가 같은 뿌리라는 일류동조론(日琉同祖論)을 전제로 하였다.[65] 섬의 고유성을 드러내려는 서술이 국가사에의 편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갖는다.

1990년대 이후 오키나와사 연구는 류큐를 해양 교역국가로 재조명하고, 조공 시스템과 아시아 해역 네트워크 속에서 오키나와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다카라 구라요시(高良倉吉)는 류큐사를 일본문화권에 속하고 일본어와 같은 계통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 섬에서 독자적 역사를 꾸려 온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중 가장 중대한 점으로, 고류큐 시대에 일본과 별개의 독자 국가 류큐왕국을 세운 것을 꼽았고, 아시아 해역 속의 독자 국가 류큐왕국을 축으로 하는 류큐사관의 주류를 형성하였다.[66] 구라요시는 일본과의 문화적 연속성 입장과 국가로서의 독자성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마시타 다케시(浜下武志)의 『오키나와 입문』은 류큐를 국민국가의 변경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해역을 잇는 결절점으로 보았다. 류큐를 둘러싼 동중국해, 남중국해, 황해, 동해를 연쇄된 해역으로 파악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조공시스템을 류큐에 적용하여, 조공은 의례적 위계이면서 동시에 무역, 정보, 사람의 네트워크였다. 류큐는 이를 활용해 중계무역을 했고, 중국과 일본(사쓰마)에 양속(両属)된 위치를 오히려 생존 공간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류큐 왕국의 외교문서집 『역대보안』은 명·청, 조선, 동남아 여러 나라와 주고받은 해역 차원의 사료로 공동의 사료 읽기를 제안하였다.[67]

2000년 이후 해역사로 더욱 확장하여 우에사토 다카시(上里隆史)의 『海の王国・琉球』는 육지나 섬에 묶인 시각이 아니라, 바다로 이어진 네트워크의 역사로 고류큐를 다시 해석하였다.[68] 즉, 류큐국을 해역아시아 속에서 교역으로 번영한 국가로 영토보다 교역망을 중심으로, 나아가 바다를 단위로 류큐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섬의 정체성을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서, 탐라해역세계 개념과 방향을 같이한다.

류큐해역과 탐라해역세계는 실제로도 중첩되어 있었다. 1477년 제주 표류민 김비의 일행의 진술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15세기 류큐 열도의 생활상을 전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었고,[69] 그 기억은 오늘날 제주와 요나구니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기록이 류큐사의 사료가 되는 이 구조는 섬의 역사가 해역세계의 상호 기록 속에서만 온전히 복원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학계의 해역아시아사 연구는 류큐의 해역사 관점 역사서술에 영향을 주었다. 아시아 바다는 해류와

65) 伊波普猷, 『古琉球』, 沖縄公論社, 1911.

66) 高良倉吉, 『琉球王國』, 岩波書店(岩波新書), 1993.

67) 浜下武志, 『沖縄入門: アジアをつなぐ海域構想』, ちくま新書249, 筑摩書房, 2000.

68) 上里隆史, 『海の王国・琉球:海域アジア大交易時代の実像』, ボーダーインク, 2018.

69) 『성종실록』, 성종 10년 6월 을미(10일). 감귤진상을 위해 출항했다가 유구국 요나구니에 표류했다 돌아온 제주사람 김비의(金非衣)·강무(姜茂)·이정(李正) 등 세 사람이 출항에서 귀환까지의 노정과 섬의 풍속을 홍문관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유구국 각 섬의 풍속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오키나와에서도 귀중한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계절풍을 특징으로 하며, 아시아의 모든 해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바다와 육지가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인도양부터 동아시아·동남아 다도해까지를 바다의 아시아(海のアジア) 시리즈로 총6권을 편찬한 것이다.[70]

1권『바다의 패러다임(海のパラダイム)』(2000)은 이론편으로 바다의 패러다임, 바다의 아시아사, 바다에서 생각하는 현대, 바다에 대한 감수성 4부로 구성하였다. 2권『몬순문화권(モンスーン文化圏)』(2000)은 인도양 계절풍이라는 자연의 리듬과 그것을 이용한 인간의 활동이 다우선과 정크선을 통해 사람, 물건, 정보를 잇는 평화롭고 다양한 인도양 해역세계를 만들었다는 관점이다.

3권『섬과 사람의 역동성(島とひとのダイナミズム)』(2001)은 산호초와 맹그로브가 둘러싼 동남아시아의 다도해를 그곳 사람들이 바다와 함께 살며 넓은 교류망을 만들어 온 과정,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 문제를 섬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4권『월러시아라는 세계(ウォーレシアという世界)』(2001)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인 술라웨시·말루쿠 해역 생물상의 경계 지대인 월러시아를 자연사, 생활, 향료 교역사로 다루었다.

5권『경계를 넘는 네트워크(越境するネットワーク)』(2001)는 동아시아 해역에서 사람과 물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역사, 문화, 사회, 경제의 측면에서 살폈다. 즉, 일본, 중국 대륙, 오키나와와 대만 같은 섬 지역의 공통성과 각자의 역사를 함께 보며 동중국해 주변의 역사 세계를 설명했다. 6권『아시아의 바다와 일본인(アジアの海と日本人)』(2001)은 일본과 아시아의 바다가 맺은 관계를 국가, 전쟁, 어업, 공해,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바다의 아시아 1~6권에서 다룬 바다 공간은 인도양에서 월러시아와 동남아 다도해를 거쳐 동아시아, 일본으로 이어진다. 역사학뿐 아니라 해양학, 생태학, 인류학, 고고학, 국제법, 역병 의학, 문학 등 학제적 연구 결과물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사·종합사를 지향하는 아날학파의 역사방법론과 맥을 같이 한다.

2)대만:'대만도사(臺灣島史)'론과 섬 주체의 역사방법론

대만은 오스트로네시아계 원주민의 섬에서 출발하여,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거점, 정성공(鄭成功) 세력, 청, 일본, 중화민국으로 통치 주체가 교체되어 온 섬이다. 오랫동안 대만사는 중국사의 일부로 서술되었으나, 1980년대 말 민주화와 함께 대만 자체를 역사의 단위로 삼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차오용허(曹永和)의 '대만도사(臺灣島史)' 관점이다. 이는 특정 민족이나 정권이 아니라 섬이라는 공간을 단위로 삼아, 원주민을 비롯한 각 시대 주민과 통치자, 섬을 오간 사람들의 활동을 모두

70) 1권 尾本惠市 [ほか] 編,『海のパラダイム』, 岩波書店, 2000, 11; 2권『モンスーン文化圏』(尾本惠市 [ほか] 編, 岩波書店 2000, 12); 3권『島とひとのダイナミズム』(尾本惠市 [ほか] 編, 岩波書店 2001, 1); 4권『ウォーレシアという世界』(尾本惠市 [ほか] 編, 岩波書店, 2001, 1); ; 5권『越境するネットワーク』(尾本惠市 [ほか] 編, 岩波書店, 2001, 4); 6권『アジアの海と日本人』(尾本惠市 [ほか] 編, 岩波書店, 2001, 5). 국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무라이 요시노리,『바다의 아시아1 바다의 패러다임』, 다리미디어, 2003;『바다의 아시아2 몬순 문화권』, 다리미디어, 2003; 무라이 요시노리,『바다의 아시아3 섬과 사람들의 활력』, 다리미디어, 2003; 무라이 요시노리,『바다의 아시아4 월리시아의 세계』, 다리미디어, 2005; 무라이 요시노리,『바다의 아시아4 월리시아의 세계』, 다리미디어, 2005; 무라이 요시노리,『바다의 아시아5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다리미디어, 2005; 무라이 요시노리,『바다의 아시아6 아시아의 바다와 일본인』, 다리미디어, 2005.

대만의 역사로 포괄하고, 대만을 해양 아시아의 교류망 속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이다.[71]

다시 말해, 대만도사는 대만을 주체로 대만이라는 섬을 기본 공간 단위로, 섬 위의 사람들을 연구 주체로 삼는 역사서술이다. 또 해양성을 매개로 한 대외관계와 세계적 조류·국제 정세 속 대만의 위치를 장기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화된 대만사 연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72] 대만도사관은 방법론을 가리킬 때는 '대만도사 개념', 역사 인식을 가리킬 때는 '대만도사관(臺灣島史觀)'으로 구분한다. 국가나 정권이 아니라 섬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

대만도사관의 핵심 관점은 4가지이다. 첫째는 민중을 주체로 서술하는 것이다. 기존 해석이 통치자 관점에 치우쳐 민중의 입장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앞세우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보았다.

둘째, 섬을 기본 공간 단위로 삼고 역사를 서술한다. 대만 섬을 기본 공간 단위로, 섬에 살았던 사람들을 연구 주체로 삼으면 고도로 정치화된 대만사 연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스페인, 정씨, 청, 일본, 국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섬'이라는 무대는 연속된다는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셋째, 대만의 해양성과 세계사적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대만이 지닌 해양성을 통해 외부 세계와 맺은 다양한 관계를 넓게 살피고, 시기마다 세계적 조류와 국제 정세 속에서 대만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가 오래 다룬 동아시아 해역사, 즉 '환중국해' 교류사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넷째, 다족군·장기지속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대만을 서로 다른 민족·언어·문화의 사람들이 활동한 하나의 역사 무대로 봤다. 고립된 섬에서 국제 무역기지로, 농업사회에서 산업 강국으로 변해 온 각 시기가 모두 대만을 이해하는 데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대만도사관은 프랑스 아날학파의 영향을 받아 역사·지리·사회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방법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만도사의 방법은 제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탐라인과 고려·조선의 관인, 몽골의 목호, 유배인, 표착민, 근현대의 이주민과 디아스포라를 모두 제주사의 주체로 포괄할 때, 제주중심적 역사인식은 고립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중심적 역사서술로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 제주 역사는 제주섬을 기본 공간 단위로 하고, 섬 위의 인간 집단을 주체로 삼아, 해양성을 매개로 한 해역 및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태평양 도서:'섬 중심 역사'에서 '섬들의 바다'로

하와이를 중심 사례로 삼되, 태평양 도서 역사 연구 전반의 논의를 함께 검토하였다. 하와이는 1778년 쿡 선장의 도착을 경계로 접촉 이전과 접촉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1000년경 폴리네시인이 하와이로 건너와 정착하였고, 1500년대부터 원시국가 형태로 성장하여 쿡이 도착했을 때 제도는 하와이섬, 마우이 일대, 오아후, 카우아이의 네 수장국 나뉘어 있었다. 그후 하와이는 19세기 초 통일 왕국을 이루었으나, 1893년 왕정이 전복되고 1898년 미국에 병합되었다. 20세기 전반에 군사기지화, 1959년에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1950년대 초까지 태평양 섬의 역사는 제국사의 시각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데이비드슨(James Wightman Davidson)은 서구와 태평양 섬의 상호작용을 그 섬들을 통치한 유럽의 시각이 아니라, 섬 자체의 관점에서

71) 曹永和, 〈臺灣史研究的另一個途徑——「臺灣島史」概念〉, 『臺灣史田野研究通訊』15, 대만중앙연구원, 1990, 7~9쪽.
72) 曹永和, 앞의 논문, 『臺灣史田野研究通訊』15, 1990.

인식하는 태평양사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73] 그는 연구의 초점을 제국 간 경쟁에서 섬 중심의 시각으로 옮겼고, 사건과 결과를 만들어 가는 데 태평양 섬사람들이 수행한 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인류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참여자로서의 역사라는 전통도 만들어 냈고, 태평양사를 독자적 학문 분야로 확립하여 원주민의 역사를 옹호하며 태평양 사회를 학문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았다.

1970년대 이후 하와이 원주민 학자들은 외부인의 기록과 영어 사료에 의존한 기존 서술을 비판하고, 하와이의 세계관과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시작하였다.[74] 특히 노에노에 실바(Noenoe K. Silva)는 하와이어 신문과 청원서를 분석하여 병합에 맞선 원주민의 조직적 저항을 복원하고, 영어 사료 중심의 서술이 그 저항을 역사에서 지워 왔음을 밝혔다.[75] 따라서 하와이 원주민 학자들은 쿡 선장과의 접촉 이후를 하와이 쇠퇴와 미국화가 아닌, 하와이 원주민 시각에서 토지 상실과 저항·주권 지속의 역사로 재해석 하였다. 어떤 언어와 어느 쪽의 기록으로 섬의 역사를 쓰는가라는 이 문제는, 탐라사의 핵심 기록이 중국·일본·한반도 국가의 관찬 사료에 남아 있는 제주사의 사료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 외부 사료를 섬의 관점에서 거꾸로 읽는 동시에, 구전·민속·지명·족보 등 섬 안의 기억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법론적 시사를 준다.

태평양 도서 연구가 해역사에 준 가장 중요한 기여는 에펠리 하우오파(Epeli Hau'ofa)의 '섬들의 바다(Sea of Islands)'론이다. 태평양 섬나라가 너무 작고, 가난하고, 고립되어 있어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MIRAB론)은 육지 면적만 세는 경제주의적·지리결정론적 관점이라고 비판하였다.[76] MIRAB사회의[77] 뿌리는 19세기 제국주의가 바다에 그은 경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우오파는 태평양 섬나라(Pacific Islands) 대신 오세아니아(Oceania)를 선호한다. 두 용어는 같은 지역을 가리키지만, 태평양 섬나라(Pacific Islands)는 바다 위에 흩어진 작은 땅을 세는 이름이고 오세아니아(Oceania)는 섬과 사람을 품은 바다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라 해석하였다. 오세아니아 사람들에 대한 그의 해석은 본래 바다를 집으로 삼아 교역·혼인·항해로 넓은 세계를 이루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주와 친족망을 통해 다시 세계를 확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태평양 섬나라'와 '오세아니아' 명칭 차이를 '먼 바다의 섬들'과 '섬들의 바다'라는 두 시각의 대립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태평양은 제국적 시각인 '먼 바다의 섬들'이 아니라 섬이 주체인 '섬들의 바다'로 보아야 하며, 섬의 역사는 일상적으로 바다를 건너 사는 보통 사람들의 층위에서 서술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후 이 이론은 태평양학, 해양 인문학, 탈식민 연구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섬의 사람들이 자신의 섬을 기점으로 바다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데이비드슨의 섬 중심 역사에서 실바는 원주민 역사서술로 섬사람 중심 역사를 실증한 사례이며, 하우오파로 이어지는 태평양 도서 연구는 섬 중심 역사에서 '섬들의 바다'로 인식을 확장하였다.

류큐·대만·태평양 도서지역의 해역적 시각을 통한 섬 정체성 연구가 탐라·제주사 연구에 주는

73) James Wightman Davidson, 「Problems of Pacific History」, 『Journal of Pacific History』 1, 1966.

74) Kame'eleihiwa, Lilikalā, 『Native Land and Foreign Desires: Pehea L E Pono Ai』, Honolulu: Bishop Museum Press, 1992; Trask, Haunani-Kay, 『From a Native Daughter: Colonialism and Sovereignty in Hawai』, Monroe, ME: Common Courage Press, 1993.

75) Noenoe K. Silva, Aloha Betrayed: Native Hawaiian Resistance to American Colonial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76) Vijay Naidu·Eric Waddell·Epeli Hau'ofa, 『A New Oceania: Rediscovering Our Sea of Islands』(Suva: USP, 1993).

77) 태평양 섬나라는 왜소국가여서 MIRAB 사회로 불렸다. 즉, 이주(Migration), 송금(Remittances), 원조(Aid), 관료제(Bureaucracy)에 영원히 기대야 하는 작은 국가라는 의미이다.

시사점은무엇일까. 류큐의 다카라 구라요시(高良倉吉) 등의 '아시아 속의 류큐'와 해역 교역 네트워크, 차오융허의 섬 주체 역사인 대만도사, 하우오파의 섬 주체와 연결인 '섬들의 바다(Our Sea of Islands)'에서 시사하는 바다 개념은 모두 통치자·식민자 중심 시각을 벗어나 바다를 연결로 인식하였다. 다만 차이는 대만도사가 대만이라는 하나의 섬을 기본 공간 단위로 삼았다면, 섬들의 바다는 바다 전체와 섬들을 잇는 관계망을 단위로 삼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주체로 바라본 것이다. 섬–해역–세계의 층위로 구분해 보면, 대만도사는 섬, 하우오파는 해역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우오파의 이론을 제주에 적용한다면 제주 역시 대륙에서 본 변방의 섬이 아니라 탐라해를 중심으로 여러 바다를 잇는 섬으로 다시 그려내야 한다. 탐라·제주섬이 동아시아 허브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 류큐, 대만을 연결하는 중심적 시각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 사례의 비교사적 검토 결과, 섬 중심의 역사서술은 어느 경우에도 국가사와의 긴장 속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일본·중국·제국과의 관계는 국가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이 국가를 포함한 여러 세력과 맺어 온 다층적 관계를 서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본고가 제주중심적 역사인식의 중심을 관계의 결절점으로 재정의한 것과 같은 방향이다.

그리고, 역사서술에 있어서 해역 관점은 섬의 정체성을 고립이 아니라, 바다를 통한 연결로 재정의하는 공통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류큐왕국이라는 국가를 축으로 하는 중계무역국가, 대만의 섬과 사람들을 단위로 한 해양 아시아, 태평양의 섬들의 바다론은 모두 섬을 바다를 통한 연결의 결절점으로 보았다. 이는 탐라해역세계 개념이 제주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주장이 아니라, 바다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교류와 연결이라는 섬의 역사서술 방법론과 많이 일치한다.

IV. 탐라사관과 탐라해역세계: 개념과 전체사의 구상

1. 탐라사관의 개념과 역사서술 방법론

지방사 연구에서 일방적인 중앙중심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사의 개념과 방법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사는 지방공동체의 전체사이다. 지방사를 올바로 복원하는 것은 곧 우리 역사를 올바로 복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사가 바로 설 때 우리 역사가 바로 서는 것이다. 지방사는 일반사의 일부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방사의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통해 일반사의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고, 반대로 일반사의 소양과 이해 속에서 지방사의 연구는 더욱 의미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제주 역사 연구 및 인식의 방법론으로 탐라사관·탐라해·탐라해역세계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전체사의 복원을 제안한다.

탐라사관은 하루아침에 고안된 개념이 아니다. 필자는 일찍이 제주 지방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면서, 제주역사를 '변방'과 '절해고도'로 규정해 온 시각이 서울, 곧 중앙의 입장에서 형성된 것이며 제주도민 스스로의 인식은 아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78]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말이 상징하듯, 중앙권력이 남긴 기록 속에서 제주는 언제나 관찰되고 통치되는 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가 제시한 것이 '

78) 김동전, 앞의 논문, 『한국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 편, 경인문화사, 2000; 김동전,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2003, 335쪽.

제주중심적 시각', 곧 제주라는 땅에 터를 잡고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삶을 영위해 나갈 제주인들의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79] 탐라사관은 이 제주중심적 시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탐라·제주 전체사와 해역 세계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탐라사관(耽羅史觀)은 '중앙에서 본 제주'를 '섬에서 본 탐라와 제주'로 전환하여 탐라 중심의 공동체·전체사·종합사 관점의 역사 인식방법이다. 기본 원칙은 섬이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사회를 즉, 탐라(본래의 국가사)·제주(지방화된 국가사)의 전시기를 포괄하는 용어로 '탐라'를 사용한 것이며, 탐라에 거주하는 일상 사람들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이는 고립된 변방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제주신화의 '우주중심적 세계관'에서 지니고 있던 자기중심적 세계인식을 역사학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탐라사관은 제주를 고립시키는 배타적 중심주의가 아니라, 탐라·제주인을 역사의 주체로 세우되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와의 연관 속에서 전체사로 역사를 복원하는 역사관이다. 기본 구조는 토태 층위(섬의 환경) 위에 주체 층위(탐라), 객관 층위(국가사), 교류 층위(동아시아사), 보편 층위(세계사)이 동심원처럼 넓어지는 형태이다.

①토대 층위(섬의 환경) : 섬의 환경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로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 태풍, 오름, 바다, 화산회토, 돌담, 곶자왈 등 자연·지리적 장기지속의 역사이다.

②주체 층위(탐라) : 탐라에 터를 잡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제주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한다. 제주인은 외부 세력에 저항하기도 하고, 수용·동화하기도 했지만 정체성과 독자성을 유지했다. 한국사에서 사소하거나 누락된 요소라도 제주인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면 적극 발굴해서 역사적 생명력을 부여해야 한다. 탐라문화는 외부 영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층문화가 외부문화와 접촉하며 서서히 독자적 문화로 변화·발전한 것이다.

③객관 층위(한국사) : 탐라(제주)는 한국의 한 부분이므로, 한국사의 발전 과정과 맞물릴 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로 국가사와 세계사의 관계처럼, 제주 역사도 한국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탐라중심 사관이 고립·과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검증 장치이기도 하다.

④교류 층위(동아시아사) : 탐라는 주변 지역과의 교류망 속에서 자주와 자립의 가치로 공존과 공영을 실천했고, 도전과 응전을 지속했다. 주요 대상은 중국과의 교류, 일본과의 교류, 몽골과의 교류, 왜구에 대한 대응 등 탐라문화를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비교·관계의 틀이다.

⑤보편성 층위(세계사, 보편사) : 제주의 역사적 사실들은 세계사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당·송과의 연결성, 고대 해상교역, 몽골제국 네트워크, 표류와 표착[하멜 등]의 역사 요소, 그리고 4·3은 냉전과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와 연결된다. 제주의 역사적 경험을 보편사 속에 위치시키는 틀이다.

탐라사관의 관점은 섬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아야 한다. 탐라국의 교류, 고려와 관계, 몽골의 탐라총관부, 조선의 제주편입 등 '탐라'라는 섬에 주목하여 해석해야 한다. 섬 자체가 초점이 되고, 역사적 사건들은 현지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관찬사서나 목민관·유배인 등이 남긴 기록도 중앙이나 바깥의 시각이 아닌 섬 중심에서 바깥을 보는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79) 김동전, 앞의 논문,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2003, 335쪽.

2. 탐라해·탐라해역세계의 개념과 범위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의 개념과 범위를 살피는 것은 제주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III장에서 브로델의 지중해세계론을 통해 해역사적 전환의 이론적 틀을 확인했고, 류큐·대만·태평양 도서의 섬 중심 역사인식과 해역적 시각을 살펴봤다.

이제 브로델의 해역중심 역사서술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수용했고, 제주교역로를 포함하고 있는 동아지중해론이 갖는 한계를 섬 '탐라'의 시각에서 먼저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탐라·제주의 전체사·종합사를 위한 역사방법론으로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브로델의 지중해를 인도양으로 옮겨 적용한 학자는 쵸두리(K. N. Chaudhuri)였다. 그는 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을 인도양 전체를 하나의 세계로 분석하여 '인도양 해역세계'를 설정했다.[80]

그는 홍해와 페르시아만에서 일본 너머의 바다까지 인도양 해역세계의 범위에 넣고 식생활, 의복, 건축, 생산양식까지 포괄하는 전체사를 시도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은 동남아를 인도나 이슬람에서 형성된 주변이 아니라, 바다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 즉, 남중국과 동남아를 묶은 '아시아의 지중해'로 이해했다. 특히, 신시아 초우는 바다 위에서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동남아는 국경 없는 지역으로 인식했다. 바다는 해민이 이동하고 생업을 꾸리는 공간이라는 아미노 요시히코의 '해민'론과 맞닿아 있다.[81] 동북아시아 연구자들은 중국과 한국, 일본, 오키나와, 대만을 연결하는 구도로 '동아지중해'라는 관점의 해역세계를 설정했다.

한국에서는 윤명철이 동아지중해론을 체계화하였다. 해역을 하나의 역사공간으로 삼고, 한반도를 중핵에 두는 구심적 구조를 설정했다. 그의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개념은 중국 대륙, 한반도, 일본 열도, 연해주 사이의 황해·남해·동해·동중국해를 하나로 묶고 있다. 곧, 브로델의 지중해론에 영향을 받고, 이 바다들이 서로 이어져 '지중해적' 성격을 지닌 해양공간으로 파악하였다. 한반도는 이 해역 안에서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잇는 위치에 있으며, 그래서 동아지중해의 중핵(core)이자 교통·교류의 허브로 한반도 중핵론을 내세웠다. 나아가 한국사를 반도·대륙 중심의 육지사관으로만 보지 말고, 바다와 육지가 결합된 해륙사관(海陸史觀)으로 보자는 주장을 하였다.[82] 이러한 연구는 국가와 육지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사의 공간인식을 해양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표류와 해양활동, 항로와 항구, 해양세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를 육지와 바다가 결합된 역사로 연구 지평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탐라를 중심에 두고 동아지중해론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먼저, 한반도·중국·일본이라는 세 정점으로 구성된 구도에서 탐라는 세 중심을 잇는 해로상의 경유지로만 위치할 가능성이 많으며, 독자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교역을 수행한 주체로서의 탐라는 소홀히 다루어져 부각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 즉, 탐라에 관한 고대 기록은 중국과 일본 측 사료에 더 풍부하게 남아 있음에도,

80) 쵸두리 저, 임민자 역, 『유럽 이전의 아시아:이슬람의 발흥기로부터 1750년까지 인도양의 경제와 문명』, 심산문화, 2011.

81) 아미노요시히코(網野善彦), 『日本中世の非農業民と天皇』(1984), 『「日本」とは何か』(2000); '해민'이란 용어를 쓴 송성대와는 구별된다. 송성대는 한반도와 멀리 떨어진 척박한 화산섬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며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추고 개체적 대동주의를 실천해 온 제주인들을 '해민'으로 정의했다(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개정증보판), 각, 2019).

82) 윤명철,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윤명철,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2012.

한국사의 틀에서 출발하는 해양사는 탐라를 먼저 한국사의 한 지방으로 범주화해 버릴 우려가 있다. 그 결과 독자적 정치체로서 탐라가 맺었던 국제관계는 지방 단위의 대외교류로 축소되기 쉽다.

다음으로 유럽의 지중해는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內海)인 반면, 동아시아 해역은 남쪽과 동쪽으로 태평양에 개방되어 있다. 특히 탐라의 해역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남방으로 열려 있다는 점이 본질적 특성인데, 동아지중해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섬의 시선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브로델의 지중해론과 동아지중해론은 모두 섬을 해역의 외부, 곧 대륙과 반도의 시선에서 관찰한다. 제주와 같은 섬의 주민이 자신의 섬을 기점으로 해역과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라는 물음은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지중해는 동아시아 해역이라는 거시적 무대를 설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탐라를 역사의 주체로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브로델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되 해역의 중심을 탐라로 이동시키고 섬에서 해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립하는 새로운 개념이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탐라를 동아시아 해역세계의 결절점으로 위치시키고, 탐라를 중앙의 변방이 아니라 고유한 사회와 심성을 가진 섬 공동체의 전체사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탐라를 중심에 넣고, 탐라해·탐라해역세계로 해역적 관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바다는 육지를 분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결한다. 해류와 계절풍, 항구와 섬, 항로와 선박을 통해 사람·물자·정보·신앙·기술이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이 장기간 반복되면 바다는 하나의 역사적 관계공간을 형성한다. 브로델이 바다로서의 '지중해'와 그 바다를 매개로 형성된 인간의 세계로서의 '지중해 세계'를 구분하였듯이, 이 글에서도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탐라해는 제주를 항해의 기준점으로 삼는 바다로서, 북으로 산동반도와 한반도 서남해, 서로 중국 강남의 영파 연안, 남으로 류큐, 동으로 규슈에 이르는 황해 남부와 동중국해 북부를 가리킨다. 이에 비해 탐라해역세계는 탐라해를 넘어 교섭과 교역, 이주를 통해 정기적인 왕래가 이루어진 해역과 그 연안 지역의 총체를 뜻한다. 전자가 제주를 중심으로 한 항해의 공간이라면, 후자는 그 항해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의 공간이다. 동아지중해의 하위 단위로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를 단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역사의 구체적인 자료와 역사적 경험과 연결하여 해역 그 자체를 지칭하는 탐라해와 그 해역을 매개로 연결된 인간과 사회의 관계망을 지칭하는 탐라해역세계로 구분하였다.

'탐라해'라는 명칭은 일찍이 전경수가 제안하였다. 일본 오도열도(五島列島) 우쿠지마(宇久島)의 정상에서 한라산이 보였다는 전설과 오도열도에 비료우도(美良島)에 전해지는 '고려도(高麗島)의 전설'을 토대로 일본 나가사키 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에 이르는 바다를 '탐라해(耽羅海)'라 명명하였다. 나아가 평성궁(平城宮) 터에서 출토된 745년 목간에 기재된 '탐라복(耽羅鰒)'에 주목하여, 탐라복이 건너간 해로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83]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탐라해는 일본 나가사키 해안에서 제주에 이르는 바다보다 더욱 확장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주인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생활 해역'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생활 해역, 탐라해, 탐라해역세계, 표류·전승권 해역 등 4층위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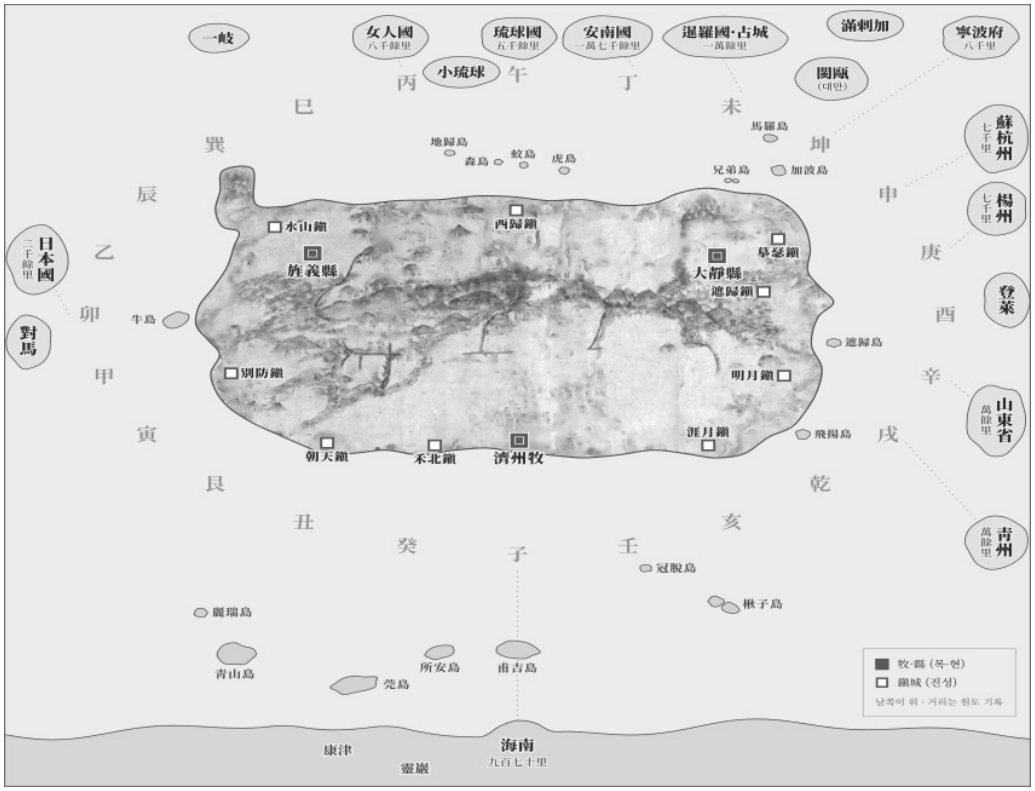
생활 해역은 탐라 주민이 어로와 채취, 잠녀(潛女)의 물질, 인근 도서 간 왕래를 일상적으로 영위하던 해역으로서, 제주 연안과 가파도·마라도·우도·추자도 등 부속 도서 해역을 포함한다.

83) 전경수, 앞의 논문, 『濟州島硏究』 제50집, 제주학회, 2018; 전경수, 「지역연구로서 제주학의 방법과 전망」, 『제주도연구』 제15집, 제주학회, 1998; 전경수, 「韓·耽別祖論과 耽羅의 文化主權」, 『탐라사의 재해석』(제주발전연구원, 각, 2013).

탐라해는 시인거리[84]는 물론 교류의 해역으로 환황해연근해항로, 동중국사단항로, 제주도~오키나와항로, 제주도~일본열도항로 등을 포함한다.[85] 이는 탐라와 외부 세계를 직접 연결한 해로가 통과하는 해역으로서, 한반도 서남해안과 남해안, 규슈 서북부와 고토열도, 중국 강남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북부를 포함하게 된다.

탐라해역세계는 '통시적 연결의 세계'이다. 이는 탐라·제주의 인간물자문화가 해역을 통해 도달하였거나 해역을 통해 제주에 도달한 모든 세계를 포한다. 원 간섭기의 몽골, 조선시대 표류·표도와 관련된 베트남·필리핀, 하멜(Hendrick Hamel)을 매개로 연결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세계, 근대 출가해녀가 진출한 러시아 연해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탐라해역세계의 범위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탐라순력도』의 첫 장면인 「한라장촉(漢拏壯矚)」을 토대로 재구성도를 그린 것이 <그림 1> 탐라순력도 '한라장촉' 재구성도이다.



<그림 1> 탐라순력도 '한라장촉' 재구성도

84) 전근대 항해는 산을 표지로 삼는 지문항법에 의존했고, 한라산은 동중국해 북부에서 가장 높은 표지였다. 1950m의 한라산 정상부는 해수면에서도 이론상 약 170km까지 수평선 위로 보이며, 관측자가 높을수록 그 거리는 늘어난다. 해상 시인거리는 지구 곡률과 표준 대기굴절을 반영한 항해용 근사식으로 구한다(높이 단위 m). 오도열도를 예로 계산해 보면, 최대 시인거리는 250km으로 산출된다.

관측 위치	관측 높이(m)	최대 시인거리(km)
배위·해안	2	약175
언덕	100	약210
언덕	200	약225
오도열도 최고봉	450 안팎	약250

85) 윤명철, 「제주도의 해양교류와 대외항로(고대 동아지중해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459~491쪽.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 일원을 순력하며 거행한 각종 행사와 제주의 풍광을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게 한 화첩이다. 그 첫머리에 놓인 「한라장촉」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전도를 그리고, 섬의 둘레에 24방위를 표기한 뒤, 각 방위에 해당하는 주변 지역과 그 거리를 기록하였다.

이 그림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지도의 방향이다. 「한라장촉」은 남쪽을 위로 하여 그려졌다. 그 결과 제주읍성은 화면 아래쪽에, 한반도의 해남은 화면 맨 아래에 자리하고, 화면 위쪽으로는 류큐와 안남, 섬라 등 남방의 바다가 펼쳐진다. 이는 한양에서 제주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제주에서 한라산 너머 남쪽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제주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제주가 한국에서 해양문화를 받아들이는 선봉에 위치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라장촉」은 이미 18세기 초에 바로 그러한 시선으로 제주와 그 바깥 세계를 그려 냈던 것이다. 한반도는 이 그림에서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섬의 북쪽 바다 건너편에 놓인 여러 연안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다. 「한라장촉」 하단에 기록된 방위와 거리를 제주도의 사면(四面)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라장촉」에 기록된 제주 4면의 해역세계

방면	방위	지역	거리
북면	子	해남(海南)	970리
동면	卯	일본국(日本國)	2천여 리
남면	丙	여인국(女人國)	8천여 리
남면	午	유구국(琉球國)	5천여 리
남면	丁	안남국(安南國)	1만7천여 리
남면	未	섬라국(暹羅國)·점성(占城)	1만여 리
서면	坤	영파부(寧波府)	8천 리
서면	申	소항주(蘇杭州)	7천 리
서면	庚	양주(揚州)	7천 리
서면	辛	산동성(山東省)	만여 리
서면	戌	청주(靑州)	만여 리

북면은 자(子) 방위의 해남 한 곳만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림에는 청산도·소안도·보길도 등 한반도 서남해의 도서들이 함께 그려져있어, 북면이 제주와 한반도를 잇는 가장 가깝고 일상적인 바다였음을 보여준다. 이 바다는 조선의 관리와 유배인, 공물과 진상품이 오간 통로로서, 제주를 국가체제에 결속시키는 해역이었다.

동면은 묘(卯) 방위의 일본국이 기록되었다. 일본은 2천여 리로, 해남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외국으로 인식되었다. 이 바다는 교류의 통로인 동시에 고려말이래 왜구가 제주를 거점으로 삼고자 끊임없이 침입해 온 바다이기도 하였다.

남면은 병(丙)·오(午)·정(丁)·미(未)의 네 방위에 걸쳐 유구국, 안남국, 섬라국·점성, 민구(閩甌), 만랄가(滿剌加), 그리고 여인국이 기록되었다.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남방해역이 하나의 방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유구국과의 관계는 성종대 제주출신 김비의(金非衣) 일행이 요나구니(與那國島)에 표착한 뒤 류큐를 거쳐 송환된 사례에서 보듯, 표류와 송환을 통해 실제로 경험된 것이었다. 민구(閩甌)는 대만이며, 만랄가(滿剌加)는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17세기 동인도회사의 교역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丙) 방위의 여인국은 실재하는 나라라기 보다 전승속의 공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재와 함께 같은 방위체계안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탐라해역세계의 남쪽 끝이 경험된 세계에서 상상된 세계로 이어지는 열린 경계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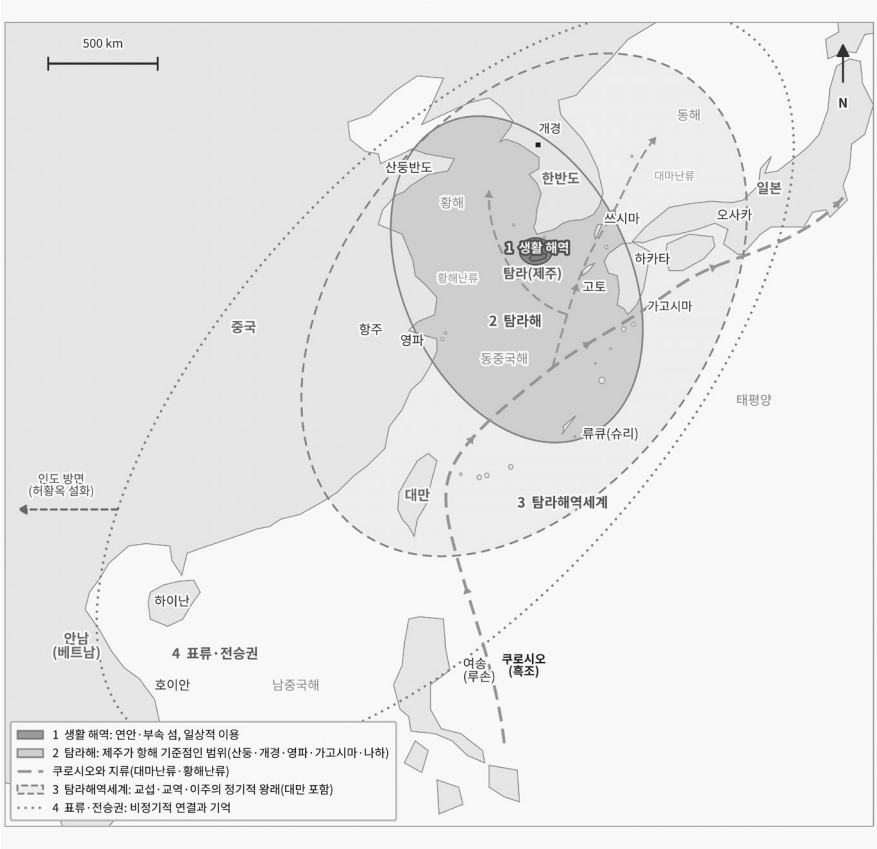
서면은 곤(坤)·신(申)·경(庚)·신(辛)·술(戌)의 다섯 방위에 걸쳐 영파부, 소항주, 양주, 산동성, 청주 등 중국연안의 주요지역이 남에서 북으로 차례로 기록되었다. 4면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이 기록된 방면이다. 이는 중국 강남에서 산동에 이르는 연안이 제주인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바깥 세계였음을 의미한다. 1488년(성종 19) 부친상으로 제주에서 출항하였다가 표류한 최부(崔溥)가 절강연안에 표착하여 영파를 거쳐 북경으로 향한 행로는 이 서면 해역이 기록상의 거리를 넘어 실제로 경험된 공간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필자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반도와의 관련성 못지않게 중국 강남지역과 일본 큐슈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라장촉」의 기록에서 탐라해역세계의 범위와 관련하여 몇가지 층위와 특징을 읽어낼 수 있다. 첫째, 4면의 비대칭성이다. 북면과 동면에는 각각 한 지역만이 기록된 반면, 남면과 서면에는 각각 네 곳과 다섯 곳이 기록되었다. 18세기 초 제주의 지방관이 인식한 바깥 세계는 한반도나 일본보다 중국 연안과 남방 해역 쪽으로 훨씬 넓고 촘촘하게 열려 있었다. 이는 제주를 한반도의 남쪽 끝에 매달린 변방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공간인식이다.

둘째, 거리 인식의 성격이다. 「한라장촉」에 기록된 거리는 정확한 지리정보라기보다, 항로와 표류의 경험, 그리고 전해들은 지식이 축적된 인식의 거리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 기록은 탐라해역세계가 객관적 지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료가 된다.

셋째, 해역 세계의 층위이다. 「한라장촉」의 기록을 거리와 관계의 성격과 빈도에 따라 재구성하면, 탐라해역세계는 <그림2>와 같이 네 개의 동심원적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층위는 제주에서 멀어질수록 관계가 일상적인 것에서 정기적인 것으로, 다시 비정기적인 것과 기억 속의 것으로 옮겨 가는 구조를 이룬다. 「한라장촉」 하단부에 거리 표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도에는 마라도 뒤쪽 섬에 민구(閩甌), 그 뒤로 만랄가(滿剌加)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그림 2>는 탐라해·탐라해역세계 범위 기본구상을 제1층위 생활해역, 제2층위 탐라해, 제3층위 탐라해역세계, 제4층위 표류·전승권 해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라장촉」과 비교하여 작성한 것이 〈표 3〉 탐라해역세계의 층위와 「한라장촉」의 지명을 대비해서 작성한 것이다.



<그림 2>탐라해·탐라해역세계 범위 기본구상

〈표 3〉 탐라해역세계의 층위와 「한라장촉」의 지명

층위	관계의 성격	범위	한라장촉의 지명
제1층위: 생활해역	일상적 이용	제주 연안과 부속섬	우도·비양도·차귀도, 마라도 등
제2층위: 탐라해	제주 기준점 항해	산동·개경·영파· 가고시마·나하	해남, 유구국, 영파부, 소항주, 양주, 산동성, 청주
제3층위: 탐라해역세계	교섭·교역·이주의 정기적 왕래	일본 본토와 대만	일본국, 민구(閩甌)
제4층위: 표류· 전승권	비정기적 연결과 기억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말래이시아	안남국, 섬라국·점성, 여인국, 만랄가(滿剌加)

제1층위인 생활 해역은 제주 연안과 부속 섬으로 이루어진 바다이다. 「한라장촉」에 그려진 우도·비양도·차귀도·마라도 등의 섬들이 여기에 속한다. 해녀의 물질과 포구의 고기잡이, 섬과 섬 사이의 왕래가 이루어진 일상의 바다로서, 탐라해역세계의 가장 안쪽에 놓인다.

제2층위인 탐라해는 제주를 항해의 기준점으로 삼는 바다이다. 「한라장촉」의 북면과 서면, 그리고 남면의 유구국이 대체로 이 범위의 안쪽이나 경계에 놓인다. 북면의 해남은 탐라해를 한반도와 잇는 관문이고, 서면의 영파·소항주·양주·산동·청주는 탐라해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중국 연안이며, 유구국은 그 남쪽 경계에 해당한다. 서면에 가장 많은 지명이 기록된 것은 이 연안이 탐라해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험된 바깥이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범위는 쿠로시오에서 갈라진 대마난류와 황해난류의 흐름과도 대체로 겹친다. 제주가 해류의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자연 조건이 탐라해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제3층위인 탐라해역세계는 탐라해를 넘어 교섭과 교역이 고려말 해금정책 이전에는 빈번한 왕래가 이루어진 범위이다. 「한라장촉」 동면의 일본국이 여기에 해당하며, 하카타와 고토 열도를 거쳐 일본 본토로 이어지는 바다와 남쪽의 민구(閩甌)로 표시된 대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탐라국 시기의 대외 교섭에서 근현대 제주인의 일본 이주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역사는 이 층위에서 가장 넓게 외부와 연결되었다.

제4층위인 표류·전승권은 표류와 전승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연결되고 기억된 세계이다. 「한라장촉」 남면의 안남국과 섬라국·점성, 만랄가(滿剌加), 그리고 여인국이 여기에 속한다. 만랄가는 말레이시아 지역이며, 이들 지역은 1만 리를 넘는 먼 거리로 기록되었고, 여인국은 실재하는 나라라기보다 전승 속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처럼 경험된 세계와 상상된 세계가 같은 방위 체계 안에 함께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탐라해역세계의 바깥 경계가 닫힌 선이 아니라 표류와 전승을 통해 계속 열려 있던 경계였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탐라해역세계는 제주를 중심으로 생활 해역, 탐라해, 탐라해역세계, 표류·전승권 해역으로 퍼져 나가는 네 겹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중앙에서 그은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탐라·제주인이 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경험하고 인식한 세계의 범위이다. 「한라장촉」이 남쪽을 위로 하여 24방위의 바다를 그려 넣은 것은 바로 이 세계를 섬의 시선으로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고는 해방 이후 제주역사 연구의 궤적을 되짚고, 섬과 해역의 시선에서 제주역사를 다시 읽기 위한 역사방법론으로 탐라사관과 탐라해·탐라해역세계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제주역사 연구는 향토사가의 자료 발굴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 전문 역사학·고고학의 연구영역으로 제도화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시간·공간·역사주체·역사자료·연구인력의 다섯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고고학은 문헌 이전의 제주를 역사 속으로 끌어들였고, 탐라국 연구는 제주를 스스로 정치질서를 형성한 역사적 주체로 보게 하였으며, 표류·표도와 재일제주인 연구는 제주사의 공간을 섬 바깥으로 넓혔다. 제주4·3 연구는 주민의 경험과 기억,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역사연구의 중심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탐라국·고려시대 연구의 상대적 부족과 통사적 탐라사의 부재, 4·3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질적 연구의 부족, 국외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축적된 성과를 하나의 제주역사로 엮어 낼 분석의 틀이 요청된다.

둘째, 브로델의 지중해론은 바다를 역사의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세우고, 섬을 해역의 결절점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열었다. 이후 해역사 연구는 연결성 개념과 해역아시아사로 확장되었다. 류큐·대만·태평양 도서의 섬 중심 역사서술은 어느 경우에도 국가사와의 긴장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해역의 관점은 섬의 정체성을 고립이 아니라 연결로 재정의하는 공통의 전략이었다. 반면 동아지중해론은 동아시아 해역을 하나의 역사공간으로 설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중핵의 구도 속에서 탐라를 해로상의 경유지로 위치시키고, 남방으로 열린 탐라 바다의 성격과 섬의 시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이러한 검토 위에서 본고는 탐라사관을 제안하였다. 탐라사관은 '중앙에서 본 제주'를 '섬에서 본 탐라–제주'로 전환하여, 섬이 형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는 탐라·제주의 전 시기를 하나의 역사로 보고 그곳에

살았던 일상의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우는 역사인식의 방법이다. 섬의 환경을 토대로 탐라(주체)·국가사(객관)·동아시아(교류)·세계사(보편)의 층위로 시야를 넓혀 해석하되, 시선의 출발점은 언제나 탐라에 둔다. 바깥 층위는 탐라를 설명하는 맥락이지 탐라를 대신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국가사의 층위는 탐라 중심의 서술이 고립과 과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검증 장치이기도 하다. 탐라사관은 제주를 고립시키는 배타적 중심주의가 아니라, 섬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는 열린 주체의 역사관이다.

넷째, 탐라사관의 시선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탐라해와 탐라해역세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브로델이 바다로서의 '지중해'와 그 바다를 매개로 형성된 인간의 세계인 '지중해 세계'를 구분하였듯이, 탐라해는 제주를 항해의 기준점으로 삼는 바다이고, 탐라해역세계는 그 바다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계의 공간이다. 『탐라순력도』「한라장촉」에 기록된 4면의 지명과 거리를 단서로 이를 생활해역-탐라해-탐라해역세계-표류·전승권의 네 층위로 구상하였다. 남쪽을 위로 둔 「한라장촉」은 18세기 초 제주인이 섬에 서서 바라본 바깥 세계가 한반도나 일본보다 중국 연안과 남방 해역 쪽으로 훨씬 넓고 촘촘하게 열려 있었음을 보여 준다. 탐라해역세계는 고정된 영역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지며, 연결의 유무뿐 아니라 연결의 성격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가변적 관계의 공간이다.

다섯째, 탐라해역세계를 공유하는 지역들이 탐라해역세계의 사료를 함께 읽어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탐라에 관한 초기 기록이 중국·일본 사료에 먼저 등장하고, 제주 표류민의 진술이 류큐사의 사료가 되었듯이, 섬의 역사는 해역세계의 상호 기록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복원될 수 있다. 국내외 제주 관계 사료와 국외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국·일본·류큐·대만 등 해역을 공유하는 지역의 연구자들과 함께 사료를 발굴하고 읽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키나와현의 1989년부터 류큐왕국의 외교문서집인 『역대보안(歷代寶案)』의 복원·편찬 사업과 중국·대만·일본 국내에서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국제적인 연구교류를 병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제주 전체사는 선사에서 현대까지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통사의 확대판이 아니다. 섬의 생태환경과 생산·생활의 구조, 공동체와 권력의 변동, 신앙과 문화의 지속과 변화, 해상 교류와 이동, 폭력과 기억의 역사를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역사서술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제주 내부의 미시사 연구와 동아시아 해역의 비교연구, 고고학·문헌사·자연과학·구술사 자료의 교차 검증, 그리고 국내외 연구자 사이의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제는 개별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정부는 사료의 수집·정리·공개와 장기 연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는 탐라사관과 탐라해역세계의 개념을 실증 연구로 검증하고 보완하며, 제주역사정립위원회는 그 사이에서 연구의 방향을 조율하고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는 구심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제주역사를 섬에서 다시 쓰는 일은 제주를 세계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섬의 자리에서 세계를 새롭게 연결하는 일이다. 탐라사관과 탐라해역세계의 구상은 완결된 결론이라기보다 그러한 제주 전체사를 향해 열어 두어야 할 연구의 출발점이다.

탐라의 바다는 경계가 아니라 길이었고, 섬은 변방이 아니라 해역의 결절점이었다. 제주의 정체성은 고립 속에서 보존된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한 연결 속에서 선택되고 재구성되어 왔다. 섬에서 해역으로, 해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탐라사관의 역사인식이 제주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나아가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그리고 섬의 세계사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끝)

Beyond "Pacific Worlds":

Trans-Indigenous Histories as Relational Methodology

Monica C. LaBriola

Beyond "Pacific Worlds": Trans-Indigenous Histories as Relational Methodology

Prepared for the Jeju International History Forum

Monica C. LaBriola

First, I would like to thank the Jeju Studies Research Center and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 participate in this discussion. It is an honor to be here an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think through the questions I was asked to consider as I prepared this presentation: "How Pacific history has challenged nation-centered historical frameworks"; "How oral traditions, vernacular languages, Indigenous knowledge, and cross-island relations reshape historical research and narration"; "The role of the Pacific History Association and other scholarly networks in sustaining regional research and exchange"; "The practical and intellectual limits of writing connected island histories across unequal colon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and, I presume, "The implications or possibilities for Jeju studies and regional engagement."

As I began to think about these questions, I could not help but return to a 2017 article by historian David Hanlon entitled, "Losing Oceania to the Pacific and the World." Hanlon critiqued what he saw as a growing trend in Pacific historical scholarship to approach Pacific Islands history through transnational or global frameworks that reflect Atlantic Worlds and World History approaches to the past. These approaches emphasize regional or "global historical patterns and perspectives"—namely, imperial expansion, cross-cultural encounter and exchange, ideological and technological diffusion, migration, the spread of culture and religion, and other global processes.[1] Scholars espousing the emerging "Pacific Worlds" approach to Pacific Islands history promoted it as a "methodology that searches for the vital interplay between global, oceanic, and local scales of history."[2] While the Pacific Worlds approach may be useful in highlighting regional connections, Hanlon strongly cautioned that regional and "transnational histories allow for little to no consideration of the details and particulars that are so crucial to Island histories and Island history making."[3] Indeed, by focusing on large-scale processes, such approaches leave little room for the rediscovery and recentering of Indigenous

1) Hanlon, "Losing Oceania," 287.

2) David Igler, quoted in Hanlon, "Losing Oceania," 287.

3) Hanlon, "Losing Oceania," 302.

histories and Indigenous ways of knowing and approaches to the past—which have been among the core tenets of the discipline of Pacific history since the mid-twentieth century. Pacific Worlds, Hanlon warned, resembles colonial history by a different name.[4]

Revisiting Hanlon's critique inspired me to return to the work of Ha'åni Lucia Falo San Nicolas, whose article "From a Pacific Daughter: Haunani-Kay Trask's Legacy for Indigenous Pacific Feminisms" offers an Indigenous Pacific feminist intervention and corrective to the Pacific Worlds approach and its shortcomings. Drawing on the wave-making scholarship of the late Native Hawaiian scholar-poet-activist Haunani-Kay Trask, San Nicolas proposes a methodology she terms "baskets of resilience … as a way to think about trans-Indigenous Pacific connection and coalition."[5] Although she is not a historian and does not specifically propose "baskets of resilience" as a counter to the Pacific Worlds approach, I cannot help but notice that it directly addresses the core dilemma Hanlon identified. Where Pacific Worlds frameworks risk flattening diverse Indigenous communities into abstract nodes along colonial routes of encounter and exchange, San Nicolas's metaphor of weaving offers a way to write relational histories without sacrificing Indigenous specificity and diversity. Like individual strands in a woven basket, each community's distinct historical experiences and historicities retain distinctiveness as they come together to form a trans-Oceanic body of historical knowledge.[6] To begin weaving these strands together, I turn first to Jeju.

Although the location of this conference and area studies focus on Jeju, situated politically in the modern-day Republic of Korea, have taken me out of my academic and area studies comfort zones in Pacific Islands history and Pacific studies, I have found that Jeju and its history feel startlingly familiar in a number of ways. Perhaps most noticeably, Jeju is a volcanic island located in the far-western Pacific Ocean; volcanology and plate tectonics explain that it was forged several hundred thousand years ago by a now-dormant volcano system.[7] The island of Oʻahu, where I currently reside, is a volcanic island situated in the north-central Pacific Ocean that the geological sciences also tell us was shaped long ago by volcanic activity—as were the vast majority of the islands that make up the region known today as Oceania. Some of those islands, including Hawaiʻi Island, sometimes called Hawaiʻi's "Big Island," and its emergent undersea neighbor, Kamaʻehuakanaloa (previously Lōʻihi)[8]—along with Tanna and Ambrym islands in Vanuatu, among others—remain active volcanoes where periodic eruptions and lava flows continue to generate new land.

Thousands of other islands, today coral atolls, were shaped by ancient volcanoes that have since subsided far below the surface of the ocean and are at present capped by crowns of tiny islands that sit atop vast underwater reef structures and encircle large lagoons where the volcanoes once

4) Hanlon, "Losing Oceania," 286, 290.

5) San Nicolas, "From a Pacific Daughter," 50–51.

6) San Nicolas, "From a Pacific Daughter," 40, 50–51.

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56.

8) Camara, "A Change of Name."

stood. The Marshall Islands, where I have done most of my work to this point, is made up of twenty-nine such atolls and five stand-alone islands. Tuvalu, Kiribati, and Tokelau, along with the Tuamotu islands in Mā'ohi Nui or French Polynesia, are also primarily coral atolls, as is Papahānaumokuākea, also known as the Northwestern Hawaiian Islands. A number of others, including Niue and Naoero (formerly Nauru), and Makatea in Mā'ohi Nui, are ancient coral atolls that were pushed up out of the ocean by undersea tectonic movements.[9)]

And yet, Jeju's landscape and geologic past are not the only elements of the island's deep history and vibrant culture that feel familiar to this historian of Oceania. In learning about Jeju's oral traditions, for instance, I was struck by stories of the creator-goddess Seolmundae Halmang, a grandmother figure who, according to at least one version of the narrative, created the island (or parts of it) by piling up mounds of mud and seawater in an effort to extinguish a series of fires she had started with her own flatulence. She carried the mud and water in her skirt, depositing it one skirtful at a time to form Mount Halla and numerous other small mountain peaks. When she had finished, Seolmundae's body became Jeju's fertile soil, grass, and trees, and her urine nourished an abundance of nearshore marine life including abalone, conch, sea urchins, octopus, and seaweed—which Haenyeo (Jeju women divers) would later dive for and gather to sustai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10)] The story of Seolmundae, I have learned, not only tells of Jeju's origins, but also offers a cosmological foundation for Jeju's semi-matriarchal culture and, perhaps, for the Haenyeo, who carry forth Seolmundae's generative and nourishing powers.[11)]

Echoing Jeju's Seolmundae Halmang narrative, origin stories and oral traditions centering women's generative power and agency resonate across Oceania. In Hawaiian cosmology, for example, the goddess Papahānaumoku (Papa), partner of Wākea, gave birth to the Hawaiian islands. Another goddess, Pele, went on to shape the islands with her volcanic fire before taking up residence in the Halema'uma'u crater inside Kīlauea volcano on Hawai'i Island, where she continues to generate land today.[12)] To the south in Aotearoa New Zealand, Māori narrative recounts the land being forged by Papatūānuku, whose red clay soil would be shaped into Hine-ahu-one, the first woman and female ancestor of the Māori people.[13)] Creator-goddesses are also prevalent in the subregion called Micronesia. On Guåhan (Guam), the goddess Fu'una used the body of her brother, Puntan, to create the sun, moon, rainbows, and earth before transforming herself into Fouha Rock, which birthed the first human beings.[14)] Palauan oral traditions recall the female demigod Chuab sacrificing her body,

9) Kirch, On the Road of the Winds, 38–43.

10) "Grandmother Seolmundae."

11) Oh, "Matricide, Myth, and the Great Mother," 129–31.

12) Kamakau, Tales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Old, 125–26; ho'omanawanui, Voices of Fire, 26.

13) Walker, Ka Whawhai Tonu Matou, 11–15.

14) Hattori, "Puntan and Fu'una."

which became the land that would sustain her people.[15] In Chuukese narrative, ancestor-goddess Nikoupwupw Fénú is the "creator, bearer and mother" of the universe, who brought forth Chuuk's islands, people, and clans.[16]

Female spirits and deities are also prevalent in the diverse cosmologies of southwestern Oceania—commonly called Melanesia. Oral traditions from Makira island, Solomon Islands, tell of Kahausibware, a female spirit who lived on a mountain at Bauro near the center of the island, creating human beings, fruit trees, yams, and various animals.[17] On the Gazelle Peninsula of East New Britain, Papua New Guinea, narratives of the Baining people recall an old woman—the guardian of the salt water—using twigs to establish a coastline to protect the land and her community from flooding.[18] These and countless intellectual traditions from across the region reveal a pattern of diverse yet historically connected cosmologies that uphold women's divine power as a foundation or wellspring of land, sustenance, abundance, local genealogies, and key aspects of cosmology and culture. In many cases, these divine ancestral women affirm and uphold matrilineal social systems or matrifocal values. They have also come to serve as important sources of contemporary women's empowerment in the face of centuries of displacement resulting, in large part, from intrusions of patricolonial institutions that have long privileged men and male authority in the domestic, religious, political, legal, and ideological realms.[19]

In the short time since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Jeju International History Forum, I have also learned about Jeju's history of rule by outside forces, beginning with the island's loss of sovereignty under the Goryeo Dynasty, the Mongol invasion and rule by the Yuan Dynasty, subjugation under the Joseon Dynasty, the Japanese imperial period, U.S. military occupation, and incorporation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out that long period, the people of Jeju experienced varying degrees of military violence, economic exploitation, forced labor, land seizures, disease epidemics, religious suppression, travel prohibitions, language and cultural loss, gender-based violenc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20] Although the specific contours of that history are of course unique to the island, there are elements that again strike me as familiar.

Two centuries after the start of Jeju's Joseon period, Oceania's history of foreign invasion and occupation began in 1521 with the arrival of Ferdinand Magellan, a Portuguese explorer sailing on behalf of Spain with the goal of achieving global circumnavigation and opening western trade routes to Southeast Asia. The expedition ushered in a period in Oceania's history that has now spanned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Magellan was soon followed into the region by waves of foreign

15) Kim, "Nesor Annim, Niteikapar," 154.

16) Kim, "Weaving Women's Stories," 102.

17) Codrington,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in Melanesia," 298–99.

18) Dixon, Oceanic [Mythology], 111.

19) See, for example, Kim, "Weaving Women's Stories," 95; Kim, "Nesor Annim, Niteikapar," 158.

20) Yang, Yang, and O'Grady, Jejueo, 2–4.

explorers, traders, and scientists, who were later joined by whalers, Christian missionaries, slavers and labor recruiters, imperial navies, and colonial governments with origins in Spain, the Netherlands, Great Britain, France, Russia, Peru, Chile, and eventually Germany, Japan, Australia, New Zealand, Indonesi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Pacific Islanders have contended with a spectrum of foreign colonial ideologies, activities, and institutions that continue to affect the lives and well-being of Indigenous communities across the region to this day.

Before proceeding further, I should emphasize that Oceania is among the world's most diverse regions. This is perhaps seen most readily in its staggering linguistic variability—indeed, although Oceania has just about one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it is home to twenty percent of its living languages. Papua New Guinea alone has more than seven hundred distinct Indigenous languages, Vanuatu has more than one hundred, and the Solomon Islands has over sixty languages.[21] The region also hosts a vast array of Indigenous religious and intellectual traditions, customs and social norms, legal systems, approaches to land tenure, navigational and architectural technologies, and gender identities.[22] Whereas fishing, voyaging, and wayfinding were and remain central to the livelihoods and epistemologies of many Pacific communities, for example, others situated in mountainous or other locales far from the sea do not hold the ocean or its resources as central to their worldview or way of life. The cultures and lives of people who live far from the sea in the highlands of Papua New Guinea—and rely heavily on gardening and the cultivation of sweet potatoes, yams, taro, and bananas for subsistence—look vastly different from those on Satawal and Pulap in the Caroline Islands in central Micronesia, where the ocean, marine resources, and long-distance voyaging remain central.[23] Land tenure and inheritance also vary across the region, as do gender roles, identities, and ideologies. A significant proportion of Micronesian societies including Palau and the Marshall Islands are matrilineal, with land, clan membership, and chiefly authority and succession inherited through mothers and sisters, who may in turn also play important roles in appointing and advising male leaders and holding them accountable.[24] On Tanna island in southern Vanuatu, by contrast, customary land rights are organized along patrilineal lines from fathers to sons, with land largely belonging to clans or tribes whose male leaders make most land-use decisions.[25] As you can imagine, these distinct land tenure structures carry profound implications for gender and power relations, as those with primary ownership of land hold fundamentally different forms of social authority than those whose land rights are secondary or contingent.

These distinctions notwithstanding, Oceania's diverse cultures share a number of fundamental commonalities. These include, but are in no way limited to, core foods including coconut, taro,

21) Pawley, "Language," 159–60.

22) See, for example, Dvorak et al., Gender in the Pacific, 4–5, 16, 28–32; Genz et al., Voyaging in the Pacific, 32–39.

23) D'Arcy, The People of the Sea, 34–40, 150–56; Manner and Thaman, "Agriculture," 343–45.

24) Smith, Palauan Social Structure, 48–51; Stege, "An Kōrā Aelōn̄Kein," 11–13.

25) Van Trease, The Politics of Land in Vanuatu, 10.

breadfruit, yams, and bananas, as well as common cooking techniques; a profound connection to and respect for the land and sea; cosmologies that link the human world to ethereal, beyond-human realms; valuing communal identity and relationality over individualism; nested approaches to land tenure and access; and oral and performance modes of preserving knowledge. Across Oceania, these shared features manifest in localized expressions that reflect deep historical connections and unique island adaptations. For example, core starchy crops are widely prepared in underground earthen ovens—the umu kaikai in the Marquesas, the ʻimu in Hawaiʻi, and the uhmw on Pohnpei. Shared concepts such as mana—roughly translated as divine authority, prestige, or generative power—and tapu or tabu, which communities use to establish sacred boundaries and resource prohibitions, have shaped social relations,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cross the region. Pacific Island communities also preserve and embody genealogies, histories, and connections to land through a diversity of related oral and performative expressions, including the Samoan siva and Tongan lakalaka (types of dances), Fijian veiqia and Māori tā moko (tattoo traditions), and Marshallese bwebwenato and Chuukese uruon (types of oral traditions).[26]

These shared features and expressions of culture are, in large part, the outcome of a deep history spanning tens of thousands of years. This lineage dates back to the initial movement of people into southwestern Oceania fifty thousand years ago, a subsequent influx of settlers approximately five thousand years ago, and their descendants' gradual eastward and northward expansion across the vast Pacific Ocean. In doing so, they settled nearly every habitable island group they encountered—reaching as far as Hawaiʻi in the northeast, Rapa Nui in the southeast, and Aotearoa New Zealand in the south.[27] Over millennia, these voyagers carried with them not only an array of canoe crops that would become regional staples, but also their worldviews and cosmogonies, artistic and performance traditions, knowledge systems, religious beliefs, systems of gender and authority, and practices of land stewardship. Over time, these settlers and their descendants adapted their ways of knowing and being to Oceania's local environments. They also continued to travel locally and beyond, either by canoe or on foot. Consequently, vernacular languages and expressions of culture and cosmology emerged across the region, but not at all in isolation. As a result, Oceania emerged not as a scattered collection of isolated cultures, but as an interconnected world—bound by shared ancestral roots and continuously reshaped by localized exchange and innovation.[28]

Early settlers and generations of their descendants built a diversity of dynamic civilizations across Oceania. Memories of these great societies have been passed down in genealogies and other Indigenous intellectual traditions and are preserved in stone and other monuments, the remains of which are found throughout the region. Founders and leaders of the Saudeleur dynasty on Pohnpei

26) See, for example, Barker, "Health," 215–18; Kabutaulaka et al., Health and Environment in the Pacific, 6–8, 13; Higgins et al., Oceanic Arts, 43–44.

27) Kirch, On the Road of the Winds, 56–61, 67–68, 78–81, 151–54, 198–200, 269–71.

28) Hauʻofa, "Our Sea of Islands," 51–54; D'Arcy, The People of the Sea, 7–8.

centralized power and built Nan Madol (between roughly 1200 and 1500 CE), an enormous temple city made up of fortresses, canals, and residential compounds that housed over one thousand people.[29] On nearby Kosrae, a similar complex arose on Leluh islet, Kosrae's capital at the time, to house the king and the nobility alongside various "sacred and mortuary compounds."[30] Tu'itatui, the eleventh Tu'i Tonga, or King of Tonga, commissioned a giant stone archway known as Ha'amonga 'a Maui (around 1200 CE) on the island of Tongatapu, with one of the slabs positioned to protect the king as he addressed his chiefs.[31] Religious leaders and chiefs in Tahiti, the Tuamotus, and the Cook Islands built marae—sacred open-air temples—to use for a range of ceremonial purposes, and the people of Rapa Nui carved moai, or monolithic human figures thought to represent ancestors and embody spiritual power (around 1250 CE).[32] In Vanuatu, the sacred sites and burial grounds of Chief Roi Mata's Domain evoke the power and prestige of Chief Roi Mata, who ruled parts of central Vanuatu until his death sometime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33]

By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number of chiefs, "big men," and other leaders in the region had consolidated their power into kingdoms, chiefdoms, or realms of authority across entire archipelagos, integrating neighboring islands through alliance, tribute, and, in some cases, warfare. These included Tahiti's Pōmare dynasty, the House of Kamehameha in Hawai'i, and the Tupou ruling family of Tonga. Other prominent rulers and leaders were Cakobau of Fiji; Malietoa Laupepa of Sāmoa; Nidoïsh Naisseline of Maré, Loyalty Islands, Kanaky New Caledonia; Kwaisulia of Malaita, Solomon Islands; and Henry Nanpei of Pohnpei.[34] This brief overview only begins to scratch the surface of Oceania's deep political history and dynamic cultural diversity.

Oceania's colonial history is similarly diverse. As I already mentioned, Magellan's expedition ushered in a long period of foreign incursions in the region that, in many areas, is ongoing. Although the local details of that history vary, its broad contours span the region—and, as we shall see, directly evoke the ways Jeju's sovereignty has been repeatedly compromised across centuries. Physical and ideological violence have served as central tools of foreign control since Magellan's arrival on Guåhan, where his crew murdered several Chamorros and set fire to a village as a punishment for what they perceived as theft. Magellan also initiated a period of ideological violence in the region by calling Guåhan and neighboring islands the Islas de los Ladrones—or "Islands of Thieves"—a name that appeared on maps for centuries, no doubt predisposing future travelers to believe and fear the worst about Pacific Islanders.[35] Subsequent acts of direct violence are too numerous to count, but continued with

29) Hanlon, Upon a Stone Altar, 9–13.

30) Cordy, The Lelu Stone Ruins, 1.

31)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122.

32) Kaeppler, The Pacific Arts of Polynesia and Micronesia, 69, 76, 151, 154–55.

33) UNESCO, "Chief Roi Mata's Domain."

34)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141–47.

35) Madrid, "Ferdinand Magellan."

Samuel Wallis and his crew's murder of dozens of Tahitians and James Cook and his crew's murder of a number of Māori in Aotearoa New Zealand, community members in Vanuatu, and Kānaka Maoli on Hawai'i Island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36]

Before long, foreign interlopers came to view Oceania and Pacific Islanders as resources to be exploited: American whalers slaughtered hundreds of thousands of sperm whales for their blubber; foreign traders hauled away Fijian sandalwood; British, Australian, and German companies mined phosphate on Banaba and Nauru, rendering them largely uninhabitable; and French mining companies excavated nickel in New Caledonia. Pacific Islanders, meanwhile, found themselves drawn into the Pacific labor trade, oftentimes involuntarily as foreign slavers and labor recruiters used deception and force to access cheap labor for sugar and copra plantations in Sāmoa, Fiji, and Queensland, Australia, and guano mines in Peru. Although Indigenous women made up a small proportion of laborers, women across the region came to be viewed and used as sexual commodities, particularly in Lāhainā and Honolulu, Hawai'i; Kororāreka (Russell), Aotearoa New Zealand; Pape'ete, Tahiti; and Levuka, Fiji.[37]

The sex trade was one of several factors that precipitated mass death in communities across Oceania from the sixteenth century onward. Most of those losses were the outcome of the rapid spread of introduced diseases for which Pacific Islanders had no immunities or local treatments—primarily influenza, smallpox, measles, and infertility resulting from gonorrhea and other venereal diseases. Population losses were especially acute in Guåhan, the Marquesas, Rapa Nui, Hawai'i, Vanuatu, Fiji, and Kosrae, with some communities estimated to have lost upwards of ninety percent of their population.[38] Compounded by illness and grief, diminished communities became increasingly vulnerable to land seizures and formal colonial rule, which began in earnest with the British annexation of Aotearoa New Zealand and Fiji and the French seizure of New Caledonia and what became French Polynesia. Formal colonization continued with the German takeover of much of Micronesia and New Guinea, the United States' acquisition of Guåhan, eastern Sāmoa, and Hawai'i; and Japan's claim to Germany's holdings in Micronesia at the start of World War I. In fact, by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nearly every island group in Oceania had been formally colonized by a foreign power—the only exception being Tonga, which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with Great Britain in 1900 but was never annexed.[39]

The implications of formal colonization for Pacific communities have been as diverse as the communities themselves, but again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at echo Jeju's history. Beyond formal loss of land and political sovereignty, Pacific Islanders faced ongoing economic exploitation, suppression of Indigenous languages and religious and cultural traditions, forced migration and

36) Salmond, The Trial of the Cannibal Dog, 41–50, 116–39, 264–78, 408–16.

37)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202–7.

38) Luker, "Disease in Pacific History," 336–38.

39)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229–31.

relocation, travel restrictions,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associated with World War II, and the environmental and health fallout of nuclear testing. Indigenous tattoo, dance, and ceremonial kava were particularly loathed by foreign missionaries, who attempted to ban or discourage these traditions in Sāmoa, Tahiti, Fiji, Vanuatu, and Pohnpei.[40] A number of colonial administrations enacted Indigenous language bans or restrictions, contributing to severe language loss for many Indigenous communities, particularly in settler colonial states such as Guåhan, Hawai'i, and Aotearoa New Zealand.[41] Others forcibly removed Pacific Islanders from their land. Kanak in New Caledonia were involuntarily relocated to reserves to make way for French settlers and nickel mining, while the British moved the majority of the Banaban community to Rabi Island, Fiji after phosphate mining had rendered Banaba uninhabitable. During the Nan'yō-chō—or South Seas Mandate—period, Japan relocated thousands of Indigenous Chamorros and Carolinians to make room for sugar plantations and for Japanese, Okinawan, and Korean settlers, while imposing travel restrictions across the Nan'yō-chō, which included Palau, Yap, Chuuk, Pohnpei, Kosrae, and the Marshall Islands.[42]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also took an enormous toll on Indigenous lives and environments. During the war, island communities were subjected to intense militarization, forced labor, and war crimes, as Japan,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forces waged some of the most intense warfare the world had seen to that point. In Papua New Guinea, more than fifteen thousand Islanders were killed in bombings, direct combat, and executions enacted by both sid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Guåhan, Chamorro women were subjected to gender-based and sexual violence and torture, a traumatic history that mirrors the experiences of Jeju women during Japanese imperialism, World War II, and, in particular, the tragic violence of Jeju 4.3.[43] American, French, and British nuclear testing wrought further devastation to communities and environments in the Marshall Islands, the Tuamotus in French Polynesia, and Kiribati, afflicting generations of Pacific Islanders with chronic, radiation-induced illnesses, while rendering ancestral homelands largely uninhabitable.[44]

Importantly, Oceania's history of resistance to foreign control stretches as far back as Magellan's violent assault on Guåhan, reflecting the region's dynamism and diversity as much as any other part of its expansive history. Indigenous resistance in the region has taken many forms—some overt and public, others quiet and behind-the-scenes—from retaliatory violence and wars of retribution to reclaiming Indigenous intellectual traditions and the ongoing decolonization of Pacific history and Pacific studies. Just as the Haenyeo were pivotal figures in the anti-Japanese imperialism movement

40) See, for example, Kuwahara, Tattoo; Imada, Aloha America, 13–14; Hanlon, Upon a Stone Altar, 172.

41) See, for example, Lucas, E Ola Mau Kakou I Ka 'Olelo Makuahine, 8–10; San Nicolas and Santos, "En Sigi Ha' Mo'na," 137–41.

42) See Merle and Muckle, The Indigénat and France's Empire in New Caledonia; Teaiwa, Consuming Ocean Island, 141–42; Peattie, Nan'yō, 158–61, 220.

43)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243–44; Camacho, Cultures of Commemoration, 153–60; Kim and Hwang, "Enduring Violence and Commemoration," 87–88.

44) Maclellan, "Introduction," 1–8.

on Jeju,[45] Indigenous women have long been at the forefront of regional struggles—although their contributions have often been overlooked or misrepresented in historical and academic scholarship. To address this erasure, Indigenous and other contemporary scholars of Oceania continue to transform their methodologies, elevating diverse Indigenous archives, ways of knowing,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while decentering colonial ideologies, institutions, and narratives.[46]

Indeed, Chamorro women were present and no doubt supported the first documented act of Indigenous retaliation against foreign violence when no fewer than one hundred canoes chased Magellan's ship after the captain and his crew killed seven men and burned down dozens of homes.[47] More than three centuries later, Queen Pōmare IV spent decades resisting French expansionism in Tahiti and neighboring islands.[48] In the Marshall Islands, a woman named Likwor protested what she viewed as the failures of the newly-established American-led Protestant mission on Epoon Atoll by setting fire to the homes of any community members who did not reject the introduced religion.[49] Indigenous women laborers in Queensland, Australia took Europeans to court "for assault and threatening language," and Māori women petitioned and provided testimony before the Native Land Court to assert customary land rights.[50]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omen in Sāmoa took over leadership of the nonviolent Mau movement protesting the New Zealand colonial administration after the tragic events of Black Saturday on December 28, 1929, forced surviving male leadership into hiding or exile.[51] In 1953, Lerooj Dorothy Litarjikut Kabua spoke before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in opposition to U.S. nuclear testing in the Marshall Islands; two decades later, Amelia Rokotuivuna of Fiji became a vocal antinuclear advocate, using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act of nuclear testing on women's health in the Pacific."[52] Déwé Gorodé became a founding member of Groupe 1878 and the Party of Kanak Liberation (PALIKA), two pillars of the Kanak independence movement in French-occupied Kanaky New Caledonia;[53] in Vanuatu, poet-politician Grace Mera Molisa became an outspoken advocate for women's rights.[54] Although these women's contemporaries and successors are far too many to describe here, they include: Whina Cooper, Darlene Keju-Johnson, Alice Pollard, Gabriela Ngirmang, Loretta Ritte, Teresia Teaiwa, Jully Makini, Konai Helu Thaman, Brianna Fruean,

45) Lee and Myong, "Portraits of Jeju Haenyeo as Models of Empowerment."

46) See, for example, Banivanua-Mar, Violence and Colonial Dialogue; Camacho, Sacred Men; Paterson and Wanhalla, He Reo Wahine.

47) Antonio Pigafetta, cited in Hezel et al., Micronesia, Winds of Change, 6.

48) See, for example, Stevenson, "Aimata, Queen Pomare IV."

49) LaBriola, Our Eyes Advise Us, 132.

50) Banivanua-Mar, Violence and Colonial Dialogue, 161; Paterson and Wanhalla, He Reo Wahine, 304–5.

51) Macquoid, "The Women's Mau," 26–27.

52) Maclellan,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108–9; Enomoto et al., Pacific Studies, 48.

53) Duong-Pedica, "Kanak Women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for Kanak Liberation," 30–32.

54) Hereniko and Wilson, "Representations of Cultural Identities," 159.

Emalani Case, Hana-Rawhiti Maipi-Clarke, and Kathy Jetñil-Kijiner—a formidable genealogy of Indigenous Pacific women who continue to weave the ropes and baskets of Oceanic liberation described by Haunani-Kay Trask and Ha'åni San Nicolas.[55]

I will conclude today by highlighting two regional collaborations that I have had the privilege of being involved with: the Pacific History Association (PHA), where I currently serve as secretary, and the Teaching Oceania Series, for which I previously served as series editor. Each initiative has created an important space for scholars of Oceania to rethink and reframe Pacific historical scholarship and teaching in ways that recenter Indigenous communities and ways of knowing and being in both content and approach.

Since its founding in 1980, the PHA has primarily done this by sponsoring a biennial international conference, bringing together scholars from across and beyond the region to share and discuss emergent research and methodologies, engage in interdisciplinary dialogue, and cultivate relational academic networks. Each conference is hosted by a different institution in the region and is organized around a central theme: "Le Solosoloū: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was the theme of the 2025 conference hosted by the National University of Sāmoa, and the 2027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Papua New Guinea will be organized around "Confronting Legacies." Panel presentations are typically organized thematically, giving scholars opportunities to draw regional connections as they explore vernacular histories and knowledges. Conferences thus provide the space and structure for participants to engage in the kind of trans-Oceanic and, increasingly, trans-Indigenous scholarly network-making called for by San Nicolas's "baskets of resilience" model.[56]

The Teaching Oceania Series extends this relational work directly into undergraduate pedagogy.[57] Sponsored by the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the series features thematic, multiauthored, open-access, digital mini-textbooks designed specifically for undergraduate Pacific studies classrooms. The first four books were drafted during a three-day workshop that brought together twenty-five scholar-educators from across and beyond the region to weave together their distinct knowledge and expertise into interdisciplinary texts focused on militarism and nuclear testing, gender, health and environment, and the arts. Subsequent volumes continued this collaborative, interdisciplinary model, taking up themes ranging from voyaging to contemporary activism.[58] While regional in scope, the series centers place-based histories, expressions of cosmology and culture, and revered local heroes. The volumes also include learning activities that encourage students to engage deeply with issues in their own communities while reflecting on broader trans-Oceanic and trans-Indigenous connections. In these and other ways, the textbooks and their collaborative authorship embody and advance the kind of relational weaving called for by San

55) For others, see "70 Inspiring Pacific Women."

56) See Pacific History Association, "Pacific History Association."

57) See LaBriola and Walsh, "Teaching Oceania."

58) See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Teaching Oceania Series."

Nicolas, while further decentering “Pacific Worlds” and other colonial and neo-colonial methods of researching, writing, and teaching in and about Oceania. I hope I have also successfully modeled this approach in my presentation today.

To learn more about the Pacific History Association, visit: https://www.pacifichistoryassociation.net/.

For more about the Teaching Oceania Series, see: https://hdl.handle.net/10125/42426.

Thank you.

Bibliography

“70 Inspiring Pacific Women.”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Accessed October 1, 2026. https://www.spc.int/70-inspiring-pacific-women.

Banivanua-Mar, Tracey. Violence and Colonial Dialogue: The Australian-Pacific Indentured Labor Trad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Barker, John. “Health.” In The Pacific Islands: Environment and Society, edited by Moshe Rapaport, 215–28.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Camacho, Keith L. Cultures of Commemoration: The Politics of War, Memory, and History in the Mariana Islands. Pacific Islands Monograph Series 25.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School of Hawaiian,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1.

Camara, Bobby. “A Change of Name.” Ka Wai Ola, October 1, 2021. https://kawaiola.news/aina/a-change-of-name/.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Teaching Oceania Series,” ScholarSpac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accessed October 1, 2026, https://scholarspace.manoa.hawaii.edu/collections/6478ac70-b837-4f4e-bfef-bd2a80a7c0ab/search.

Codrington, Robert Henry.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in Melanesia.”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0, no. 3 (1881): 261–316.

Cordy, Ross H. The Lelu Stone Ruins (Kosrae, Micronesia): 1978–81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search. Asian and Pacific Archaeology Series 10.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99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Nomination Dossi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https://whc.unesco.org/uploads/nominations/1264.pdf.

D’Arcy, Paul. The People of the Sea: Environment, Identity, and History in Ocean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Dixon, Roland B. Oceanic. Vol. 9 of The Mythology of All Races, edited by Louis Herbert Gray. Marshall Jones Company, 1916.

Duong-Pedica, Anaïs. "Kanak Women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for Kanak Liberation: Militant Women's Writing in the Groupe 1878 and the PALIKA."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61, no. 1 (2026): 28–49.

Dvorak, Greg, Delihna Ehmes, Evile Feleti, James Perez Viernes, Teresia Teaiwa, and Tēvita O. Kaʻili. Gender in the Pacific. Edited by Monica C. LaBriola. Teaching Oceania Series 2.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ʻi–Mānoa, 2019. http://hdl.handle.net/10125/42433.

Enomoto, Joy, Emalani Case, Stu Dawrs, et al. Pacific Studies: A Transformational Movement. Teaching Oceania Series 7.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ʻi at Mānoa, 2022. http://hdl.handle.net/10125/81452.

Genz, Joseph, Celia Bardwell-Jones, Makena Coffman, et al. Voyaging in the Pacific. Teaching Oceania Series 8.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ʻi–Mānoa, 2023.

"Grandmother Seolmundae."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ccessed September 28, 2026. https://folkency.nfm.go.kr/en/topic/detail/5362.

Hanlon, David. "Losing Oceania to the Pacific and the World." The Contemporary Pacific 29, no. 2 (2017): 286–318.

Hanlon, David. Upon a Stone Altar: A History of the Island of Pohnpei to 1890. Pacific Islands Monograph Series 5.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School of Hawaiian,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ʻi at Mānoa; University of Hawaiʻi Press, 1988.

Hattori, Anne Perez. "Puntan and Fu'una: Gods of Creation." Guampedia. Last modified September 29, 2026. https://www.guampedia.com/puntan-and-fuuna-gods-of-creation/.

Hauʻofa, Epeli. "Our Sea of Islands." The Contemporary Pacific 6, no. 1 (1994): 148–61.

Hereniko, Vilsoni, and Rob Wilson. "Representations of Cultural Identities." In Inside Out: Literature, Cultural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ew Pacific, edited by Vilsoni Hereniko and Rob Wilson, 137–66. Rowman & Littlefield, 1999.

Hezel, Francis X., M. L. Berg, and Omnibus Program for Social Studies-Cultural Heritage. Micronesia, Winds of Change. Omnibus Program for Social Studies-Cultural Heritag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1979.

Higgins, Katherine, et al. Oceanic Arts. Edited by Monica C. LaBriola. Teaching Oceania Series 5.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ʻi–Mānoa, 2018. http://hdl.handle.net/10125/55743.

hoʻomanawanui, kuʻualoha. Voices of Fire: Reweaving the Literary Lei of Pele and Hiʻiaka. First Peoples: New Directions in Indigenous Stud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Imada, Adria L. Aloha America: Hula Circuits Through the U.S. Empire. Duke University Press, 2012.

Kabutaulaka, Tarcisius, et al. Health and Environment in the Pacific. Edited by Monica C. LaBriola. Teaching Oceania Series 3.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Mānoa, 2017.
http://hdl.handle.net/10125/42434.

Kaeppler, Adrienne L. The Pacific Arts of Polynesia and Micronesia. Oxford History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Kamakau, Samuel Manaiakalani. Tales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Old: Nā Moʻolelo o ka Poʻe Kahiko. Edited by Dorothy B. Barrère. Translated by Mary Kawena Pukui. Bishop Museum Special Publication 94. Bishop Museum Press, 1991.

Kim, Myjolynne. "Weaving Women's Stories: Restoring Women and Indigenous Perspectives into Chuukese Hist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Pacific Ocean, edited by Anne Perez Hattori, Jane Samson, and Paul D'Arcy, 2:512–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Kim, Myjolynne Marie. "Nesor Annim, Niteikapar (Good Morning, Cardinal Honeyeater): Indigenous Reflections on Micronesian Women and the Environment." The Contemporary Pacific 32, no. 1 (2020): 147–63.

Kim, Seong Nae, and Merose Hwang. "Enduring Violence and Commemoration: Korea's Cheju April 3 Incident." Viol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4, nos. 1–2 (2023): 83–100.

Kirch, Patrick Vinton. On the Road of the Winds: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the Pacific Islands before European Contact. Rev.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Kuwahara, Makiko. Tattoo: An Anthropology. Berg, 2005.

LaBriola, Monica C. Our Eyes Advise Us: Marshall Islanders Confronting Disease, Climate, and Colonial Viol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forthcoming (2026).

Lal, Brij V., and Kate Fortune, eds. The Pacific Islands: An Encycloped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Lee, Seohyeon, and Soon-ok Myong. "Portraits of Jeju Haenyeo as Models of Empowerment in the Korean Newspaper Maeilshinbo During Japanese Occupation." CLCWeb: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20, no. 2 (2018).
https://docs.lib.purdue.edu/clcweb/vol20/iss2/14.

Lucas, Paul F. Nahoa. "E Ola Mau Kakou I Ka 'Olelo Makuahine: Hawaiian Language Policy and the Courts." The Hawaiian Journal of History 34 (2000): 1–34.

Luker, Vicki. "Disease in Pacific History: 'The Fatal Impact'?"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Pacific Ocean, edited by Anne Perez Hattori, Jane Samson, and Paul D'Arcy, 2:421–4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Maclellan, Nic. "Introduction: Resistance and Survival - The Nuclear Era in the Pacific."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59, no. 1 (2024): 1–16.

Maclellan, Nic. "MANUSCRIPT XLIII: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from the Marshallese People, 20 April 1954."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59, no. 1 (2024): 106–12.

Macquoid, Lisa P. "The Women's Mau: Female Peace Warriors in Western Samo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995.

Madrid, Carlos. "Ferdinand Magellan." Guampedia. Last modified September 30, 2009. https://www.guampedia.com/ferdinand-magellan/.

Manner, Harley I., and Randolph R. Thaman. "Agriculture." In The Pacific Islands: Environment and Society, edited by Moshe Rapaport, 343–55.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Merle, Isabelle, and Adrian Muckle. The Indigénat and France's Empire in New Caledonia: Origins, Practices and Legacies. Cambridge Imperial and Post-Colonial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22.

Oh, Jea Sophia. "Matricide, Myth, and the Great Mother: An Asian Ecofeminist Reading of Seolmundae (the Creator of Jeju Island in Korea) and Nüwa (the Protector Goddess of Chinese Mytholog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9, no. 2 (2022): 125–35.

Pacific History Association. "Pacific History Association." Accessed October 1, 2026. https://www.pacifichistoryassociation.org.

Paterson, Lachy, and Angela Wanhalla. He Reo Wahine: Maori Women's Voice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Auckland University Press, 2017.

Pawley, Andrew. "Language." In The Pacific Islands: Environment and Society, edited by Moshe Rapaport, 159–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Peattie, Mark R. Nan'yō: The Rise and Fall of the Japanese in Micronesia, 1885–1945. Pacific Islands Monograph Series 4.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School of Hawaiian,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Salmond, Anne. The Trial of the Cannibal Dog: Captain Cook in the South Seas. Allen Lane, 2003.

San Nicolas, Ha'åni Lucia Falo. "From a Pacific Daughter: Haunani-Kay Trask's Legacy for Indigenous Pacific Feminisms."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46, no. 1 (2023): 39–54.

San Nicolas, Ha'åni Lucia Falo, and Måsi Mendiola Santos. "En Sigi Ha' Mo'na: A Genealogy of CHamoru Resistance to Language Erasure."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60, no. 2 (2025): 133–53.

Smith, DeVerne Reed. Palauan Social Struc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Stege, Kristina E. "An Kōrā Aelōn̄ Kein: These Islands Belong to the Women: A Study of Women and Land in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In Land and Women: The Matrilineal Factor. The Cases of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Solomon Islands and Vanuatu, edited by Elise Huffer, 1–12.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2008.

Stevenson, Karen. "Aimata, Queen Pomare IV: Thwarting Adversity in Early 19th Century Tahiti." Journal of the Polynesian Society 123, no. 2 (2014): 129–44.

Teaiwa, Katerina Martina. Consuming Ocean Island: Stories of People and Phosphate from Banaba. Tracking Globaliz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4.

UNESCO. "Chief Roi Mata's Domai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September 30, 2026. https://whc.unesco.org/en/list/1280/.

Van Trease, Howard. The Politics of Land in Vanuatu: From Colony to Independence. Institute of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987.

Walker, Ranginui. Ka Whawhai Tonu Matou: Struggle Without End. Rev. ed. Penguin Books, 2004.
Yang, Changyong, Sejung Yang, and William O'Grady. Jejueo: The Language of Korea's Jeju Isl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

‘태평양 세계’를 넘어서:

관계적 방법론으로서의 원주민 공동체 횡단적 역사

모니카 C. 라브리오라

'태평양 세계'를 넘어서: 관계적 방법론으로서의 원주민 공동체 횡단적 역사

(Beyond "Pacific Worlds": Trans-Indigenous Histories as Relational Methodology)

모니카 C. 라브리오라

먼저 이번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제주학연구센터와 포럼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발표를 위해 제가 요청받은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평양 역사는 국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 왔는가?", "구전 전통, 지역 언어, 원주민 지식, 섬과 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역사 연구와 역사 서술의 틀을 새롭게 짜는가?", "태평양역사학회(Pacific History Association)와 기타 학술 네트워크는 지역 연구와 교류를 지속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나 서로 다른 식민지적·제도적 상황에 놓인 섬들의 역사를 서술할 때 어떤 실질적·지적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주학과 지역의 참여에 어떤 함의와 가능성을 가지는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역사학자 데이비드 핸런(David Hanlon)이 2017년에 썼던 「태평양과 세계에 오세아니아를 빼앗기다」라는 글을 다시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핸런은 태평양 역사 연구에서 초국가적·세계적 틀을 통해 태평양 제도(Pacific islands)의 역사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틀이 대서양 세계와 세계사식 과거 접근법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역적 혹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패턴과 관점"을 강조하는데, 이를테면 제국의 팽창, 문화 간 만남과 교류, 이념과 기술의 확산, 이주, 문화와 종교의 전파, 그리고 그 밖의 세계적인 현상들을 말합니다.[1)]

태평양 제도 역사 연구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평양 세계(Pacific Worlds)'식 접근법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를 "세계적·해양적·지역적 차원의 역사가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2)]

태평양 세계식 접근법은 지역의 연계성을 부각시키는 데는 물론 유용하지만, 지역사와 "초국가적 역사는 섬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섬의 역사를 구축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핸런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3)]

실제로 이러한 접근법은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원주민의 역사와

1) Hanlon, "Losing Oceania," 287

2) David Igler, quoted in Hanlon, "Losing Oceania," 287.

3) Hanlon, "Losing Oceania," 302.

원주민이 지식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시 찾아내고 이를 역사 연구의 중심에 놓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런 활동이 20세기 중반 이후 태평양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핵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핸런은 '태평양 세계'식 접근법이 결국 이름만 다를 뿐 식민지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4)]

핸런의 비판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하아니 루시아 팔로 산 니콜라스(Ha'åni Lucia Falo San Nicolas)의 연구도 다시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논문 「태평양의 딸로부터: 하우나니-케이 트라스크(Haunani-Kay Trask)가 태평양 원주민 페미니즘에 남긴 유산」은 태평양 세계식 접근법과 그 한계에 대해 태평양 원주민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개입하고 교정하는지 보여줍니다. 고(故) 하와이 원주민 학자이자 시인이자 활동가였던 하우나니-케이 트라스크의 선구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산 니콜라스는 태평양의 여러 원주민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회복력의 바구니(baskets of resilience)'라고 부르는 개념을 제안합니다.[5)]

산 니콜라스는 역사학자가 아니며 '회복력의 바구니'를 태평양 세계식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개념이 핸런이 제기했던 핵심적인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 세계식의 틀은 다양한 원주민 공동체를 식민지 시대의 만남과 교류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 만나게 되는 추상적인 지점으로 평면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산 니콜라스가 제시한 '짜기'라는 은유는 각 원주민 공동체의 고유한 특징과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서로 연결된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잘 짜인 바구니의 각각의 가닥처럼, 각 공동체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역사성은 서로 엮여서 하나의 대양 횡단적 역사 지식의 몸체를 형성하면서도 고유성을 유지합니다.[6)]

이러한 가닥들을 엮기 위해 저는 먼저 제주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포럼이 열리는 곳이자 정치적으로 현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는 제주를 연구하면서, 저는 태평양 제도사와 태평양학이라는 저의 익숙한 학문적·지역연구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와 제주의 역사는 여러 면에서 놀라울 만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주가 서태평양에 위치한 화산섬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산학과 판구조론에 따르면 제주는 현재 휴면 상태인 화산계로 인해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7)]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아후(Oʻahu) 역시 북중부 태평양에 위치한 화산섬이며, 지질학에 따르면 오아후 역시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오세아니아를 이루는 대다수 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섬(Hawaiʻi Island), 흔히 '빅아일랜드(Big Island)'라고 불리는 섬과 그 주변 해저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카마에후아카날로아(Kamaʻehuakanaloa, 이전 명칭 Lōʻihi[8)])를 비롯해, 바누아투의 탄나섬(Tanna)과 암브림섬(Ambrym) 등 일부 섬에서는 지금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화산 분출과 용암의 흐름으로 새로운 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호 환초가 된 수천 개의 다른 섬들은 고대 화산이 형성된 뒤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거대한 해저 산호초 구조물 위에 자리한 작은 섬들이 왕관처럼 둘러서서, 한때 화산이

4) Hanlon, "Losing Oceania," 286, 290.

5) San Nicolas, "From a Pacific Daughter," 50–51.

6) San Nicolas, "From a Pacific Daughter," 40, 50–51.

7)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56.

8) Camara, "A Change of Name."

있던 자리를 둘러싸고 커다란 석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연구를 해 온 마셜제도(Marshall Islands)는 이러한 환초 29개와 독립된 섬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발루(Tuvalu), 키리바시(Kiribati), 토켈라우(Tokelau), 그리고 마오히 누이(Māʻohi Nui) 또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투아모투 제도(Tuamotu Islands) 역시 주로 산호 환초이며,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Papahānaumokuākea, 북서 하와이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우에와 나오에로(Niue and Naoero), 그리고 마오히 누이의 마카테아(Makatea) 등 다른 섬들은 해저 지각 운동에 의해 바다 위로 솟아오른 고대 산호 환초입니다.[9]

그러나 오세아니아를 연구해 온 역사가인 저에게 제주의 지형과 지질학적 과거가 제주의 깊은 역사와 활기찬 문화의 요소로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구전 전통을 알아가면서 저는 창조 여신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설문대할망은 설화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로, 구전에 따르면 자신이 뀐 방귀 때문에 붙은 불을 끄려고 치마폭에 진흙과 바닷물을 퍼 담아 쌓아 올리다 제주도(혹은 그 일부)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번에 한 치마폭씩 진흙과 물을 담아 옮겨 한라산과 수많은 오름을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설문대할망의 몸은 제주의 비옥한 흙과 풀과 나무가 되었고, 할망의 소변은 전복, 소라, 성게, 문어, 해조류를 비롯한 풍부한 연안 해양 생물을 길러 냈습니다. 이후 해녀들은 물질로 이런 해산물들을 채취해 가족과 공동체를 부양했습니다.[10] 제가 알게 된 설문대할망 설화는 제주의 기원을 설명할 뿐 아니라, 제주의 반(半)모계적 문화에 대한 우주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어쩌면 할망의 창조하고 길러내는 힘을 이어가는 해녀들에게도 그러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1]

제주의 설문대할망 설화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창조 능력과 주체성을 중심에 둔 기원 설화와 구전 전통은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의 우주관에서는 와케아(Wākea)의 배우자인 파파하나우모쿠(Papahānaumoku) 여신이 하와이 제도를 낳았다고 나옵니다. 또 다른 여신 펠레(Pele)는 화산의 불로 섬들을 형성한 뒤 하와이섬의 킬라우에아(Kīlauea) 화산 안에 있는 할레마우마우(Halemaʻumaʻu) 분화구에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12]

남쪽의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Aotearoa New Zealand) 마오리(Māori)족의 구전은 파파투아누쿠(Papatūānuku)가 땅을 빚었고, 그의 붉은 점토질 흙으로 최초의 여성이자 마오리족의 여성 조상인 히네아후오네(Hine-ahu-one)를 빚었다고 전합니다.[13]

미크로네시아(Micronesia)라고 불리는 하위 지역에서도 창조 여신은 흔히 등장합니다. 괌(Guåhan, Guam)에서는 여신 푸우나(Fu'una)가 오빠 푼탄(Puntan)의 몸을 이용해 태양과 달, 무지개와 대지를 만든 뒤 스스로 푸하 바위(Fouha Rock)로 변했고, 그 바위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14] 팔라우의 구전 전통은 여성 반신(半神) 추아브(Chuab)가 자신의 몸을 희생했고, 그 몸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땅이 되었다고

9) Kirch, On the Road of the Winds, 38–43.

10) "Grandmother Seolmundae."

11) Oh, "Matricide, Myth, and the Great Mother," 129–31.

12) Kamakau, Tales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Old, 125–26; hoʻomanawanui, Voices of Fire, 26.

13) Walker, Ka Whawhai Tonu Matou, 11–15.

14) Hattori, "Puntan and Fu'una."

전합니다.[15]

추크어(Chuukese)로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조상 여신 니쿠웁웁 페누(Nikoupwupw Fénú)가 우주의 "창조자이자 만물을 낳은 어머니"로서 추크(Chuuk) 섬과 사람들, 씨족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16]

여성혼(female soul)과 여신들은 흔히 멜라네시아(Melanesia)라고 불리는 오세아니아 남서부 지역의 다양한 우주관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솔로몬제도(Solomon Islands)의 마키라섬(Makira Island) 구전 전통에서는 카하우시브와레라는 여성혼이 섬 중앙의 바우로 인근 산에 살면서 인간과 과일나무, 얌, 여러 동물을 만들어 냈다고 전합니다.[17]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 동뉴브리튼(New Britain)의 가젤 반도(Gazelle Peninsula)에서는 바이닝족(Baining people)의 이야기에 바닷물의 수호자인 한 노파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해안선을 만들고 홍수로부터 땅과 공동체를 보호했다고 합니다.[18]

이 지역 곳곳에서 전해지는 이러한 이야기와 수많은 지식 전통을 살펴보면, 서로 다양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연결된 여러 우주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주관은 여성의 신성한 힘을 땅과 먹거리, 풍요, 지역의 계보, 그리고 우주관과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여깁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신성한 여성 조상들은 모계 혈통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제도와 여성 중심의 가치관을 지지하고 이어 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정, 종교, 정치, 법, 사상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남성의 권위를 오랫동안 우선시해 온 가부장적 식민 제도로 인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에 맞서, 오늘날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되어 왔습니다.[19]

제주국제역사포럼의 초청을 받은 뒤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주가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배웠습니다. 고려시대 제주가 주권을 잃었던 시절부터 시작해 몽골의 침입과 원나라의 지배, 조선왕조로의 예속, 일본 제국주의 시기, 미국의 군사 점령,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의 편입에 이르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제주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군사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강제 노동, 토지 수탈, 전염병, 종교 탄압, 이동 금지, 언어와 문화의 상실, 젠더 기반 폭력, 환경 훼손을 경험했습니다.[20] 물론 이러한 역사의 구체적인 양상이야 제주만의 고유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 속에서 또 한번 익숙하게 느껴지는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주에서 조선시대가 시작되고 2세기가 지난 뒤, 오세아니아에서도 외세의 침략과 점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1521년 포르투갈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의 도착이었습니다. 마젤란은 스페인을 대신해 세계 일주를 달성하고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서쪽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목적으로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의 원정은 오늘날까지 5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오세아니아 역사의 한 시기를 열었습니다. 마젤란 이후에는 외국의 탐험가와 상인, 과학자들이 잇따라 이 지역으로

15) Kim, "Nesor Annim, Niteikapar," 154.

16) Kim, "Weaving Women's Stories," 102.

17) Codrington,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in Melanesia," 298–99.

18) Dixon, Oceanic [Mythology], 111.

19)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Kim, "Weaving Women's Stories," 95; Kim, "Nesor Annim, Niteikapar," 158.

20) Yang, Yang, and O'Grady, Jejueo, 2–4.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어 포경업자와 기독교 선교사, 노예상과 노동 모집업자, 제국 해군과 식민 정부도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출신지는 처음에는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페루, 칠레에서 시작해 이후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미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국의 식민주의 이념과 활동, 제도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주의의 영향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오세아니아 전역의 원주민 공동체의 삶과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표를 더 진행하기 전에, 오세아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뛰어난 지역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은 무엇보다 놀라울 정도로 높은 언어적 다양성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세아니아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1%에 불과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세계 언어의 20%가 이 지역에 존재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만 7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원주민 언어가 있고, 바누아투에는 100개 이상, 솔로몬제도에는 6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21] 이 지역에는 또한 매우 다양한 원주민의 종교·지식 전통, 관습과 사회 규범, 법 체계, 토지 보유 방식, 항해와 건축 기술, 성 정체성이 존재합니다.[22] 예를 들어 많은 태평양 공동체에서는 어업과 항해, 길 찾기가 생계와 인식론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면 산악지대나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는 바다와 해양 자원이 세계관이나 삶의 방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파푸아뉴기니 고지대 사람들의 문화와 삶은 생계를 위해 정원 농업과 고구마, 얌, 타로, 바나나 재배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중부 미크로네시아의 캐롤라인 제도(Caroline Islands)에 속한 사타왈(Satawal)과 풀랍(Pulap) 사람들의 삶에서는 바다와 해양 자원, 장거리 항해가 여전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23]

토지 보유와 상속 방식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성 역할과 정체성,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라우(Palau)와 마셜제도를 포함한 상당수 미크로네시아 사회는 모계 중심이며, 토지와 씨족 구성원 자격, 추장의 권위와 계승이 어머니와 자매를 통해 상속됩니다. 이 여성들은 남성 지도자를 임명하고 조언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24] 반대로 남부 바누아투의 탄나섬에서는 관습에 따른 토지 권리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부계 계통을 따라 조직되며, 토지는 대체로 씨족이나 부족에 속하고 남성 지도자들이 토지 이용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립니다.[25] 아시다시피 이러한 서로 다른 토지 보유 구조는 젠더와 권력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일차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이차적 권리나 조건부 권리를 가진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문화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코넛, 타로, 빵나무 열매, 얌, 바나나와 같은 주요 식량, 조리법, 땅과 바다에 대한 깊은 유대와 존중, 인간 세계와 초월적 영역을 연결하는 우주관,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적 정체성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가치, 서로 겹치는 토지 보유와 이용 방식, 그리고 지식을 보존하는 구전과 공연 방식이 서로 닮아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이러한 공통 요소는 각 지역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고 각 섬의 고유한 환경에 맞게 변화해 다양한 지역색을 띕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전분 작물은 지하 흙가마에서 조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르키즈 제도(the

21) Pawley, "Language," 159–60.

22)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Dvorak et al., Gender in the Pacific, 4–5, 16, 28–32; Genz et al., Voyaging in the Pacific, 32–39.

23) D'Arcy, The People of the Sea, 34–40, 150–56; Manner and Thaman, "Agriculture," 343–45.

24) Smith, Palauan Social Structure, 48–51; Stege, "An Kōrā Aelōn̄Kein," 11–13.

25) Van Trease, The Politics of Land in Vanuatu, 10.

Marquesas)에서는 우무 카이카이(umu kaikai), 하와이에서는 이무(imu), 폰페이(Pohnpei)에서는 우흐무(uhmw)라고 부릅니다. 신성한 권위와 위신, 창조 능력 등을 의미하는 마나(mana)와 신성한 경계를 설정하고 특정 자원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 공동체가 사용하는 타푸(tapu) 또는 타부(tabu)와 같은 개념도 오세아니아 여러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개념은 지역의 사회관계와 통치 방식, 환경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평양 섬 공동체들은 또한 다양한 구전과 공연을 통해 계보와 역사, 토지와의 관계를 보존하고 표현해 왔습니다. 사모아(Sāmoa)의 시바(siva)와 통가(Tonga)의 라칼라카(lakalaka) 같은 춤, 피지(Fiji)의 베이키아(veiqia)와 마오리족의 타 모코(tā moko) 같은 문신 전통, 마셜어(Marshallese)의 브웬웨나토(bwebwenato)와 추크어의 우루온(uruon) 같은 구전 전통이 포함됩니다.[26]

이러한 문화의 특징과 표현의 유사성은 상당 부분 수만 년에 걸친 깊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약 5만 년 전 사람들이 오세아니아 남서부로 처음 이동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약 5천 년 전 새로운 정착민들이 유입되었고, 이들의 후손은 광활한 태평양을 가로질러 점차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들은 이동하면서 거주할 만한 거의 모든 섬에 정착했으며, 북동쪽으로는 하와이, 남동쪽으로는 라파누이(Rapa Nui), 남쪽으로는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까지 도달했습니다.[27] 수천 년에 걸쳐 이 항해자들은 지역의 주요 작물이 된 여러 작물 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우주관, 예술과 공연 전통, 지식 체계, 종교적 신념, 성 역할과 권위의 체계, 토지 관리 관행 등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민들과 그 후손들은 오세아니아의 지역 환경에 맞게 자신들의 인식 방식과 존재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누를 타거나 걸어서 오세아니아 안팎을 계속 오갔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 곳곳에서 지역 고유의 언어와 문화 및 우주관의 표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세아니아는 고립된 문화들이 흩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같은 조상의 뿌리로 연결되고 지역 간 교류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온 상호 연결된 세계였습니다.[28]

초기의 정착민과 그 후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오세아니아 전역에 다양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계보와 다양한 원주민의 지식 전통을 통해 전해졌으며, 그 흔적은 돌로 만든 유적과 여러 기념물에 남아 오늘날에도 지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폰페이에서는 사우델레르 왕조(Saudeleur dynasty)의 창시자와 지도자들이 권력을 중앙집권화하고 난 마돌(Nan Madol)을 건설했습니다. 난 마돌은 약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건설된 거대한 사원 도시로, 요새와 운하, 주거 단지로 이루어졌으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29] 인근 코스라에(Kosrae)에도 비슷한 건축군이 당시 수도였던 렐루 섬(Leluh islet)에 세워졌는데 왕과 귀족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신성·장례 복합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30]
통가에서는 제11대 투이 통가(Tui Tonga, 왕)인 투우티타투이(Tu'itatui)가 타푸 섬에 거대한 석조 아치인 하아몽가 아 마우이(Ha'amonga 'a Maui)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아치는 약 1200년에 건설된 것으로

26)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Barker, "Health," 215–18; Kabutaulaka et al., Health and Environment in the Pacific, 6–8, 13; Higgins et al., Oceanic Arts, 43–44.

27) Kirch, On the Road of the Winds, 56–61, 67–68, 78–81, 151–54, 198–200, 269–71.

28) Hau'ofa, "Our Sea of Islands," 51–54; D'Arcy, The People of the Sea, 7–8.

29) Hanlon, Upon a Stone Altar, 9–13.

30) Cordy, The Lelu Stone Ruins, 1.

알려져 있습니다. 아치의 한 석재는 왕이 추장들에게 연설할 때 왕을 보호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31] 타히티(Tahiti)와 투아모투 제도, 쿡제도(Cook Islands)의 종교 지도자와 추장들은 여러 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마라에(marae)라는 신성한 야외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라파누이 사람들은 조상을 나타내고 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인간 형상의 석상인 모아이(moai)를 조각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대략 12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32] 바누아투에서는 로이 마타(Roi Mata) 추장이 다스렸던 지역의 의례 장소와 매장지가 로이 마타 추장의 권력과 위신을 보여 줍니다. 그는 16세기 말에 죽기 전까지 바누아투 중부의 일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33]

19세기 말에 이르러 이 지역의 여러 추장과 '지역 유지(big men)', 그리고 기타 지도자들은 점차 권력을 강화해 군주국이나 추장국, 또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 체계를 형성하며 군도 전체에 걸친 정치체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동맹과 조공, 때로는 전쟁을 통해 인근 섬들을 통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타히티의 포마레 왕조(Pōmare dynasty), 하와이의 카메하메하 왕가(House of Kamehameha), 통가의 투포우(Tupou) 통치 가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지의 카코바우(Cakobau), 사모아의 말리에토아 라우페파(Malietoa Laupepa), 카나키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로열티 제도의 마레섬에 있던 니두아시 나이셀린(Nidoïsh Naisseline), 솔로몬제도 말라이타의 콰이술리아(Kwaisulia), 폰페이의 헨리 난페이(Henry Nanpei) 등이 중요한 통치자와 지도자로 꼽힙니다.[34] 이 짧은 개관은 오세아니아(Oceania)의 깊은 정치사와 역동적인 문화적 다양성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오세아니아의 식민지 역사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젤란의 원정은 이 지역에 외세가 장기간 개입하는 시대를 열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그 과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지만, 이러한 식민지화의 큰 흐름은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제주의 주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받아 온 방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젤란이 괌에 도착한 이후, 외세의 지배에서 물리적 폭력과 이념적 폭력은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젤란의 선원들은 자신들이 도둑질이라고 인식한 행동에 대한 처벌로 여러 차모로인(Chamorros)을 살해하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젤란은 또한 괌과 인근 섬들을 이슬라스 데 로스 라드로네스(Islas de los Ladrones), 즉 '도둑들의 섬'이라고 부름으로써 이념적 폭력의 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명칭은 이후 수세기 동안 계속 지도에 등장했으며, 후대의 여행자들이 태평양 섬 주민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35] 이후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새뮤얼 월리스(Samuel Wallis)와 그의 선원들이 타히티인 수십 명을 살해했습니다. 제임스 쿡(James Cook)과 그의 선원들 역시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바누아투의 공동체 구성원, 하와이섬의 카나카 마올리(Kānaka Maoli)를 여러 명 살해했습니다.[36]

31)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122.

32) Kaeppler, The Pacific Arts of Polynesia and Micronesia, 69, 76, 151, 154–55.

33) UNESCO, "Chief Roi Mata's Domain."

34)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141–47.

35) Madrid, "Ferdinand Magellan."

36) Salmond, The Trial of the Cannibal Dog, 41–50, 116–39, 264–78, 408–16.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온 침입자들은 오세아니아와 태평양 섬 주민들을 착취할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포경업자들은 지방을 얻기 위해 수십만 마리의 향유고래를 도살했고, 외국 상인들은 피지의 백단향을 실어 갔습니다. 영국·호주·독일 기업들은 바나바(Banaba)와 나우루(Nauru)에서 인산염을 채굴해 섬을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고, 프랑스 광산 기업들은 뉴칼레도니아에서 니켈을 채굴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섬 주민들은 태평양 노동무역에 끌려 들어갔으며, 외국의 노예상과 노동 모집업자들은 종종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 사모아와 피지,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의 설탕·코프라 농장과 페루의 구아노 광산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원주민 여성 노동자는 소수였지만, 이 지역 출신 여성들은 성적 상품으로 취급받고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하와이의 라하이나(Lāhainā)와 호놀룰루(Honolulu),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의 코로라레카(Kororāreka, 러셀(Russell)), 타히티의 파페에테(Pape'ete), 피지의 레부카(Levuka)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37]

16세기 이후 쭉 오세아니아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사망을 초래한 요인은 성매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 감소는 태평양 섬 주민들에게 면역이나 현지 치료법이 없었던 외래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천연두, 홍역 등이 주요 질병이었으며, 임질을 비롯한 성병으로 인한 불임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괌, 마르키즈 제도, 라파누이, 하와이, 바누아투, 피지, 코스라에에서 인구 감소가 심각했습니다. 일부 공동체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38] 질병과 상실감이 겹치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토지 수탈과 공식적인 식민 통치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이후 영국의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와 피지 병합, 프랑스의 뉴칼레도니아와 훗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된 지역의 장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식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독일은 미크로네시아와 뉴기니 대부분을 장악했고, 미국은 과한, 동사모아, 하와이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미크로네시아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통가를 제외한 오세아니아의 거의 모든 섬이 외세의 공식적인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통가는 1900년 영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했지만 병합되지는 않았습니다.[39]

공식적인 식민 지배가 태평양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지역마다 달랐지만, 제주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토지와 정치적 주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와 원주민 언어 및 종교·문화 전통의 억압, 강제 이주와 재정착, 이동 제한 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해진 폭력과 성적 착취, 핵실험이 초래한 환경 및 건강상의 피해도 경험했습니다. 원주민의 문신과 춤, 의례 중에 마시는 전통음료인 카바(kava)도 외국 선교사들이 특히 혐오했던 대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모아, 타히티, 피지, 바누아투, 폰페이에서 이러한 전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려 했습니다.[40] 여러 식민 정부는 원주민 언어를 금지하거나 제한했고, 과한, 하와이,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와 같은 정착 식민지에서 많은 원주민 공동체가 심각한 언어 상실을 겪어야 했습니다.[41] 또 다른 식민

37)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202–7.

38) Luker, "Disease in Pacific History," 336–38.

39)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229–31.

40)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Kuwahara, Tattoo; Imada, Aloha America, 13–14; Hanlon, Upon a Stone Altar, 172.

41)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Lucas, E Ola Mau Kakou I Ka ʻOlelo Makuahine, 8–10; San Nicolas and Santos, "En Sigi Ha' Mo'na," 137–41.

정부들은 태평양 섬 주민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뉴칼레도니아의 카나크인(Kanak)들은 프랑스 정착민과 니켈을 채굴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영국은 인산염 채굴로 바나바가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된 후, 바나바 주민 대부분을 피지의 라비섬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일본의 식민통치기관인 남양청(Nan'yō-chō, South Seas Mandate) 통치 기간 동안에는 수천 명의 차모로인과 캐롤라인인들이 설탕 농장과 일본·오키나와·한국인 정착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또한 팔라우·야프(Yap)·추크·폰페이·코스라에·마셜제도를 포함한 남양청 통치 지역 전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었습니다.[42]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역시 원주민의 삶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섬의 공동체들은 일본과 미국, 연합군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심각한 군사화와 강제 노동, 전쟁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1만 5천 명이 넘는 섬 주민이 폭격과 직접적인 전투, 그리고 양측이 자행한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과한을 점령한 동안 차모로 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과 성폭력, 고문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 제국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제주 4·3 당시 제주 여성들이 겪은 비극적인 폭력의 경험과도 닮아 있습니다.[43]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실시한 핵실험은 마셜제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투아모투 제도, 키리바시의 공동체와 환경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태평양 섬 주민들은 방사선으로 인한 만성 질환에 시달렸으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44]

중요한 점은 오세아니아에서 외세의 지배에 맞선 저항의 역사가 마젤란이 과한을 폭력적으로 공격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의 광범위한 역사에서 다른 어떤 부분 못지않게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여 줍니다. 원주민들의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저항도 있었고, 조용하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저항도 있었습니다. 보복과 응징을 위한 전쟁에서부터 원주민의 지식 전통을 되찾고 태평양 역사와 태평양학을 지속적으로 탈식민화하는 노력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주에서 해녀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항일운동[45]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처럼, 원주민 여성들도 오랫동안 이 지역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과 학술 연구는 이들의 기여를 자주 간과하거나 왜곡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세아니아의 원주민 학자와 현대 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 방법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원주민 아카이브와 지식 체계, 역사에 대한 원주민의 해석을 연구의 중심에 놓는 한편, 식민주의적 이념과 제도, 서사는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46]

실제로 차모로 여성들은 외세의 폭력에 맞선, 기록으로 남아 있는 원주민 최초의 보복 행동에 참여했으며,

42) Merle and Muckle, The Indigénat and France's Empire in New Caledonia; Teaiwa, Consuming Ocean Island, 141–42; Peattie, Nan'yō, 158–61, 220 참조.

43) Lal and Fortune, The Pacific Islands, 243–44; Camacho, Cultures of Commemoration, 153–60; Kim and Hwang, "Enduring Violence and Commemoration," 87–88.

44) Maclellan, "Introduction," 1–8.

45) Lee and Myong, "Portraits of Jeju Haenyeo as Models of Empowerment."

46)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Banivanua-Mar, Violence and Colonial Dialogue; Camacho, Sacred Men; Paterson and Wanhalla, He Reo Wahine.

분명하게 이를 지원했습니다. 마젤란 선장과 그의 선원들이 남성 7명을 살해하고 수십 채의 가옥을 불태우자, 최소 100척의 카누가 마젤란의 배를 추격했습니다.[47] 3세기가 넘게 지난 뒤, 타히티의 포마레 4세(Pōmare IV) 여왕은 프랑스의 팽창주의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저항했습니다.[48] 마셜제도에서는 리콰르(Likwor)라는 여성이 에폰 환초(Epoon Atoll)에 새로 들어온 미국 주도의 개신교 선교 활동으로 나타난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개신교를 거부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의 집에 불을 질러 항의했습니다.[49] 호주 퀸즐랜드의 원주민 여성 노동자들은 "폭행과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유럽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마오리 여성들은 원주민 토지법원(Native Land Court)에서 청원과 증언을 통해 관습적 토지 권리를 주장했습니다.[50]

20세기 초 사모아 여성들은 1929년 12월 28일 '검은 토요일(Black Saturday)'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뉴질랜드 식민 정부에 항의하는 비폭력 마우 운동(Mau movement)의 지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살아남은 남성 지도자들이 숨어 지내거나 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51] 1953년 마셜제도의 레로이 도로시 리타르지쿠트 카부아(Lerooj Dorothy Litarjikut Kabua)는 유엔 신탁통치이사회에서 미국의 마셜제도 핵실험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20년 뒤 피지의 아멜리아 로코투이부나(Amelia Rokotuivuna)는 핵실험이 태평양 지역의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대중 교육 캠페인'을 펼치는 강경한 반핵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52] 드웨 고로데(Déwé Gorodé)는 프랑스가 점령한 카나키 뉴칼레도니아에서 카나크 독립운동을 이끄는 핵심적인 두 조직인 1878 그룹과 카나크 해방당(Party of Kanak Liberation, PALIKA)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53] 바누아투에서는 시인이자 정치인인 그레이스 메라 몰리사(Grace Mera Molisa)가 여성의 권리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54]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여성들, 이들을 잇는 후대 여성들은 모두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휘나 쿠퍼(Whina Cooper), 달린 케주-존슨(Darlene Keju-Johnson), 앨리스 폴라드(Alice Pollard), 가브리엘라 응그르망(Gabriela Ngirmang), 로레타 리테(Loretta Ritte), 테레시아 테아이와(Teresia Teaiwa), 줄리 마키니(Jully Makini), 코나이 헬루 타만(Konai Helu Thaman), 브리아나 프루언(Brianna Fruean), 에말라니 케이스(Emalani Case), 하나 라휘티 마이피-클라크(Hana-Rawhiti Maipi-Clarke), 캐시 제트닐-키지너(Kathy Jetñil-Kijiner)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우나니-케이 트라스크와 하아니 산 니콜라스가 말한 오세아니아 해방의 밧줄과 바구니를 계속해서 엮어 가는 강력한 태평양 원주민 여성들의 계보를 이룹니다.[55]

오늘은 제가 참여했던 두 가지 지역 협력 사업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현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평양역사학회(Pacific History Association, PHA)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과거 편집자로 활동했던 '오세아니아 교육 시리즈(Teaching Oceania Series)'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오세아니아

47) Antonio Pigafetta, cited in Hezel et al., Micronesia, Winds of Change, 6.

48)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Stevenson, "Aimata, Queen Pomare IV."

49) LaBriola, Our Eyes Advise Us, 132.

50) Banivanua-Mar, Violence and Colonial Dialogue, 161; Paterson and Wanhalla, He Reo Wahine, 304–5.

51) Macquoid, "The Women's Mau," 26–27.

52) Maclellan,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108–9; Enomoto et al., Pacific Studies, 48.

53) Duong-Pedica, "Kanak Women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for Kanak Liberation," 30–32.

54) Hereniko and Wilson, "Representations of Cultural Identities," 159.

55) 그 밖의 인물에 대해서는 "70 Inspiring Pacific Women" 참조.

연구자들이 태평양의 역사 연구와 교육을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와 교육의 내용과 접근 방식을 원주민 공동체와 원주민의 앎과 존재 방식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이래 태평양역사학회는 주로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학술대회에는 지역 안팎의 연구자들이 모여 새로운 연구와 방법론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학제 간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관계를 바탕으로 학술 네트워크를 발전시킵니다. 각 학술대회는 서로 다른 지역 기관이 주최하며, 매번 하나의 중심 주제를 정합니다. 2025년 사모아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의 주제는 "레 솔로솔루: 역경 속에서의 회복력(Le Solosoloū: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이었으며, 2027년 파푸아뉴기니대학교에서 열릴 학술대회의 주제는 "유산에 맞서기(Confronting Legacies)"가 될 예정입니다. 패널 발표는 일반적으로 주제별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지역적 연계를 탐색하는 한편, 지역 언어로 전해지는 역사와 지식을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술대회는 산 니콜라스가 '회복력의 바구니' 모델에서 제안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리고 점점 더 원주민 공동체를 연결하는 학술 네트워크를 실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간과 구조를 제공합니다.[56]

'오세아니아 교육 시리즈'는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작업을 학부 교육으로 직접 확장합니다.[57]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의 태평양제도연구센터(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가 후원하는 이 시리즈는 태평양학 학부 강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주제별·공저·오픈 액세스 방식의 디지털 미니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네 권의 초안은 지역 안팎에서 모인 25명의 학자이자 교육자가 3일간의 워크숍에서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지식과 전문성을 함께 엮어 군사주의와 핵실험, 젠더, 보건과 환경,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 간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출간된 책들도 이러한 협력적·학제적 모델을 이어 가며 항해에서 현대의 활동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58] 이 시리즈는 오세아니아 전역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각 지역에 기반한 역사와 우주관, 문화적 표현, 그리고 존경받는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도 더 나아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연계와 원주민 공동체 간의 연계를 성찰하도록 하는 학습 활동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과 그 밖의 여러 방식을 통해 이 교과서와 공동 집필 과정은 산 니콜라스가 제안한 관계적 '엮기'를 구현하고 발전시킵니다. 동시에 오세아니아를 연구하고 서술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태평양 세계'와 그 밖의 식민주의적·신식민주의적 방법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 나갑니다. 오늘 제 발표가 이러한 접근을 잘 보여 드렸기를 바랍니다.

태평양역사학회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https://www.pacifichistoryassociation.net/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세아니아 교육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hdl.handle.net/10125/4242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6) Pacific History Association, "Pacific History Association" 참조.

57) LaBriola and Walsh, "Teaching Oceania" 참조.

58)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Teaching Oceania Series" 참조.

Bibliography

"70 Inspiring Pacific Women."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Accessed October 1, 2026. https://www.spc.int/70-inspiring-pacific-women.

Banivanua-Mar, Tracey. Violence and Colonial Dialogue: The Australian-Pacific Indentured Labor Trad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Barker, John. "Health." In The Pacific Islands: Environment and Society, edited by Moshe Rapaport, 215–28.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Camacho, Keith L. Cultures of Commemoration: The Politics of War, Memory, and History in the Mariana Islands. Pacific Islands Monograph Series 25.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School of Hawaiian,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1.

Camara, Bobby. "A Change of Name." Ka Wai Ola, October 1, 2021. https://kawaiola.news/aina/a-change-of-name/.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Teaching Oceania Series," ScholarSpac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accessed October 1, 2026, https://scholarspace.manoa.hawaii.edu/collections/6478ac70-b837-4f4e-bfef-bd2a80a7c0ab/search.

Codrington, Robert Henry. "Religious Beliefs and Practices in Melanesia."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0, no. 3 (1881): 261–316.

Cordy, Ross H. The Lelu Stone Ruins (Kosrae, Micronesia): 1978–81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search. Asian and Pacific Archaeology Series 10.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993.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Nomination Dossi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https://whc.unesco.org/uploads/nominations/1264.pdf.

D'Arcy, Paul. The People of the Sea: Environment, Identity, and History in Ocean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6.

Dixon, Roland B. Oceanic. Vol. 9 of The Mythology of All Races, edited by Louis Herbert Gray. Marshall Jones Company, 1916.

Duong-Pedica, Anaïs. "Kanak Women and the Revolutionary Struggle for Kanak Liberation: Militant Women's Writing in the Groupe 1878 and the PALIKA."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61, no. 1 (2026): 28–49.

Dvorak, Greg, Delihna Ehmes, Evile Feleti, James Perez Viernes, Teresia Teaiwa, and Tēvita O. Ka'ili. Gender in the Pacific. Edited by Monica C. LaBriola. Teaching Oceania Series 2.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Mānoa, 2019.

http://hdl.handle.net/10125/42433.

Enomoto, Joy, Emalani Case, Stu Dawrs, et al. Pacific Studies: A Transformational Movement. Teaching Oceania Series 7.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022. http://hdl.handle.net/10125/81452.

Genz, Joseph, Celia Bardwell-Jones, Makena Coffman, et al. Voyaging in the Pacific. Teaching Oceania Series 8.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Mānoa, 2023.

"Grandmother Seolmundae." Encyclopedia of Korean Folk Cultur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ccessed September 28, 2026. https://folkency.nfm.go.kr/en/topic/detail/5362.

Hanlon, David. "Losing Oceania to the Pacific and the World." The Contemporary Pacific 29, no. 2 (2017): 286–318.

Hanlon, David. Upon a Stone Altar: A History of the Island of Pohnpei to 1890. Pacific Islands Monograph Series 5.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School of Hawaiian,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Hattori, Anne Perez. "Puntan and Fu'una: Gods of Creation." Guampedia. Last modified September 29, 2026. https://www.guampedia.com/puntan-and-fuuna-gods-of-creation/.

Hau'ofa, Epeli. "Our Sea of Islands." The Contemporary Pacific 6, no. 1 (1994): 148–61.

Hereniko, Vilsoni, and Rob Wilson. "Representations of Cultural Identities." In Inside Out: Literature, Cultural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ew Pacific, edited by Vilsoni Hereniko and Rob Wilson, 137–66. Rowman & Littlefield, 1999.

Hezel, Francis X., M. L. Berg, and Omnibus Program for Social Studies-Cultural Heritage. Micronesia, Winds of Change. Omnibus Program for Social Studies-Cultural Heritag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1979.

Higgins, Katherine, et al. Oceanic Arts. Edited by Monica C. LaBriola. Teaching Oceania Series 5.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Mānoa, 2018. http://hdl.handle.net/10125/55743.

ho'omanawanui, ku'ualoha. Voices of Fire: Reweaving the Literary Lei of Pele and Hi'iaka. First Peoples: New Directions in Indigenous Stud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Imada, Adria L. Aloha America: Hula Circuits Through the U.S. Empire. Duke University Press, 2012.

Kabutaulaka, Tarcisius, et al. Health and Environment in the Pacific. Edited by Monica C. LaBriola. Teaching Oceania Series 3.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University of Hawai'i–Mānoa, 2017. http://hdl.handle.net/10125/42434.

Kaeppler, Adrienne L. The Pacific Arts of Polynesia and Micronesia. Oxford History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Kamakau, Samuel Manaiakalani. Tales and Traditions of the People of Old: Nā Mo'olelo o ka Po'e Kahiko. Edited by Dorothy B. Barrère. Translated by Mary Kawena Pukui. Bishop Museum

Special Publication 94. Bishop Museum Press, 1991.

Kim, Myjolynne. “Weaving Women’s Stories: Restoring Women and Indigenous Perspectives into Chuukese History.”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Pacific Ocean, edited by Anne Perez Hattori, Jane Samson, and Paul D’Arcy, 2:512–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Kim, Myjolynne Marie. “Nesor Annim, Niteikapar (Good Morning, Cardinal Honeyeater): Indigenous Reflections on Micronesian Women and the Environment.” The Contemporary Pacific 32, no. 1 (2020): 147–63.

Kim, Seong Nae, and Merose Hwang. “Enduring Violence and Commemoration: Korea’s Cheju April 3 Incident.” Viol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4, nos. 1–2 (2023): 83–100.

Kirch, Patrick Vinton. On the Road of the Winds: An Archaeological History of the Pacific Islands before European Contact. Rev.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7.

Kuwahara, Makiko. Tattoo: An Anthropology. Berg, 2005.

LaBriola, Monica C. Our Eyes Advise Us: Marshall Islanders Confronting Disease, Climate, and Colonial Violence in the Nineteenth Centu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forthcoming (2026).

Lal, Brij V., and Kate Fortune, eds. The Pacific Islands: An Encyclopedi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0.

Lee, Seohyeon, and Soon-ok Myong. “Portraits of Jeju Haenyeo as Models of Empowerment in the Korean Newspaper Maeilshinbo During Japanese Occupation.” CLCWeb: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20, no. 2 (2018). https://docs.lib.purdue.edu/clcweb/vol20/iss2/14.

Lucas, Paul F. Nahoa. “E Ola Mau Kakou I Ka ’Olelo Makuahine: Hawaiian Language Policy and the Courts.” The Hawaiian Journal of History 34 (2000): 1–34.

Luker, Vicki. “Disease in Pacific History: ‘The Fatal Impact’?”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Pacific Ocean, edited by Anne Perez Hattori, Jane Samson, and Paul D’Arcy, 2:421–4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Maclellan, Nic. “Introduction: Resistance and Survival - The Nuclear Era in the Pacific.”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59, no. 1 (2024): 1–16.

Maclellan, Nic. “MANUSCRIPT XLIII: Petition to the United Nations Trusteeship Council from the Marshallese People, 20 April 1954.”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59, no. 1 (2024): 106–12.

Macquoid, Lisa P. “The Women’s Mau: Female Peace Warriors in Western Samoa.”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1995.

Madrid, Carlos. “Ferdinand Magellan.” Guampedia. Last modified September 30, 2009. https://www.guampedia.com/ferdinand-magellan/.

Manner, Harley I., and Randolph R. Thaman. “Agriculture.” In The Pacific Islands: Environment and Society, edited by Moshe Rapaport, 343–55.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Merle, Isabelle, and Adrian Muckle. The Indigénat and France’s Empire in New Caledonia: Origins, Practices and Legacies. Cambridge Imperial and Post-Colonial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22.

Oh, Jea Sophia. "Matricide, Myth, and the Great Mother: An Asian Ecofeminist Reading of Seolmundae (the Creator of Jeju Island in Korea) and Nüwa (the Protector Goddess of Chinese Mytholog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49, no. 2 (2022): 125–35.

Pacific History Association. "Pacific History Association." Accessed October 1, 2026. https://www.pacifichistoryassociation.org.

Paterson, Lachy, and Angela Wanhalla. He Reo Wahine: Maori Women's Voice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Auckland University Press, 2017.

Pawley, Andrew. "Language." In The Pacific Islands: Environment and Society, edited by Moshe Rapaport, 159–71.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Peattie, Mark R. Nan'yō: The Rise and Fall of the Japanese in Micronesia, 1885–1945. Pacific Islands Monograph Series 4. Center for Pacific Islands Studies, School of Hawaiian,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Salmond, Anne. The Trial of the Cannibal Dog: Captain Cook in the South Seas. Allen Lane, 2003.

San Nicolas, Ha'åni Lucia Falo. "From a Pacific Daughter: Haunani-Kay Trask's Legacy for Indigenous Pacific Feminisms." American Indian Culture and Research Journal 46, no. 1 (2023): 39–54.

San Nicolas, Ha'åni Lucia Falo, and Måsi Mendiola Santos. "En Sigi Ha' Mo'na: A Genealogy of CHamoru Resistance to Language Erasure." The Journal of Pacific History 60, no. 2 (2025): 133–53.

Smith, DeVerne Reed. Palauan Social Struc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1983.

Stege, Kristina E. "An Kōrā Aelōn̄ Kein: These Islands Belong to the Women: A Study of Women and Land in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In Land and Women: The Matrilineal Factor. The Cases of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Solomon Islands and Vanuatu, edited by Elise Huffer, 1–12. Pacific Islands Forum Secretariat, 2008.

Stevenson, Karen. "Aimata, Queen Pomare IV: Thwarting Adversity in Early 19th Century Tahiti." Journal of the Polynesian Society 123, no. 2 (2014): 129–44.

Teaiwa, Katerina Martina. Consuming Ocean Island: Stories of People and Phosphate from Banaba. Tracking Globaliz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4.

UNESCO. "Chief Roi Mata's Domain."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Accessed September 30, 2026. https://whc.unesco.org/en/list/1280/.

Van Trease, Howard. The Politics of Land in Vanuatu: From Colony to Independence. Institute of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1987.

Walker, Ranginui. Ka Whawhai Tonu Matou: Struggle Without End. Rev. ed. Penguin Books, 2004.

Yang, Changyong, Sejung Yang, and William O'Grady. Jejueo: The Language of Korea's Jeju Isla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

Building a Museum for Everyone:

A Field Report from Taiwan

Lung-chih Chang
(Academia Sinica)

Building a Museum for Everyone: A Field Report from Taiwan

Lung-chih Chang
(Academia Sinica)

I. Introduction: Re-visiting the “Temple vs. Forum” Debate in Museology

More than half a century ago, Canadian scholar museologist Duncan F. Cameron published an influential essay entitled "The Museum, a Temple or the Forum?" Addressing the identity crisis in the museums, Cameron distinguished two different models: one is a Temple of the Muses that preserves sacred objects based on elite aesthetics. The other is a Platform of Ideas that collects artifacts from people’s everyday life and facilitates public discussion on contemporary issues. With the rise of new museology in the 1980s, the traditional object-centered curation gradually moved toward a socially responsive practice that focuses on audience communication, community engagement, and multiple perspectives (Cameron 1971). Since then, museum curators and administrators have been working hard to balance the two roles of modern museums

In August, 2022, after nearly three years of intense debates and negotiations, the General Assembly of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in Prague formally passed the following new definition of museu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museum is a 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pen to the public, accessible and inclusive, museums foster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

By featuring key words such as inclusiveness, diversity, sustainability, this new definition further emphasizes 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multiple functions of museum especially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

How do history museums tell stories of the land and the people? How do museums preserve and

display the collective memory and everyday experience of the society? How can the museum collections be opened to and translated for the public? And how can museums collaborate with official, academic and private institutions to provide quality and sustainable service to the audiences? With these questions in mind, I would like to offer a field report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from my experience a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NMTH) between 2021 and 2026.[1)]

II. The Search of an Island History in Post-Martial Law Taiwan: the case of the ITH

On July 15, 1987, Taiwan formally lifted the martial law and ended 38 years of authoritarian rule. The combined forces of democratization and indigenization (Bentuhua or Taiwanization) led to the emergence of a Taiwan-centered historiography in post-Martial law Taiwan. Once considered a subordinate subject of orthodox Chinese history, the research of Taiwanese history has become a legitimate academic field since the late 1980s and flourished in the 1990s.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of new Taiwan-centered historiography is the compilation of source collection. Leading institutions such as Academia Sinica, National Taiwan University and National Taiwan Library help initiated important projects including the translation of Dutch East India Company records, the digitalization of Qing palace memorials and local gazetteers, the opening of Japanese Taiwan Government - general archives, and the official reports and oral histories of the 228 Incident of 1947.

The other important developments are institutionalization and discipline building. In 2004, the Institute of Taiwan History was formally set up in Academia Sinica after two decades of preparation efforts. New Graduate institutes of Taiwan History were also established in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and National Cheng-Chih University. Taiwan studies also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that led to the founding of scholarly associations in the U.S.(1994), Japan(1998) and Europe(2004).

As of today, the historical study of Taiwan encompasses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colonial - political history, social - economic history, cultural history, ethnohistory to maritime history and environmental history. Historians discuss a variety of topics ranges from the plains aborigines in the Qing dynasty to Western travelers nineteenth - century, from Spaniards in 17th - century northern Taiwan to Taiwanese in war - time Southeast Asia, and from women's education to peasant

1) The following discussion draws from the annual reports of the NMTH. (https://www.nmth.gov.tw/) accessed September 23, 2026.

movements, and from land ownership reforms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political rights in Taiwan, just to name a few. These intellectual efforts have helped to lay the groundwork for an integrated and multifaceted island history that is different from conventional Chinese, Japanese and Western narratives of Taiwan.[2)]

III. "Building a Museum for Everyone": the Case of the NMTH

In October, 2011, th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NMTH) was formally opened to the public after nearly two decades of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Located in the historic city of Tainan, NMTH's vision is to showcase "Taiwan and its Place in the World" and promote Taiwan's cultural identity through preservation of historical artifacts, dialogues on historical issu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knowledge accessibility. The museum is committed to be a history museum at the national level that focuses o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Taiwan.

Space and buildings

Covering an area of 20 hectares, Museum Park is an expansive recreational area beloved by families and pets alike. The park features many native plant species. In addition to a vast grassy area, it is also home to public art installations, 100-year-old trees, and a scenic lake, not to mention the newly opened Sasulat Library. The Exhibition and Education Building features a lofty atrium that creates an expansive space. The area between each floor is punctuated by connections to the exterior that allow in more natural light and strengthen the dialogue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t this "Museum for Everyone", people of all abilities can experience history and explore Taiwan's cultural history and ecology through several different senses.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The Permanent exhibition entitled "Our Land, Our People" tells a "Taiwan-centered" story with abundant cultural artifacts, realistic landscapes, models of people and objects, multimedia presentations for the audiences. It was partially renovated in 2019 and reopened is 2021 with a new title "Taiwan at the Crossroad" to include new scholarships on indigenous peoples, maritime and global history and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Figure 1)

The Museum also features three special exhibition rooms that has showcased more than 120 different exhibitions since our opening.

The curation teams' endeavor to "tell the stories through artifacts" and communicate actively with

2) See Lung-chih Chang, 2014, "Island of Memories: Postcolonial Historiography and Public Discourse in Contemporary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for History, Culture, and Modernity,2(3), 229-244.

the audience. The topics include cross-ethnic interaction, contemporary issues, new local historical studies, recollections of ordinary people, object biographies, and cultural accessibility. These exhibitions delve into the historical knowledge and life experiences of various ethnic group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provide the audience with more diverse and in-depth explorations of history and culture.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After years of acquisitions and research, NMTH has amassed almost 150,000 artifacts, which highlight Taiwan's historical and cultural evolution, reflect the lifestyles of Taiwan's people, and demonstrate Taiwan's multiethnic culture. The Museum also conduct rapid response collecting to respond timely to contemporary events such as earthquake, social movement, and the COVID-19 pandemic.

The Museum actively promotes prope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practices and shares resources with the public through collection research and disclosure, tours of the open learning repository, artifact preservation workshops, developing products inspired by the collection, providing professional collection management consulting, and assistance with salvaging cultural asse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ince the Museum's earliest planning stages, we have sought out Taiwanese historical materials from overseas, explored Taiwan'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and continue to share resources with museums and academic institutions across the globe. NMTH has held international exhibitions, participated in archival technology exchanges, and implemented educator training. Partners have spanned the world, from England, the USA, the Netherlands, Spain, France, Germany, and Japan.

Education and Local connections

With an emphasis on connection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NMTH implements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cooperative curation, and a collabora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promote efforts to allow public access to museum resources and build local knowledge. The first of their kind in a Taiwanese museum, our Theatrical Tours have become a visitor favorite. Among the backdrop of the permanent collection, guides transform into historical figures and encourage visitors to role-play, touch tactile exhibits, and take part in lively discussions.

Digital and Online Resources

NMTH's collected historical documents, physical artifacts, and audio-visual resources are gradually being added to themed databases and websites to meet research and educational needs.
We provide on-line database services such as the Collections website encompasses almost 150,000 items from the NMTH as well as e-books of historical materials, 3D digitization, and an artifact preservation knowledge base. And the Online Museum offer s information regarding permanent and

special exhibitions, introduces exhibited artifacts, and suggests themed routes through the museum's collection.

In 2021 the NMTH took over the Taiwan Cultural Memory Bank 2.0 proje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The TCMB website serves as a platform for dialogue within society and localities and provides users with interorganizational, cross-database search capabilities and the opportunity to curate their own stories utilizing the on-line tools and exhibition modules. (Figure 2)

IV. "Whose voices?": Doing Public History in the NMTH

Following the trend towards democratization and indigenization, Taiwan has been experiencing a "memory boom" since the 1990s with fast-growing numbers of museums and heritage sites. Collective remembering and the production of heritage is closely related to the new pursuit of Taiwan identity. The once suppressed social memories of local Taiwanese have now transformed into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ndigenization movement and constitute new narratives for official, academic and popular history-making.

The various responses and reactions towards the national identity debate testify to the mingling of nativism, nat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Taiwan's identity debates and public discourses. How to recognize, negotiate and reconcile the complex and often competing memori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for academic and public historians in contemporary Taiwan. The following examples of recent exhibition narratives offer the various ways by which NMTH responded to the contested issue of historical revision and public commemoration.

1. Entangled things, Entangled connections--A NPM, NTM, and NMTH Joint Exhibition (2022)

This exhibition is the first ever collaboration that brought together three major museums in Taiwan, namely the National Palace Museum (NPM), the National Taiwan Museum (NTM), and th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NMTH). By showcasing represe//ntative collections of each museum, the curators display the history and material culture of the three main players in Taiwan's history: the indigenous people (NTM), Han Taiwanese (NMTH), and the Chinese imperial court and officials (NPM). Through contrasts and dialogues, the exhibition also attempts to connect the past with contemporary social life, and in turn, to develop a more diverse and inclusive understanding and imagination of the present. (Figure 3)

2. Co-creating a Community of Water (2023)

This exhibition looks back on a century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hange of river basin in the Southwest Taiwan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Wushantou Rervoir and Chianan Irrigation Waterway built in 1920. The NMTH research team conducted a cross-domain study in 2020-2023 with water resource specialists, local historians and community activists who co-curated the exhibition together. Addressing contemporary water issu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team work presents a new holistic and bottom-up perspective that differs from conventional technological viewpoint. (Figure 4)

3. Transcending 1624: Taiwan and the World (2024)

The year 1624 marks the arrival of the Dutch, the building of Fort Zeelandia and Taiwan's integrated into the Asian-European trading network. This international exhibition retells the island's early modern maritime history from transnational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Combining advanced cultural technology with precious artifacts from the NMTH, Rijksmuseum, and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the curators revisited the context of Taiwan's debut on the world stage and the flow of commodity and people in the maritime network. There was also open space "history classroom" for the audiences to discuss issues of colonization and commemoration with reference to parallel examples in Philippine, Indonesia, and Indigenous Taiwan. (Figure 5)

4. Moving Stories: Stories about "relocation" of indigenous peoples in Taiwan (2024)

This is exhibition a joint effort between NMTH and nine local indigenous museums in southern Taiwan. Showcasing seven stories about the migration and relocating of indigenous tribes during different periods, the curators present different moving stories of ethnic groups and tribes in rural and urban regions. The research team collaborated with tribal elders, village leaders and youth activists in collecting artifacts, reading documents and interpreting oral accounts. These authentic life accounts and historical memories present the multiple voices from the native's viewpoint. (Figure 6)

5. The History behind Three Tears in Borneo(2024)

"Three Tears in Borneo" is an award-winning period drama series released by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PTS). As a collaboration project with the PTS, this special exhibition focuses on Taiwanese POW Prison Camp Guards in the Imperial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NMTH curators explore the complex and nuanced stories of wartime Taiwanese soldiers in southeast Asia by presenting historical document together with TV drama props. The reenactment of war crime tribal helps the audiences to re-imagine their psychological struggle, the deadly uncertainties, and failed longing for home. (Figure 7)

6. Painting from Life: The Story and Times of Chang Chieh and Chen Cheng-po(2025)

This important exhibition retells the tragic history of the 228 Incident of 1947 from a family and personal

perspective. Renowned Taiwanese painter Chen Cheng-po was a pioneer artist who was killed during the incident. His wife Chang Chieh secreted away many of his paintings during the martial law era. NMTH curators adopted the core concept of “painting from life” and employed cultural objects and the surrounding layout to represent Chang Chieh and Chen Cheng-po's life histories. Working closely with the Chen Cheng-po Foundation experts, we hope to convey the vitality and idealism of the painter while featuring the love and resilience of his wife and family to the audiences,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Taiwanese. (Figure 8)

7. Transition: Taiwanese Women on the Move(2025)

The is a sequel to an exhibition on Taiwan’s women history in 2012. The curators choose the tal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igration of Taiwanese women and put emphasis on their mobility and agency against different physical and societal constraints. In view of the complexity of gender, the exhibition also revisits the stories of lesbian Taiwanese during colonial and modern eras. We hope this exhibition offers visitors a chance to rediscover the women of Taiwan, to awaken their own potential, and to serve as a guide and inspiration for the next stages of their own journeys. (Figure 9)

8. Beyond Borders, On an Island: The Stories of Non-Citizen Residents in Modern-day Taiwan (2026)

This special exhibition is the latest event that unveiled in September, 2026. The curators have been working more than two years and overcame various difficulties home and abroad. The term “non-citizen residents” refers to people who are not recognized as nationals by any country or to individuals who have nationalities, but due to politics, war, institutional issues or other factors, are unable to receive protection from their country of origin. Among those who have stayed, some have been placed “beyond borders” in terms of law and institutions. By carefully showcasing the stories of people from Tibet, Myanmar, Hong Kong, Ukraine, and other countries who have relocated to Taiwan in recent history, we would like to invite the audiences to rethink the image and challenges of a “democratic and plural Taiwan.” (Figure 10)

V. Conclusion: Envisioning a Museum for the Future

Since its opening in 2011, the NMTH has been endeavoring to tell a “Taiwan-centered” story of the land and the people and pride herself to be “a museum for everyone”. As a site of Taiwan’s collective memory, the museum establishes a rich collection from people’s everyday life and showcases the plural culture of contemporary society. Upholding the professionalism of museology and collaborating closing with official, academ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e museum staffs work hard to provide quality and sustainable service to the audiences. Since the organizational upgrading in

2021, we adopted the new vision of “Taiwan in the world” with the mission to tell the island’s story to international audiences.

As a young and energetic cultural institution, the multi-disciplinary NMTH staff stive to integrate the aesthetics of “temple” component with the activism of the “Forum” model. Our Permanent exhibition gallery offers in-depth historical engagement of general history of the island nation. The special exhibition halls address the multiple and dynamic aspects of people’s social life. To be sure, the “museum historiography” of the NMTH is an organic practice of rigorous academic research, open-ended dialogue,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object-driven" storing-telling, and interactive accessible facilities. With the kick-off of landmark expansion project in summer of 2026, the museum will continue to transform and grow with the Taiwanese society in a fast-changing world.

Figure 1



Figure 2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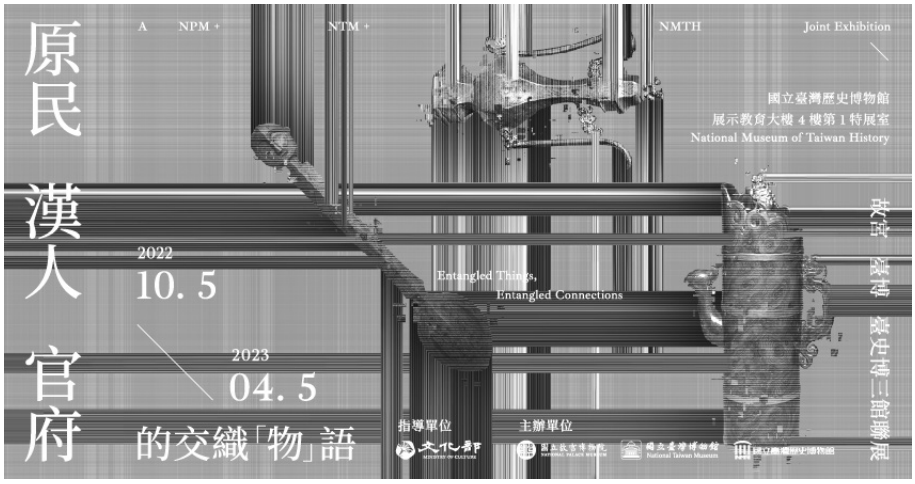


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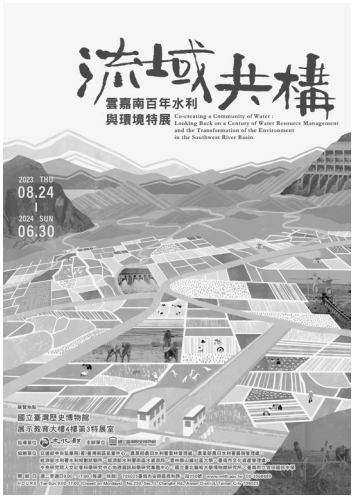


Figure 5



Figur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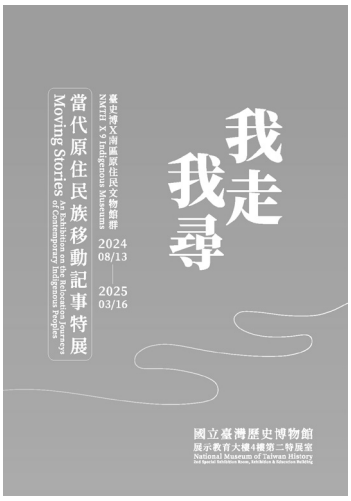


Figur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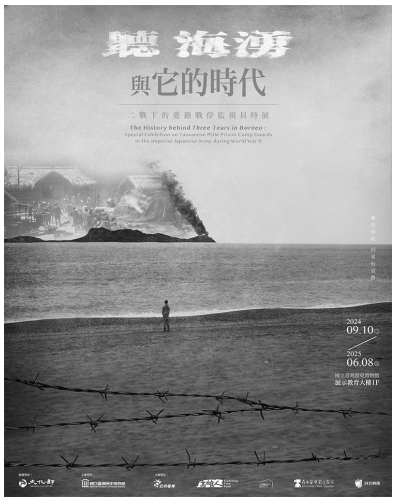


Figure 8



Figure 9



Figure 10



모두를 위한 박물관 만들기:

대만 현장 보고서

장룽즈 (Lung-chih Chang)
중앙연구소 (Academia Sinica)

모두를 위한 박물관 만들기: 대만 현장 보고서

(Building a Museum for Everyone: A Field Report from Taiwan)

장룽즈 (Lung-chih Chang)
중앙연구소 (Academia Sinica)

I. 서론: 박물관학에서 '신전(Temple) 대 광장(Forum)' 논쟁 다시 보기

50여 년 전, 캐나다의 박물관학자 던칸 캐머론(Duncan F. Cameron)은「박물관인가, 신전인가 아니면 광장인가? (The Museum, a Temple or the Forum?)」라는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박물관의 정체성 위기를 다루면서 캐머론은 박물관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두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하나는 엘리트 미학에 기반해 성스러운 유물을 보존하는 '뮤즈의 신전(Temple of the Muses)'모델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유물을 수집하고 현대의 쟁점에 대한 대중의 토론을 촉진하는 '아이디어의 장(Platform of Ideas)'모델이다. 1980년대 신박물관학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유물 중심의 전시 및 기획은 점차 관람객과의 소통, 지역사회 참여, 다중적 관점을 중시하는 사회적 대응 행위로 옮겨갔다(Cameron 1971). 이후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운영자들은 현대 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거의 3년에 걸친 치열한 논쟁과 협상 끝에 2022년 8월, 국제박물관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프라하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다음과 같은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공식 채택했다.

'박물관은 사회에 봉사하는 영구 비영리 기관으로서, 유형 및 무형의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하고 전시한다. 대중에게 개방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박물관은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박물관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 즐거움, 성찰 및 지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포용성, 다양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핵심어를 포함한 이 새로운 정의는 지역사회 참여와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 특히 성찰과 지식 공유의 기능을 더욱 강조한다.

어떻게 역사박물관은 대만의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가? 어떻게 박물관은 사회의 집단기억과 일상의 경험을 보존하고 전시하는가? 어떻게 박물관의 소장품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공공기관, 학술기관,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관람객에게 질 높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나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립대만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국립대만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보고와 참여관찰을 소개하고자 한다.[1)]

II. 계엄령 이후 대만의 섬 역사 탐색: 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Institute of Taiwan History)의 사례

1987년 7월 15일, 대만은 공식적으로 계엄령을 해제하고 38년에 걸친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했다. 민주화와 토착화(본토화 또는 대만화)가 결합되면서 계엄령 이후 대만에서는 대만 중심의 역사서술이 등장했다. 한때 정통 중국사의 종속적인 주제로 여겨졌던 대만사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당한 학문 분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크게 발전했다.

대만 중심의 새로운 역사서술이 이룬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사료집의 편찬이다. 중앙연구원, 국립대만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국립대만도서관(National Taiwan Library)과 같은 주요 기관들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기록의 번역, 청대 궁중 상주문과 지방지의 디지털화, 일본 대만총독부 기록물의 공개, 1947년 228 사건에 관한 공식 보고서와 구술사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했다.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제도화와 학문 분야의 구축이다. 2004년, 20년에 걸친 준비 끝에 중앙연구원에 대만사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국립대만사범대학교(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와 국립정치대학교(National Cheng-Chih University)에도 대만사가 대학원 과정으로 새롭게 개설되었다. 대만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져서 미국(1994년), 일본(1998년), 유럽(2004년)에서는 학술단체가 설립되었다.

오늘날 대만사 연구는 식민지·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민족사, 해양사, 환경사 등 다양한 갈래로 이루어진다. 역사학자들은 청나라 시대의 평지 원주민부터 19세기 서양 여행가, 17세기 대만 북부의 스페인인부터 전시 동남아시아의 대만인, 여성 교육부터 농민운동, 토지 소유권 개혁부터 대만의 근대적 참정권 도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으로 중국·일본·서구가 그려온 기존의 대만 서사와는 다른,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섬의 역사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2)]

1) 이하의 논의는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의 연례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https://www.nmth.gov.tw/), 2026년 9월 23일 접속

2) 장룽즈(Lung-chih Chang), 2014, 「기억의 섬: 현대 대만의 탈식민주의 역사서술과 공적 담론」('Island of Memories: Postcolonial Historiography and Public Discourse in Contemporary Taiwan'), 『국제 역사·문화·근대성 저널』(International Journal for History, Culture, and Modernity), 제2권 제3호, 229–244쪽 참조.

III. '모두를 위한 박물관 만들기':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의 사례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약 20년에 걸친 준비와 건설 끝에 2011년 10월, 정식으로 대중에게 문을 열었다. 역사도시 타이난에 위치한 박물관은 역사 유물의 보존, 역사적 쟁점에 대한 대화, 국제 협력, 지식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대만과 세계 속의 대만(Taiwan and its Place in the World)'을 보여주고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역사적 대만과 현대 대만에 초점을 맞춘 국가 차원의 역사박물관을 지향한다.

공간과 건축

20헥타르에 달하는 박물관 공원은 가족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사랑받는 넓은 휴식 공간이다. 공원에는 다양한 자생 식물이 자라고 있다. 드넓은 잔디밭뿐 아니라 공공미술 작품, 100년 된 나무, 아름다운 호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사술랏 도서관(Sasulat Library)도 문을 열었다. 전시·교육관은 높은 아트리움을 갖추어 탁 트인 공간을 조성한다. 각 층 사이의 공간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개방부가 있어 더 많은 자연광이 들어오고 건축물과 자연환경과 더욱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이 '모두를 위한 박물관'에서는 장애 유무나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러 감각을 통해 역사를 체험하고 대만의 문화사와 생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상설전시와 특별전시

'우리 땅, 우리 사람들(Our Land, Our People)'이라는 제목의 상설전시는 풍부한 문화유물, 사실적으로 재현한 경관, 사람과 사물의 모형, 관람객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대만 중심'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 전시는 2019년에 부분적으로 개편되었다가 '기로에 선 대만(Taiwan at the Crossroad)'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2021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새 전시에는 원주민, 해양사와 세계사, 현대 사회운동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포함되었다. (그림 1)

박물관에는 개관 이후 120개가 넘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 세 개의 특별전시실도 있다. 전시 기획팀은 '유물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힘쓰며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전시 주제는 민족 간 상호작용, 현대의 쟁점, 새로운 지역사 연구, 평범한 사람들의 기억, 유물의 생애, 문화적 접근성 등이다. 이러한 전시는 다양한 민족 집단의 역사적 지식과 삶의 경험을 여러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루며, 관람객에게 역사와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소장품과 보존

수년간의 수집과 연구를 거쳐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약 15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 유물들은 대만의 역사·문화적 발전을 보여주고, 대만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며, 대만의 다민족 문화를 보여준다. 박물관은 지진, 사회운동,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동시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 수집도 실시한다.

박물관은 적절한 문화유산 보존 관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장품 연구 및 공개, 개방형 학습 저장소 투어, 유물 보존 워크숍, 소장품을 이용한 상품 개발, 전문적인 소장품 관리 자문, 문화자산 구조 지원 등을 통해 대중과 자원을 공유한다.

국제 협력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외에 있는 대만 역사 자료를 찾아왔으며, 대만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고, 전 세계 박물관 및 학술기관과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국제 전시를 개최하고, 기록관리 기술 교류에 참여하며, 교육자 연수도 실시해 왔다. 협력 기관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있다.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를 중시해 문화유산 보존, 공동 기획, 협력적 학습 환경을 추진하고, 대중이 박물관 자원에 접근하고 지역의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장려한다. 대만 박물관 가운데 최초로 연극형 투어(Theatrical Tours)를 도입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투어는 상설 소장품을 배경으로 하며 안내자가 역사적 인물로 변신해 관람객에게 역할극을 권하고, 촉각 전시물을 직접 만지며 활발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디지털 및 온라인 자원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이 수집한 역사 문서, 실물 유물, 시청각 자료는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에 점점 추가되며 연구와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박물관은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의 소장품 약 15만 점을 망라해 보여주는 소장품 웹사이트를 비롯해 역사 자료 전자책, 3D 디지털화 자료, 유물 보존 지식 기반 등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박물관은 상설전시와 특별전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유물을 소개하며,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해 주제별 관람 동선을 제안한다.

2021년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문화부의 대만 국가문화기억고 2.0(Taiwan Cultural Memory Bank 2.0) 사업을 인수했다. 대만 국가문화기억고 웹사이트는 사회와 지역 내 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기관 간·데이터베이스 간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온라인 도구와 전시 모듈을 활용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IV. '누구의 목소리인가?':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의 공공역사 활동

민주화와 토착화의 흐름이 일면서 대만에서는 1990년대부터 박물관과 유적지가 빠르게 증가하며 '기억의 붐(memory boom)'이 일어났다. 집단적 기억 형성과 유산의 생산은 새로운 대만 정체성에 대한 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때 억압받았던 대만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기억은 이제 토착화 운동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으며, 공식 역사, 학술 역사, 대중 역사 구축을 위한 새로운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대응을 살펴보면 대만의 정체성 논쟁과 공적 담론에 토착주의, 민족주의, 세계화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종종 서로 충돌하는 기억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조정하고, 화해시킬 것인가는 오늘날 대만의 학술 역사학자와 공공 역사학자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다음의 최근 전시 서사 사례들은 역사 수정과 공적 기념이라는 논쟁적 문제에 대해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이 대응해 온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1. 연결된 사물, 연결된 관계: 국립고궁박물원 · 국립대만박물관 · 국립대만역사박물관 공동전시(2022)

이 전시는 대만의 3대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원, 국립대만박물관,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이 처음으로 협력한 전시이다. 각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선보임으로써 큐레이터들은 대만 역사의 주요한 세 주체인 원주민(국립대만박물관), 한족계 대만인(국립대만역사박물관), 중국 황실과 관료(국립고궁박물원)의 역사와 물질문화를 보여준다. 전시는 대비와 대화를 통해 과거와 현대의 사회 생활상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고자 했다. (그림 3)

2. 물의 공동체 함께 만들기(2023)

이 전시는 1920년에 건설된 우산터우 저수지(Wushantou Reservoir)와 자이난 관개수로(Chianan Irrigation Waterway)를 중심으로 대만 남서부 유역에서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변화를 되돌아본다. 국립대만역사박물관 연구팀은 2020~2023년 수자원 전문가, 지역 역사학자, 지역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학제간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들과 함께 전시를 공동 기획했다. 이 작업은 현대의 수자원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기존의 기술 중심적 접근을 넘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접근을 제시한다. (그림 4)

3. 1624를 넘어: 대만과 세계(2024)

1624년은 네덜란드인이 대만에 도착하고 젤란디아 요새(Fort Zeelandia)를 건설한 해이다. 또한 대만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 네트워크에 편입된 해이기도 하다. 이 국제전시는 초국가적·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대만의 근세 해양사를 새롭게 서술한다. 국립대만역사박물관, 네덜란드 국립미술관(Rijksmuseum), 일본역사민족박물관(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의 귀중한 유물과 첨단 문화기술을 결합해, 대만이 세계 무대에 등장한 맥락과 해양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다시 살펴본다. 또한 전시장에는 '역사 교실'이라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원주민 사례를 참고하면서 식민화와 기념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5)

4. 이주 이야기: 대만 원주민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2024)

이 전시는 국립대만역사박물관과 대만 남부의 9개 지역 원주민 박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시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원주민 부족의 이주와 강제이주에 관한 일곱 가지 이야기를 선보이며, 큐레이터들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여러 민족 집단과 부족의 다양한 이주 이야기를 제시한다. 연구팀은 부족 원로, 마을 지도자, 청년 활동가들과 협력해 유물을 수집하고 문헌을 살펴보며 구술 기록을 해석했다. 이러한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역사적 기억은 원주민의 관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림 6)

5. 보르네오의 세 눈물(Three Tears in Borneo) 뒤에 숨은 역사(2024)

'보르네오의 세 눈물'은 대만 공공 텔레비전 방송(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이 제작·방영한 시대극 시리즈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대만 공공 텔레비전 방송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 특별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군에 소속되어 포로수용소 경비병으로 복무했던 대만인들을 조명한다. 국립대만역사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역사 기록과 TV 드라마 소품을 함께 전시해 동남아시아에서 복무했던 대만인 병사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를 탐구한다. 전범 재판의 재현은 관람객이 그들의 심리적 갈등, 생사를 가르는 불확실성, 간절히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이룰 수 없었던 심정을 다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6. 삶을 그려낸 그림: 장제(Chang Chieh)와 천청보(Chen Cheng-po)의 삶과 시대(2025)
이 전시는 1947년 228 사건의 비극적 역사를 한 가족과 개인의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요한 전시다. 저명한 대만 화가 천청보는 228 사건 당시 살해된 선구적 예술가였다. 그의 아내 장제는 계엄령 시기에 남편의 그림 상당수를 몰래 보관했다. 국립대만역사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삶을 그려낸 그림'이라는 핵심 개념을 채택하고 문화유물과 주변 공간 구성을 활용해 장제와 천청보의 생애를 재현했다. 천청보 재단(Chen Cheng-po Foundation)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화가가 지녔던 생명력과 이상주의를 전달하는 한편, 그의 아내와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회복력을 특히 대만의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그림 8)

7. 전환: 이주하는 대만 여성들(2025)
이 전시는 2012년에 열린 대만 여성사 전시의 후속 전시이다. 큐레이터들은 대만 여성들의 국내외 이주 이야기를 선택하고,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여성들의 이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젠더의 복잡성을 고려해 이 전시는 식민지 시대와 현대에 살았던 대만 레즈비언들의 이야기도 다시 살펴본다. 이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대만 여성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길잡이와 영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9)

8. 국경 너머, 섬에서: 현대 대만의 비시민권 거주자 이야기(2026)
이 특별전시는 2026년 9월 공개된 가장 최근의 전시이다. 전시를 위해 큐레이터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작업했으며 국내외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했다. '비시민권 거주자'라는 용어는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또는 국적은 있지만 정치, 전쟁, 제도적 문제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만에 머무는 동안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국경 너머'에 놓여 있다. 최근 대만으로 이주한 티베트, 미얀마, 홍콩, 우크라이나 및 기타 지역 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선보임으로써, 관람객들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대만'이라는 이미지와 그 과제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 10)

V. 결론: 미래의 박물관을 그리다

2011년 개관 이후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대만의 관점'으로 대만의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만의 집단기억을 담은 장소로서 박물관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온 풍부한 소장품을 구축하고 현대 사회의 다원적 문화를 보여준다. 박물관학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학술기관, 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박물관 직원들은 관람객에게 질 높고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조직 개편 이후에는 '세계 속의 대만'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대만의 이야기를 국제 관람객에게 전하는 것을 박물관의 사명으로 삼았다.

젊고 활력 있는 문화기관인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며 '신전' 모델의 미학과 '광장' 모델의 실천성을 결합하고자 노력한다. 상설전시관에서는 섬나라 대만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다. 특별전시관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상이 지닌 다양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다룬다.

국립대만역사박물관의 '박물관 역사서술'은 엄밀한 학술 연구, 열린 대화, 첨단 디지털 기술, '유물 중심' 스토리텔링, 상호작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시설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2026년 여름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박물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대만 사회와 함께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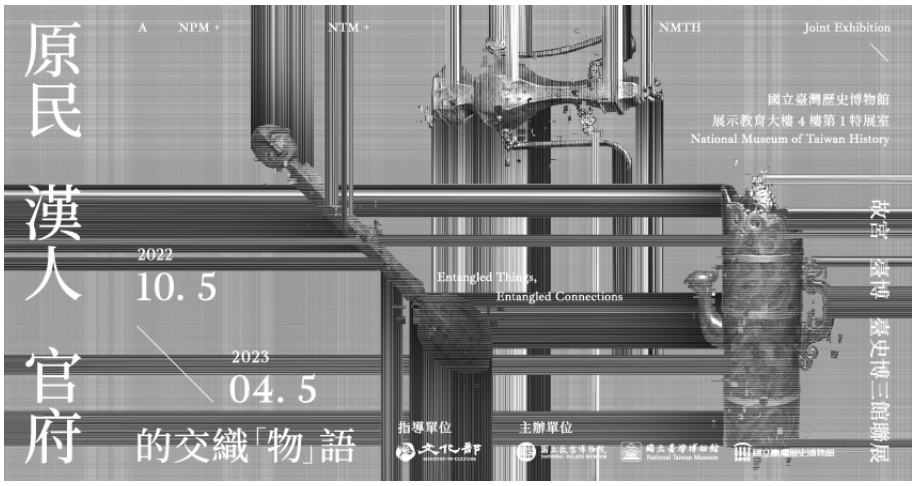

原民 漢人 官府
的交織「物」語
2022
10. 5
2023
04. 5
A NPM + NTM + NMTH Joint Exhibition
國立臺灣歷史博物館
展示教育大樓 4 樓第 1 特展室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Entangled Things,
Entangled Connections
故宮 臺博 臺史博三館聯展
指導單位
主辦單位

그림 4


流域共構
雲嘉南百年水利
與環境特展
Co-creating a Community of Water :
Looking Back on a Century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nvironment
in the Southwest River Basin
2023 THU
08.24
2024 SUN
06.30
國立臺灣歷史博物館
展示教育大樓4樓第3特展室

그림 5


16
路
24
Transgrading
世界島臺灣
Taiwan and the World
世界の島台湾
2024 2/1-6/30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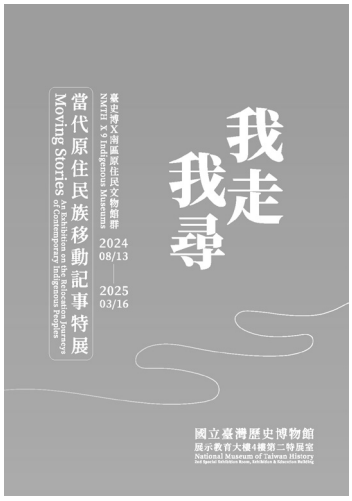

我走
我尋
臺史博X南區原住民文物館群
NMTH X 9 Indigenous Museums
當代原住民族移動記事特展
Moving Stories
An Exhibition on the Relocation Journeys of Contemporary Indigenous Peoples
2024
08/13
2025
03/16
國立臺灣歷史博物館
展示教育大樓4樓第二特展室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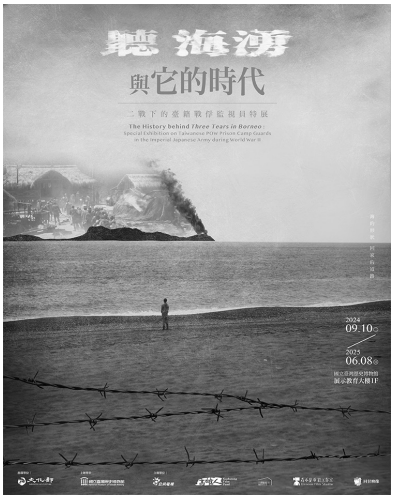

聽海濤
與它的時代
二戰下的臺籍戰俘監視員特展
The History behind Three Tears in Borneo :
Special Exhibition on Taiwanese POW Prison Camp Guards
in the Imperial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2024
09.10
2025
06.08
國立臺灣歷史博物館
展示教育大樓1F

그림 8


130th
陳澄波
百三紀念
寫生的故事
Painting
from Life
張捷、陳澄波
與其時代風景特展
The Story and Times of
Chang Chieh and Chen Cheng-po
—A Special Exhibition
2025
2026
4.29-3.1
國立臺灣歷史博物館

그림 9


DEPARTURES
TRANSFER
GATE 1-16
轉機
Transition
臺灣女子移動紀事
Taiwanese Women
on the Move
2025
12.23
2026
08.30
國立臺灣歷史博物館
展示教育大樓4樓 第1特展室

그림 10


邊界之外
島嶼之中
BEYOND BORDERS, ON AN ISLAND
當代臺灣非公民
的故事 特展
The Stories of Non-Citizen Residents
in Modern-day Taiwan
Special Exhibition
2026
9.15 - 4.11
2027
國立臺灣歷史博物館
展示教育大樓4樓 第1特展室

How Do Community Memories Become Historical Sources?

Community Documentation and Living Heritage

Terra M. Barret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Planner, Heritage NL
St. John's, Newfoundland and Labrador, Canada

How Do Community Memories Become Historical Sources? Community Documentation and Living Heritage

Terra M. Barret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Planner, Heritage NL
St. John's, Newfoundland and Labrador, Canada

Heritage NL (legally known as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is a crown corporation that was established in 1984 with a mandate to preserve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Following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reaty's entry into force in 2006, Heritage NL established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office in 2008. In 2012, Heritage NL was accredited 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four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ewfoundland and Labrador is the easternmost province of Canada, situated in the country's Atlantic region. It is a province with a rich living heritage, with both Indigenous and settler populations. The province comprises the island of Newfoundland, and the mainland portion of the province, Labrador. Newfoundland is the unceded, traditional territory of the Beothuk and the Mi'kmaq. The Beothuk were Algonkian-speaking hunter-gatherers whose culture has been lost (Pastore, 1997a). Ktaqmkuk, the Mi'kmaq word for the island, is the home of Miawpukek First Nation of Conne River and the landless band, Qalipu First Nation (Cape Breton University, 2026). Labrador is the traditional and ancestral homelands of the Innu of Nitassinan, the Inuit of Nunatsiavut, and the Inuit of NunatuKavut (Pastore, 1997b).

Early European contact included Basque, Portuguese, Dutch, and Spanish fishers and sailors who visited the shores early in the post-contact period while early colonists were mostly of English and Irish ancestry (Collier, 2011; Higgins, 2009). Later waves of settlement included colonists from France and Scotland, followed by immigrants from various corners of the world including early immigration from (but not limited to) Lebanon and China as well as Jewish immigrants from Eastern Europe (Janzen, 1998; Higgins, 2009; Higgins, 2008a).

The province has a centuries long connection to the North Atlantic cod fishery, and much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ces in the province developed in small fishing villages along the coast. The province has just under 550,000 people dispersed along 25,458km of coastline and spread over 405,720km^2 of land (Government of Canada,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a;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6). Today almost half of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on the Avalon Peninsula where the capital city, St. John's, is located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b).

This reliance on the cod fishery meant that dwindling codfish stocks combined with a sudden cod moratorium in 1992 put 30,000 people out of work overnight and ended almost 500 years of cod fishing in the province. The collapse of the cod fishery put approximately 12% of the population out of work (Higgins, 2008b). This created a massive shift in the provin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led to out-migration and large-scale unemployment.

In order to counteract the potential negative impact to loc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released its Provincial Cultural Strategy, Creative Newfoundland and Labrador. This 2006 document outlined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urrounding the transmissions and safeguarding of the province's living heritage. It set out objectives and strategies which laid the base for the establishment of Heritage NL's ICH Office in 2008.

The goal of the ICH office is to safeguard the provin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is is achieved through policies that support initiatives that record, celebrate, and transmit living heritage and build bridges between diverse cultural groups within and outside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 goal of this work is to create sustainable communities with ac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uthor, Terra Barrett,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 Planner with Heritage NL and works to document and celebrate the provin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thods and Tools Used to Docume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our heritage includes historic buildings, berry picking, ballad singing, basket making, mummering, and much mor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rovince is dynamic and brings together the diverse cultural groups who live here. In order to preserve this important knowledge, Heritage NL developed a number of methods and tools to work with communities to identify, document, and share oral histories, local knowledge, and living heritage. These include:

-community meetings (February 2023s);
-cultural mapping (People, Places, Culture Workshops);
-collection of public photographs (Scanning Parties);
-oral history project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jects.

Memory Mug Ups



A Memory Mug Up is an informal story sharing session for community members, where people gather, have a cup of tea, and share memories. The goal of the program is to help participants share and preserve their stories.

To host a Memory Mug Up, we gather community members and serve light refreshments. The important part of the Memory Mug Up is to get people sharing stories. To begin we ask everyone to share their full name as well as a story related to one of their names. This is a way to relax the group and get people thinking about and contributing their memories.

Once everyone has shared a story we moderate the group to ensure everyone has the opportunity to speak, and to keep the conversation going with open ended questions. When focusing on a particular place or topic, maps or props can be helpful to prompt people's memories. For example, when working with the community of Mount Pearl on dance memories from the 1950s we brought in photos, a Coca-Cola bottle, a cocktail shaker, and fashion accessories from the era such as a brooch and a pair of shoes.

A Memory Mug Up is an excellent way to discern who are the community story tellers and who you should do a follow up interview with. We often end the session by sending around a sign up sheet for participants who would be interested in doing a one-on-one oral history interview. This event is a great start for a community that is interested in developing a project on their heritage–particularly a project around oral history (Barrett, 2017).

People, Places, Culture Workshops

In a People, Place, Culture Workshop a community maps their cultural assets. This includes collecting, recording, and analyzing local information. The workshop asks every person to describe the cultural resources of the community, and then plot these assets across three maps. The first map for elders and tradition bearers, the second for significant places, and the third for cultural traditions and practices. This creates an inventory of resources that can be utilized for future development in the community. Communities decide which cultural practices are important enough to documen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province is what helps create a sense of place and contributes to local identity which is an important resource for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the workshop Heritage NL meets with the community to review the cultural assets and create a plan to preserve and leverage these assets to keep the community cultur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viable. The final product of a People, Places Culture Workshop is a report which lists their cultural assets and suggests several options to use their heritage for community development. This report includes case studies where communities in other areas of the province, the country, or the world have used similar cultural resources in creative ways. Heritage NL will work with the community to identify possible tools (oral history workshops, memory mug ups, heritage skills inventories) or resources (grants and funding opportunities) to use to move forward with their community's development (Jarvis and Barrett, 2017).

Scanning Parties



A Scanning Party is an informal photo collection session for heritage groups, small museums, archives, or town councils. Community members come to a Scanning Party with their own photographs to be scanned at the event and then taken home with them the same day. This means Heritage NL and community partner groups are not amassing physical collections which must be maintained, instead, they are creating a digital copy. A community is not limited to photographs–recipes, documents, slides, negatives, or anything else that will fit on a flatbed scanner can be digitized. The goal of a Scanning Party is to help digitize and preserve community photographs as well as make them accessible to community members.

To run a Scanning Party we set up one or more scanning stations. Each station includes scanning equipment, access to an electrical outlet, two staff or volunteer members, and consent forms. One of the staff scans the materials while the other collects the information about each item. We look to collec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his includes the location, date, and people in the photograph as well as who took the photo.

Communities often use a scanning party as a first tool to get community members invested in their local heritage. Following the Scanning Party, all scans of the material collected are placed on a digital archive which is freely and publicly accessible. Participants also receive a digital copy of their scanned material. A copy is also given to the community group which often uses the material for exhibitions, public programming, and community engagement (Barrett, 2021).

Oral History Projects

Since 2008, Heritage NL has placed importance on capturing the provinc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oral history interviews. An oral history interview is a digital record of a person's stories and memories. These fall into two main categories: life history and topic interviews. Life history interviews

are focused on one person and are a record of their story from where they were born and grew up to where they are today. A topic interview is great for craftspeople, occupational folklore or an interview about a particular place, topic, or event.



Heritage NL has placed over 2,100 audio interviews, and 445 video interviews on the Digital Archives Initiative. These include projects focused on industries (agriculture, fishery, forestry, high steel, nursing), built heritage (root cellars, heritage carpentry, wells and springs), crafts (baskets, boats, pillow tops, pottery, rug hooking, woodworking), performing arts (concerts, dance, storytelling), and social practices (bonfire night, children's games, Christmas traditions, skateboarding).

Heritage NL has also completed a number of oral history focused projects for specific events like Covid-19, or around specific groups like seniors. Both the Collective Memories Project, and Oral History Roadshow focused on creating a venue for seniors and community members to come together to share their experiences, memori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18).

Case Study: Oral History Roadshow

The Oral History Roadshow was an initiative that invited seniors to record their stories and memories for archiving and sharing. It saw Heritage NL travel to 10 communities to host Oral History Nights, conduct follow up oral history interviews, and create a series of community history booklets. These included oral history projects on folk cures, crafts, jukeboxes, shops, cottage hospital memories, and goats.

The Oral History Roadshow kick off for each community was a Memory Mug Up based on a theme identified by the community. For example in New Perlican, a theme of goat husbandry was identified. This meant the first oral history night or mug up was "Goat Tea & Other Animal Tales". After the two hour mug up, Heritage NL organized 20 one-on-one oral history interviews with community members around goats. These interviews focused on keeping goats, using goats for milk and meat, having goats haul wood and water, and some folklore related to goats. All of these interviews were tape-logged, and excerpts of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This material was then organized thematically into a community booklet which was distributed at a book launch in the community. This process was repeated in 10 different communities across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 project was short-listed for the Governor General's History Award and received an honourable mention for Excellence in Community Programm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jects



Since 2008, Heritage NL has led a number of major community bas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jects. All of these projects involve identifying the community stakeholders and meeting with the community directly to identify what aspects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significant enough to develop a project around. Two examples of projects that have gone on to have major community impact are the Mummers Festival and the Craft at Risk project.

Case Study: Mummers Festival

Mummers (also known as jannies, darbies, oonchicks, fools, nalajuit) are disguised people who visit during the Christmas season. Mummering is a tradition that has roots in both England and Ireland, and shares similarities to many other masking traditions around the world.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re are many regional variations but the best known is the house-visit. This is where mummers go visiting from door-to door during the 12 days of Christmas (December 26th-January 6th). Historically, other styles of mummering found in the province include mummers' plays, and mummers' parades.

In 2009, Heritage NL partnered with the Folklore Department of Memorial University to launch the first Mummers Festival. The goal was to research and develop a folklife festival around mummering that would continue for years to come. The initial festival included 16 free community events including workshops on particular regional traditions (hobby horse, wren sticks, mummers' play) and culminated in the first annual Mummers Parade. In 2010, a volunteer community group ran the festival, and in 2011 the group incorporated as a non-profit (Mummers Festival Inc., 2026). This coming 2026 Mummers Festival marks the festival's 18th year.

The Mummers Festival Inc. has won several awards in heritage and tourism since 2009 including the 2015 Event of the Year from the City of St. John's, the 2022 Tourism Excellence Award from the City of St. John's Applause Awards, the 2023 Excellence Award from Event Atlantic for Event of the Year with a Budget less than $100,000, and the 2024 Manning Award for Outstanding Heritage Organization. In 2024, Mummers Festival received the inaugural Premier's Medals for Arts, Heritage, Sport and Recrea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province's heritage.

The festival has grown and changed over its 18 year history but the initial goals remain the same: promote the continuation and evolution of mummering, equip the public with skills and knowledge

about mummering, and encourage the tradition outside of the two-week festival (Mummers Festival Inc., 2026). The festival is one of the best-known winter festivals in the province and draws crowds of several thousand participants each year. The success in the festival depends on continued community interest, ownership, and stewardship of the festival and the mummering tradition.

Case Study: Craft at Risk



In 2019, Heritage NL partnered with the Craft Council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to research and develop a Craft at Risk list for the province. This work was based on the UK Radcliffe Red List of Endangered Crafts. A survey was developed to assess craftspeople, makers, builders, and the general public's thoughts and concerns on traditional craft in the province. The survey was sent to all Craft Council members, local craft organizations across the province, and posted online (social media, newsletter, website). Three in-person public sessions were held at the Wesley Gosse Memorial Heritage Museum in Spaniard's Bay, the Anna Templeton Center in St. John's, and the Wooden Boat Museum in Winterton. The goal of the public sessions was to initiate a conversation on craft and spread word about the project.

The survey asked participants to list the craft they were reviewing. It then included questions on the current number of makers (professional, series amateur, leisure); the main players (individual makers, businesses, support organizations); and the viability for each craft. This includes questions around the issues the craft faces, any initiatives that exist to support the craft, how many craftspeople are required to transmit the skills to the next generation, and how endangered the craft is as well as the reasoning for assessing the risk level.

Some of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encountered during the research included ensuring there was a diverse geographic, thematic, and gendered response. We reached out to specific craft groups in Labrador to make sure there was representation from both the mainland and island parts of the province. We also aimed to connect with a wide group of crafters so we had representation from textile artists, woodworkers, Indigenous crafts, and industrial trades. In Canada, the use of the word craft often signifies women's work. In choosing the word craft, we wanted to highlight traditional skills, knowledge, and trades. So we made sure to include crafts that were practiced by both genders, and to reach out directly to trade colleges and industry networks.

After the survey and public sessions, the community input was compiled and reviewed. Based on the response from craftspeople and community members the crafts were placed in one of four categories

of risk: Extinct (no longer practiced); Critically Endangered (at series risk of no longer being practiced); Endangered (has current practitioners but faces concerns of ongoing viability); and Currently Viable (in a healthy state).

Following this research, Heritage NL launched the Heritage NL Craft at Risk List 2021. The goal was to assess the current viability of traditional crafts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 Craft at Risk List is a living document which aims to monitor the viability of traditional crafts and knowledge in the province (Heritage NL, 2021). There have been updated lists released in 2024 and 2026.

Following the release of the 2021 list,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ition-bearers to the transmission of craft, Heritage NL developed a grant program designed to pass on these skills at risk. The Heritage NL Mentor-Apprentice Program was a one-on-one immersion program that provided funding up to $10,000 to support the teaching of endangered crafts and skills from an established mentor to an apprentice craftsperson or tradesperson. In order for the mentorship to be funded, the craft or skill had to be listed as either critically endangered or endangered on Heritage NL's Craft at Risk List. A total of 61 people from around the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Mentor-Apprentice Program, including pairs who worked on birch brooms, spruce root baskets, komatik making, and wea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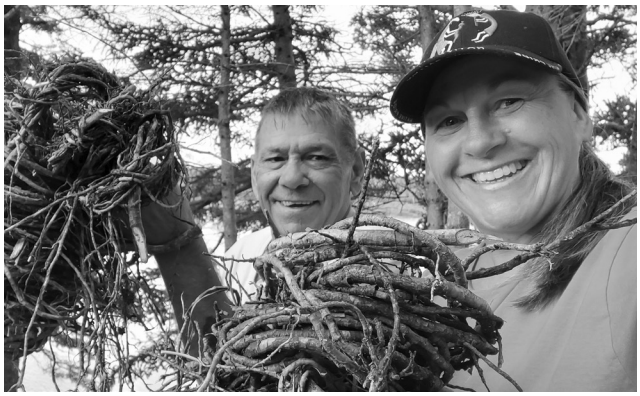
In addition to the Mentor-Apprentice Program, Heritage NL ran the Heritage Skills Training Program over a two-year period and offered more than 65 training events with 30 instructors and more than 1,000 participants. This training program worked with community members and craftspeople throughout the province to deliver interactive, introductory workshops on historic skills. The Craft at Risk project won the 2023 Governor General's History Award for Excellence in Community Programming.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Craft at Risk project was to documen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raditional crafts. Over 20 historic skills were documented by photography, video, and oral history interviews; 35 craft oral history podcast episodes were completed; and three documentary videos were filmed focusing on letterpress printing, weaving, and birch broom making. Additional short form videos were published on Heritage NL's social media showcasing a further seven crafts. All materials were placed on an online digital archive (Heritage NL, 2023).

The interest in both the Craft at Risk List and the Heritage Skills Training Program has led to two exhibitions focused on traditional crafts. This includes a 2024 Craft at Risk exhibition at the Craft Council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Gallery which featured the work of 19 participants of the Mentor-Apprentice Program. This exhibition was curated by Heritage NL and showcased a full sized komatik (winter sled) and wooden window alongside seal-skin mittens and spruce root baskets. In August 2026, The Rooms Provincial Museum collaborated with Heritage NL to open the Craft at Risk exhibition. This exhibition highlights crafts in each category of risk (extinct,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 currently viable), and is accompanied by a series of Craft at Risk workshops on basket making, rug hooking, and weaving. These workshops are being funded as part of the John Bragg Award.

Identifying, Documenting, Transmitting, and Shar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ach of the methods and tools listed above, Heritage NL works with a community partner. This is the main part of the work that we do. We help communities identif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important to them and pinpoint the ways they can safeguard that ICH. Partnering with the community including heritage organizations, archives, museums, municipal groups, and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is difficult but incredibly important.

In order to find community partners we are incredibly open about what we do, and how we do it. We maintain an active social media presence (Blogger, Facebook, Instagram, Google, LinkedIn) and a newsletter where we share what we are up to. This includes posting updates when we are on the road across the province, when we begin new projects, and when we have a final product. We also prioritize community workshops. Whenever possible these are low to no cost workshops with minimal barriers to entry. This allows us to travel across the province and meet community members directly. At our public workshops, we request feedback. This includes suggestions on what the community would like to see moving forward. We use this feedback to plan for future events and workshops.

In addition to sharing updates on the work that we do we like to develop and share community tools. This includes the aforementioned Memory Mug Up, People Places and Culture Workshops, and Scanning Parties which each have a dedicated how-to document that is freely accessible via our website. We also have an oral history how-to guide on our blog with steps to consider when planning an oral history project, and links to suggested documents including consent forms and examples of past projects. We frequently release publications on both historic place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se range from built heritage and traditional knowledge inventories to larger books; and

from digital exhibitions to shorter research fieldnotes.

The work of creating and sharing our research, workshops, and programs is what allows us to connect with community members. Putting this work out into the public means we receive a number of inquiries from communities across the province on how to develop their own heritage projects. We generally work with the community to decide what tool might be most useful for them. Then we go to the community to do a Memory Mug Up, People Places and Culture Workshops, Scanning Parties, craft workshop, or oral history training session.

Once the community has decided what ICH is important, and how they would like to record, celebrate, and transmit their living heritage we help the community with their next steps. Sometimes this includes recommending a list of grants or resources for funding, or providing additional training. Sometimes we will help communities by doing oral history interviews, or organizing a scanning party. Any material that we collect as part of this work ends up on the Digital Archives Initiatives.

Whenever possible, Heritage NL provides training directly to community members and partner organizations. This looks different depending on what skills or workshops the community needs. We will work directly with a community organization or offer a public workshop on oral history projects and interviews. This walks individuals through all the skills needed to complete an oral history project and place completed materials on a digital archive. We also offer “train the trainer” courses on traditional crafts and public workshops. This means we walk community museums and heritage groups through the steps needed to offer a braided rug, hobby horse, or People, Places, and Culture workshop.

Document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Heritage NL has a long-standing partnership with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s Digital Archives Initiative (MUN DAI). The DAI is a collection of digitized cultural resources held by Memorial University and partnering organizations. This includ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sponsored by Heritage NL. The ICH inventory material is sorted under two main categories: region

and domain.

The material collected by a community and pertaining to that community is sorted under the region of the province the community exists. There are five regions for the province: Avalon, Eastern, Central, Western, and Labrador. Collected material that is related to one of the the five UNESCO ICH domains is sorted into that category: 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Knowledge and Skills to Produce Traditional Crafts, 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Performing Arts, and 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There are an additional four categories in the ICH inventory: Other Materials, Lebanese-Newfoundland Collection, Newfoundland and Labrador 50+ Federation Inc., and Stories of Early Occupational Therapy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Other Materials is composed of ephemera related to Newfoundland and Labrado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rategy and includes posters, reports, and guidelines. The Lebanese-Newfoundland Collection contains photos, video, audio, and pdf documents related to the Lebanese-Newfoundland community and particularly their establishment of businesses across the province. Both the NL 50+ Federation and Stories of Early Occupational Therapy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contain materials related to those two organizations which Heritage NL helped to digitize and/or place on the DAI.

The enti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includes 13,957 images, 2102 audio files, 447 video files, and 243 pdf files. This inventory is added to and updated regularly. Heritage NL sometimes completes the oral history interviews or photograph scanning ourselves; but we also directly work with communities to train their staff and volunteers to be able to do this work themselves. Once the work is completed, Heritage NL facilitates the submission of materials to the DAI to place it online (Memorial Universirty Digital Arcchives Initiative, 2026).

Consent, Access, and Long-Term Care of Community-Generated Records

Heritage NL has developed two consent forms for materials that are placed on the DAI. The Heritage NL Digital Archives Initiative Photograph Deposit Form is used at Scanning Parties and events and interviews where photographs, recipes, documents, slides, and negatives are scanned. This form includes a question about who owns the copyright and has a place to write a description of the material including the location, date, photographer, and names of people where possible. The Heritage NL Digital Archives Initiative Release/Informant Consent Form is used for both audio and video oral history interviews. This form is often given to communities, and used for their community projects or edited or added to to create their own consent form.

The materials placed on the DAI are protected under a Creative Commons copyright license. This license, Attribution-NonCommercial 4.0 Canada (CC BY-NC 4.0 CA), allows anyone to copy, distribute,

display, and perform the work, and to make derivative works. Anyone who uses the material must give the original author credit, and can not use it for commercial purposes. Each individual who does an oral history interview or allows their materials to be scanned must sign a consent form. Both consent forms explain how the materials could be used today and in the future. This information and the consent form is given to the individual in advance of the interview or scanning, any questions are answered, and communication lines are left open in case of future removal of consent.

Heritage NL has found the Creative Commons copyright license the easiest to allow the materials to be used by the community, viewed by the general public, and shared by family members without getting into issues of generating income. It means the materials are by the public and for the public.

Once materials are scanned or recorded and placed on the DAI the access to the materials is only limited to those who do not have internet access. The DAI is freely and publicly accessible to anyone who can access the website. Materials can be shared in any format and adapted as long as attribution is given.

The beauty of the partnership with Memorial University is that long-term care of the community-generated records is under the purview of the university. They maintain their own digitized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those of partnering organizations. Memorial University is publicly funded by the province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so long-term continuity and staffing should not be an issue. Of course this can change over time but Heritage NL partially funds a position at the DAI in order to ensure that staffing will not be an issue so the access to the inventory and individual materials remains consistent.

Responsibilities: Heritage NL, Memorial University's Digital Archives Initiative, Community Groups, and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When it comes to community-generated records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materials are split between severa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Heritage NL has a responsibility to work with community groups and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to ensure that they understand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and the consent form that they are signing when placing material on the DAI. This means making sure we prioritize informed consent, minimize harm, respect the right to withdraw consent, ensure intellectual honesty, and address power differences. Heritage NL staff are trained to respect individuals and give them the power to stop an interview that is difficult or painful. We are also aware of the power differences that can and do exist between a researcher and an informant. This means we take the tim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an individual has and we explain consent forms simply and straightforwardly.

Heritage NL also has responsibility to both Memorial University's DAI and community groups. Heritage NL is the conduit between the DAI and communities across the province. This means we must connect directly with the DAI as well as explain to community groups how the DAI is staffed, maintained, and accessed. This allows community groups to decide if placing material on the DAI is the right choice for them. The community groups we work with range from heritage organizations to municipalities; and from museums and archives to 50+ clubs. These community groups have a responsibility to their members and their public to keep them informed of the project and how their partnership with Heritage NL and the DAI will allow materials to be used now and in the future. The DAI has a responsibility to Heritage NL, community groups, and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to respect their wishes, upload and maintain community-generated records, and inform them of any changes to their procedures.

While there are benefits and risks to using the DAI the main advantage to both Heritage NL and community partners is that there is no need to maintain either a physical or digital collection. Heritage NL is not a museum or an archive and we do not have a permanent physical collection. All material we collect is digitized or born-digital and is placed on the DAI. We do maintain a backup collection in cloud storage and on hard drives of all materials placed online. For community partners who already have physical collections using the DAI means they do not need to maintain digital copies of their material. For community partners who do not have the ability or wish to maintain physical collections they can keep copies of their digitized materials or use the DAI as their main depository. The other major benefit to the wider community is the DAI has collections for communities across the province, digitizied newspapers, photo and map collections and has become a central hub for researcher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Community-based Oral Histor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itiatives

Working with communities comes with both incredibl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2019, Heritage NL received a remarkable achievement when it won the prestigious and inaugural international award,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award celebrate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o use good safeguarding practic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and "encourage the proliferation of values of ICH such as social cohesion, coope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global community"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9).

Heritage NL has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ousands of people across Newfoundland and Labrador. This might be a one-on-one oral history interview or a community workshop on People, Places, and Culture. Each interaction comes with challenges of communication, expectation, and engagement. These interactions also provide the unique opportunity to record, celebrate, and

transmit living heritage while encouraging sustainable communities with ac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e of the major balancing ac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actitioners face is the push and pull between the traditional and variable; and the need to recognize and support tradition bearers and practitioners as the owners of their 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king with ICH needs to be completed carefully and with the support of community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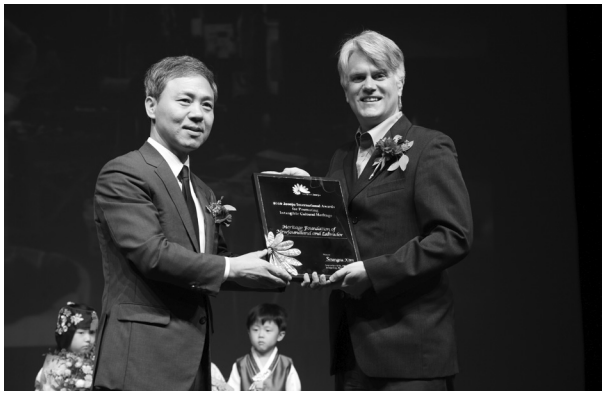
As noted by Dr. Henry Glassie (1989, p. 24-31), ICH is always overseen by the practitioners and this means working with living heritage always means working with community first.

> "Folklore is traditional … Changes are slow and steady. Folklore is variable.
> The tradition remains wholly within the control of its practitioners.
> It is theirs to remember, change, or forget."

For Heritage NL working on ICH projects means providing tools and methods for communities to document their ICH; assisting communities with the identification, documentation, transmission, and celebration of their ICH; and providing reliable access to community-generated records for future generations.

Joyce Lee (Heritage NL, 2024), Duffle Worker and Mentor in the Heritage NL Mentor-Apprentice Program sums up the importance of ICH and the honour of working to transmit that traditional knowledge:

"As a traditional knowledge keeper I feel that it's my duty, it's my obligation, it's my honour to pass these skills on to anybody who wants to learn. I have been involved in the crafts for so long and practising it, well as you can see, every day pretty much and I feel that it is my duty to protect it, preserve it, practise it, and to promote it to make sure that it gets out there before it's lost. I am dedicated to preserving these skills and passing them on before they are lost forever."





References:

Barrett, Terra. (2017). How to Run a Memory Mug Up.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2/09/MUG_UP.pdf [Accessed 2 September 2026]

Barrett, Terra. (2021). How to Run a Scanning Party.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1/10/Scanning-Parties.pdf [Accessed 2 September 2026]

Cape Breton University. (2026) Mi'kmaw Bands in Newfoundland. [online] Available at: https://www.cbu.ca/indigenous-initiatives/lnu-resource-centre/mikmaw-band-councils/mikmaw-bands-in-newfoundland/ [Accessed 2 September 2026]

Collier, Keith. (2011) St. John's, 1500-1815.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st-johns-1815.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Glassie, Henry. (1989) The Spirit of Folk Art. New York: Abrams.

Government of Canada. (2026) Population estimates, quarterl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1710000901 [Accessed 2 September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6) Land Area. (online) Available at: https://web.archive.org/web/20061003160224/http://www.gov.nf.ca/aboutnl/area.htm [Accessed 2 September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a) Coastal Flooding. (online) Available at: https://www.gov.nl.ca/eccc/waterres/flooding/coastal-flooding/ [Accessed 2 September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b) Avalon Peninsula Rural Secretariat Region Profiles (online) Available at: https://nl.communityaccounts.ca/profiles.asp?_=vb7En4WVgbWy0nk_ [Accessed 2 September 2026]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18) Collective Memories: Looking Back, Moving Forward.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18/03/Collective-Memories-Looking-Back-Moving-Forward-2018-Final-Report.pdf [Accessed 8 September 2026]

Heritage NL. (2021) Craft at Risk List 2021.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1/10/Craft-at-Risk-List-2021.pdf [Accessed 8 September 2026]

Heritage, NL. (2023) Heritage Skills Training Program: Final Report. (online) Available at: https://

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3/05/Heritage-Training-Final-Report-2023.pdf [Accessed 8 September 2026]

Heritage NL. (2024) Craft at Risk List 2024.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4/10/Craft-at-Risk-2024.pdf [Accessed 2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1997) Irish Settlement Patterns.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irish-settlement.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8a) Other Ethnic Groups.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other-ethnic-groups.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8b) Economic Impacts of the Cod Moratorium.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conomy/moratorium-impacts.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9) Scottish in NL.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scottish.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Janzen, Olaf. (1998) French Presence in Newfoundland.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xploration/french-presence-newfoundland.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Jarvis, Dale and Terra Barrett. (2017). People, Places, and Culture Workshop: Map out what heritage means to your community.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2/09/PeoplePlacesandCultureHowTo.pdf [Accessed 2 September 2026]

Pastore, Ralph T. (1997a) The Beothuk.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indigenous/beothuk.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Pastore, Ralph T. (1997b) Indigenous People.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indigenous/indigenous-peoples-introduction.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Memorial Universirty Digital Arcchives Initiative. (2026)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online) Available at: https://dai.mun.ca/sponsor#section-i [Accessed 22 September 2026]

Mummers Festival Inc. (2026) About Us. (online) Available at: https://www.mummersfestival.ca/about [Accessed 8 September 2026]

주민의 기억은 어떻게 역사적 자료가 되는가?

지역사회 기록화와 살아 있는 유산

테라 배럿 (Terra M. Barrett)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기획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세인트존스

주민의 기억은 어떻게 역사적 자료가 되는가? 지역사회 기록화와 살아 있는 유산

테라 배럿 (Terra M. Barrett)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기획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세인트존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1984년에 설립된 왕립법인으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건축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고 2006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재단은 2008년에 무형문화유산사무소(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를 설립했다. 2012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당사국 총회 제4차 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비정부기구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캐나다의 최동단 주로 대서양을 접하고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이 살아 있으며 원주민과 정착민이 모두 살고 있는 곳이다. 주는 뉴펀들랜드섬과 본토인 래브라도로 이루어져 있다. 뉴펀들랜드는 전통적으로 베오투크족(Beothuk)과 미크맥족(Mi'kmaq)의 영토이지만 현재까지 조약을 통해 양도되지는 않았다. 베오투크족은 알곤킨어(Algonquian)를 사용하는 수렵·채집민이었으며, 이들의 문화는 현재 소실된 상태이다 (Pastore, 1997a). 미크맥어로 '욱다훔쿡(Ktaqmkuk)'이라 불리는 섬은 코너강 인근의 미아우푸켓 원주민 공동체와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작은 부족인 칼리푸 원주민 공동체의 터전이다 (Cape Breton University, 2026). 래브라도는 오랫동안 이누족(the Innu)과 이누이트(the Inuit)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다. 이누족의 '니타시난(Nitassinan)'과 이누이트의 누나치아부트(Nunatsiavut)와 누나투카부트(NunatuKavut)라는 전통 거주 지역이 이곳에 있다 (Pastore, 1997b).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는 여러 원주민 문화가 존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고고학 기록 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초기 이누이트와 같은 일부 원주민들이 오늘날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조상이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최초로 들어온 유럽인은 뉴펀들랜드섬 북부의 바이킹 정착 유적지인 랑스 오 메도즈(L'Anse aux Meadows)에 대한 이야기와 고고학 기록에서 발견된다. 서기 약 1000년경 이곳에 "노르드인(Norse) 항해자들이 남쪽으로 탐험해 나가기 위한 기지를 세웠다 (Government of Canada, 2026a)." 이 정착지는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북아메리카에 바이킹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유적지이자 캐나다에서 유럽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이다(Government of Canada, 2026a). 이후 약 500년이 지나 1497년 탐험가 존 캐벗(John Cabot)이 도착하면서 유럽인의 탐험과 식민지 개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1997).

그 외 이 지역에 온 유럽인 중에는 바스크인,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어부와 선원들도 있었다. 초기 정착민들은 주로 영국계, 아일랜드계, 프랑스계였다(Collier,2011; Higgins, 2009a). 이곳에 정착한 유럽인들의 대부분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북대서양의 대구 어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주해 왔다. 이후 스코틀랜드인들이 정착했고, 레바논과 중국 출신 이민자, 동유럽 출신 유대인 이민자를 비롯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Janzen,1998; Higgins, 2009b; Higgins, 2008a).

래브라도의 식민지 역사는 뉴펀들랜드섬과 유사하지만 한 세기 정도 늦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럽인이 들어오기 전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먼저 래브라도에 정착했고, 이후 일부 원주민 집단이 뉴펀들랜드섬으로 이동했다 (Butt, 1998). 이 지역의 최초 주민 가운데 하나인 래브라도 아르카익(Labrador Archaic)인들은 약 9,000년 전에 래브라도에 도착했으며, 마리타임 아르카익(Maritime Archaic)인들은 약 6,500년 전에 뉴펀들랜드로 이동했다. 유럽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고-이누이트(Paleo-Inuit), 중간기 주민(Intermediate Period Peoples), 최근기 주민(Recent Period Peoples) 등 여러 원주민 집단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 (Hoban, 2026). 최초의 유럽인 방문자는 노르드인으로 추정되며, 이후 1520년대에 바스크인 어부들이 도착해 1540년대부터 1620년대까지 포경 산업을 발전시켰다 (Butt,1998).

대구 어업이 래브라도의 주요 산업이긴 했지만 자급농업은 북대서양의 외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지닌 이 지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펄프와 제지 산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철도, 벌목업과 광업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Higgins, 2007). 20세기 초에 시작된 수력 개발과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해양 석유 산업 역시 오늘날까지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McBride, 2001; Higgins, 2009c).

뉴펀들랜드 대표단이 퀘벡 회의에 참석해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법(British North America Act)의 기반이 된 결의안에 서명했지만,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캐나다의 주가 된 것은 1949년이었다 (Hiller,1997). 뉴펀들랜드 최초의 영국 식민지는 1610년 큐피즈(Cupids)에 세워졌으며, 정착은 계속되었고 1825년 영국의 공식 식민지 지위를 부여받았다. 1855년에는 책임정부가 도입되어 하원의 다수당에게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2000b).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부채와 대공황 등의 요인으로 1934년 책임정부는 폐지되었고 대신 영국 정부가 임명한 비선출 위원들이 통치하는 정부위원회(Commission of Government)가 설치되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2000c). 이 체제는 오랜 논쟁과 두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1949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캐나다의 열 번째 주가 되면서 막을 내렸다 (Hiller, 1997).

캐나다 연방에 편입된 이후인 1950~1970년대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서는 지역을 현대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도시 집중화와 재정착 정책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과 외딴 지역 주민들을 성장 거점으로 이전시키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주민들을 기존의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반발을 불러왔으며 (Martin, 2007), 재정착 문제는 오늘날에도 지역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 어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대구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2년 갑작스러운 대구 어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하룻밤 사이에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로써 거의 500년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지역의 대구 어업은 사실상 끝이 났고 전체 인구의 약 12%가 일자리를 잃었다 (Higgins, 2008b). 이로 인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인구 유출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이후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역사적 특징과 대구 어업의 발전 덕분에 무형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이 해안가의 작은 어촌에서 발전했다. 현재 이 주에는 약 55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25,458km에 이르는 해안선과 405,720㎢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Government of Canada, 2026b;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a;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 오늘날 인구의 거의 절반은 주도인 세인트존스가 위치한 아발론반도(Avalon Peninsula)에 집중되어 있다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b).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정부는 「창의적인 뉴펀들랜드 래브라도(Creative Newfoundland and Labrador)」라는 주의 문화전략서를 발표했다. 2006년에 발표된 이 문서는 지역의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기회를 다루고 있다. 또한 2008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무형문화유산 사무소 설립의 토대가 되는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무형문화유산 사무소의 목표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전승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안팎의 다양한 문화집단 간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활발한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자인 테라 배럿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작업은 경제, 산업, 문화적 관습이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해 온 이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비교적 최근에 캐나다에 편입되었으며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연방 편입, 재정착, 대구 어업 중단이라는 역사는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수집하고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문화유산에는 역사적 건축물, 야생 열매 채집, 발라드 노래, 바구니 제작, 머머링(mummering)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역동적이며,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집단을 하나로 연결한다. 이러한 중요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구술사, 지역에 관한 지식,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공유하기 위한 여러 방법과 도구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 지역사회 모임 (메모리 머그업)

- 문화 지도 제작 (사람·장소·문화 워크숍)
- 주민 소장 사진 수집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
- 구술사 프로젝트
-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메모리 머그업 (Memory Mug Ups)



메모리 머그업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기억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이야기 나눔 모임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행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모으고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참가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공유에 참여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진행자가 참여자들 모두 발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열린 질문을 통해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 특정 장소나 주제를 다룰 때는 지도나 물건을 활용하면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Mount Pearl 지역사회와 1950년대의 춤에 관한 기억을 다룰 때에는 당시의 사진, 코카콜라병, 칵테일 셰이커, 브로치와 구두 같은 당시의 패션 소품을 활용했다.

'메모리 머그업'은 지역사회의 이야기꾼을 파악하고, 이후 개별 인터뷰를 진행할 사람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행사가 끝날 때에는 일대일 구술사 인터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임은 특히 구술사와 관련된 지역사회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사람·장소·문화 워크숍 (People, Places, Culture Workshops)

사람, 장소, 문화 워크숍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지도에 표시한다. 여기에는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워크숍에서 각 참가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세 개의 지도에 표시한다. 첫 번째 지도에는 노인과 전통 전승자를, 두 번째 지도에는 중요한 장소를, 세 번째 지도에는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향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의 목록을 만든다. 지역사회는 어떤 문화적 관습이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직접 결정한다.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은 장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되는 지역 정체성에 기여한다.

워크숍이 끝나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자산을 검토하고,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문화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사람, 장소, 문화 워크숍의 최종 결과물은 지역사회의 문화자산을 정리하고, 해당 문화유산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해당 지역의 다른 공동체, 캐나다의 다른 지역 또는 세계 각지의 지역사회가 유사한 문화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소개한다 (Jarvis and Barrett, 2017).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구술사 워크숍, 메모리 머그업, 문화유산 기술 목록과 같은 활용 가능한 도구와 보조금 및 재정 지원 기회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 (Scanning Parties)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은 문화유산 단체, 소규모 박물관, 기록보관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비공식적인 자료 수집 행사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장한 사진을 행사에 가져와 현장에서 스캔한 뒤 원본은 바로 다시 가져간다. 따라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이나 지역 협력 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물리적 자료를 대량으로 보관할 필요 없이 디지털 사본을 만들 수 있다. 대상은 사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조리법, 문서, 슬라이드, 필름 네거티브 등 평판형 스캐너에 올릴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디지털화할 수 있다.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의 목적은 지역사회 사진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스캔 작업대 설치가 필요하다. 각 작업대에는 스캔 장비, 전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두 명, 동의서가 마련된다. 한 명은 자료를 스캔하고 다른 한 명은 각 자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진의 장소와 날짜, 사진 속 인물, 사진 촬영자 등이 포함된다.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은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유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첫 번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이후 수집한 모든 자료의 스캔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된다. 참가자에게도 자신이 가져온 자료의 디지털 사본이 제공된다. 지역사회 단체에도 사본을 제공하며, 이들은 이를 전시회, 공공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활동 등에 활용한다 (Barrett, 2021).

구술사 프로젝트(Oral History Projects)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2008년부터 구술사 인터뷰를 통해 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구술사 인터뷰는 개인의 이야기와 기억을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크게 생애사 인터뷰와 주제별 인터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생애사 인터뷰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출생과 성장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다. 주제별 인터뷰는 공예인, 직업 민속, 특정 장소·주제·사건 등을 다루는 데 알맞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2,100건이 넘는 음성 인터뷰와 445



건의 영상 인터뷰를 등록했다. 산업(농업, 어업, 임업, 고층 철골 작업, 간호)과 관련된 프로젝트, 건축유산(지하 저장고, 전통 목공, 우물과 샘), 공예(바구니, 보트, 필로톱, 도자기, 러그, 후킹, 목공), 공연예술(콘서트, 춤, 스토리텔링), 사회적 관습(모닥불 피우는 밤, 어린이 놀이, 크리스마스 전통,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었다.

재단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사건이나 노인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술사 프로젝트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집단기억 프로젝트와 구술사 로드쇼는 모두 노인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경험과 기억, 전통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18).

사례 연구: 구술사 로드쇼

구술사 로드쇼는 노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기억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10개 지역을 방문하여 '구술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후속 구술사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일련의 지역사 소책자를 제작했다. 소책자는 민간요법, 공예, 주크박스, 상점, 마을 병원에 대한 기억, 염소 등을 주제로 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각 지역의 구술사 로드쇼는 지역사회가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머그업으로 시작했다. 예를 들어 뉴펄리칸 지역에서는 염소 사육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구술사 행사 또는 머그업은 "염소와 다른 동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머그업 행사 이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염소를 주제로 지역사회 구성원 20명과 일대일 구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염소를 기르는 방법, 염소를 이용해 우유와 고기를 얻는 방법, 염소에게 장작과 물을 운반하게 했던 경험, 염소와 관련된 민속 이야기 등을 다루었다. 모든 인터뷰는 테이프 로그로 기록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의 일부를 전사했다. 이후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해 지역사회 소책자로 제작했고, 지역사회에서 열린 출간 기념 행사에서 배포했다. 이러한 과정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10개 지역에서 반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독 역사상(Governor General's History Award)의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지역사회 프로그램 우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jects)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 기반의 여러 대규모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진행해 왔다. 모든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를 확인하고 지역사회와 직접 만나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을 만큼 중요한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두 프로젝트로 머머스 페스티벌(Mummers Festival)과 위기 공예(Craft at Risk) 프로젝트가 있다.

사례 연구: 머머스 페스티벌

머머스는 크리스마스 기간에 변장을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지역에 따라 재니스, 달비스, 운칙스, 풀스, 낼러주잇 (jannies, darbies, oonchicks, fools, nalajui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머머링은 영국과

아일랜드에 뿌리를 둔 전통으로, 세계 여러 지역의 가면 전통과 유사한 점이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에는 여러 지역적 변형이 존재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집을 방문하는 방식이다. 머머스는 크리스마스 기간인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집집마다 방문한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는 머머스 연극이나 머머스 퍼레이드와 같은 다른 형태의 머머링도 존재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메모리얼 대학교의 민속학과와 협력하여 2009년에 첫 번째 머머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목표는 머머링을 주제로 한 민속 축제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축제에서는 말 탈놀이와 렌 스틱, 머머스 연극 등 지역별 전통에 관한 워크숍을 포함해 총 16개의 무료 지역사회 행사가 열렸으며, 마지막에는 최초의 연례 머머스 퍼레이드가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자원봉사 지역사회 단체가 축제를 운영했고, 2011년에는 해당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다 (Mummers Festival Inc., 2026). 2026년 머머스 페스티벌은 18회째를 맞는다.

머머스 페스티벌 법인은 2009년 이후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다. 2015년 세인트존스시 올해의 행사상, 2022년 세인트존스시 관광 우수상, 2023년 이벤트 애틀랜틱의 10만 달러 미만 예산 부문 올해의 행사 우수상, 2024년 매닝상 우수 문화유산단체상이 포함된다. 2024년에는 지역 문화유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예술·문화유산·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분야에서 처음 수여된 총리상(Premier's Medals for Arts, Heritage, Sport and Recreation)도 받았다.

축제는 18년 동안 성장하고 변화했지만 그 목표는 축제 초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머머링의 지속과 발전을 촉진하고, 대중에게 머머링에 관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며, 2주간의 축제 기간을 넘어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Mummers Festival Inc., 2026). 머머링 페스티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겨울 축제 가운데 하나로, 매년 수천 명의 참가자를 끌어모은다. 축제의 성공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인의식, 그리고 축제와 머머링 전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리와 책임에 달려 있다.

사례 연구: 위기 공예



2019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공예협회와 협력하여 이 지역의 위기 공예 목록을 조사하고 개발했다. 이 작업은 영국의 라드클리프 소멸 위기 공예 목록(the UK Radcliffe Red List of Endangered Crafts)을 기반으로 했다. 지역 공예인, 제작자, 건축·제작 기술자 및 일반 대중의 전통공예에 대한 생각과 우려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공예협회의 모든 회원과 지역 공예단체에 전달되었으며, 소셜미디어,

뉴스레터, 웹사이트에도 게시되었다. 또한 스패니어즈 베이의 웨슬리 고스 기념 문화유산 박물관(Wesley Gosse Memorial Heritage Museum), 세인트존스의 애나 템플턴 센터(Anna Templeton Center), 윈터턴의 목선 박물관(Wooden Boat Museum)에서 세 차례 대면 공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공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프로젝트를 알리는 것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조사하고 있는 공예를 제시하도록 한 뒤 현재 활동하는 제작자의 수를 전문 제작자, 정기적인 아마추어 제작자, 취미 제작자로 구분해 적도록 했다. 또한 개인 제작자, 사업체, 지원기관 등 주요 공예 주체와 각 공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했다. 설문조사에는 해당 공예가 직면한 문제, 현재 존재하는 지원 활동, 다음 세대에 기술을 전승하기 위해 필요한 공예인의 수, 해당 공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험 수준을 판단한 근거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지역적·주제별·성별로 다양한 응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래브라도의 특정 공예단체에 연락해 본토와 섬 지역을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다. 또한 섬유 예술가, 목공예가, 원주민 공예인, 산업기술 종사자 등 다양한 공예인이 참여하도록 애썼다. 캐나다에서는 '공예'라는 단어가 흔히 여성의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공예'는 전통적인 기술, 지식, 직업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남녀 모두가 수행하는 공예를 포함하고, 직업전문학교와 산업 네트워크에도 직접 연락했다.

설문조사와 공개 행사를 마친 뒤 지역사회에서 수집한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공예인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공예를 다음의 네 가지 위험 범주로 분류했다.

소멸(Extinct): 명맥이 끊어진 공예
심각한 소멸 위기(Critically Endangered): 더 이상 전승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은 공예
소멸 위기(Endangered): 현재 활동하는 전승자가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공예
현재 전승 중(Currently Viable):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예

이 연구를 바탕으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2021년에 위기 공예 목록을 발표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전통공예가 현재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위기 공예 목록은 이 지역의 전통공예와 지식의 지속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살아 있는 문서'이다 (Heritage NL, 2021). 이후 2024년과 2026년에 개정 목록이 발표되었다.

2021년 목록이 발표된 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공예 전승에서 전통 전승자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험에 처한 기술의 전수를 돕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전수자-도제 프로그램은 전수자가 도제 공예인 또는 기술자에게 위험에 처한 공예와 기술을 전수하도록 지원하는 일대일 몰입형 프로그램이었다. 최대 10,000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며, 지원 대상 요건으로는 해당 공예 또는 기술이 위기 공예 목록에서 '심각한 소멸 위기' 또는 '소멸 위기'로 분류되어 있어야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 지역에서 총 61명이 참여했으며, 자작나무 빗자루 제작, 가문비나무 뿌리 바구니 제작, 이누이트 전통썰매 코마틱 제작, 직조 등의 기술을 전수하는 전수자와 도제들이 포함되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전수자-도제 프로그램과 함께 2년에 걸쳐 문화유산 기술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30명의 강사가 65회 이상의 교육 행사를 진행했으며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전통 기술에 관한 실습형 입문 워크숍을 제공했다. 위기 공예 프로젝트는 2023년 총독 역사상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 우수 부문을 수상했다.

위기 공예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전통공예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20개가 넘는 전통 기술을 사진, 영상, 구술사 인터뷰로 기록했으며, 공예 관련 구술사 팟캐스트 35편을 제작했다. 또한 활판 인쇄, 직조, 자작나무 빗자루 제작을 주제로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했으며 일곱 가지 공예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 모든 자료는 온라인 디지털 저장소에 저장되어있다 (Heritage NL, 2023).

위기 공예 목록과 문화유산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공예를 주제로 한 두 개의 전시회도 열렸다. 2024년에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공예협회 갤러리에서 위기 공예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전승자-도제 프로그램 참가자 19명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이 전시를 기획했으며, 실제 크기의 코마틱과 목재 창문, 물개 가죽 장갑, 가문비나무 뿌리 바구니 등을 선보였다. 2026년 8월에는 더 룸스 주립 박물관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과 협력하여 위기 공예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에서는 소멸, 심각한 소멸 위기, 소멸 위기, 현재 전승 중이라는 네 가지 위험 범주에 해당하는 공예를 각각 소개했으며, 바구니 제작, 러그 후킹, 직조 등에 관한 위기 공예 워크숍도 함께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존 브래그 상(John Bragg Award)의 지원을 받았다.

무형문화유산의 확인, 기록, 전승 및 공유





앞서 설명한 모든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한다. 이것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가 자신들에게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이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유산 단체, 기록보관소, 박물관, 지방자치단체, 개별 지역사회 구성원 등과 협력하는 일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파트너를 찾기 위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재단의 활동 내용과 방식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블로거(Blogger),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링크드인 등의 소셜미디어와 뉴스레터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한다. 주 전역을 이동하며 활동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최종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도 그 내용을 게시한다. 또한 우리는 지역사회 워크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능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장벽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주 전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다. 공개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의 의견도 수집한다.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원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행사와 워크숍 계획에 반영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하고 공유한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메모리 머그업, 사람·장소·문화 워크숍,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이 포함되며, 각각의 활동에는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블로그에는 구술사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단계와 동의서 양식 및 과거 프로젝트 사례 등을 소개하는 구술사 실무 안내서가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역사적 장소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다양한 출판물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여기에는 건축유산과 전통지식 목록, 대형 단행본, 디지털 전시, 짧은 연구 현장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연구, 워크숍,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공유하는 활동 덕분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면 지역 곳곳의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온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도구가 가장 유용할지 결정한다. 이후 해당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메모리 머그업, 사람·장소·문화 워크숍,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 공예 워크숍 또는 구술사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사회가 일단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념하고 전승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면 재단은 그다음 단계의 실행을 지원한다. 지원은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추천하거나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직접 구술사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등록된다. 가능하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 구성원과 협력기관에 직접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워크숍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사회 단체와 직접 협력하거나 구술사 프로젝트와 인터뷰에 관한 공개 워크숍을 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구술사 프로젝트를 직접 완성하고 자료를 디지털 저장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통공예에 관한 '강사 교육' 과정과 공개 워크숍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박물관과 문화유산 단체가 전통적인 러그 제작, 말 탈놀이용 탈 제작, 사람·장소·문화 워크숍 등을 직접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익히도록 지원한다.

기록: 무형문화유산 목록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교(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의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Digital Archives Initiatives; MUN DAI)에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은 메모리얼 대학교와 협력기관이 보유한 디지털화된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이 지원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자료는 크게 지역과 영역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지역주민들이 수집한 자료는 해당 지역이 위치한 주의 지역별로 분류된다. 이 주는 아발론주, 동부주, 중앙주, 서부주, 래브라도주 다섯 지역으로 나뉜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유네스코의 다섯 가지 무형문화유산 영역 가운데 하나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영역으로 분류된다. 다섯 영역은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 지식과 기술,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 행사로 구성된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는 이 밖에도 기타 자료, 레바논계 뉴펀들랜드 자료집(Lebanese-Newfoundland Collection),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50+ 연맹(Newfoundland and Labrador 50+ Federation Inc.),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초기 작업치료의 역사(Stories of Early Occupational Therapy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라는 네 가지 범주가 더 있다. 기타 자료에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무형문화유산 전략과 관련된 포스터, 보고서, 지침 등의 자료가 포함된다. 레바논계 뉴펀들랜드 자료집에는 레바논계 뉴펀들랜드 공동체와 관련된 사진, 영상, 음성,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특히 이들이 주 전역에 사업체를 설립해 온 과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50+ 연맹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초기 작업치료의 역사에는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이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하는 데 도움을 준 해당 기관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 무형문화유산 목록에는 이미지 13,957개, 음성 파일 2,102개, 영상 파일 447개, PDF 파일 243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은 정기적으로 추가와 갱신을 거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이 직접 구술사 인터뷰나 사진 스캔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사회와 직접 협력해 그 지역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자료를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제출해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emorial University Digital Archives Initiative, 2026).

주민이 생성한 기록의 동의, 접근 및 장기 보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등록되는 자료를 위해 두 가지 동의서를 개발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 사진 자료 기탁 동의서는 지역자료

디지털화 모임 및 사진, 조리법, 문서, 슬라이드, 네거티브 필름 등을 스캔하는 행사와 인터뷰에서 사용된다. 이 양식에는 저작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묻는 항목과 자료의 장소, 날짜, 촬영자, 가능한 경우 사진 속 인물의 이름 등을 기록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 공개·정보 제공자 동의서는 음성 및 영상 구술사 인터뷰에 사용된다. 이 양식은 지역사회에 제공되며, 지역사회 자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해 자체 동의서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등록된 자료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의 보호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저작자표시-비영리 4.0 캐나다 라이선스(Attribution-NonCommercial 4.0 Canada)가 적용된다. 이 라이선스에 따라 누구나 자료를 복사하고 배포하며 전시하고 공연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술사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자료를 스캔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개인은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두 종류의 동의서는 해당 자료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정보와 동의서는 인터뷰나 스캔에 앞서 개인에게 제공되며, 모든 질문에 답하고 향후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열어 둔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가 자료를 이용하고 일반 대중이 자료를 열람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가 가장 적합하며 수익 창출과 관련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즉, 이 자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라는 의미이다.

자료가 스캔 또는 기록되어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등록되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료는 출처를 표시하는 조건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메모리얼 대학과의 협력이 주는 중요한 장점은 지역사회가 생성한 기록의 장기적인 관리 책임을 대학이 맡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자체 디지털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협력기관의 자료도 관리한다. 메모리얼 대학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정부의 공공 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과 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직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목록과 개별 자료에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 메모리얼 대학의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 지역사회 단체 및 개인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

주민들이 생성한 기록의 경우, 자료에 대한 책임은 여러 기관과 개인에게로 나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지역사회 단체와 개인이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자료를 등록할 때 자신이 동의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이는 사전 동의를 우선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존중하고,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며, 연구자와 정보 제공자 사이의 권력 차이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 직원들은

개인을 존중하고, 인터뷰가 어렵거나 고통스럽다면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교육받는다. 연구자와 정보 제공자 사이에는 실제로 권력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모든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고 동의서의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인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메모리얼 대학의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과 지역사회 단체 양쪽 모두를 책임진다. 재단은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과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과 직접 소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단체에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의 인력 구성, 관리 방식, 자료 접근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단체가 가진 자료를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재단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단체는 문화유산 단체부터 지방자치단체, 박물관과 기록보관소, 50세 이상 주민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단체는 프로젝트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 및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자신들의 구성원과 대중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 지역사회 단체, 개인 지역사회 구성원이 요청한 사항을 존중하고 지역사회가 생성한 기록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운영 절차에 변화가 생길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 이용에는 장점과 위험이 모두 따르지만,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과 지역사회 협력기관 모두에게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물리적 또는 디지털 자료 컬렉션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박물관이나 기록보관소가 아니며 영구적인 물리적 소장품을 보유하지 않는다. 수집하는 모든 자료는 디지털화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해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에 등록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온라인에 게시된 모든 자료의 백업본을 클라우드 저장소와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한다. 이미 물리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의 경우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을 이용하면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 물리적 자료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관리하기를 원치 않는 지역사회 협력기관은 디지털화된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거나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을 주요 보관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디지털 기록유산 구축 사업은 주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 자료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신문, 사진 및 지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연구자들을 위한 중앙 허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구술사 및 무형문화유산 활동의 성과와 과제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성과와 함께 여러 어려움도 따른다. 2019년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권위 있는 국제상인 '무형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전주 국제상(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 상은 무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사회적 결속, 협력, 문화적 다양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켜 미래의 세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기린다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9).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다. 일대일 구술사 인터뷰였을 수도 있고 사람·장소·문화 워크숍과 같은 지역사회 워크숍이었을 수도 있다. 각각의 만남에는 의사소통, 기대, 참여와 관련된 어려움이 따른다. 동시에 이러한 만남은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기념하며 전승하고, 활발한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무형문화유산 수행자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전통성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또한 전통 전승자와 수행자들이 바로 이들이 행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작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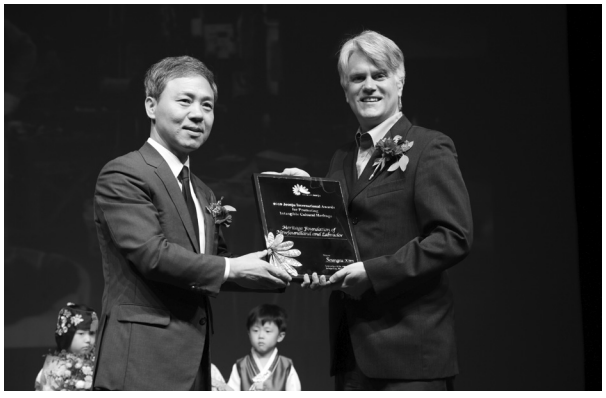
헨리 글래시(Henry Glassie) 박사가 지적했듯이(1989, p. 24-31), 무형문화유산은 언제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관리한다. 따라서 살아 있는 문화유산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속은 전통적이다. 변화는 느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민속은 가변적이다. 전통은 전적으로 전통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전통을 기억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잊을 것인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이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전승하고 기념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가 생성한 기록을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문화유산재단의 2024년 전수자-도제 프로그램에서 양모 공예가이자 전수자로 활동한 조이스 리(Joyce Lee)는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를 전승하는 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Heritage NL, 2024).

“전통지식 보유자로서 저는 배우고 싶어 하는 누구에게나 이 기술을 전해 주는 것이 제 의무이고 책임이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예에 종사해 왔고, 보시다시피 거의 매일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이 사라지기 전에 보호하고, 보존하고, 실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모기술들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ferences:

Barrett, Terra. (2017). How to Run a Memory Mug Up.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2/09/MUG_UP.pdf [Accessed 2 September 2026]

Barrett, Terra. (2021). How to Run a Scanning Party.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1/10/Scanning-Parties.pdf [Accessed 2 September 2026]

Butt, Jeff. (1998) Labrador Fishery.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xploration/labrador-fishery.php [Accessed 1 October 2026]

Cape Breton University. (2026) Mi'kmaw Bands in Newfoundland. [online] Available at: https://www.cbu.ca/indigenous-initiatives/lnu-resource-centre/mikmaw-band-councils/mikmaw-bands-in-newfoundland/ [Accessed 2 September 2026]

Collier, Keith. (2011) St. John's, 1500-1815.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st-johns-1815.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Glassie, Henry. (1989) The Spirit of Folk Art. New York: Abrams.

Government of Canada. (2026a) L'Anse aux Meadows 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 [online] Available at: https://www.pc.gc.ca/apps/dfhd/page_nhs_eng.aspx?id=236&i=80583 [Accessed 1 October 2026]

Government of Canada. (2026b) Population estimates, quarterly. [online] Available at: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1710000901 [Accessed 2 September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06) Land Area. (online) Available at: https://web.archive.org/web/20061003160224/http://www.gov.nf.ca/aboutnl/area.htm [Accessed 2 September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a) Coastal Flooding. (online) Available at: https://www.gov.nl.ca/eccc/waterres/flooding/coastal-flooding/ [Accessed 2 September 2026]

Government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26b) Avalon Peninsula Rural Secretariat Region Profiles. (online) Available at: https://nl.communityaccounts.ca/profiles.asp?_=vb7En4WVgbWy0nk_ [Accessed 2 September 2026]

Heritage Foundation of Newfoundland and Labrador. (2018) Collective Memories: Looking Back,

Moving Forward.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18/03/Collective-Memories-Looking-Back-Moving-Forward-2018-Final-Report.pdf [Accessed 8 September 2026]

Heritage NL. (2021) Craft at Risk List 2021.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1/10/Craft-at-Risk-List-2021.pdf [Accessed 8 September 2026]

Heritage, NL. (2023) Heritage Skills Training Program: Final Report.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3/05/Heritage-Training-Final-Report-2023.pdf [Accessed 8 September 2026]

Heritage NL. (2024) Craft at Risk List 2024.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4/10/Craft-at-Risk-2024.pdf [Accessed 2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7) Land-Based Industries of the Early 1900s.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conomy/landbased-industries.php [Accessed 2 October 2026]

Higgins, Jenny. (2008a) Other Ethnic Groups.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other-ethnic-groups.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8b) Economic Impacts of the Cod Moratorium.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conomy/moratorium-impacts.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9a) Irish Settlement Patterns.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irish-settlement.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9b) Scottish in NL.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society/scottish.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Higgins, Jenny. (2009c) Oil Industry and the Economy.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conomy/oil-economy.php [Accessed 2 October 2026]

Hiller, J.K. (1997) Newfoundland and Canada: 1864-1949.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politics/confederation-1864-1949.php [Accessed 2 October 2026]

Hogan, Jared T. (2025) History of Early Indigenous Peoples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online] Available at:
https://thecanadianencyclopedia.ca/en/article/history-of-early-indigenous-peoples-in-newfoundland-and-labrador [Accessed 2 October 2026]

Janzen, Olaf. (1998) French Presence in Newfoundland.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xploration/french-presence-newfoundland.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Jarvis, Dale and Terra Barrett. (2017). People, Places, and Culture Workshop: Map out what heritage means to your community. (online) Available at:
https://heritagenl.ca/wp-content/uploads/2022/09/PeoplePlacesandCultureHowTo.pdf [Accessed 2 September 2026]

Martin, Melanie (2007) Resettlement.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politics/resettlement.php [Accessed 2 October 2026]

McBride, Michelle. (2001) Hydro Development in Newfoundland and Labrador.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conomy/hydro-development.php [Accessed 2 October 2026]

Memorial University Digital Archives Initiative. (2026)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 (online) Available at: https://dai.mun.ca/sponsor#section-i [Accessed 22 September 2026]

Mummers Festival Inc. (2026) About Us. (online) Available at: https://www.mummersfestival.ca/about [Accessed 8 September 2026]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1997) John Cabot.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exploration/john-cabot.php [Accessed 1 October 2026]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2000a) Civil Governors, 1825-1854.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politics/civil-governors-1825-1854.php [Accessed 1 October 2026]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2000b) Civil Governors, 1855-1933.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politics/colonial-governors.php [Accessed 1 October 2026]

Newfoundland and Labrador Heritage Web Site Project. (2000c) Commission Governors, 1934-1948.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politics/commission-governors.php [Accessed 1 October 2026]

Pastore, Ralph T. (1997a) The Beothuk.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indigenous/beothuk.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Pastore, Ralph T. (1997b) Indigenous People. [online] Heritage Newfoundland & Labrador.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nf.ca/articles/indigenous/indigenous-peoples-introduction.php [Accessed 2 September 2026]

From the Schools' Collection to Dúchas.ie:

Education, Digitis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a Public Archive.

Dr Úna Bhreathnach, Dublin City University

From the Schools' Collection to Dúchas.ie:

Education, Digitis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a Public Archive.

Dr Úna Bhreathnach, Dublin City University

My name is Úna Bhreathnach and I am a lecturer in Dublin City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you to the work of the Irish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and in particular to the work of digitising, sharing and reusing this material on Dúchas.ie, a task which I have managed in recent years. The Irish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is a gem, and its digitisation has had surprisingly impactful results, which may be of interest in other environments.

A note about Ireland, the Irish language, and Irish tradition

Ireland is a bilingual country. Irish is the first official language of the Republic of Ireland but English is recognised as a second official language. Irish is a lesser used language, linguistically completely different to English, with about 72,000 daily speakers in a population of 5 million (2022 Census). It declined from common use throughout the long colonial period and particularly during the 19th Century, with famine and mass emigration hastening the switch to English. Revival efforts since the 1890s and particularl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Irish Free State in 1922 have had a dual focus: the maintenance of the language heartlands (the Gaeltacht), and the encouragement and use of Irish in the whole country in specific domains.

The Irish language has, since the foundation of the State, had an important role in Irish society as a symbolic language, a statu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reflected in its central place in education, the media, the law and administration. Thousands of daily speakers use Irish in these high - level domains, although it has never been restored to any extent for such important activities as industry, trade and medicine. The Irish language is used in Irish - medium education, particularly primary education. Irish forms part of the core curriculum in all schools, whether Irish- or English-medium, and a substantial minority of children attend Irish - medium immersion schools. A number of print and broadcast media also use Irish either exclusively or occasionally.

Ireland has a rich tradition of literature, song, and mythology both in Irish and in English. Nearly all Irish place-names are based in the Irish language, and many children are given traditional Irish names. Many people feel a strong bond with the tradition, and Ireland is also characterised, I think, by a strong sense of place and interest in local history. There are regular and well-attended heritage and history events, and local history groups are active and enthusiastic presences in many towns.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previously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is located in University College Dublin. Its mission is to collect, preserve and disseminate the oral tradition of Ireland.

In recognition of the ongoing decline of the Irish language at the time of its foundation in the 1930s, and the likely loss of tradition associated with this process,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directed considerable resources to recording Irish-language tradition bearers in the early years of its operation. Some of Ireland's most famous traditional storytellers are in the Manuscript and Audio collections. There are also significant amounts of material in the Scots Gaelic and Manx languages. In recognition of its 'world significance'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culture',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Collection 1935-1970 was inscribed in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September 2017.

The 1937-39 Schools' Collection and its significance



Image: A photograph showing a group of schoolchildren in the West of Ireland in 1946, a few years after the Schools' Collection was completed.
Source: https://www.duchas.ie/ga/cbeg/14449

We will focus in this paper on one aspect of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s work: folklore and local tradition compiled by primary school pupils in the Irish Free State between 1937 and 1939. For the duration of the project, initiated by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ore than 50,000 schoolchildren from 5,000 schools were enlisted to collect folklore in their home districts. The topics included oral history, topographical information, folktales and legends, riddles and proverbs, games and pastimes, trades and crafts. The children, who were aged 11 or 12, recorded this material from their parents, grandparents, and neighbours using guidelines issued to the schools.[1)]

1) Irish Folklore Commission 1937. Irish Folklore and Tradition. Dubl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vailable at https://www.duchas.ie/assets/pdf/irish-folklore-and-tradition.pdf

The scheme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Schools' Collection'. There are 1,128 volumes, numbered and bound, in the finished Collection, with c.451,000 pages. About 100,000 pages of that are in the Irish language.

The national importance of the work was emphasized in the information and publicity material distributed at the time. Commentators of the era employed similar rhetoric:

> 'The Collection of folklore is a work of very great national importance, and second only to the salvation of the language…[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our future national welfare. If we fail we will lose a very great national heritage'.[2)]

The collection is often considered a cohesive whole, but this is not really the cas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material collected varies depending on teacher, place, and motivation. Factors including poverty and social make-up affected what was collected, as well as how teachers got involved or didn't; it is also very probable that some of the stories were invented by children desperate to finish their homework before Monday morning. In some cases no material was returned; in others, teachers took it upon themselves to instead send in material from their own district, or to copy out material from newspapers or older texts. In other cases, however, folklore-collection was a major undertaking, done with a keen sense of its importance and value.

As with any historical source,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Schools' Collection is not an authentic reflection of its own era, but rather a product created and shaped by the ideology of its time, reflecting the perspectives and biases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it. This vast collection is the result of choices made in the 1930s. For instance, cities were not deemed to hold valid traditions and folklore, and urban schools were allowed to opt out of the scheme. It was the teachers, in particular, who selected what was deemed suitable, valuable, and worthwhile from among the myriad stories and themes that could have been focused upon. In this respect, the Schools' Collection differs from other collections of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Teachers acted as intermediaries between the Commission's staff and the informants. The rise of cultural and religious conservatism in Ireland during this period had an impact on folklore collection:

> As a result of [...] growing puritanism, certain types of folklore were under-collected and certain aspects of folk life under-investigated, not due to any directive from above as such, but simply because many collectors (and some informants), for whatever reason, steered clear of such matters.[3)]

Teachers appear to have often been conservative and cautious. Between 1934 and 1958, female teachers had to resign their posts upon marriage. As a result – and given that school principals were

2) D. Downing, inspector, Galway, 'National Folklore: Children and Parents asked to help', Connacht Tribune, 20.11.1937, 22.

3) Briody, M., 2007.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1935-1970 : history, ideology, methodology. Finnish Literature Society, 55. https://doi.org/10.26530/OAPEN_617192

typically responsible for the work – the majority of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cheme were men. Teachers spent much of the 1920s and 1930s fighting against pay cuts, and this certainly diminished some of the optimism that had existed for the education system at the founding of the Free State in 1922. They faced other challenges, of course: old buildings, small schools, large classes, and low attendance rates.

There is little mention in the Schools' Collection of the children's own experiences of the Scheme, because they had to adhere to the topics assigned to them rather than commenting on their own circumstances. The bulk of the Schools' Collection was gathered in rural schools, and it is likely that this activity would not have been prioritized at home when important farm work needed to be done. The children themselves might well have been working on the land. Furthermore, the informants were often hard-pressed for time, and many families were very poor, as one teacher remembered:

> 'Odd as it now sounds, it seemed normal that children should have dirty, bloody bare feet, that lice should crawl over their jackets, that flea-marks should pock their bodies, that they should be hungry and poor.[4)]

The most detailed insight into the operation of the Schools' Scheme in the classroom comes from Pádraig Tyers, who participated in the scheme as a pupil and later became a professional folklorist:

> He [the teacher, Gearóid Ó Coindealbháin] also valued folklore; whe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30s, the Irish Folklore Society [sic] asked the country's primary school principals to have their pupils collect folklore in their own localities – an initiative known as the Schools' Collection – Garry embraced the plan enthusiastically. Every Monday morning during that period, the senior boys would bring in a snippet of information they had gathered from their own families or from one of the neighbours. I had fairly neat handwriting, and perhaps that is why Garry assigned me the task of transcribing all these fragments into the large, hard-backed book provided by the Society. When I met a former schoolmate again for the first time two years ago, this is what he said to me: "There are two things I remember about you. You were the one who wrote the folklore snippets into the big book for Garry, and you could throw a stone further than any of the rest of us."[5)]

In some cases, the work was a source of great pride to teachers and pupils alike, a chance to contribute to the important task of folklore-collection and preservation. As one teacher wrote of his pupils,

> …they became most enthusiastic and the result is this book. If it proves of little value please do not blame our children. They did their best and imagine they have done wonders.[6)]

4) MacMahon, B., 1992, The Master. Poolbeg, 8

5) Tyers, P., 2003. Sliabh gCua m'Óige. An Sagart, 19-20 (my translation), quoted in Bhreathnach, Ú., Eacháin, C. M., & Cleircín, G. Ó. (2017). "Is doiligh olann a bhaint de ghabhar": Tráchtaireacht an Mhúinteora ar Imleabhair Bhailiúchán na Scol. Béaloideas, 85, 122–142. http://www.jstor.org/stable/45213409

6) The Schools' Collection, Volume 0957, Page 221. https://www.duchas.ie/en/cbes/4742056/4731453

When examining the Schools' Collection, one must always take note of the influence and central role of the teachers. They are the primary reason for the variations between schools—regarding the volume of material, language (and dialect or standard), and quality. When they hel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folklore of their local area—as was often the case—this was reflected in their pupils' work, and the teachers themselves frequently undertook the lion's share of the work in recording the material. Conversely, when that attitude was lacking, very little material was produced – to say nothing of the school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Scheme at all.

Despite these flaws and limitations, the Schools' Collection was recognised at the time and is still recognised as 'a work of national importance' and as a visionary move at a time when the Irish nation was still recovering from civil war and independence. It is a snapshot of the nation at a point in time when many important events – the Great Famine, the war of Independence, the Civil War – were still in living memory, and when many farming, household and religious traditions were still very much alive. It is the envy of many national folklore departments:

> It is tempting to think of it as a snapshot of the state of Irish tradition across the greater part of Ireland, a long exposure, as it were, taken over a period of eighteen months.[7)]

Decision to digitise

This collection was carefully preserved in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where it was catalogued and open to visitors but not very widely known outside of academia.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also comprises a manuscript collection (mostly material collected by professional folklorists), sound recordings, video material, photographs and artefacts. The Irish government decided in 2012 to provide for the digitisation and publication of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material, starting with the Schools' Collection and then moving on to the other collections.

The research group where I work, Gaois[8)] ('Gaois' means 'wisdom'), is a part of the School of Irish in DCU. We have been working over the years on various Irish-language online resources, such as a National Terminology Database[9)] and a National Placenames Database[10)], which make it easier to access, understand, and use the Irish language, both for work and for pleasure. These resources, funded by government contracts, are heavily used by speakers of and students of the language.[11)]

We in Gaois partnered with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to plan for the Dúchas National Folklore

7) Ó Catháin, Séamas 1998. 'It's us they're talking about' in: Proceedings from the McGlinchey Summer School 1998, Donegal. https://www.duchas.ie/assets/pdf/schools-scheme-ocathain.pdf

8) www.gaois.ie

9) www.tearma.ie

10) www.logainm.ie

11) Usage statistics for all the sites are available at stats.gaois.ie.

Collection Digitisation Project, which has been active since 2012 and funded by the Irish Government since that date through a rolling series of contracts. We have been sharing our expertise – they with archives and we with digitisation and project management – very successfully over the course of this project.

Digitisation, description and opening of the archive.

The process of digitisation, though very time-consuming,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material is scanned, metadata (names of collectors and informants, placenames, story titles, etc) is deciphered and input, and it is published online with some explanatory information and further reading. We developed a policy on hiding material which might cause offence to particular individuals or their families, and another policy on flagging material which is insulting or inappropriate. The metadata and scanned material are safely archived by University College Dublin.

The Dúchas website ('Dúchas' means 'heritage'), launched in late 2013, and renewed several times since then, was designed to be simple and accessible from a geographic, story or person perspective. We added material as it was prepared, and got as much publicity as we could. The site was very well-received and we immediately started receiving correspondence, often from the families of the children who had collected material, some of whom were still alive. One TV programme, for instance, visited elderly people as they were shown their childhood writings.[12)]

Volunteer transcription project

In 2015, having read about other citizen-science and community transcription projects, we decided to pilot the approach on Dúchas. We thought that this might work well because of the material itself: each story is relatively short and simple, and the handwriting, because it was written by 11- or 12-year-olds under close supervision from their teachers, or sometimes by the teachers themselves, is extremely clear. The topics themselves are of general interest. We also thought that relatives of the original participants, or children now attending the original schools, might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We called this volunteer transcription project a Meitheal; this is an Irish concept indicating a temporary cooperative labour group which pools time, skills and tools for a bounded task such as harvesting crops or building a house.

12) RTÉ Nationwide, broadcast on 25 August 2014, available at youtube.com/watch?v=s1eT6eKXOPo&feature=youtu.be



Image: A turf-cutting meitheal, in County Kerry (1947). Source: https://www.duchas.ie/ga/cbeg/21971

We decided on a clear structure, with short instructions (because generally nobody reads instructions), an optional sign-in feature, and a very clear and simple approach to the task. Because we weren't recruiting specialists, but interested members of the public, it was important that the work was attractive and clear. A developer on the site, Michal Měchura, has set out six simple rules for successful community transcription[13], and I summarise them here:

Rule 1: Have a sense of purpose: the task must be meaningful and worthy:

> The task you are asking volunteers to do must be something which makes a difference, something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or on some subset of it, something which gives the volunteers a (justified) sense of satisfaction. If you can't confidently explain how your task has those qualities, then maybe crowdsourcing isn't a good recipe for getting the task done and maybe you should reconsider before you end up investing in a crowdsourcing platform with no crowd.

Rule 2: Go copyleft: the work must be open to you, but also to the transcriber (and, by extension, to anyone) for fair reuse.

Rule 3: Keep it simple: the task should be easy for many kinds of people to do, not just those who 'have a university degree in some specific subject or previous experience in something uncommon'.

Rule 4: Keep it short: a few minutes' work at a time. Long tasks are far more likely to be abandoned.

Rule 5: Keep it user-friendly: no complicated tools or long training videos, and make sure that the task is actually suitable for non-specialists.

Rule 6: Let them take pride: Build features to let people show off their skills and the work they have done, perhaps with profile pages or a gentle, not-too-competitive leaderboard.

13) Měchura, M., 2026. 'Six golden rules of crowdsourcing in digital humanities' (blogpost). https://www.lexiconista.com/six-golden-rules-of-crowdsour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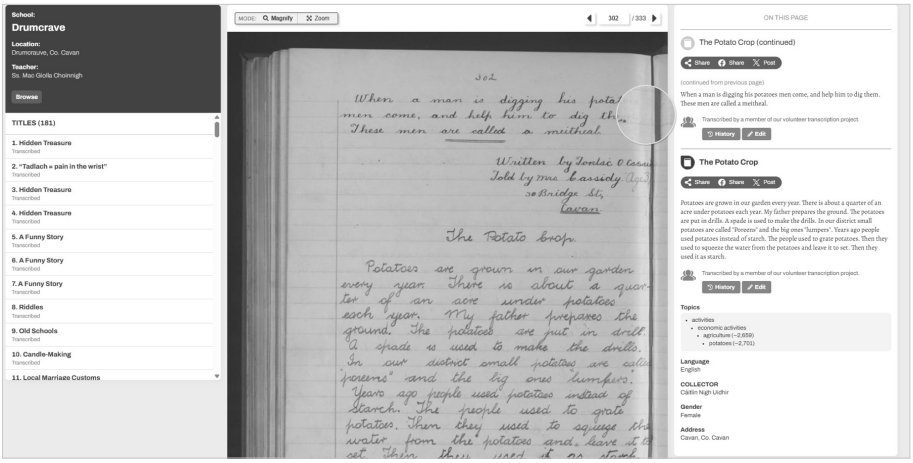


Image: An example of a page on Dúchas.ie (https://www.duchas.ie/en/cbes/5044827/5042264) showing: a list of titles from Drumcrave, Co. Cavan; a digitised page from the Schools' Collection; a transcription of the two stories on the page; and story metadata.

We were not expecting perfection. A project editor was made responsible for checking the first few pages transcribed by a new member; if these were reasonably good, the member was promoted to 'senior member' and transcriptions were no longer routinely checked. The same staff member undertook to answer emails and social-media queries from Meitheal members. We used our blog and weekly newsletter to share transcription statistics and interesting s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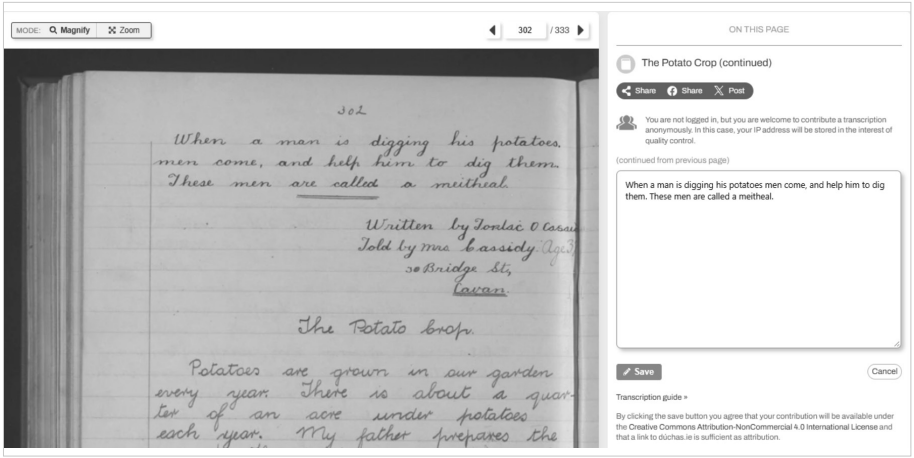


Image: An example of a page on Dúchas.ie (https://www.duchas.ie/en/cbes/5044827/5042264) showing: a story; and a transcription box with a link to the transcription guide and licence and attribution guide.

Alternative approaches

Two alternative approaches to crowdsourcing were (1) to do the work ourselves, and (2) automation. Doing all the transcription ourselves was not considered feasible. Handwritten text recognition, or HTR, was not as developed in 2015 as it is now, particularly for a lesser-used language such as Irish which comprises 20% of the material. We did experiment with HTR at a later stage, and with reasonable results. However I would argue that the intrinsic value of the transcription task for the participants was an important reason for its existence.

Results of the transcription project

The Schools' Collection, 450,000 pages, was fully transcribed between 2015 and 2025. 9,000 people created accounts. This is a remarkable result.

Of course, material is not perfectly transcribed and transcribers make mistakes, whether through haste or incomprehension. This is to be expected, but we have found that errors are usually corrected by others. In any case, the original manuscript is always available beside the transcription, and we consider it the responsibility of the reader or researcher to always check the original source material.

When we looked at transcriber statistics in 2023, something remarkable emerged. We discovered that it was not really a case of 'many hands making light work' as we had anticipated, but rather a few hands doing a lot of work. By May 2023, Meitheal Dúchas had 4,316 signed-up members, and their contributions may be broken down as follows:

- The median number of transcriptions per member was 6 pages, and 2,700 members transcribed 10 pages or fewer.
- 1,200 members transcribed between 11 and 100 pages.
- A smaller cohort, 425 members, transcribed between 101 and 1,000 pages.
- The 65 most prolific transcribers, who accounted for just 1.5% of members, transcribed 73% of all pages, over 1,000 pages each. Following the example of Transcribe Bentham[14)], we call those 65 members who transcribed 1,000 or more pages, over many hours, super-transcribers.
- Not only that, but the 10 most prolific transcribers accounted for 38% of all pages, 217,000.

This pattern of involvement is not unique to this project; similar results are reported on a Latvian folklore project.[15)]

14) Causer, T., Grint, K., Sichani, A. and Terras, M., 2018. 'Making such bargain: Transcribe Bentham and the quality and cost-effectiveness of crowdsourced transcription',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3:3, pp. 467-87.

15) Reinsone, Sanita. 2020. Searching for deeper meanings in cultural heritage crowdsourcing. 10.4324/9780429197536-14.

Value of the Meitheal project

The immediate result of the Meitheal transcription was that texts became more easily readable and searchable on the Dúchas site. The site has a full-text search which allows users to search through all titles and transcribed texts.

The Schools' Collection texts comprise a valuable corpus in themselves. Another project on which we work is the National Corpus for Irish, and we plan to add the transcribed Irish-language texts to the National Corpus. The English-language transcriptions are also valuable for research into local usage, dialect, and language change.

In common with most if not all digital humanities projects, we have in the last year or two noticed a new development: the large-scale scraping of Dúchas metadata and transcriptions by AI agents for usage in LLMs. Copyright notices (Dúchas material is CC-NC-BY) seem to be no deterrent to this, and we are aware of the ethical issues raised by having the voice of the past re-used and abused in this fashion. This is not something we have solved, but it is something we need to discuss more, especially as we put more recent material online.

We feel that the Meitheal transcription project has intrinsic value for participants. We do not collect information about transcribers or about their motivations, so we cannot say much about who they are. Some are students, participating as part of university modules in folklore studies. Transcription offers a chance to engage with primary sources, and, we think, a sense of discovery. Others are interested, for whatever reason, in the Irish language, in English as spoken in Ireland, in local history, or in folklore. Participation is voluntary, of course.

Schools (both primary and secondary) and universities were among the most enthusiastic users of the Meitheal from the start. For example, pupils from Scoil Mhaodhóig, Poulfur, Fethard-on-Sea participated as a way to mark their move to a new school premises:

> As we prepared to move to our new school, and our old school was being demolished, we thought it would be a cool idea to play our part in transcribing the material from our school, and so, 1st and 6th class came together to work as historians and transcribe the stories from Poulfur National School. This initiative ticked so many boxes for us, and gave many rewards to the children. It gave them an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to learn about places, archaeological features, events and stories from their community. It was also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how some things have changed and others have stayed the same over those years. We followed this up by collecting our own stories of life in school, and compared them with stories that had been collected.[16)]

16) Ms Lynch & Ms Hynes, 2017. 'Tuairisc ó bhall de Mheitheal Dúchas.ie' (blog post) https://www.gaois.ie/blg/ga/cupla-focal-o-bhall-de-mheitheal-duchas.ie/

Since it became available online, the Schools' Collection has been used as a resource and inspiration. I list some examples of which I am aware here, but there are many, many more.

- Irish artist Alan Dunne used the Collection to explore and illustrate traditional cures, using a small gra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17)]
- The weightlifter David Keohan (know as Indiana Stones[18)]) used the Schools' Collection to investigate and revive a tradition of stone-lifting as a test of strength. This was made into a television documentary and a book.[19)]
- The Collection has been used for research, for example into dentistry, medical history, ethnobotany, religious ritual, foodways, and other areas.[20)]
- The Collection is used for popular history and folklore discussion, most notably in podcasts (the Blindboy podcast, for example, with c.1m monthly listeners[21)] and 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s own Folklore Fragments podcast) and in books which draw on or reproduce Collection material.
- Regular events draw on the Collection for inspiration; during the 2026 Heritage Week, for example, one event invited participants to create dolls based on descriptions in the Collection.[22)]

A new Schools' Collection?

The idea of a new, 21st-century Schools' Collection is frequently mooted. This was announced by the Irish Government in 2024[23)] but has not to my knowledge progressed beyond this stage. There

17) https://www.alandunne.ie/work/cures

18) https://www.instagram.com/_indiana_stones_/

19) Keohan, David, 2026. The Wind Beneath the Stone: My Quest to Unearth a Piece of Ireland's Folklore. Bloomsbury.

20) See, for example: Barron, C. et al. 2018. 'Put a Frog in Your Mouth: Toothache "Cures" From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Irel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Barron, C. et al. 2020. 'Snails, Water in a Stone, and Holy Wells: An Examination of Wart Cures from the Irish Schools' Folklore Collection, 1937–38'. Folklore
Mac Con Iomaire, M. & Nic Philibin, C. (2022). Exploring the Food-Rel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ealtaine (May Day) within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s Schools' Collection Digital Archive. Études irlandaises. 47-1. 15-32. https://doi.org/10.4000/etudesirlandaises.12548
Ryan, S. (2023). The Sick Call and the Drama of Extreme Unction in Irish Folklore. Studies in Church History, 59, 411–432. doi:10.1017/stc.2023.18
Shannon, F., Sasse, A., Sheridan, H., & Heinrich, M. (2017). Are identities oral? Understanding ethnobotanical knowledge after Irish independence (1937-1939). Journal of ethnobiology and ethnomedicine, 13(1), 65. https://doi.org/10.1186/s13002-017-0189-0

21) https://theblindboypodcast.ie/

22) https://thebuttermuseum.com/sustainable-toys-making-duchas-dolls/

23) Department of Education and Youth, 2024. 'Minister Foley announces new schools' folklore project at event marking Department centenary' (press release). https://www.gov.ie/en/department-of-education/press-releases/minister-foley-announces-new-schools-folklore-project-at-event-marking-department-centenary/

are many questions which would need to be examined, however: ethics; data protection; long-term storage and access policies; what exactly would be collected. These questions – luckily for us – did not trouble the collectors of the 1930s, but they cannot be avoided today. Irish society has changed profoundly since the 1930s, and while there will always be folklore, history and traditions, they are not always local or commonly shared among geographic communities.

The Canúint project and preservation of dialect material

In 2024 the Gaois research group started on a new but related project on Irish-language dialect. The Irish language is a language of many local dialects. These dialects have of course been studied by scholars, but there was no accessible way to find and listen to examples of the dialects at a granular local level.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broadcaster, RTÉ, which was digitising its early Irish-language radio recordings, we received funding to create a new dialect resource.

We selected 200 exemplary recordings made since the 1940s, covering every part of the country where Irish is (or was, in living memory) spoken, and we pinned those recordings to a map. We transcribed them in dialect and in standard Irish, and made them available to search, to read and to listen along to, karaoke-style. This resource, Canúint.ie ('Canúint' means 'dialect'), was launched last year.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 new version of the site, with richer search and mapping, with more recordings (some of them from Dúchas and some from other collections), and with a community transcription Meith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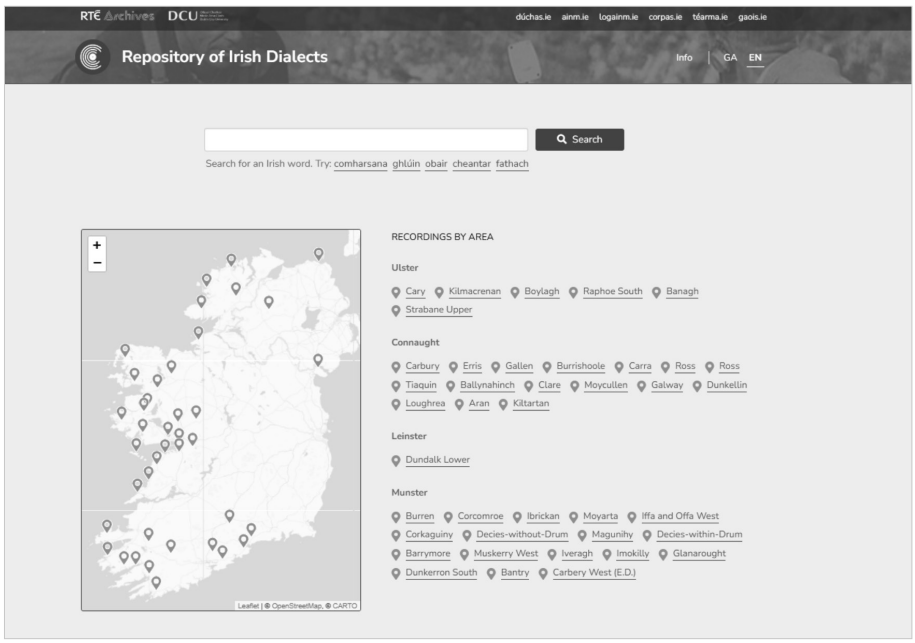


Image: The Canúint.ie Repository of irish Dialects site.

We are launching this transcription Meitheal as a learning and research (and fun!) resource, but also for pragmatic reasons. Transcription of complicated old audio material is extremely challenging and time-consuming. Although we have a highly educated and engaged research staff, we realis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them to do all this transcription by themselves. If sound material is not transcribed, it is very difficult to search, and is of limited research value.

Sound transcription is of course more complicated than text transcription, and we do not expect that the participation will be as great as with Meitheal Dúchas. That said, we suspect that certain speakers and advanced learners of the Irish language will get involved, particularly as transcription is a proven method of acquiring mastery of a language. We also imagine that local communities, where the local way of saying and doing is considered supremely important, may like to get involved. As with the Meitheal Dúchas project, we recognise that the important thing is to make the task easy, inviting and rewarding. Our main developer of this project, Michal Mechura, has recently worked on a very similar Scottish transcription project[24], and we will learn from that experience.

Further work

As a result of the success of the Schools' Collection transcription project, we decided to expand the transcription Meitheal to the rest of the Folklore Archive, which we have been digitising; this is the Main Manuscript Collection. This material was written by adults and collected from community elders, and therefore the stories are far longer and more complicated, and the handwriting is generally worse.

Despite these challenges, members of the community have been transcribing since last year. It is unlikely, however, despite its greater importance to folklorists and scholars, that this material will ever capture the public imagination in the same way as the Schools' Collection has. We are also looking at introducing a sound transcription Meitheal, as for the Canúint project, which will bring its own challenges. The Photographic Collection is online, too, and we have discussed how we might involve the public in identifying and describing people, places and scenes, but have not gone further with this yet.

Challenges and lessons from the Dúchas and Canúint projects

While involving the community in folklore research and transcription is hugely rewarding, it is not a 'quick fix' and certainly not a substitute for thought and effort. Indeed it creates its own challenges. Transcribers give enormously of themselves and both they and other users of the site are emotionally engaged with the material. We consider it our duty to respect this engagement.

One lesson we have learned is the importance of dialogue. The Irish public rightly regards the National

24) https://fosgladh.tobarandualchais.co.uk/en

Folklore Collection as its own, and users are not shy about getting in touch with us to point out errors and to make corrections. We are careful to respond with gratitude. We spend quite a lot of time answering questions about the material itself and about how to use it. We als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 about the people, about the stories, and about the places. In particular the site is of great interest to the large Irish diaspora; it is clear, from emails, what an emotional impact the discovery of a grand or great-grandparent's childhood writing can have.

Another form of dialogue is going out and speaking to people about the collection, whether in academic fora or at local events. This is time-consuming but it is important.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seen how the Schools' Collection and other folklore and dialect resources were opened up to the community. The project has been a success. However, making material available needs time and thought, and raises significant ethical, technical and practical questions.

학교 민속자료집에서 아일랜드 민속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우나 브레너흐

학교 민속자료집에서 아일랜드 민속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공공 아카이브 구축에서 교육, 디지털화, 시민 참여

(From the Schools' Collection to Dúchas.ie: Education, Digitis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a Public Archive.)

우나 브레너흐 박사(더블린시립대학)
Dr Úna Bhreathnach (Dublin City University)

제 이름은 우나 브레너흐이며, 현재 더블린시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아일랜드 국가 민속자료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 몇 년간 담당해 온, 아일랜드 민속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이루어진 민속자료의 디지털화, 공유 및 재활용 작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국가 민속자료집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이를 디지털화한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다른 곳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어, 아일랜드 전통에 관한 간단한 정보

아일랜드는 이중언어를 사용합니다. 아일랜드어는 아일랜드 공화국의 제1공용어이며, 영어는 제2공용어로 인정받습니다. 아일랜드어는 사용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언어로, 영어와는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인구 약 500만 명 가운데 매일 아일랜드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약 7만 2,000명입니다(2022년 인구총조사 기준).

아일랜드어는 오랜 식민 지배 기간을 거치면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19세기에 그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기근과 대규모 이민으로 인해 영어로의 언어 전환은더욱 빨라졌습니다. 1890년 이후 일어났고 특히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 수립 이후 추진된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은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일랜드어 사용이 집중된 지역인 게일타흐트(Gaeltacht)에서 언어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의 특정 지역에서 아일랜드어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어는 국가 수립 이후 아일랜드 사회에서 상징적 언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언론·법률·행정 분야에서 아일랜드어가 차지하는 중요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수천 명의 사용자가 이러한 주요 공적 영역에서 아일랜드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상업·의료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어는 아일랜드어로 수업을



사진: 1946년 아일랜드 서부 지역의 한 학교에서 촬영한 학생들의 모습. 학교 민속자료집이 완성된 지 몇 년 후에 촬영된 사진이다. 출처: https://www.duchas.ie/ga/cbeg/14449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며, 특히 초등교육에서 그 비중이 큽니다. 아일랜드어로 수업을 하든, 영어로 수업을 하든 상관없이 아일랜드어는 모든 학교에서 핵심 교육과정의 일부를 차지합니다. 또한 비록 소수이나 상당한 아동이 아일랜드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 학교에 다닙니다. 일부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에서도 아일랜드어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어와 영어 두 언어 모두에서 풍부한 문학·노래·신화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지명의 거의 대부분은 아일랜드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많은 어린이에게 전통적인 아일랜드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전통과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장소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지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아일랜드의 특징입니다. 문화유산과 역사를 주제로 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여러 지역의 지역사 단체들도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자료관(The National Folklore Collection)

국립민속자료관(前 아일랜드 민속위원회,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는 현재 더블린대학교(University College Dublin)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사명은 아일랜드의 구전 전통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1930년대 국립민속자료관이 설립될 당시 아일랜드어의 사용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고, 그에 따라 관련 전통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인식한 아일랜드 민속위원회는 활동 초기에 아일랜드어로 전통을 전승하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이야기꾼 가운데 일부의 이야기는 필사 자료와 음성 자료 컬렉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게일어(Gaelic)와 맨어(Manx)로 작성되거나 기록된 소장자료도 상당합니다. 아일랜드 민속위원회 컬렉션(1935~1970)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1937~1939년 학교 민속자료집과 그 의의

이 글에서는 아일랜드 민속위원회 활동의 한 측면, 즉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아일랜드 자유국의 초등학생들이 수집한 민속자료와 지역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민속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5,000개 학교의 학생 5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민속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수집 대상은 구술사, 지형 및 지리 정보, 민담과 전설, 수수께끼와 속담, 놀이와 여가 활동, 직업과 공예 등이었습니다. 당시 11~12세였던 학생들은 학교에 배포된

지침에 따라 부모와 조부모, 이웃 주민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듣고 기록했습니다.[1]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학교 민속자료집'이라고 불립니다. 완성된 자료집은 번호를 매기고 제본해서 총 1,12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분량은 약 45만 1,000쪽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쪽이 아일랜드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배포된 안내 및 홍보 자료는 학생들의 민속자료 수집 작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논평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언어를 구하는 일 다음으로 중요하다. […] 이는 미래의 국가 복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 일에 실패한다면 매우 위대한 국가적 유산을 잃게 될 것이다."[2] 그러나 흔히들 이 자료집이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양과 질은 교사, 지역, 참여 동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빈곤과 사회 내 인구 구성과 같은 요인이 수집 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들의 적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수집된 이야기는 월요일 아침까지 숙제를 끝내야만 했던 어린이들이 지어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교사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자료를 대신 보내거나 신문이나 오래된 문헌의 내용을 베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민속자료 수집은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되어 상당한 노력과 열의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그렇듯이, 학교 민속자료집이 당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자료집은 당시의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점과 편견이 녹아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집에는 1930년대 당시 무엇을 민속자료로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는 가치있는 전통과 민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으며, 도시 지역의 학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수많은 이야기와 주제 가운데 무엇이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고 가치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할지 선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 민속자료집은 아일랜드 민속위원회의 다른 자료집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위원회 직원과 정보 제공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아일랜드에서 문화적·종교적 보수주의가 강화된 것도 민속자료 수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청교도주의가 확산되면서 특정 유형의 민속자료는 충분히 수집되지 않았고, 민중 생활의 일부 측면 역시 충분히 조사되지 못 했다. 이는 상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여러 수집자와 일부 정보 제공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한 문제를 피했기 때문입니다."[3]

교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4년부터 1958년까지 여교사는 결혼하면 교사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의 대다수는 남성이었습니다. 교사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부분을 급여 삭감에 맞서

1) Irish Folklore Commission 1937. Irish Folklore and Tradition. Dubl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자료 출처: https://www.duchas.ie/assets/pdf/irish-folklore-and-tradition.pdf

2) D. Downing, inspector, Galway, 'National Folklore: Children and Parents asked to help', Connacht Tribune, 20.11.1937, 22

3) Briody, M., 2007.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1935-1970 : history, ideology, methodology. Finnish Literature Society, 55.

싸우며 보내야 했고, 이 때문에 1922년 자유국 수립 당시 존재했던 교육제도에 대한 낙관론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낡은 건물, 소규모 학교, 많은 학생 수, 낮은 출석률 등 다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학교 민속자료집에는 어린이들 자신의 프로젝트 참여 경험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정된 주제를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민속자료집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 학교에서 수집되었으며, 집안의 농사일이 바쁜 상황에서 민속자료 수집 활동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들 자신이 직접 농사일을 거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 제공자들도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많은 가정이 궁핍했습니다. 한 교사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오늘 날에는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시 아이들은 더럽고 피가 묻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가 재킷 위를 기어 다니고, 벼룩에 물린 자국이 몸에 가득했죠. 배고프고 가난한 것이 정상처럼 여겨졌습니다."[4]

교실에서 학교 민속자료집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록은 훗날 전문 민속학자가 된 파드라이그 타이어스(Pádraig Tyers)의 회고입니다. 그는 학생일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나의 선생님[기어로이드 오 코인델바인(Gearóid Ó Coindealbháin)]도 민속을 중요하게 여겼다. 1930년대 후반, 아일랜드 민속학회가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요청해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민속자료를 수집하도록 했을 때, 즉 '학교 민속자료집'으로 알려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선생님은 이 계획에 열정적이었다. 당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고학년 남학생들이 가족이나 이웃에게서 수집한 짧은 정보를 가져왔다. 나는 손글씨가 꽤 좋았고, 아마 그 때문이었겠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이 가져온 모든 정보를 학회에서 제공한 크고 두툼한 표지로 된 책에 옮겨 적는 일을 나에게 맡겼다. 2년 전 옛 학교 친구를 처음으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에 대해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어. 너는 선생님을 위해 민속자료를 큰 책에 옮겨적던 아이였고, 우리 중 누구보다 멀리 돌을 던질 수 있었지."[5]

어떤 경우에는 이 수집 활동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민속자료 수집과 보존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아이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만약 이 책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을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은 최선을 다했고,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6]

학교 민속자료집을 조사할 때는 교사의 영향력과 중심적 역할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자료의 양, 언어의 사용(방언 혹은 표준어), 자료의 질이 다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민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 태도가 학생들의 작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자료 기록 작업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부족하면 자료는 거의 생산되지 않았으며, 아예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습니다.

4) MacMahon, B., 1992, The Master. Poolbeg, 8

5) Tyers, P., 2003. Sliabh gCua m'Óige. An Sagart, 19-20 (필자 번역), Bhreathnach, Ú., Eacháin, C. M., & Cleircín, G. Ó. (2017). "Is doiligh olann a bhaint de ghabhar": Tráchtaireacht an Mhúinteora ar Imleabhair Bhailiúchán na Scol. Béaloideas, 85, 122–142에서 인용. http://www.jstor.org/stable/45213409

6) The Schools' Collection, Volume 0957, Page 221. https://www.duchas.ie/en/cbes/4742056/4731453

이러한 결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 민속자료집은 당시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작업'으로 인정받았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일랜드가 내전과 독립 이후의 혼란에서 아직 회복 중이던 시기에 이루어진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는 대기근, 독립전쟁, 내전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여전히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농업·가정·종교와 관련된 많은 전통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시기의 국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집은 많은 국가 민속학 부서가 부러워 마지않는 자료입니다.

"학교 민속자료집은 아일랜드 전역의 전통이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담아낸 하나의 기록, 말하자면 18개월에 걸쳐 촬영한 장시간 노출 사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7]

디지털화 결정

이 자료집은 국립민속자료관이 신중하게 보존하고 있으며, 목록으로 정리해 방문객에게 공개하고 있었지만 학계 밖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립민속자료관은 대부분 전문 민속학자들이 수집한 필사본 자료, 음성 녹음, 영상자료, 사진, 유물 등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2년 국립민속자료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학교 민속자료집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다른 자료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연구팀 가오이스[8](Gaois, 지혜)는 더블린시립대학교 아일랜드어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국가 용어 데이터베이스[9]와 국가 지명 데이터베이스[10] 등 다양한 아일랜드어로 된 온라인 자료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람들이 일과 취미활동을 할 때 아일랜드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아일랜드어 사용자와 학습자들이 매우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11]

가오이스는 국립민속자료관과 협력하여 국립민속자료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아일랜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친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스와 국립민속자료관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했습니다. 국립민속자료관은 아카이브 분야에서, 가이오스는 디지털화와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공했으며, 협력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카이브의 디지털화, 기술 및 공개

디지털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 과정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료를 스캔하고, 수집자와 정보 제공자의 이름, 지명, 이야기 제목 등의 메타데이터를 판독하여 입력한 다음, 설명 정보와 추가 읽을거리를 함께 제공해

7) Ó Catháin, Séamas 1998. 'It's us they're talking about' in: Proceedings from the McGlinchey Summer School 1998, Donegal.

8) www.gaois.ie

9) www.tearma.ie

10) www.logainm.ie

11) 모든 사이트의 이용 통계는 stats.gaois.ie.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온라인에 공개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숨기는 정책과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 자료에 표시를 하는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메타데이터와 스캔 자료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더블린(Univerrsity College Dublin)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두하스(Dúchas, 유산) 웹사이트는 2013년 말에 개설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편되었습니다. 사이트는 지리적 위치, 이야기, 인물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자료 이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사이트에 추가했고, 가능한 한 많은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곧바로 많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자료를 수집했던 어린이들의 가족이 보낸 연락도 많았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어린이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TV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방문해 어린 시절 자신들이 직접 쓴 수집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을 취재하기도 했습니다.[12)]

자원봉사자 전사 프로젝트

2015년 우리는 다른 시민과학 및 지역사회 전사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접한 뒤 두하스에도 이러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민속자료집의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수집 정보가 비교적 짧고 단순하며, 11~12세 어린이들이 교사의 감독 아래 작성했거나 경우에 따라 교사가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글씨도 매우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제 자체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 만했습니다. 원래 참여했던 사람들의 친척이나 현재 그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봉사자 전사 프로젝트를 '메히얼(Meitheal)'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작업을 위해 시간과 기술, 도구를 모으는 임시 협업 노동 집단을 의미하는 아일랜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진: 케리주에서 이루어진 터프 채취 공동작업(meitheal), 1947년.
출처: https://www.duchas.ie/ga/cbeg/21971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설명서를 읽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짧은 지침을 제공했고, 로그인 여부를 봉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업 방식도 매우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작업이 매력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했습니다. 사이트 개발자인 미할 메추라(Michal Měchura)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전사를 위한 간단한 원칙 여섯 가지[13)]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2) RTÉ Nationwide, 2014.8.25. 방송, youtube.com/watch?v=s1eT6eKXOPo&feature=youtu.be

13) Měchura, M., 2026. 'Six golden rules of crowdsourcing in digital humanities' (blogpost). https://www.lexiconista.com/six-golden-rules-of-crowdsourcing/

원칙 1. 목적의식을 갖게 하라. 작업은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에게 요청하는 작업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 또는 사회의 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원봉사자에게 정당한 성취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크라우드소싱이 적절한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투자해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2. 비저작권(copyleft) 형태를 취하라. 작업은 프로젝트 운영자뿐 아니라 전사자, 더 나아가 누구라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원칙 3. 단순하게 만들어라. 특정 분야의 대학 학위를 소지하거나 특수한 분야에서 사전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

원칙 4. 짧게 만들어라. 한 번에 몇 분 정도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원칙 5.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라. 복잡한 도구나 긴 교육 영상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 작업이 실제로 비전문가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원칙 6.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라. 자신의 능력과 작업 결과물을 자랑할 수 있는 프로필 페이지나 지나치게 경쟁심을 자극하지 않는 순위표 같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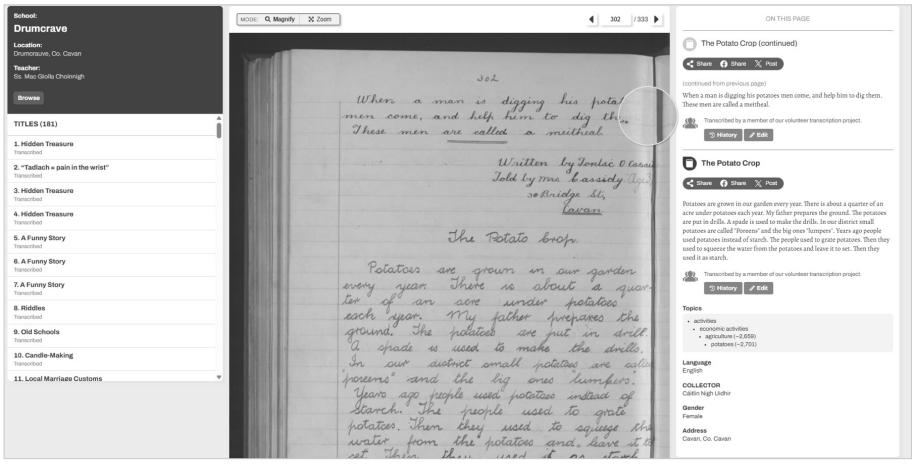


사진: Dúchas.ie의 한 페이지 예시. (https://www.duchas.ie/en/cbes/5044827/5042264) Drumcrave(케이반주)의 자료 제목 목록, 디지털화된 학교 민속자료집 페이지, 해당 페이지에 수록된 두 이야기의 전사본 및 이야기 관련 메타데이터를 보여준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편집자는 새 봉사자가 처음 전사한 몇 쪽을 확인하고 결과가 괜찮으면 해당 회원을 '시니어 회원'으로 승격시킨 뒤 이후에는 전사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담당자가 자원봉사자들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문의에도 답변했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주간 뉴스레터를 활용해 전사 통계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Image: An example of a page on Dúchas.ie (https://www.duchas.ie/en/cbes/5044827/5042264) showing: a story; and a transcription box with a link to the transcription guide and licence and attribution guide.

대안

크라우드소싱을 대체할 두 가지 대안은 (1) 우리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2) 자동화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손글씨 텍스트 인식(handwritten text recognition)이 현재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체 자료의 20%를 차지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은 아일랜드어와 같은 언어는 인식률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후 손글씨 텍스트 인식을 시험해 보았더니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여자들이 느끼는 전사 작업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가 이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사 프로젝트의 결과

45만 쪽에 달하는 학교 민속자료집은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모두 전사되었습니다. 9,000명이 봉사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물론 자료가 완벽하게 전사된 것은 아니며, 전사자들이 서두르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다른 참여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수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원본 필사본은 항상 전사본과 나란히 배치되며, 원본을 확인할 책임은 독자나 연구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전사자 통계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많은 사람이 힘을 보태어 작업량을 줄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매우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메히얼 Dúchas에 가입한 회원수는 4,316명이었으며, 이들의 기여는 다음과 같이 나뉘었습니다.

- 전사 페이지 수의 평균값은 회원 1인당 6쪽이었으며, 2,700명은 10쪽 이하를 전사했습니다.
- 1,200명은 11~100쪽을 전사했습니다.
- 그보다 작은 집단인 425명은 101~1,000쪽을 전사했습니다.
- 가장 많은 작업을 한 65명의 전사자는 전체 회원의 불과 1.5%였지만 전체 페이지의 73%를 전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1,000쪽 이상을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자 제러미 벤담 전사 프로젝트(Transcribe Bentham)14)의 사례를 따라 1,000쪽 이상을 전사한 이 65명을 '슈퍼 전사자(super-transcribers)'라고 부릅니다.
-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작업을 한 상위 10명이 전체 페이지의 38%인 21만 7,000쪽을 전사했습니다.

이러한 참여 양상은 이 프로젝트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라트비아의 민속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15)]

메히얼 프로젝트의 가치

메히얼 전사의 즉각적인 성과는 두하스 사이트의 텍스트를 더 쉽게 읽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이트는 모든 자료의 제목과 전사된 텍스트를 통해 전문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 민속자료집의 텍스트 자체도 매우 가치 있는 말뭉치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아일랜드어 국가 말뭉치(National Corpus for Irish)이며, 전사된 아일랜드어 텍스트를 이 말뭉치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영어로 전사된 자료 역시 지역적 언어 사용, 방언, 언어 변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난 한 두해 사이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대규모로 두하스의 메타데이터와 전사본을 수집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하스 자료에는 저작자를 표시한다는 전제 하에 비영리적 이용만 가능함을 알리는 저작권 표시(CC-NC-BY)가 있지만, 이것이 AI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목소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재사용되고 오용되는 데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더 최근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이므로 더 많이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메히얼 전사 프로젝트가 참여자들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자에 관한 정보나 그들이 참여하는 동기를 수집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민속학 관련 대학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입니다. 전사 작업은 1차 자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며,

14) Causer, T., Grint, K., Sichani, A. and Terras, M., 2018. 'Making such bargain: Transcribe Bentham and the quality and cost-effectiveness of crowdsourced transcription',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3:3, pp. 467-87.

15) Reinsone, Sanita. 2020. Searching for deeper meanings in cultural heritage crowdsourcing. 10.4324/9780429197536-14.

이를 통해 발견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어, 아일랜드에서 사용되는 영어, 지역사 또는 민속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처음부터 메히얼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한 기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페타드온시(Fethard-on-Sea)에 위치한 스콜 마이그 풀퍼(Scoil Mhaodhóig Poulfur) 학교 학생들은 새 학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새 학교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존 학교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료를 전사하는 데 참여하면 멋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과 6학년 학생들이 함께 역사학자가 되어 풀퍼 국립학교(Poulfur National School)의 이야기를 전사했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었고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작업하면서 지역의 장소, 고고학적 특징, 사건과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어떤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배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학교 생활 이야기도 수집하여 이미 수집된 이야기와 비교했습니다."[16]

학교 민속자료집은 온라인에 공개된 이후 자료이자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아일랜드 예술가 앨런 던(Alan Dunne)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규모 지원금을 받아 전통적인 치료법을 탐구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자료집을 활용했습니다.[17]
- '인디애나 스톤스(Indiana Stones[18])'로 알려진 역도선수 데이비드 키언(David Keohan)은 학교 민속자료집을 활용해 돌 들어 올리기 전통을 조사하고 힘을 시험해 보는 방법으로서 되살렸습니다. 이 작업은 TV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제작되었습니다.[19] Keohan, David, 2026. The Wind Beneath the Stone: My Quest to Unearth a Piece of Ireland's Folklore. Bloomsbury.
- 자료집은 치의학, 의학사, 민족식물학, 종교의례, 음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도 활용되었습니다.[20]

16) Ms Lynch & Ms Hynes, 2017. 'Tuairisc ó bhall de Mheitheal Dúchas.ie' (blog post) https://www.gaois.ie/blg/ga/cupla-focal-o-bhall-de-mheitheal-duchas.ie/

17) https://www.alandunne.ie/work/cures

18) https://www.instagram.com/_indiana_stones_/

19) Keohan, David, 2026. The Wind Beneath the Stone: My Quest to Unearth a Piece of Ireland's Folklore. Bloomsbury.

20)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 Barron, C. et al. 2018. 'Put a Frog in Your Mouth: Toothache "Cures" From Nineteenth- And Twentieth-Century Ireland'.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Barron, C. et al. 2020. 'Snails, Water in a Stone, and Holy Wells: An Examination of Wart Cures from the Irish Schools' Folklore Collection, 1937–38'. Folklore
Mac Con Iomaire, M. & Nic Philibin, C. (2022). Exploring the Food-Rel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ealtaine (May Day) within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s Schools' Collection Digital Archive. Études irlandaises. 47-1. 15-32. https://doi.org/10.4000/etudesirlandaises.12548
Ryan, S. (2023). The Sick Call and the Drama of Extreme Unction in Irish Folklore. Studies in Church History, 59, 411–432. doi:10.1017/stc.2023.18
Shannon, F., Sasse, A., Sheridan, H., & Heinrich, M. (2017). Are identities oral? Understanding ethnobotanical

- 또한 자료집은 대중 역사와 민속에 관한 논의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팟캐스트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월간 청취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팟캐스트인 블라인드보이(the Blindboy)[21]와 국립민속자료관 자체 팟캐스트인 민속의 단편들(Folklore Fragments) 등이 자료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나 재현한 책들도 있습니다.
- 자료집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에도 영감을 줍니다. 2026년 헤리티지 위크(the 2026 Heritage Week)의 한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자료집에 수록된 설명을 바탕으로 인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22]

새로운 학교 민속자료집?

21세기의 새로운 학교 민속자료집을 만들자는 의견은 자주 제기됩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에 계획을 발표했지만[23], 그 후 계획에는 어떤 진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고 할지라도 검토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윤리, 개인정보 보호, 장기적인 보관 및 접근 정책,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수집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행히 1930년대의 수집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930년대 이후 아일랜드 사회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민속, 역사, 전통은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반드시 특정 지역에 속하거나 지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눈트(Canúint,방언) 프로젝트와 방언 자료의 보존

2024년 가오이스 연구팀은 새로운 그러나 민속자료집과 연관된 아일랜드어 방언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아일랜드어에는 수많은 지역 방언이 존재합니다. 학자들은 물론 이러한 방언을 연구해 왔지만, 매우 세부적인 지역 수준에서 각 방언의 실제 사례를 찾아 듣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영 방송사 RTÉ가 초기 아일랜드어 라디오 녹음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는 방송사와 공동으로 새로운 방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1940년대 이후 제작된 대표적인 녹음자료 20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자료들의 생산지는 아일랜드어가 현재 사용되거나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되었던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괄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또한 방언과 아일랜드 표준어 두 가지 방식으로 전사했으며, 노래방처럼 검색하고 따라가면서 읽거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인 Canúint.ie는 지난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검색과 지도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녹음 자료를 추가한 새로운 버전의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녹음자료 가운데 일부는 두하스 자료이고

knowledge after Irish independence (1937-1939). Journal of ethnobiology and ethnomedicine, 13(1), 65. https://doi.org/10.1186/s13002-017-0189-0

21) https://theblindboypodcast.ie/

22) https://thebuttermuseum.com/sustainable-toys-making-duchas-dolls/

23) Department of Education and Youth, 2024. ‘Minister Foley announces new schools' folklore project at event marking Department centenary’ (press release). https://www.gov.ie/en/department-of-education/press-releases/minister-foley-announces-new-schools-folklore-project-at-event-marking-department-centenary/

일부는 다른 자료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사 메히얼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아일랜드 방언 저장소(Canúint.ie) 웹사이트.

우리는 이 전사 메히얼을 학습과 연구자료, 혹은 그냥 재미거리로 시작하겠지만 여기에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오래된 음성자료를 전사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연구진은 높은 전문성과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갖추고 있지만, 연구진만으로 모든 전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음성자료는 전사하지 않으면 검색하기가 매우 어렵고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성 전사는 당연히 문자 전사보다 복잡하며, 따라서 참여 규모도 두하스 메히얼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정 구사자와 고급 학습자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왜냐하면 전사 작업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말투와 생활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사회도 참여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하스 메히얼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쉽고, 매력적이며,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자인 미할 메추라는 최근 매우 유사한 스코틀랜드 전사 프로젝트[24]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그 경험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향후 작업

학교 민속자료집 전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우리는 전사 메히얼을 우리가 디지털화하고 있는 민속 아카이브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주요 필사본 자료집(Main Manuscript Collection)입니다. 이 자료는 성인이 작성하고 지역사회의 원로들로부터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훨씬 길고

24) https://fosgladh.tobarandualchais.co.uk/en

복잡하며, 일반적으로 글씨도 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지난해부터 전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사본 자료집이 민속학자와 학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학교 민속자료집만큼 대중의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눈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음성자료 전사 메히얼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도 이 작업 나름의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사진 자료집(Photographic Collection) 역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이 사진 속 인물과 장소, 장면을 알아내고 설명하는 프로젝트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더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두하스와 카눈트 프로젝트에서 얻은 과제와 교훈

지역사회를 민속 연구와 전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지만, '손쉬운 해결책'은 아니며 고민과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젝트로 인해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전사자들은 작업에 온 정성을 다하며, 이들과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은 자료에 애정을 가집니다. 이러한 참여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아일랜드 국민은 당연히 국립민속자료관을 자신들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사항을 알려줍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료 자체에 관한 질문뿐 아니라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답변합니다. 또한 자료집에 관한 정보, 즉 사람, 이야기, 장소에 관한 정보도 이용자들로부터 전달받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는 규모가 큰 아일랜드 디아스포라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조부모나 증조부모가 어린 시절 직접 쓴 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대화는 자료집에 대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자리에서든 지역 행사에서든 사람들과 만나 자료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학교 민속자료집과 기타 민속 및 방언 자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며, 상당히 중요한 윤리적·기술적·실무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서울 제2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시사점

: 조례·평가·조직·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채경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서울 제2기 역사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시사점

: 조례·평가·조직·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채경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발표자는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였다. 서울 관련 서술은 같은 연구의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 4. 27.),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원문에 근거한다. 보고서 최종안과 서울시 공식 계획은 구분하여 서술하였다[1)]

Ⅰ. 머리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조례 제4325호)을 통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를 근거로 2027~2031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첫 법정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필자는 2022년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제1기 성과평가, 전문가·시민 조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와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제2기 과제와 재정계획의 설계를 총괄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공개된 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진의 제안이 행정계획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뒤, 이를 제주역사 정립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 및 실행 조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발표문에서는 서울을 종합 역사정책 조례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함께 갖추고, 제1기 계획의 실행을 거쳐 제2기 계획으로 이행한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조례–기본계획–연차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차기 계획으로 이어지는 운영구조를 살펴보고, 서울시·위원회·전문기관·자치구 사이의 역할분담을 분석한다.

또한, 서울의 역사도시 정책을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첫째, 조례가 역사정책의 범위와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였는지 살펴본다. 둘째, 추진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누가 담당하였는지 분석한다. 셋째,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기 계획이 제2기 계획으로 갱신된 과정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의 조례·추진조직·기본계획을 차례로 다루고, 제주역사 정립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본문의 '최종보고서'는 서울특별시·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22),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주 초안'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26), 『제주역사 정립 5개년(2027–2031) 기본계획』 편집 초안을 가리킨다. 쪽수는 각 문서 본문에 인쇄된 쪽수이다.

Ⅱ. 조례: 역사정책의 범위와 책임

1. 편찬 조례에서 역사도시 조례로의 전환

서울의 역사정책은 편찬에서 출발하였다. 1949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54년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 상설 조직인 서울역사편찬원이 발족하였다. 여기에 2016년 역사도시 조례와 제1기 기본계획이 더해지면서 정책의 대상이 사료와 역사서에서 도시공간·역사환경·시민의 역사 경험으로 넓어졌다(제주 초안, pp.106–108). 서울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위에 종합정책 조례를 한 층 더 얹은 셈이다. 급격한 도시개발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의 조사·보존과 도시계획, 연구·교육, 전시·활용이 기관별·사업별로 흩어져 있었고, 서울의 역사를 '조선 600년'으로만 인식하는 경향도 강했기 때문이다. 제주 초안이 인용한 2016년 조사에서 서울의 역사를 600년으로 인식한 시민은 55.9%, 2천 년으로 인식한 시민은 5.0%였다(제주 초안, p.107).

2.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구성과 특징

<표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구성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총칙	제1~5조	목적(역사도시 조성·진흥, 시민의 역사문화 향유와 자긍심), 정의('역사도시', '역사문화자원'), 시민의 권리(제3조),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 원칙	제6조	① 역사적 가치·정체성 회복 ②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 ③ 미래지향적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④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향유 보장
기본계획	제7조	5년마다 수립·시행. 필수사항 8개(기본방향, 발굴·보존·활용, 시민 권리·향유, 연구·교육, 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 예산·재원, 기타). 수립 시 위원회 심의 의무(제7조②)
개별 시책	제8~16조	보존(개발사업과의 조화), 역사도시환경(도시계획·건축과 연계), 활용, 향유(지역 역사관·박물관 지원), 정보화, 연구(서울학), 시민교육, 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제17~26조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정책·기본계획 심의. 25명 이내, 위원장 2명(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 1명), 시의원·전문가·공무원, 분과위원회, 제척·기피·회피(제21조), 회의 기록·공개 원칙(제23조④), 관계기관 자료요청·협조(제24조)

자료: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조례 제9882호, 2025. 9. 29. 시행) 원문을 정리.

이 조례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권리와 원칙을 계획보다 앞에 두었다. 시민이 정책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권리(제3조)와 네 가지 기본원칙(제6조)은 기본계획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판단 기준이다. 권리 조항은 성과를 보는 눈도 바꾼다. 역사관을 개관하거나 자료를 온라인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향유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생활권에서의 접근, 이용 시간, 검색 가능성, 안내의 이해 가능성, 장애와 연령에 따른 이용 조건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내용을 조례에 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항의 8개 필수사항은 제2기 수립 연구의 연구범위로 그대로 설정되었고, 비전 수립 단계에서도 필수 포함사항으로 적용되었다(최종보고서, pp.4, 257). 담당자와 위원이 바뀌어도 계획이 다루어야 할 범위, 곧 연구·교육, 교류, 전문인력, 예산이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이다. 셋째, 보존을 도시개발과 분리하지 않았다. 제8조 제2항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제9조는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역사적 특색을 살린 경관·주거환경 시책을 요구한다. 이 규정은 매장유산 지표조사 공영제와 '공평동 룰' 처럼 도시계획 수단과 결합한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문화유산 부서의 보존 요구를 도시계획과 건축의 조정수단에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원칙은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다른 부서가 쓰는 제도와 결합할 때 실행력이

생겼다.

3. 서울과 제주의 조례 비교

서울 조례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이전 계획의 평가, 정책을 상시 집행할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연구·시민교육·전문인력 조항(제13·14·16조)도 대부분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이 공백은 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제1기 평가는 계획기간이 끝난 뒤의 이행과제 실태조사(2021)와 제2기 수립 연구의 설문(2022)에 의존하였고, 전문가들은 제1기의 가장 큰 한계로 연구·교육 전담조직의 부재를 꼽았다. 또 1기 종료(2021)와 2기 시작(2023) 사이 2022년은 법정 계획기간에 속하지 않았다. 조례가 선언한 기능과 실제 운영 장치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의 첫 번째 교훈이다.

<표 2> 서울·제주 역사정책 조례의 주요 항목 비교

항목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권리·원칙	역사도시·역사문화자원 정의(제2조), 시민의 권리(제3조), 4개 기본원칙(제6조)	정의·권리·원칙 조항 없음(원칙은 기본계획에서 제시)
단체장 책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에 노력하여야 함(제4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제2조, 임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필수사항 8개(제7조①)	5년마다 수립, 필수사항 5개(방향·목표, 이전 계획 평가, 예산·재원, 정책 발굴, 기타)(제3조①)
이전 계획 평가	규정 없음	기본계획에 이전 계획의 분석·평가 포함(제3조①2호)
연차 시행계획	규정 없음	매년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 포함(제3조②)
개별 시책·사업	보존·도시환경·활용·향유·정보화·연구·교육·교류·전문인력(제8~16조)	대상사업 6개 열거(조사·연구·사료, 유·무형유산, 편찬, 교육·홍보, 국내외 교류, 기타)(제4조), 재정지원(제5조)
도시개발과의 조화	규정 있음(제8조②, 제9조)	규정 없음
위원회	심의기구, 계획 수립 시 심의 의무, 제척·기피, 회의 공개, 자료요청	심의·자문기구, 실무위원회, 당연직 기관장. 공정성·투명성 절차 규정 없음
전담 실행기관	규정 없음(서울역사편찬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	규정 없음

자료: 서울 조례(제9882호) 원문, 제주 조례(제4325호, 제주 초안 pp.36–39 수록본).

서울 조례는 정책이 지향할 가치와 범위, 위원회 절차를 제도화했고, 제주 조례는 기본계획–시행계획–평가의 순환을 제도화하였다. 제주가 서울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서울이 운영하면서 뒤늦게 필요성을 확인한 장치를 처음부터 갖춘 셈이다. 반대로 제주 조례에는 정의와 권리·원칙, 기본계획에 담을 연구·교육·전문인력 같은 내용 항목, 위원회의 공정성 절차, 다른 부서 정책과의 연계 조항이 없다. 두 조례가 공통으로 비워 둔 것은 전담 실행기관이다.

4. 제주 조례 보완을 위한 조문 검토(예시)

서울 조례의 해당 조문과 제주 초안이 이미 정리한 정의·원칙을 연결하면 <표 3>과 같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제주 초안은 '제주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형성·변화해 온 사건, 제도, 사회관계, 생활양식, 장소, 유·무형 유산, 기억과 경험의 총체"로, '역사정립'을 사료와 기억을 발굴·

보존하고 검증하며 공공 지식기반을 “지속적으로 형성·공유·갱신하는 정책적·학술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제주 초안, p.19). 계획에 있는 이 정의를 조례로 옮기면 사업의 범위와 성격이 계획 주기와 무관하게 안정된다. 아래 문안은 논의를 위한 발표자의 예시이며, 실제 개정에는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 제주 조례 보완 검토 항목과 문안 예시

검토 항목	참고한 서울 조문	제주 조례 문안 예시(발표자 시안)
정의	제2조(역사도시·역사문화자원)	“제주역사”와 “역사정립”의 정의를 신설(제주 초안 p.19의 정의 활용)
도민의 권리	제3조(시민의 권리)	도민은 제주역사 정립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성과와 역사자료에 차별 없이 접근·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도지사는 근거성, 다원성, 참여성, 권리보호, 접근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내용	제7조①(필수사항 8개)	현행 5개 항목에 자료의 조사·수집·관리, 연구·편찬, 교육·향유, 국내외 교류, 전문인력 양성, 추진체계와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
위원회 심의 의무	제7조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성·투명성	제21조, 제23조④, 제2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과 공개 원칙(비공개 사유 명시),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과 협조 조항 신설
실행기관	(서울 조례에 없음)	도지사는 사업을 전문적·상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서울 조례 원문, 제주 초안 pp.19–21. 문안은 발표자의 예시로 확정안이 아님.

III. 추진조직: 누가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가

1. 다기관 연계형 추진체계

서울의 역사정책은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맡는 구조가 아니다. 문화본부 소관 부서가 기본계획과 예산을 총괄하고, 역사도시서울위원회가 심의하며, 서울역사편찬원·박물관·자치구 등이 사업을 실행한다. 편찬 분야에는 별도의 자문기구인 시사편찬위원회가 남아 있다(<표 4>). 제주 초안은 이를 ‘조례–위원회–전담기관’이 수직으로 결합된 모델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병렬로 연계되는 다기관 연계형으로 정리하였다(제주 초안, pp.109–110, 119).

<표 4> 서울 역사정책의 추진조직과 역할

조직	성격	주요 역할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부서	총괄 행정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발주 포함), 예산 편성, 부서 간 조정. 제1기는 역사문화재과가 전담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심의기구(조례 제17조)	역사도시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심의. 제2기 수립 때 기획위원회와 분과별 회의 운영
서울역사편찬원	상설 사업소(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료 조사·수집, 연구, 편찬, DB, 시민교육의 상시 수행
시사편찬위원회	자문기구	역사자료 수집·연구·편찬에 관한 전문적 자문

조직	성격	주요 역할
박물관·기록원 등	시 소속 전문기관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기록원 등이 전시·교육·수장·기록 사업 수행
관련 실·국, 자치구	사업 부서	도시계획·공간정보·수변 사업 등과의 연계, 향토유산 보호, 지역 사업 실행

자료: 제주 초안 <표 31>(p.110), 최종보고서 pp.14, 264를 보완하여 정리.

제2기 기본계획안의 과제별 담당부서를 보면 문화재정책과·문화재관리과·문화정책과·박물관과 외에 공간정보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이 함께 나온다(최종보고서, p.264). 기본계획은 서로 다른 부서의 사업을 하나의 비전 아래 묶는 우산형 계획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연계해 정책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역사공간은 문화부서가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반면 전체 성과를 상시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으면 계획은 부서별 사업 목록으로 남기 쉽고, 협조 요청만으로는 자료 제공 시점, 검수 책임, 다음 사업에서의 활용까지 보장하기 어렵다.

계획을 만드는 과정의 조직도 참고할 만하다. 제2기 계획은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가 주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수립 연구를 맡기고, 연구 과정에서 역사도시서울위원회 기획위원회와 각 분과, 서울시 담당 부서가 아홉 차례 의견을 냈다. 착수·중간보고회에는 문화본부장과 문화재정책과장, 위원회 기획위원회가 함께 참석하였고, 서울시 내부 직원회의에는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과제 명칭과 내용을 부서 사정에 맞게 조정하였다(최종보고서, pp.7–8). 연구진 최종안은 이후 부서별 사업과 예산 협의를 거쳐 2023년 4월 서울시 공식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즉 서울의 기본계획은 연구기관이 근거와 안을 만들고, 위원회가 방향을 심의하며, 행정이 부서 협의로 확정하는 3단계를 거쳤다. 이 구조에서 연구진 제안과 확정 계획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2. 서울역사편찬원: 상설 실행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역사정책에서 조사·연구·편찬을 상시로 수행하는 조직은 서울역사편찬원(이하 편찬원)이다. 제주가 전담 기능을 설계할 때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므로 현황을 정리한다(<표 5>).

<표 5> 서울역사편찬원의 현황

구분	내용
위상·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절 서울역사편찬원 <신설 2014. 12. 11.>)에 근거한 서울시 산하 사업소(문화본부 소속). 「역사도시 기본 조례」상 역사도시 정책 전체의 전담 집행기관으로 규정된 것은 아님
연혁	1949. 6. 시사편찬위원회 설치(서울시훈령 제11호) → 1954. 3.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 → 2009. 11. 서울역사자문관 신설 → 2015. 1. 서울역사편찬원 발족
기능	① 시사의 편찬·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② 시사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와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③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관리 ④ 시정 각 분야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 정리·보존 ⑤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주요 산출물	서울역사총서, 서울사료총서, 서울근현대사자료집, 동별 역사·구술자료집, 학술지『서울과 역사』, 서울역사학술대회, 서울사 DB·서울근현대사 DB, 서울역사자료실, 시민강좌·답사, 온라인 콘텐츠
조직	원장 아래 시사편찬과 1개 과. 연구, 행정·시설, 사서 파트로 구분

구분	내용
인력	2026년: 총 20명(원장, 시사편찬과장, 연구인력 13명, 행정·시설 4명, 사서 1명) 2021년: 총 22명(원장: 4급 개방형 임기제 학예연구관, 과장: 5급 임기제 학예연구관, 임기제 학예연구사 7명, 공무직 보조연구원 8명, 행정직 3명, 사서·환경관리직 등)
예산	2020년 약 12억 5,000만 원, 그중 약 10억 원을 편찬·교육사업에 사용
자문기구	시사편찬위원회는 편찬원 발족 후에도 자문기구로 존속(2021년 기준 한국사 전공 교수 등 21명)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2026. 9. 24. 열람), 제주 초안 pp.107–109, 이종호(2021).

편찬원의 운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상설 조직이 있어야 축적이 이어진다. 총서·사료집·자료집·학술지·DB가 해마다 쌓일 수 있었던 것은 단년도 용역이 아니라 상설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문기구(시사편찬위원회)와 실행조직(편찬원)을 나누어, 위원회는 전문적 자문을, 편찬원은 조사·연구·편찬·교육의 상시 수행을 맡긴 구조도 이를 뒷받침하였다. 둘째, 규모와 고용 형태가 기능의 폭을 정한다. 서울 전체의 시사편찬, 사료 조사, DB, 학술지, 시민강좌와 답사를 20명 안팎이 맡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연구인력의 상당수는 임기제 학예연구사와 공무직 보조연구원이었다. 셋째, 편찬원은 역사도시 정책 전체의 집행기관이 아니었다. 편찬과 교육에는 강했지만 발굴조사나 문화유산 관리까지 연구하는 조직은 아니었다.

제1기 계획은 이 한계를 '서울역사연구원(가칭) 설립'으로 풀려고 했지만 연구원은 설립되지 않았다. 대신 분야별 계약직 연구인력 증원(가급 2명, 나급 3명, 다급 3명), 기간제 연구원 4명의 무기계약직 전환, 행정인력 3명(5급·7급·8급) 증원과 서울역사협의체 구성으로 대응하였다(최종보고서, p.42). 제2기 연구진은 연구원 설립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원 설립 이전 서울역사편찬원의 연구기능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선제적 과제"로 판단하고, 편찬원에 <표 6>의 과제를 맡겼다(최종보고서, p.298).

<표 6> 제2기 연구진 최종안에서 서울역사편찬원이 맡은 과제와 소요예산(백만 원)

과제(편찬원 소관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서울역사편찬원 연구기능 강화	비예산	비예산	300	330	370	1,000
서울학 대중화 및 연구 지원	585	614	645	677	711	3,232
서울무형유산 정기조사 내실화	비예산	비예산	100	120	150	370
모두를 위한 역사교육(대면·비대면)	380	399	499	598	690	2,566
합계	965	1,013	1,544	1,725	1,921	7,168

자료: 최종보고서 pp.299, 301, 303, 314, 323에서 편찬원 소관분만 합산(합계는 발표자 계산). 연구안의 신규·확대 과제 예산으로 편찬원 전체 예산이나 집행액이 아님.

설계의 핵심은 순서였다. '연구기능 강화'와 '무형유산 정기조사 내실화' 모두 첫 2년(2023~2024)에 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무형유산 과제는 편찬원 안에 문화유산 연구 조직을 신설해 분야별 전문 연구원을 확보한 뒤, 보유자가 없는 12개 종목을 포함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54개 종목을 정기조사하도록 설계하였다(최종보고서, p.303). 편찬기관을 서울 역사·문화유산 연구의 상설 거점으로 넓히려는 구상이었다. 다만 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 단계가 '비예산'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은 한계였다. 정원·직제·인사 결정과 계속 인건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능 강화는 기존 인력에 업무를 더 얹는 결과가 된다. 또 이 과제는 2023년 서울시 공식 발표의 45개 과제 목록에서 독립된 과제명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역사도시서울위원회: 계획의 연속성을 지키는 심의기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법적 기능은 심의이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제7조②),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4조). 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므로 정책 결정권자와 예산 심의 주체가 위원회 안에 함께 있다. 제2기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는 네 가지 역할을 하였다. 1기 위원 19명이 전문가 조사에 참여한 평가자, 기획위원회와 분과회의를 통해 과제를 제안한 의제 제안자, 1기 비전 유지를 이끈 연속성의 수호자, 핵심과제와 단·중·장기 구분을 요청한 우선순위 조정자이다(최종보고서, pp.7–8, 144, 261).

<표 7> 역사도시서울위원회 분과회의 의견과 반영 결과(2022. 8.)

위원회 의견	계획에 반영된 내용	결과
2천년 역사를 포괄하도록 시대·공간 균형 보완	목표의 첫 축을 '역사(2천년 역사를 품는)'로 설정	반영
5년 안에 반드시 실행할 자체사업 선정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반영
일상생활공간으로서의 역사공간 고려	비지정 역사문화자원까지 보존·관리 영역 확장	반영
근현대 문화 고려 / 2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사업	항일독립 관련 과제, 자치구 참여 과제	반영
고구려·고려사 보완	고려박물관 대신 고려 남경 기초조사 과제 추가	축소 반영
서울 역사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서울시 내부 의견과 함께 25개 자치구 학예인력 양성으로 수정	수정 반영
서울 백제역사유적 세계유산 추가 등재	과제로 추가하되 풍납동 토성 복원 이후로 연기	연기

자료: 최종보고서 <표 1-1>(pp.7–8) 중 분과회의(2022. 8. 22., 8. 26.) 부분을 정리.

주목할 점은 기록의 형식이다. 연구진은 자문 의견마다 반영 내용을 짝지어 기록하였다. 큰 비용이 들거나 선행사업이 필요한 제안이 축소·연기되더라도 그 이유가 남아 있어야 다음 위원회가 논의를 이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기록은 수립 보고서 안에 남았을 뿐, 계획기간 중의 상설 운영 기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원회의 한계도 위원들 스스로 지적하였다. 첫째, 조례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심의할 권한을 주었지만(제17조 제2호), 연차 시행계획과 실적보고가 없어 정례적으로 심의할 안건이 없었다. 둘째, 계획 전체는 심의했지만 개별 사업의 기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1기 한계 가운데 '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 전문가 참여 장치 부재'가 5위였다. 셋째,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위상이 애매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 형식이 아닌 좀 더 전문적인 조직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종보고서, pp.154–157). 넷째, 계획을 심의한 위원회가 그 계획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구조였고, 응답자 14명 중 대학교원이 78.6%, 사학 전공이 71.4%였다(p.145).

4. 제주역사정립위원회와의 비교

<표 8> 역사도시서울위원회와 제주역사정립위원회의 비교

항목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제주역사정립위원회
법적 기능	심의(제17조)	심의·자문(제6조)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의무(제7조②)	기본·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수립 절차상 심의 의무 조항 없음

항목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제주역사정립위원회
계획상 기대 역할	정책·기본계획 심의	기본·시행계획 심의, 핵심 의제 자문, 주요 쟁점의 근거·복수 견해 검토, 이해충돌 관리, 역사해석의 공신력 확보(제주 초안 pp.55, 180)
규모·구성	25명 이내, 위원장 2명(시장 포함), 시의원·전문가·공무원	20명 내외, 위원장 1명(호선), 당연직 4명(담당국장·세계유산본부장·민속자연사박물관장·제주학연구센터장), 전문가·지역주민
하부조직·사무	분과위원회 / 사무 규정 없음(운영세칙 위임)	실무위원회(2026 신설) / 간사 1명(담당 사무관)
임기·소집	2년 연임 제한 없음 / 위원장 소집, 15일 전 통지	2년 한 차례 연임 / 위원장 또는 재적 1/3 요청, 서면심의 가능
공정성·투명성	제척·기피·회피(제21조), 회의록 공개 원칙(제23조④), 자료요청·협조 의무(제24조)	해당 규정 없음(관계기관 협력은 임의규정, 제15조)

자료: 두 조례 원문, 제주 초안 pp.41, 55, 180.

두 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대 역할이다. 서울위원회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였고 특정 역사해석의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제주 초안은 제주역사정립위원회에 주요 인물·사건·유산에 관한 쟁점의 근거와 복수 견해를 검토하고 역사해석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역할까지 기대한다. 초안은 공신력 있는 검토 절차가 부족하면 '행정의 역사해석 개입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진단하였다(제주 초안, p.54). 제주위원회는 서울보다 더 무겁고 민감한 역할을 맡게 되지만, 그 역할을 뒷받침할 절차 규정은 오히려 서울 조례에만 있다. 한편 실무위원회, 지역주민 위촉, 재적 1/3 요청에 의한 소집, 핵심 기관장의 당연직 참여는 서울에 없는 제주의 장점이다.

5. 광역과 기초: 자치구의 역할

포럼 계획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도 물었다. 제2기 수립 연구의 진단은 자치구 역량의 편차였다. 2020년 기준으로 과 단위 문화유산 전담조직을 둔 자치구는 송파구 하나였고, 팀 단위 전담조직은 종로구·중구·광진구·성북구뿐이었다. 문화유산 담당 전문인력이 모두 정규직인 곳은 중구·송파구·강동구뿐이었고, 나머지 자치구는 전문인력이 없거나 정규직 비율이 0%였다. 자치구의 문화유산 예산 비율은 평균 0.03%였다(최종보고서, p.119). 2022년 기준 향토문화재 관련 조례를 둔 자치구는 10곳에 그쳤고, 서울시 차원의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도 없었다(p.319). 제1기의 '지역별 동네역사관 지원' 과제도 성과 3.64점, 지속 필요성 5.43점으로 평가되었다(pp.148, 151).

이에 위원회는 "25개 자치구를 아우를 수 있는 과제"를, 서울시 내부에서는 "자치구별 학예인력 양성 및 배치"를 요구하였다(p.260). 연구진 최종안은 '지역민 주도 향토유산 보호' 과제로 향토유산 보호 조례 가이드라인과 표준조례 마련, 권역별 조례 제정 지원, 자치구 향토문화유산 보존위원회를 위한 인재풀 구성,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5,000여 건 정보의 시민 공개를 제안하였고(pp.319–320), 서울시 공식 계획에도 '지역민 주도 향토유산 보호'와 '지역 문화재 돌봄 사업'이 포함되었다. 광역이 기준과 인력풀을 제공하고 기초가 지역 유산을 지정·관리하는 분담이다. 다만 이 과제는 5년 내내 '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자치구 역량의 편차를 실제로 줄일 재원은 담기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 대신 행정시가 있고, 제주 초안이 분석한 2026년 행정시의 역사·문화유산 관련 사업은 10개, 약 9억 원(1.6%)으로 문화원 운영과 향토문화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제주 초안, p.50).

마을공동체 기록화와 도민 참여형 기록문화처럼 현장에 가까운 사업일수록 행정시와 읍면동, 마을의 역할이 커진다. 서울처럼 도가 기준과 인력풀을 제공하고 행정시·읍면동이 자료 제공자와 참여자를 연결하는 분담을 시행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IV. 기본계획: 무엇을 담았고 어떻게 갱신했나

1. 제1기 계획(2017~2021)의 내용과 성과

제1기 계획은 2016년에 수립되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새로운 꿈'을 비전으로,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을 목표로 삼아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의 4개 분야에서 11개 전략과제와 56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최종보고서, pp.11–12). 5년간 지표조사 공영제를 송파구(2017), 강동구(2018), 성저십리 확대지역(2019), 동부권(2020), 남서부권(2021)으로 넓히고 도심 지하유구 재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공평동 보존·정비, 한성백제 왕도 유적 발굴, 의정부지 발굴·정비, 서울미래유산 114건 선정,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고, 돈의문박물관마을·서울생활사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 등 향유 시설과 서울기록원이 조성되었다(pp.14–16). 제1기는 시설과 제도 수단을 상당히 확보하였지만, 평가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것은 개별 사업의 성패보다 사업을 이어 주는 조직과 체계의 부재였다.

2. 제2기 수립 절차: 서로 다른 근거를 교차하다

제2기 수립 연구(2022. 3.~11.)에서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하나의 조사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일이었다. 사업 실적, 연구성과, 전문가 평가, 시민 인식, 위원회·담당부서 의견을 따로 수집한 뒤 교차하여 키워드와 과제를 도출하였다(<표 9>).

<표 9>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절차와 규모

단계	방법	규모·시기
범위 설정	조례 제7조 제1항 8개 사항을 연구범위로 설정	서울 전역, 선사~현재
1기 성과 정리	2017~2021 추진실적 문헌조사	56개 이행과제
연구성과 수집·분류	60개 키워드로 수집, 5개 분야로 재분류	536건, 2017~2022. 4.
전문가 조사	1기 위원 대상 구조화 설문(성과·지속필요성 7점 척도)	19명 중 14명, 2022. 4.~5.
시민 조사	만 19~69세 온라인 설문(지역·성·연령 비례배분)	1,000명, 2022. 5.
자문·협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위원회 전체·분과회의, 내부 직원회의	총 9회, 2022. 3. 16.~11. 8.

자료: 최종보고서 pp.4–8, 55–59, 144, 175.

3. 제1기 평가: 성과와 지속 필요성을 따로 묻다

전문가 조사에서 제1기 과제의 성과 평균은 4.76점, 지속 필요성 평균은 5.94점이었다(7점 척도, 최종보고서, pp.146, 173).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실행 수준에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두 점수를 교차하여 유지·강화, 집중·개선, 효율화, 홍보·인식 개선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성과가 낮아도 필요성이 높으면 버릴

과제가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할 과제로 본 것이다(<표 10>).

<표 10> 제1기 평가에서 확인된 대표 유형(7점 척도, n=14)

대표 과제	성과	지속 필요성	해석
[1-1] 역사보존과 도시개발의 공존체계	5.07	6.08	유지·강화
[1-3] 능동적·선제적 보존체계	3.82	6.21	집중·개선
[3-1] 체계적 토대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	3.96	6.00	집중·개선
[4-1] 교류협력을 통한 위상 정립	4.16	6.05	집중·개선
서울역사연구원(가칭) 설립(개별 과제)	3.79	6.21	설립 미실현, 편찬원 기능·인력 확대로 전환

자료: 최종보고서 pp.146–153. 전략과제 점수는 지속필요성 평가 대상과 겹치는 39개 과제 기준.

'집중·개선' 과제의 공통점은 제도나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이다. 장기 과제로 분류된 서울역사연구원(3.79), 서울무형유산센터(3.86), 고려박물관(3.50)의 성과는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한계를 3순위까지 고르게 한 결과도 1위가 '발굴·보존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으로 구성'(18점), 공동 2위가 '연구·교육을 전담할 종합적 부서의 한계'와 '연구·교육에 대한 시 차원의 과감한 투자 부족'(각 12점)이었다(p.154). 자유응답에서는 '전문가·전문조직'(7회)과 '단기적·단편적·일회성'(5회)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필요성에 대한 합의만으로 조직과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정원·직제·부지·예산·운영주체를 계획기간 안의 단계별 과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 과제는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기 쉽다.

시민 조사에서는 다른 간극이 나타났다.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0%였지만 제1기 계획을 안다는 응답은 18.3%였고, 12개 대표 과제의 부정평가 이유는 모두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가 1순위였다. 동시에 '관심 없다'(14.4%)를 제외한 85.6%가 어떤 방식으로든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최종보고서, pp.251–253). 제주 도민조사에서도 제주역사를 배우고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4.4%였지만 연구성과와 사업이 충분히 공유된다는 응답은 11.2%였다(제주 초안, pp.68–71). 두 조사는 대상과 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실제 이용과 참여로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는 같다.

제2기의 방향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의 강조점이 조금 달랐다. 전문가들은 제2기가 대응해야 할 정책환경 변화로 '역사자원의 발굴 증가'와 '도시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간 갈등'을 1·2순위로 꼽았고, 비전의 핵심 개념으로는 '시민'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시민들은 우선 추진할 분야로 발굴·보존(56.9%)을, 가장 달성해야 할 목표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41.5%)을 꼽았다(최종보고서, pp.173–174, 253). 전문가는 시민 참여와 갈등 관리를, 시민은 보존 자체를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다. 제2기 목표의 세 축은 이 두 요구를 함께 담으려 한 결과였다.

4. 비전은 지키고 목표와 과제를 바꾸다

연구진이 가장 먼저 정한 원칙은 비전의 연속성이었다. 중간보고회에서 "1기 비전과 2기의 비전 체계가 너무 달라지면 안 된다", 분과회의에서 "위원회는 매번 새롭게 선정되지만 계획의 성격과 지향점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종보고서, p.261). 이에 따라 비전과 네 분야 체계는 유지하고, 목표를 '역사–현재–미래가 어우러져 매력이 넘치는, 역사도시 서울'로 새로 정하였다. 세 축은 '2천년 역사를 품는(역사)', '시민 모두 함께하는(현재)', '디지털로 실현하는(미래)'이며, 디지털·무형유산·항일독립 문화유산을 차별화 요소로 반영하였다(pp.261–263).

<표 11> 제2기 연구진 최종안의 비전 체계

구분	내용
비전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새로운 꿈(1기 비전 유지)
목표	역사–현재–미래가 어우러져 매력이 넘치는, 역사도시 서울
핵심 키워드	역사: 2천년 역사를 품는 / 현재: 시민 모두 함께하는 / 미래: 디지털로 실현하는
발굴·보존	다양한 형태의 역사문화유산 발굴로 2천년 역사도시 완성 / 문화유산 복원(실물·디지털) / 유형별 보존·관리 기법 고도화
활용·향유	장애인·고령자·영유아 가족 등 모두를 위한 향유 공간 / 디지털 기반 역사 체험 확대 / 역사문화명소 조성·기능 강화
연구·교육	고려 남경·항일독립운동사료·서울학 등 연구 분야 다양화 / 디지털 문화유산 DB와 보존과학 연구 토대 / 역사전문가풀로 고증 강화
지역·세계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지역 단위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자료: 최종보고서 p.263.

실행력을 높이는 장치도 도입하였다. 과제를 신규·지속이 아니라 단기(1~2년)·중기(5년 이내)·장기(6년 이상)로 나누고, 계획기간 안에 반드시 수행할 핵심과제와 서울시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따로 정하였다. 대상은 조선 중심에서 고구려·고려·근현대와 비지정 유산까지 넓히고,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과제를 넣었다. 또 착수보고회에서는 "문화유산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요구가, 타 실·국 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나와 계획에 반영되었다(p.7).

성과를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바꾸는 방식도 중요하였다. 지표조사와 통합관리시스템은 접근성 개선(문화유적분포지도, 시스템 고도화)으로, 박물관 건립은 콘텐츠와 기능 강화로 이어졌다. 복토가 불가피한 의정부지에는 디지털 복원을, 한양도성 단일 유산 등재의 한계에는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수도방어체제로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제안하였다(pp.259–264). 기술과 대상 확대처럼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은 과제로 구체화하기 쉬웠지만, 조직 신설이나 다른 부서의 절차 변경이 필요한 과제는 실행 경로를 만들기 어려웠다.

<표 12> 제1기 성과·한계에서 제2기 과제로의 연결(예시)

제1기 성과	확인된 한계	제2기 대응(연구안·공식 계획)
권역별 지표조사 공영제, 통합관리시스템	조사 결과와 자원 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문화유적분포지도 구축,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의정부지 발굴조사·정비	발굴 유구의 물리적 복원 한계	의정부지·경희궁지 디지털 복원
공평동 보존·정비(공평동 물)	매장유산 전반의 유지관리·활용 방안 미비	매장문화재 보호, 공평 유적전시관
박물관·역사관 조성	시설을 채울 콘텐츠와 기능 차별화 부족	박물관 기능 강화, 디지털 콘텐츠
한성백제 왕도 유적 발굴·복원	풍납동 복원과 거주여건 개선을 원하는 주민 간 갈등	(공식 계획)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공무원·시민 역사교육	교육 대상·내용·방법의 개선, 청년·시니어 확대 필요	모두를 위한 역사교육, 서울역사교육네트워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단일 유산 등재의 한계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등재, 세계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 최종보고서 pp.87–88, 259–264, 서울시 보도자료(2023. 4. 27.). 대응 과제는 연구 제안 또는 발표 계획이며 집행 성과가 아님.

5. 제2기 계획의 체계와 내용

연구진 최종안은 4개 분야 31개 과제와 2023~2027년 소요예산 7819.6억 원을 제시하였다. 서울시가 2023년 4월 발표한 공식 계획은 4대 분야, 11개 전략, 45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고, 5년간 1조 2,84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었다(<표 13>).

<표 13> 서울시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2023~2027)의 체계

분야	전략	추진과제
발굴·보존 (15)	유·무형유산 발굴 및 복원	돈의문 복원, 광화문광장 역사성 회복, 향토유산 발굴·보존 강화,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 강화, 서울미래유산 보존·활용, 백제 왕성 풍납동 토성 복원, 성북동 별서 복원, 한양도성 보수·정비,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한성백제, 경희궁지 등)
	보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문화유산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문화유산 수장 기능 확대,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보존과 개발의 조화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강화, 공평 15·16지구 유적전시관 건립,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활용·향유 (16)	수변·녹지 연계로 문화유산 활용도 제고	한강변 문화유산 활성화, 북신문 개방(창경궁–종묘), 경희궁 주변 환경 개선, 용산공원 시민개방, 아차산 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암사초록길 조성
	매력적인 체험시설 조성	서울 역사 문화의 달(10월) 운영, 박물관 운영 효율화, 전통공예문화 활성화, 문화유산 약자접근성 강화, 역사문화유산 메타버스 체험
	역사문화유산 활용 인프라 구축	한강 역사전시관, 이순신 기념관, 서울문화마당, 서울물길박물관(가칭), 실물과 디지털로 진화하는 박물관
연구·교육 (8)	연구 기반 확보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문화유산 보존과학 연구, 문화유적분포지도 구축
	분야별 역사연구 강화	백제사·공예사·서울학 연구, 고려 남경 역사문화유산 연구, 서울시 지정 유·무형 국가유산 정기조사
	역사교육 확대	대상별 맞춤형 역사교육 확대, 어린이박물관 조성
지역·세계 (6)	세계유산 등재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향토역사 보호	지역민 주도 향토유산 보호, 역사문화유적 기념 표석, 지역 문화재 돌봄, 지역별 문화유산(초안산 분묘, 도봉서원 등)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3. 4. 27.)

공식 계획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대적·공간적 범위의 확대이다. 4대문 안의 조선시대 역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현대사까지 정책 영역을 넓히고 도심권·동남권·한강변·지역의 핵심 역사공간을 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역사자원의 보존과 주민 생활을 함께 다룬 점이다. 풍납동에서는 토성 복원과 함께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한 계획 안에서 다루었다. 한편 연구진 최종안과 비교하면 과제는 31개에서 45개로 늘었고, 광화문광장, 북신문, 용산공원, 이순신 기념관, 한강 역사전시관처럼 가시성이 높은 공간·시설 사업이 추가되었다.

6. 과제 설계에서 얻은 교훈과 예산 구조

연구진 최종안의 과제 가운데 제주와 비교할 가치가 큰 네 가지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제2기 연구진 최종안의 과제 설계 사례

과제	설계상의 선택
서울역사편찬원 연구기능 강화	연구원 신설 전에 기존 조직의 기능·인력·협의체를 먼저 강화. 2023~2024 조직·인력, 2025~ 조사·연구
고려 남경 유적·유물 전수조사	고려박물관(지속필요성 4.43점) 대신 기초목록 → 현장조사 → 통합관리시스템 DB화 → 관리·활용방안의 순서. 2024~2027년 25·25·50·50백만 원
서울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표준모델·이용자 확대(기업·용역업체·시민), 무형유산 포함. 시스템 개선비 58백만 원(40+18) 대비 데이터 입력·관리비 매년 편성, 5년 합계 1,177백만 원
모두를 위한 역사교육	민·관·학 서울역사교육네트워크, 20~30대 야간 '영뮤지엄', 청각장애인 AR·VR 교육, 가족 체험, 현장 투어 등 참여 조건을 바꾸는 대상별 설계

네 사례의 공통점은 큰 목표를 기능, 순서, 이용자의 조건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새 시설을 지을지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할지, 새 조직을 만들지 기존 기능을 강화할지에 따라 계획의 실제 모습은 달라진다. 특히 통합관리시스템의 예산 구성은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보다 자료를 계속 넣고 고치는 비용이 훨씬 크고 해마다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예산 구조도 계획의 성격을 드러낸다. <표 15>는 서울 연구안의 분야별 소요예산과 제주 초안의 목표별 신규사업 예산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두 계획은 규모와 성격이 달라 금액 비교는 의미가 없고, 보려는 것은 어떤 기능에 배분되었는가이다.

<표 15> 기능별 재정 배분 구조 비교

서울 제2기 연구안('23~'27)	백만 원	비중	제주 1차 초안('27~'31, 신규)	백만 원	비중
발굴·보존	571,627	73.1%	목표1 자료·연구성과 정리·공유	1,675	20.0%
(그중 풍납동 토성 복원)	(492,720)	(63.0%)	목표2 균형 있는 지식체계	3,300	39.4%
활용·향유	184,127	23.5%	목표3 역사교육·향유	965	11.5%
연구·교육	18,808	2.4%	목표4 활용 생태계	1,045	12.5%
지역·세계	2,295	0.3%	목표5 협력·지속 추진체계	1,395	16.6%
보고서 표기 총액	781,957	100%	총계	8,380	100%

자료: 최종보고서 <표 4-8>(p.323), 제주 초안 <표 45>(p.181).

서울 연구안에서는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풍납동 토성 복원 한 과제가 63.0%를 차지했고 연구·교육 분야는 2.4%였다. 보상 사업의 금액이 큰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구조에서 계획이 대외적으로 '복원과 시설의 계획'으로 인식되고, 인력·자료관리·기관조정처럼 예산은 작아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밀리기 쉽다는 점이다. 평가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나온 기능이 계획에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획을 만든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제주 초안은 2026년 도·행정시 역사·문화유산 예산 약 570억 원 중 시설·현장 운영형이 73.6%, 지식기반형이 8.1%라는 진단(제주 초안, pp.47–53)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무게를 자료·연구·교육에 두었다. 서울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Ⅴ. 제주역사 정립의 제도와 첫 시행계획

서울의 경험을 제주에 적용할 때에는 개별 사업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계획이 작동하는 조건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조례를 통해 역사정책의 가치와 범위를 확장하고 여러 부서와 기관을 기본계획 안에 결합하였으나, 상설 실행기능과 연차별 평가·환류를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하였다. 반면 제주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년도 실적과 차기 계획을 연결하는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과제는 서울의 제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원칙, 실행조직의 책임, 첫 시행계획의 우선순위와 평가 절차를 서로 연결하는 데 있다.

1. 조례의 가치와 위원회의 절차를 구체화

제주 기본계획 초안은 공공성·근거성·다원성·참여성·권리보호·접근성·지속가능성을 공통 원칙으로 제시하고, 역사정립을 하나의 해석을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료와 기억을 발굴·검증하고 공공 지식기반을 지속적으로 형성·공유·갱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제주 초안, pp.7–8, 19, 146). 이러한 정의와 원칙은 계획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방침에 머물기보다 조례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4·3을 비롯하여 복수의 기억과 해석이 공존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도민의 자료 접근, 참여와 향유의 권리, 근거와 이견을 함께 제시할 의무가 정책의 공신력을 뒷받침한다.

기본계획의 필수사항도 보강할 여지가 있다. 현행 제주 조례는 기본방향과 목표, 이전 계획의 분석·평가, 예산과 재원, 정책 발굴 등을 규정한다. 여기에 자료 조사·관리, 연구·편찬, 교육·향유, 국내외 교류, 전문인력 양성과 기관 간 협력을 명시하면 담당자와 위원 구성이 달라져도 계획의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 조례 제7조가 연구·교육·교류·전문인력·예산을 포함한 여덟 항목을 기본계획의 필수사항으로 둔 이유도 계획의 내용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역사정립위원회에는 기본·시행계획의 심의뿐 아니라 주요 인물·사건·유산에 관한 근거와 복수 견해를 검토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그만큼 제척·기피·회피,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비공개 사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과 협조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역사적 해석 자체를 결정하기보다 근거의 충실성, 검토 절차의 공정성, 이견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연차 시행계획, 전년도 실적, 주요 쟁점사업의 착수계획과 평가 결과를 정례 안건으로 정하면 법정 권한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자문과 실행을 구분하고 상설 기능을 확보

서울은 시사편찬위원회와 역사도시서울위원회가 자문·심의를 맡고, 문화본부·서울역사편찬원·박물관·자치구가 사업을 수행하는 다기관 연계형 구조를 운영하였다. 이 구조는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데 유리하지만, 전체 사업을 상시 조정하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계획이 부서별 사업목록으로 남는 한계가 있다. 제주에서도 제주역사정립위원회와 제주학연구센터가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관 간 역할은 결과물의 이동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제주도는 공통 기준, 사업 간 중복 조정, 예산과 계약, 성과 공개를 총괄하고, 제주학연구센터는 원자료 확인과 해석의 근거, 쟁점과 수정 이력을 책임질 수 있다. 대학과 박물관은 자료의 보존과 전시·현장 이용을, 교육청과 학교는 학습자료의 난도와 수업 적용을 검토하며, 행정시와 읍면동은 자료 제공자와 참여자를 연결하고 결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030년 개소가 예정된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원과는 개소 전까지 축적할 자료와 연구성과, 개소 후 공동 이용하거나 이관할 자료, 중복을 피해야 할 조사·장비·인력 기능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2027년 첫 시행계획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첫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사업을 연도별로 다시 배열하기보다는 5년간의 사업 가운데 첫해에 무엇을 끝내고 어떤 조건을 다음 사업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제주 초안은 통합 플랫폼, 통합 서술·편찬 기반, 학교·미래세대 교육, 박물관·전시·공간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별 역점사업으로 제시한다. 이 사업들을 동시에 완성하려 하기보다 자료의 상태와 권리, 검토 기준과 이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최소 결과물을 2027년의 도달점으로 설정하는 편이 타당하다.

<표 16> 2027년 역점사업별 우선 결과물

역점사업	2027년 우선 결과물	다음 단계의 조건
통합 플랫폼	자료 소재·권리·공개 조건을 포함한 공통 목록과 시범 검색	기관별 자료가 같은 기준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통합 서술·편찬 기반	편찬 범위와 쟁점 목록, 시범 원고와 검토 절차	출처·복수 견해·수정 이력을 기록
학교·미래세대 교육	검토된 사료 묶음과 교사·학생 시범수업	수업 결과를 자료 설명과 교재 보완에 반영
박물관·전시·공간 활용	기존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전시·해설 시범안	근거·추정·창작을 구분하고 자료와 연결
전문인력 양성	분야별 인력 현황과 실제 과업 참여형 훈련	지도·검수 담당자와 후속 참여 기회를 확보

자료: 제주 기본계획 초안의 목표별 역점사업을 기초로 한 발표자의 제안.

표에서 제안한 결과물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플랫폼은 자료 기준과 권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과 전시는 연구자가 검토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도 별도 강좌의 수료자 수로 평가하기보다 자료 정리, 원문 해독, 구술 기록, 설명 작성과 검수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첫 시행계획에는 사업별 일정과 담당기관뿐 아니라 앞 사업이 다음 사업에 넘겨야 할 결과물, 전달 시점, 검수자와 사업 종료 후 관리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예산은 구축비와 지속운영비를 구분해야 한다. 서울의 제2기 연구안에서 시스템 표준모델과 개선비는 2년간 58백만 원이었지만 데이터 입력·관리비는 5년간 1,177백만 원이었다.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보다 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검수하고 오류를 고치는 비용이 더 크고 오래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제주에서도 시스템 제작비, 자료 입력·검수비, 권리 확인비, 백업·보안·유지보수비를 나누어 제시하고, 자료 표준·권리·품질관리 사업과 플랫폼 사업의 메타데이터, 권리표시와 시범자료 전달 시점을 공동 산출물로 묶어야 한다.

첫해의 성과를 대형 서비스의 개통이나 통합 서술의 완성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골라 수집·정리·권리 확인·검수·검색의 전 과정을 시험하고, 동일한 자료를 연구자·교사·박물관 실무자가 각각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면 이후 사업의 규모와 순서를 근거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첫 시행계획의 핵심은 많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는 데 있지 않고, 자료가 연구와 교육·전시로 이동하는 한 주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있다.

4.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과 예산에 연결

제주 조례가 매년 시행계획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하고 차기 기본계획에 이전 계획의 분석·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것은 서울보다 분명한 제도적 장점이다. 그러나 추진실적이 사업 수와 예산 집행률을 확인하는 데 그치면 환류는 형식화될 수 있다. 2027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2026년 도민조사의 중요성·관심·인지·성과 공유 문항을 기준값으로 검토하고, 자료의 품질과 이용, 기관 간 전달, 운영의 지속성을 함께 측정할 지표를 정해야 한다. 서울의 제1기 평가처럼 성과와 지속 필요성을 분리하여 측정하면 성과가 낮아도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폐기하기보다 수행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사업 선택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자료 등록은 늘지만 이용이 적다면 신규 입력을 확대하기보다 검색어와 설명을 개선하고, 교육 참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방문형 운영과 학교 협력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공동사업이 반복해서 늦어지면 자료 제공과 검수 인력을 확인한 뒤 책임기관, 일정과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과업 참여가 적다면 강좌 수보다 지도·검수와 보수 체계를 보완하는 식으로 지표가 행정적 선택을 이끌어야 한다.

<표 17> 시행계획과 평가의 연차 운영 구조

시기	검토 내용	행정의 결정	위원회의 역할
전년도 말	사업별 결과물·미완료 사유·자료 관리상태	계속·조정·통합·종료 후보 구분	실적과 주요 쟁점 사전 검토
상반기	지표 변화·이용자 의견·기관 간 전달 문제	다음 연도 우선과제와 예산요구안 마련	평가 결과와 우선순위 심의
하반기	확보 예산·인력·선행조건	사업 범위·책임기관·성과지표 확정	다음 연도 시행계획 심의
중간·종합평가	목표별 누적성과와 정책환경 변화	기본계획 조정 및 차기 계획 착수	외부 참여를 포함한 평가와 권고

자료: 서울의 제1기 평가 경험과 제주 조례의 기본계획·시행계획 규정을 바탕으로 구성.

위원회의 의견과 행정의 반영 결과는 대응표로 남겨야 한다. 사업을 변경한 이유와 남은 자료의 관리 책임이 기록되어야 다음 평가에서 같은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획을 심의한 위원회가 평가를 독점하지 않도록 수행기관, 교사·박물관 실무자, 자료 제공자와 마을 기록 참여자, 도민 패널의 관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차 기록이 2029년 중간평가와 2031년 종합평가로 이어질 때 기본계획은 고정된 사업목록이 아니라 근거에 따라 학습하고 조정하는 정책체계가 된다.

차기 계획의 수립 시점도 미리 정해야 한다. 서울은 제1기 종료 뒤 제2기 수립 연구에 착수하여 2022년 한 해의 계획기간 공백이 발생하였다. 제주가 2031년에 종합평가와 차기 계획 수립을 동시에 시작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30년까지의 누적 실적으로 차기 방향을 검토하고 2031년 실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2030년 하반기에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도민의 이용과 참여를 정책성과로 측정

서울의 시민조사에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0%였으나 제1기 계획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3%에 그쳤고, 대표 과제에 대한 부정평가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주 조사에서도 제주역사를 배우고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74.4%였지만, 연구성과와 사업이 도민에게 충분히 공유된다는 응답은 11.2%였다. 조사 대상과 방법이 달라 두 지역의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계획의 인지와 성과의 체감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간극을 홍보 부족만으로 해석하면 정책 대응도 행사와 캠페인에 집중되기 쉽다. 그러나 시민이 계획의 명칭을 알고 있는가와 역사자료를 실제로 찾고 이용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자료가 검색되지 않거나 공개 조건을 알기 어렵고, 교육과 전시가 특정 시간·장소·연령층에 편중되어 있다면 인지도를 높여도 체감은 개선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계획 인지도와 함께 자료 검색 성공률, 원문과 설명자료의 재이용, 교육·전시의 반복 참여, 지역과 연령별 접근 격차, 이용자 의견에 따른 자료 수정과 같은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 참여 역시 의견수렴 횟수보다 정책과정에서의 위치를 보아야 한다. 서울 조사에서는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한 85.6%가 여건에 따라 참여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는 모든 시민에게 전 과정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보다 계획 수립, 자료 제공, 시범 이용과 평가 단계에 부담 없이 참여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주는 온라인 의견수렴, 학교·마을 단위 간담회, 자료 제공자와 이용자 면담을 시행계획의 정례 절차로 두고, 어떤 의견이 어느 사업의 범위·설명·공개 조건을 바꾸었는지 공개하는 방식으로 참여의 결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연차보고서도 행정 내부의 실적자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업별 산출물과 예산 집행 외에 새로 공개된 자료, 이용이 제한된 자료와 그 사유, 교육·전시에서 활용된 연구성과, 오류 정정과 이견 처리, 다음 연도의 개선사항을 함께 제시하면 도민이 계획의 진행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역사정립의 공공성은 최종 결과를 공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수집·해석·이용·수정되는 전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형성된다.

VI. 맺음말

결론적으로, 서울의 조례는 역사정책의 가치와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였으나, 상설 실행조직과 평가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장치는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울의 추진체계는 여러 부서와 기관이 기본계획을 매개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설 조직인 서울역사편찬원은 주로 편찬·연구·교육 기능을 담당하였다. 제2기 계획은 제1기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목표와 과제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평가에서 중요성이 확인된 연구·교육의 상설 기반은 계획의 과제와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주에는 서울 조례의 가치 조항과 위원회 운영 절차, 자문기구와 상설 실행조직의 기능을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평가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울의 경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조례는 방향을 정하고 기본계획은 사업의 틀을 만들지만, 정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상설 실행조직과 평가·환류의 구조이다. 서울은 권리와 원칙을 갖춘 조례,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는 수단, 시민이 이용할 역사 시설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도시서울위원회는 비전의 연속성과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연구·교육의 상설 기반과 계획기간 중의 평가 장치는 두 번의 계획을 거치는 동안에도 충분히 제도화하지 못하였고, 위원회는 정례 안건과 뒷받침할 조직이 없어 계획

시행의 심의자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다.

제주는 기본계획–시행계획–평가–차기 계획을 잇는 제도에서 이미 서울보다 앞서 있다. 이제 2027년 첫 시행계획에서 역점사업별 우선 결과물, 사업 간 선후관계, 책임기관과 전담인력, 지속운영비, 위원회의 정례 심의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역사정립의 성과는 하나의 해석을 행정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지 않다. 다음 연구자와 도민이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하고, 기존 설명을 검토하며,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공공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필자가 제2기 서울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계획의 실행력이 사업의 수가 아니라 자료와 사람, 기관 사이의 책임을 연결하고 평가 결과로 그 관계를 갱신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제주역사 정립이 이러한 공공 기반을 첫 계획부터 축적해 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2023. 4. 27.), 「서울시,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23~'27) 발표」, 보도자료.

서울특별시·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022),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9882호, 2025. 9. 29. 시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절 서울역사편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32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26), 『제주역사 정립 5개년(2027–2031) 기본계획』 편집 초안.

제1회 제주역사 국제 포럼 개최 계획(안) 「섬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2026).

이종호(2021. 5. 26.), 「독립된 상설 지역사편찬원이 왜 필요한가」, usjournal.kr.

서울역사편찬원 누리집, '기관 소개'·'역할과 기능'·'연혁'·'조직 구성'(https://history.seoul.go.kr, 2026. 9. 24. 열람).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21), 「2천년 역사도시 서울 56개 이행과제 실태조사」

충남지역 지역학 연구의 궤적과 전망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광균(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지역 지역학 연구의 궤적과 전망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광균(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지역학(地域學)은 오늘날 한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문화정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학술 범주의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각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학·부산학·영남학·호남학·충청학 등 이른바 '○○학'이 잇달아 성립하였다. 이 흐름은 단순히 학계 내부의 관심 이동에 그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예산이 결합하고,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학은 학술 영역과 정책 영역, 문화산업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이게 되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자리한다. 이 기관은 2003년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을 근거로 이듬해 재단법인으로 개원한 이래 20여 년에 걸쳐 도(道) 차원의 역사문화 조사·연구, 매장유산 발굴, 문화유산 정책 수립, 박물관 운영, 역사 대중서 간행을 아우르는 종합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도지(道誌)와 시군지 편찬, 『백제문화사대계』를 비롯한 대형 총서 간행,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외 소재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에 이르기까지 그 사업의 범위는 여느 광역 지역학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넓은 편에 속한다. 최근 충북역사문화연구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등은 모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모티브로 설립되는 등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역학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축적된 성과의 규모에 비해 이를 학술사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한 작업은 충분하지 않다. 개별 사업의 결과보고서나 연구원 자체의 홍보 자료는 다수 존재하지만, 기관의 형성 과정과 조직 구조, 성과의 계보를 지역학 연구사의 맥락 안에서 종합적으로 서술한 글은 드물다. 더욱이 최근 지역학을 둘러싼 조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진학률 하락으로 전문 연구 인력의 재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 소재 대학의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기능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한편,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은 지역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사례로 광역 지역학 기관의 현황과 성과, 과제를 검토한다. 서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제2장에서는 지역학의 개념과 한국 지역사 연구의 전개 과정을 개관하고, 충남학의 정의와 범위, 연구 주체의 분포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성립 배경과 조직 변천, 현재의 인력·부서 편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분야별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최근의 사업 추진 방향과 당면 현안을 정리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의 서술은 연구원이 생산한 각종 간행물과 공식 연혁, 조례 및 정관, 언론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되, 기본적으로 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지역학 연구의 전개와 충남학의 성립

1) 한국 지역사 연구의 전개

지역학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한 지역'은 매우 넓은 층위에 걸쳐 있다. 크게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와 같은 대륙 단위가 지역이 되며, 그보다 낮은 층위에서는 동북아시아·동남아시아와 같은 권역 단위가, 다시 그 아래에서는 국가 및 국가 내부에서 특정한 요인에 의해 구획된 공간이 모두 지역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요컨대 지역학에서 말하는 '지역'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연구자가 설정한 문제의식에 따라 규정되는 상대적 범주이다.

학문적 의미에서 지역학은 일정한 공간을 토대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종합적 또는 학제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규정에는 세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각각의 지역 그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지역은 특정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표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구조와 역사를 지닌 분석 단위로 설정된다. 둘째, 특정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집단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문서에 근거하되 지역 차원과 국가 차원의 상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만을 고립적으로 보는 것도, 국가사의 축소판으로 환원하는 것도 지역학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셋째, 역사학 분야에서 지역학(지방사)은 국가사(중앙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이 지닌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1)]

한국의 지역사 연구는 서구 지방사 연구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출발하였다. 그 출발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영국 레스터대학의 지방사학과, 이른바 레스터학파이다. 이들이 정의한 지역사(지방사)는 지방 공동체에 대한 전체사, 곧 그 지방 공동체의 기원과 성장, 해체를 연구하는 역사였다.[2)] 특정 주제를 지역이라는 무대에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의 생애사를 총체적으로 복원하려는 이 학파는 이후 한국 지역사 연구가 지향해야 할 상(像)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한국에서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이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지배층 중심의 역사 서술을 반성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 조선후기 향촌사회사와 민중운동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그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이었다. 향촌사회사 연구는 중앙 정치사의 서술로는 포착되지 않는 지역 사회의 운영 원리와 계층 구조를 드러냈고, 민중운동사 연구는 역사의 주체를 재설정함으로써 지역을 사건의 배경이 아니라 주체가 활동하는 장으로 전환시켰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방의 사학회와 연구단체들이 잇달아 조직되었다. 학술지 『지방사와 지방문화』가 창간된 것도 이 무렵이다. 다만 이 시기의 지역 연구는 국가사(중앙사)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한 미시적 연구, 곧 일종의 사례연구로 시도되었다. 지역사가 제도적 거점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다는

1) 지역사와 지방사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1-1, 1999. 지역사와 지방사는 엄연히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2) 오주환, 「지방사연구: 그 이론과 실제-영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30, 1986.

점에서 1990년대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으나, 연구의 성격은 여전히 국가사 중심적 서술에서 지역 사례를 보완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사 연구는 사례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자치의 확대와 문화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다수의 지역학이 발흥하였는데, 서울학·영남학·호남학·충청학·부산학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용어상의 변화도 나타났다. 국가사(중앙사)에 종속적인 함의를 지닌 '지방사'라는 표현보다 독립적·분리적 성격을 지닌 '지역학'이라는 표현이 선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라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반영한다.

2010년대에는 지역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결합하면서 역사콘텐츠로 확장되었다.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함께 미디어콘텐츠가 확장되고, 여기에 지자체의 문화정책 사업이 결합하면서 역사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국면은 지역사 연구에 새로운 수요와 재원을 제공하였으나, 동시에 학술 연구의 자율성과 정책 사업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러한 결합은 네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콘텐츠에 대한 대중 수요의 증가로, 교과서에 수록된 국가사가 아니라 자기 지역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둘째는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영화·웹툰·소설에서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환경이 형성되었다. 셋째는 지역 대학의 사학과와 전문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 연구의 활성화이며, 넷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으로 문화관광 부서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정책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지원되면서 연구 수요가 창출되었다.[3)]

3) 지역사 연구의 제도적 기반

지역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은 크게 연구기관과 법령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연구기관을 보면, 지역사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은 그 설립 주체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소속 연구소, 역사학회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1〉에서 확인되듯 대학 소속 연구기관은 1970년대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반면, 지자체 공공기관은 199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확대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지역학 연구의 제도화가 학계 내부의 자생적 성장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크게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역사학계의 지역학 관련 학회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 설립되었으며, 지역 소재 대학의 사학과를 기반으로 연구자 네트워크의 결절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표 1> 국내 지역사 연구 주요 기관 현황

구분	연구기관	설립시기
대학 기관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73~2007
역사학계 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전북사학회, 강원사학회, 제주학회 등	1978~2012
광역지자체 공공기관	서울역사편찬원, 부산학연구센터, 경기문화재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1995~2005

3)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 : 한국 근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 2017.

다음으로 법령의 측면을 보면,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학 연구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문화 고유 원형의 우선적 보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지정, 지역 문화재단 설립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역문화 고유 원형의 우선적 보존'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지역학 연구기관의 존립 근거와 직결되는 조항이다.[5]

4) 충남학의 정의와 범위

충남학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지리·생태·인물 등을 학제적으로 연구하여,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종합 학문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는 네 가지 지향이 담겨 있다. 첫째는 학제적 연구로서, 역사학·지리학·사회학·경제학·생태학·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것을 전제한다. 둘째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식 생산을 지향한다. 셋째는 정체성 탐색으로서, 충남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 특색을 재조명한다. 넷째는 미래 지향성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한다.

충남학의 범위는 네 층위로 설정된다. 지리적 범위는 현재의 충남 지역에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더한 것으로, 행정구역의 현재적 경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권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이다. 시간적 범위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유적, 인물을 포괄한다. 문화적 범위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민속, 음식, 언어, 예술 등에 걸쳐 있으며, 사회경제적 범위는 산업 구조, 인구 변화, 도시화와 농촌 문제, 노동·교육·복지 등을 포함한다.[6]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지역학의 이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다. 지역학은 일정한 지리적 공간 내의 모든 학제 간 분야를 통섭하는 학문으로 규정되지만, 2000년 이후 지역학이 활성화되는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연구는 대부분 역사와 문화 등 인문학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충남학의 경우에도 여타 지역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충남 지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역사와 문화 중심의 연구 일변도였다. 앞서 정의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범위, 곧 산업 구조와 인구 변화, 도시화와 농촌 문제, 노동·교육·복지 등의 영역은 충남학의 이름 아래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충남학 연구의 향후 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현 시점에서 연구 현황을 기술하고 분석하려면 '역사'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 충남학 연구 주체의 분포

충남학의 연구 주체는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향토사 연구단체의 세 갈래로 나뉜다. 각각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지역문화진흥법》, 〈1장 총칙〉, 제1조(목적).

5) 《지역문화진흥법》, 〈1장 총칙〉, 제6조의 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6) 한기범, ☒충남학의 미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16.

<표 2> 충남학 관련 지자체 연구기관

기관	지자체	주요 업무	설립시기	학술지명	유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	학술연구, 문화정책, 박물관 운영, 문화유산 발굴	2004년	충청학과 충청문화	등재지
백제문화연구원	부여군	문화유산 발굴, 국가유산 조사	2004년	-	
대전학연구센터	대전광역시	역사·환경 중심 문화 연구	2021년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충청남도	유물 수집, 번역서 발간, 교육 및 체험행사	2023년	한국유교문화	일반
세종학연구센터	세종특별시	역사·환경 중심 문화기반 연구	2024년	-	

〈표 2〉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학술연구부터 유물 수집, 박물관 운영, 문화유산 발굴, 문화정책에 이르는 기능을 단일 기관 안에 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지자체 연구기관들이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다른 하나는 대전학연구센터(2021년)와 세종학연구센터(2024년)의 설립에서 보듯, 광역 단위의 지역학 기관이 최근까지도 계속 신설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대전·세종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었음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 사이의 연구 범위 중복과 협력 방안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표 3> 충남학 관련 대학 부설 연구소

대학교명	연구소명	연구 대상	설립연도	학술지	등재 구분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	1965년	백제문화	KCI 등재지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백제	1971년	백제연구	KCI 등재지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폐지)	충청권 전역	1989년	충청문화연구(폐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국내 전통문화	2000년	한국전통문화연구	KCI 등재지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	충남	2001년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충청권 전역	2004년	충청문화연구	일반학술지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공주	2014년	-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홍성	2020년	-	

〈표 3〉은 충남 지역 대학 부설 연구소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는 백제사 연구의 조기 제도화이다.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1965년)와 충남대 백제연구소(1971년)는 충남 지역 대학 연구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모두 KCI 등재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백제가 충남 지역 역사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작용하였다. 둘째는 연구 범위의 중복이다. 백제 연구에서 공주대와 충남대가, 충청 지역 연구에서 충남대와 건양대가 각각 유사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는 폐지되고 학술지도 폐간되었다. 이는 뒤에서 다룰 연구소 통합·협력 문제의 배경을 이룬다. 향토사 연구단체는 1967년 부여 백제사적연구회와 1974년 당진 당나루향토문화연구회를 필두로 조직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진향토문화연구소(1983년, 『내포문화』), 대전 충남향토문화연구소(1984년, 『향토연구』), 서산향토문화연구회(1985년, 『서산의 문화』·『서산문화춘추』), 홍주향토문화연구회(1987년, 『홍주향토문화』), 보령 대보문화연구소(1987년, 『보령문화』),

천안향토문화연구소(1987년), 공주향토문화연구회(1988년) 등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 논산·금산·서천 등지에도 향토문화 연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자료의 1차적 수집과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상당수가 자체 잡지를 발간하며 지역 연구의 저변을 형성하였다. 다만 1996년 설립된 예산 내포문화연구원이 폐지되고 『내포문화정보』가 폐간된 사례에서 보듯 일부 단체는 활동을 중단하였고, 잡지 발간이 중단된 경우도 적지 않다. 향토사 연구단체가 축적한 자료와 성과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광역 연구기관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7]

한편 시군 단위에서는 각 지자체와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학 개설서가 잇달아 간행되었다. 2000년 최근묵의 『충청학의 어제와 오늘』을 필두로 심재권 외의 『천안학』(2014), 이해준 외의 『공주학강좌』(2015), 한기범 외의 『충남학의 이해』와 『내포의 뿌리 예산학』(2016), 김태명의 『대전학총론』과 이관우 외의 『금강과 함께 흘러온 서천학』(2018), 김경수 외의 『내포의 중심, 홍성학』(2019), 이철성 외의 『논산학』(2020), 『아산학』(2022), 홍제연 외의 『서산의 역사와 문화이야기』와 문광균 외의 『세계유산도시 부여학』(2024)이 그것이다.

이러한 간행 추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시군 단위 지역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개설서가 간행되었는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점과 대체로 겹친다. 다른 하나는 이들 개설서의 저자와 발행처가 대학 연구소, 문화원,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군 지역학이 자생적으로 확산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역 차원의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3.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과 운영

1) 설립 과정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전사(前史)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해 2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 소속으로 역사문화부가 설치되면서 충청남도 차원의 역사문화 연구 조직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1999년 역사문화센터로 개편되었고, 2001년에는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로 확대되면서 충청학연구부와 문화재연구부의 2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8]

이 시기의 조직 변화는 세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종합 정책연구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안에 역사문화 부문이 배치됨으로써 역사문화 연구가 처음부터 도정(道政)의 정책 수요와 결합된 형태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부(部)에서 센터로, 다시 연구소로 이어지는 조직 위상의 상승이다. 5년 사이 세 차례의 개편은 업무량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셋째, 2001년 확대 개편에서 충청학연구부와 문화재연구부가 분리 설치된 점이다. 학술 연구와 문화재 조사라는 두 축은 법인 전환 이후에도 조직 편제의 기본 골격으로 유지된다.

2003년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듬해인 2004년 4월 1일 재단법인 충남역사문화원이 개원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소의 업무는 신설 법인으로 이관되었고, 초대·2대 원장으로 충남대학교 총장 정덕기(국사학과 교수 역임)가 취임하였다.

7) 김상기, 「대전 충남지역 지방문화의 연구현황과 과제」, ☒충청문화연구☒ 4, 2010.

8) 한국학중앙연구원, 《공주시 향토문화전자대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조례의 주요 조항은 이 기관의 성격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이를 정신적 유산으로 후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사업)는 연구원의 사업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①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 조사 연구, ②역사 문화 자원의 전시·홍보, ③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④도사(道史) 편찬 및 도정 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 ⑤그 밖에 부수되는 사업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그것이다. 연구·전시·보존·편찬이라는 네 개의 기능 축이 설립 단계에서부터 명시되었다.[9]

미션은 정관 제1조에 근거하여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하여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비전은 "충남 역사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연구원"이며, 핵심 가치는 전문성과 공공성, 확산과 대중화, 도전과 혁신의 세 가지이다. 비전에 이은 전략목표로는 충남 역사문화 가치 창출, 충남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충남 역사문화 대중화, 기관 혁신으로 미래 선도의 네 가지이며, 각 목표 아래 세 개씩 모두 열두 개의 전략과제가 배치되었다. 가치 창출 영역에는 문화유산·역사자원 가치 발굴과 기록·편찬을 통한 가치 보존이, 정체성 확립 영역에는 특화 연구 고도화와 연구 네트워크 내실화, 유물 수집·환수 활성화가, 대중화 영역에는 도민의 접근성 향상과 배움 기회 확대, 디지털 아카이빙이, 기관 혁신 영역에는 미래사회 대응 행정과 시대변화 부응 조직, 미래가치 부합 경영이 포함된다.[10]

이 체계에서 주목할 점은 '대중화'가 독립된 전략목표로 설정되고, '디지털 아카이빙'이 전략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2010년대 이후 지역사와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흐름이 기관의 중장기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네트워크 내실화'가 정체성 확립의 하위 과제로 배치된 점은, 기관 간 연계협력이 부수적 업무가 아니라 정체성 확립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제 4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와 제6조(운영경비)가 주목된다.[11] 제4조는 연구원의 재산을 설립 당시 출연 재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개인 등의 출연 재산, 결산 잉여금 중 이사회가 기금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금액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충청남도가 설립 및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제6조는 운영경비의 재원을 기금 운용 수입,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 수익금, 지적재산권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 대금,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주목할 조항은 제5조(수익사업)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역사문화 조사·연구 용역에 대한 우선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조항이 연구원의 사업 규모와 안정성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실제로 후술할 시군지 편찬, 문화유산 정비계획 수립, 발굴조사 등 상당수 사업이 시군의 위탁을 통해 수행되었다. 다만 이는 동시에 연구원의 연구 의제가 지자체의 정책 수요에 크게 규정되는 구조를 낳기도 하였다.

2) 조직의 확장과 분화

개원 이후 연구원의 조직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주요 변화를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운영규정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관〉, 제1장 총칙.

1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1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출연)〉; 〈제5조(육성지원)〉.

<표 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요 연혁

연도	주요 연혁
1996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 소속 역사문화부 설치
1999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개편
2001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 확대 개편(충청학연구부·문화재연구부)
2003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창립총회
2004	재단법인 충남역사문화원 개원, 초대 원장 취임
2005	충청남도 도정사료실 유물 및 자료 이관, 공주시로 연구원 이전
2006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공주시 국고개길24)
2007	역사문화연구실·역사박물관·경영기획실2실1관으로 조직 개편, 기관 명칭(현재명) 변경
2008	금흥동 수장고 신축 및 유물 이전,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2010	『충청남도지』 전15권 편찬 완료, 우리문화유산찾기운동 전개
2017	『내포문화총서』1~10권 편찬 완료
2018	백제유교특성화추진단 구성, 충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설치
2020	문화재관리부 신설, 충청남도 공공기관 중 노동자이사제 첫 도입
2021	충청유교문화진흥원 준공(논산)
2022	내포문화진흥센터 설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법인 설립 및 분리 개원
2023	『충청학과 충청문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ISO 37001·45001 국제표준 인증
2024	개원20주년 기념 및 비전 선포식, 제1회 국가유산의 날 학술·연구분야 대통령표창
2025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 국내 반환 및 충남문화유산 지정, 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이 연혁에서 확인되는 조직 변화의 논리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자료의 집적이 기관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2005년 도정사료실 유물·자료의 이관과 공주시 이전,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2008년 금흥동 수장고 신축 및 유물 이전은 연속된 과정으로, 연구 기능만을 담당하던 조직이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같은 해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은 이러한 전환이 대외적으로 공인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문화권별 특성화가 조직 분화의 축이 되었다. 2018년 백제유교특성화추진단 구성과 충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설치, 2022년 내포문화진흥센터 설치는 백제문화권·유교문화권·내포문화권이라는 문화권 구분을 조직 편제에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충남 지역이 내부적으로는 세부 문화권으로 분화된다는 인식, 곧 세부 문화권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의 분화가 곧 기능의 이관으로 이어졌다. 2018년 준비단 설치로 시작된 충청유교문화진흥원 사업은 2021년 12월 논산에 시설이 준공되고 2022년 9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분리 개원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연구원 내부에서 배태된 사업이 독립 기관으로 성장하여 분리된 사례로, 광역 지역학 기관이 지역 내 문화자원의 확대에 따라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유교문화 부문의 분리는 연구원의 연구 범위 일부가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원의 전문 연구 인력 7명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이직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직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포문화진흥센터를 출범하면서 연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였다.

3) 현재의 조직과 인력

현재 연구원은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를 두고 원장 아래 연구실·역사박물관·경영기획실의 2실 1관 체제로 운영된다. 연구실은 내포문화연구부·백제충청학연구부·정책연구부로, 역사박물관은 학예연구부·교류협력부·발굴조사부로, 경영기획실은 경영기획부·재정관리부로 구성된다.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2026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인력 현황(단위: 명)

구분	인원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직	공무직
정원	56	1	33	14	2	6
현원	51	-	30	14	2	5
결원	△5	△1	△3	-	-	△1

* 기간제근로자(대부분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 수료자) 30명 별도

이 표에서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정원 56명 중 연구직이 33명으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한다. 연구 기능 중심의 인력 구성이라 할 수 있다. 행정직과 기능직은 16%로 28%이다. 그만큼 연구원의 일반 행정을 비롯하여 연구 행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규 인력 현원 51명에 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30명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인력의 약 37%가 기간제인 셈인데, 이는 발굴조사와 각종 수탁 용역 사업이 연구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기간제근로자의 대다수는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박사수료자이다. 사업 단위로 인력을 운용해야 하는 구조는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연구원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기관 내부에 남지 못하고 유출될 위험성은 늘 안고 있다. 연구직 3명의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연구실에는 백제충청학연구부, 내포문화연구부, 정책연구부 등 3개 부서가 있다. 먼저, 연구원의 선임부서인 백제충청학연구부는 백제사 연구와 활용, 지역사 조사·고증 및 편찬, 근대 독립운동사 재조명, 연구지 발간을 담당한다. 백제사 분야에서는 『백제문화사대계』 편찬과 해외 백제 사료 연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 지원, 백제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역사 분야에서는 도지·시군지·읍면지 편찬과 내포문화·금강문화·유교문화·종교유산 등 특성화 연구, 청소년 지역사 교재 개발, 구술채록을 수행한다. 근대사 분야에서는 충남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 연구, 동학농민혁명과 의병 연구,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을 담당한다. 현대사는 민주화운동 및 현대기록물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충남의 백제~현대까지 아우르는 사실상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문화연구부는 충청남도의 《내포문화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서로, 백제문화권과 금강문화권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내포 지역의 역사문화정책을 수립·기획함으로써 도의 균형적인 문화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내포문화진흥포럼 운영, 내포문화 토대 구축, 충남 서해안의 해양문화 연구 등이다. 백제충청학연구부라는 광의의 지역한 연구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지역학 연구 범위인 '내포문화'를 조명하고자 한 것은 그만큼 충남학에 있어서 '백제학'과 함께 '내포학'이 가지는 위상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연구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과 연계하여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에 대한 지정, 보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동시에 국가유산의 유형별 정책 연구 및 정비계획 수립, 충남 고대 역사문화권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전략 계획 수립, 사전예방적 보존관리시스템 구축,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연구를 맡는다.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정기조사, 비지정 유산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유산영향평가 수행은 최근 문화유산 정책의 흐름을 반영한 업무 영역이다.
박물관도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예연구부, 교류협력부, 발굴조사부가 그것이다. 학예연구부는 박물관의 전시 및 행사, 유물 수집과 기록화, 교육 프로그램, 문화유산 활용을 담당한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도민과 단체로부터 유물 기증·기탁을 유도하며, 체험 학습과 아카데미, 특별 강연 및 워크숍을 운영한다. 상설전시는 충남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통사 형태로 준비되어 있다.
교류협력부는 국외 소재 충남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수집 및 복원품 제작, 교육·활용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경매나 불법적인 경로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구입·기증·협상을 통해 수집하되,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복원·복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발굴조사부는 매장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도내 중요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밖에 경영기획실은 경영기획부와 재정관리부가 기관 운영을 비롯하여 인사 및 재정 관리를 맡고 있다.

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 연구성과

1) 도지 및 시군지·읍면지 편찬

연구원의 성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도지와 시·군지, 읍·면지의 편찬이다. 『충청남도지』는 충청남도의 지리·역사·정치행정·산업경제·전통문화·현대문화 등을 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총 5편 25권으로 2010년 발간이 완료되었다. 도 단위의 종합 지리지를 편찬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을 표준화하고 후속 연구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작업이다. 이 사업이 개원 초기부터 착수되어 6년 여에 걸쳐 완결되었다는 사실은 기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군지와 읍·면지 편찬은 시·군 및 읍·면의 지역 자료를 총망라하여 정치·행정·산업·경제·역사·민속·현대문화·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집대성하여 수록하는 작업이다. 주요 성과로는 『서천군지』(2009), 『금산군지』(2011), 『태안군지』(2012)와 같은 군지와 『계룡면지』(2006), 『두마면지』(2008), 『홍성읍지』·『홍북면지』·『금마면지』(2008), 『광천읍지』·『장곡면지』·『갈산면지』(2010), 『은하면지』(2011), 『서부면지』(2012), 『구항면지』(2013) 등의 읍면지가 있다. 이 밖에 『전동면향토지』(2010), 『조치원읍지』(2012), 『연서면지』(2013) 등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지도 편찬되었다. 이후에도 충남 15개 시군의 시·군지는 대부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편찬하였다.
읍면지 편찬의 의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시군 단위보다 작은 생활권 단위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되었다는 점이다. 마을의 형성 과정, 지명 유래, 민속과 구전, 인물과 문중 자료는 읍면지가 아니면 정리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둘째,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집중된 편찬 시점이 갖는 의미이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마을 단위 기억이 소멸하기 직전에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다만 편찬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어 도내 전 지역을 균등하게 포괄하지 못한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2) 백제사 연구

백제사는 연구원 연구 활동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 분야의 사업은 크게 역사 연구와 고증,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조사, 백제문화 콘텐츠 연구 및 개발의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역사 연구와 고증 분야의 대표적 성과는 『백제문화사대계』이다. 자료집성 원문집(2005), 연구총서(2007), 역주집권(2008), 유적·유물로 본 백제 2권(2008), 개설서(2008)로 이어지는 이 시리즈는 백제 역사와 문화의 발굴 및 고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의 결과이다. 이와 함께 천안 위례성 학술조사(2011), 당진 역사 재조명(2012), 서산 닷개 유적 고증(2012) 등 백제 유적에 대한 개별 조사도 수행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조사는 백제역사지구의 등재 여건 조성을 목표로 각종 자료집 편찬과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진행되었다. 제56회 백제문화제 국제학술대회 '교류왕국, 대백제의 발자취를 찾아서'(2010)를 비롯하여 제57회 '동아시아 불교문화와 백제'(2011), 제58회 '백제 기악과 미마지'(2013), 제59회 '금동대향로 속의 백제문화'(2013)가 연차적으로 개최되었고, 『백제 도성제와 주변국 도성제의 비교연구』와 『백제역사유적지구 자료집』(이상2013) 등이 간행되었다. 백제문화 콘텐츠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의 고대왕국 백제』 한국어·영어·일본어판(2010~2011), 『무령왕릉』 한국어판(2011)과 영어판(2013), 『한 권 백제』(2013) 등이 산출되었다.
백제사 연구의 특징은 학술 연구와 정책·행사 지원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학술대회는 공주시의 백제문화제라는 지역 축제의 일부로 개최되었고, 자료집 편찬은 세계유산 등재라는 정책 목표와 연동되었다. 이러한 결합은 연구 성과가 곧바로 정책과 대중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구 의제가 행사·정책 일정에 종속될 위험도 내포한다. 현재 연구원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확장 등재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3) 지역사 연구와 고증

지역사 연구와 고증은 문화정책 및 콘텐츠 연구, 지역사 연구, 문화유산 조사, 지역사 고증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문화정책 및 콘텐츠 연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논산 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2007), 『토정 이지함과 토정비결의 문화사적 재조명』(2011), 『기호유교문화와 돈암서원』(2011), 『고불 맹사성 유물, 콘텐츠 연구』(2014), 『충청감영 역사문화자원 활용계획 수립』(2019)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사 연구는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미나의 연구 성과는 연구지 『충청학과 충청문화』에 게재된다. 이 학술지는 충청지역 역사문화 연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발간되어 온 충청학 전문 연구지로, 연2회 (6월·12월) 발간되며 2023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등재지 선정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지역학 학술지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취이다. 지역학 연구의 성과가 지역 내부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전국 학계의 평가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조사는 전통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와 유형문화재 및 멸실 위험이 있는 고전적의 실태조사로 진행되어 『당진군 문화유적분포지도』(2004), 『충청남도 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2006~2007), 『면천읍성 연구』(2011), 『공주 옛사진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2013) 등의 성과를 냈다. 지역사 고증은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전통시대 역사를 정리하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건과 인물을 연구하는 작업이다. 『사료로 읽는 태안의 역사』(2006), 『서해와 금강이 만나 이룬 문화』1·2(2009), 『충남 역사의 이해—충남 역사 총설』(2010), 『옛사람의 학문과 생활—충남의 유교문화』(2011), 『충남의 독립운동가, 충남을 빛낸 독립운동가』(2012), 『충청남도의회 60년사』(2013),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현황조사 사업(2023),

최근 연구원의 사업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약 2,500여 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 가운데 약 1,460명에 대해 정부에 서훈 신청을 완료하였다. 2025년 10월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6년 동안 3,000명에 가까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중 절반가량이 서훈 신청을 완료하였다는 성과가 보고되었다.
이 사업의 방법론적 특징은 자료 발굴 방식에 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수형인명부, 판결문, 형사사건부 등 관련 기록이 필요한데, 일반인이 이를 직접 찾기는 쉽지 않다. 연구원은 시군청 자료실에 보관된 범죄인명부와 각 면에 남아 있는 수형인 명표 등을 조사하여 3·1운동 및 의병 참여자를 발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조사는 도내 전 지역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 한 해에 2~3개 시군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시군 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은 지역학 연구가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원은 누리집을 통해 서훈 신청 지원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조상이나 가족 중 독립운동 경력이 있다고 전해 들었거나 관련 자료를 소장한 도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 성과가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개별 가문의 명예 회복과 국가적 예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학의 실천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 이 사업이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에 선정된 것도 그 사회적 평가를 반영한다.
지역학 연구 중에서 최근 주력으로 추진 중인 분야는 단연 내포학 연구이다. 내포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그 영역을 홍주지역 일대 군현을 지칭함에서 비롯되었다. 내포는 해양성, 개방성, 서민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토대로 연구원에서는 내포문화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는 조례가 제정되기 직전 거질의 『내포문화총서』 15권(2013~2017)을 발행하였고, 조례 제정 이후에는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조사』(2021~2023), 『보령의 해녀 문화』(2024), 『충남해양문화포럼』2021~현재) 등 해양 관련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문화유산 정비계획 및 현상변경

문화유산 정비계획 수립은 원형 복원과 기록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공적 훼손은 물론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다. 정비와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시적 종합정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유산이 지역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성과로는 돈암서원(2007), 해미읍성·계족산성·금산 백령성(2011)의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를 비롯하여 『서산 해미읍성 역사문화 공간정보자원 개발연구』(2013), 『가야산 주변 문화유적 종합정비 및 개발연구』(2013), 『공주 배다리 유적 조사연구』(2012), 『공주 근대건축유산 조사연구』(2012), 『결성농요 전수관 정비계획 수립』(2010), 태안 안흥진성 종합정비계획(2021), 서천읍성 종합정비계획(2024), 해미읍성 종합정비계획(2025), 공주 우금치전적지 종합정비계획(2026)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사업이 수행되었다. 개별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문화유산 보호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 연구가 지역사회의 실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 문화유산 돌봄사업은 일상관리를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경미한 훼손을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사후 보수사업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자체의 부족한 문화유산 담당

인력 보완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었다.
최근에는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는 '충청남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기초연구(2023)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아산과 서천이 백제문화권 정비 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1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5)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문화유산 복원 · 복제

발굴조사는 연구원 업무 가운데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영역의 하나이다. 2004년 개원 이후 2026년까지 22년간 수행된 주요 발굴조사만 하더라도 200여 건에 이른다.
조사 대상은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있다. 개원 첫해인 2004년의 부여 차집관로 매설구간 유적·천안 불당동 유적·금산 아인리 유적을 시작으로, 2005년 서천 봉선리 유적과 부여 무량사 구지 Ⅰ, 2006년 아산 덕지리 유적·당진 안국사지·아산 학성산성, 2007년 공주 수촌리 고분군 유적·금산 백령산성·아산 갈매리 유적, 2008년 태안 안흥진성·서산 예천동 유적·부여 쌍북리 백제 토기가마 유적, 2009년 서산 부장리 유적·해미읍성(9~12차)·공주 웅진동 문화관광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2010년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홍성 홍주성 북문지 및 서문지, 2011년 아산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당진 석우리 및 소소리 유적, 2012년 천안 성거산 위례성·보령 충청수영성·부여 홍산현 관아, 2013년 공주 수촌리 고분군 Ⅰ·논산 황산성·공주 고마나루 웅진단·청양 도림사지 2차 조사 등이 잇달아 수행되었다. 2020년 이후로는 국가사적과 관련되어 있는 태안 안흥진성, 서천 서천읍성, 홍성 홍주읍성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학술발굴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공주 공산성의 동쪽 지역인 옥녀봉과 서산시의 백제 산성이라 불리는 부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 목록은 몇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조사 대상이 도내 전 시군에 고르게 분포하여 부여·공주와 같은 백제 고도(古都)뿐 아니라 당진·서산·홍성·천안·아산 등 도내 전역이 포함되었다. 둘째, 시대적으로도 선사시대 취락에서 백제 유적, 조선시대 읍성과 관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셋째, 개발사업에 수반된 구제발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개발 압력이 높은 충남 지역의 조건을 반영한다. 이러한 축적은 문화유산 지정 및 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2021년과 2025년에 각각 태안 안흥진성과 서천읍성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조사·연구가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처리 및 복원·복제는 변형되거나 파손된 것을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수리하는 작업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되는 유물을 조사·연구하여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 복구하는 작업을 아우른다.
복원·복제 분야의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수촌리 금동관모 및 금동식리 복원(2009~2012), 아산 탕정유적 출토 환두대도 복원(2009), 길두리 금동관모 등 백제금속유물 복원(2010), 왕흥사 사리기 복원(2010), 칠지도 복제(2011), 에다후나야마 금동관 및 금동식리 복원(2011), 무령왕 환두대도를 비롯한 백제 환두대도 복원(2011), 신봉동·길두리 갑옷 복원(2011~2012), 왕궁리 사리기 및 백제 금동관 복원(2013), 백제 공산성 발굴 칠갑옷 등이 대표적이다. 2025년에는 일본 관음사가 소장한
복원·복제 사업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형 규명을 위한 학술 연구의 성격이다. 복원은 유물의 제작 기법과 재료,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하므로 그 자체가 연구 과정이다. 둘째, 실물 유물을 상시 전시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복원품이 대중과 문화유산을 잇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 에다후나야마 고분 출토품의 사례에서 보듯 실물의 국내 이전이 불가능한 국외 소재 유물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된다는 점이다.

6) 충남역사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전시

충청남도역사박물관은 2006년 공주시 국고개길에 개관하였다. 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으로서는 드물게 매년 1,000여 점 이상의 유물을 꾸준히 수집해 왔으며, 100여 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1월 말 기준 소장 유물은 고서 5,865점, 고문서 9,978점, 목판 1,041점, 민속자료 3,387점, 근현대자료 7,728점, 기타 5,761점 등 총 33,760점에 이른다.

지정문화재 소장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3건 65점, 도지정문화재 10건 59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제724호 '성주도씨 종중문서 일괄' 5점, 보물 제1495호 '윤증초상 일괄' 6점, 중요민속문화재 제22호 '윤증가의 유품' 54점이 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공주 상세동 산신도', '청난공신 임득의 초상', '공주 충현서원 주자초상'(9점), '김이교 유물 일괄'(20점), '부전대동계 문서'(23점)를 비롯하여 문화재자료 '청난공신 홍가신 초상', 민속문화재'무안박씨 요여' 등이 있다.

수집된 유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물은 2023년에 만든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아카이브(https://museum.cihc.or.kr/ko/M000000281/archv/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주요 유물에 대해서는 도록 및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매죽헌 성선생댁 노성 무안박씨』, 『장항선 민속조사 보고서』, 역주자료집 『북접일기—태안접주 조석헌과 문장준의 동학농민혁명 일기』, 『충청남도 문화재대관』, 『아산 외암마을 소장유물 도록』(2022), 『서산 정충신가 유물 도록』(2023), 『청양 모덕사 면암 최익현가 소장유물 도록』(2024) 등이 대표적이다.

유물 수집과 관련하여 박물관 운영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문화유산 찾기 운동'(2010년 전개)으로 대표되는 수집 정책이다. 전통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시 교체 전시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박물관을 지향한 것이다. 근현대자료가 7,728점으로 고문서(9,978점) 다음으로 많다는 점은, 이 박물관이 전통시대 유물 중심의 수집 관행에서 벗어나 근현대 자료의 가치를 일찍부터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충남역사박물관 전시는 여타 박물관과 같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로 구성된다. 상설전시는 선사~현대에 이르기까지 충남지역 통사(通史)를 다루고 있고, 기획전시는 1년에 2회 개최된다. 충남역사박물관은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와 건축물을 토대로 설립된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100년이 넘은 오래되고 엄청난 규모의 방대한 왕벚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벚꽃철에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4월 상춘객에 맞춰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유물 특별공개 행사(명재 윤증 초상 및 죽리 김이교), '난중의 난을 만나다—이몽학의 난과 청난공신',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유물 특별전, 다큐멘터리 '1597년 홍주성, 벼랑끝 조선을 구하다' 제작,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 '충청감영의 문을 열다' 특별전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은 충남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충남역사박물관 외부 환경 개선공사를 비롯하여 내부 전체 리모데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4년 4월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재개관을 통해 충남 도민에게 열린 문화복지서비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유산 순회전을 통해 충남역사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을 도민이 아닌 전 국민에게 선보이고 있고, 가을에는 '공주, 밤 풍경'이라는 주제로 개관 20주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7)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환수

국외 소재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는 연구원의 사업 가운데 대외적 관심을 가장 크게 받은 영역이다.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유물을 환수하여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황조사와 경매정보 조사, 번역서 발간 등 기초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상과 백자청화이기하지석이다. 전자는 일본 관음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상으로, 반출 경위와 소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후자의 경우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 2025년 28년 만에 국내로 반환되었으며, 같은 해 3월 충남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석(誌石)은 피장자의 생애와 가계를 기록한 자료로서 문중사와 지역사 연구의1차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 환수의 학술적 의미가 크다.
환수 사업의 특징은 실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다. 경매나 불법적인 경로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경우 구입·기증·협상을 통해 수집하되, 실제로 반환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원·복제품을 제작하여 도민의 문화 경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환수를'반환'이라는 단일 목표로 환원하지 않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문제로 재설정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5. 향후 연구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성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초자료의 집성이 사업의 근간을 이룬다. 도지와 시군지·읍면지 편찬, 발굴조사 보고서 간행, 자료집과 역주서 발간, 박물관 유물 수집은 모두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되는1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개별 연구 논문의 생산보다 자료 기반의 구축에 무게를 둔 것은 광역 지역학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 둘째, 학술 연구와 정책 지원, 대중적 활용이 하나의 사업 안에 통합되어 있다. 발굴조사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이 문화유산 지정과 관광자원화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는 대학 부설 연구소가 갖기 어려운 이점이다. 셋째, 전통시대에 무게중심이 있으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근현대 자료 수집, 구술채록이 더해지면서 시기적 균형이 개선되고 있다. 넷째, 내포문화진흥센터 설치, 교류협력부의 환수 업무, 정책연구부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서 보듯 조직의 분화와 사업의 확장이 병행되었다. 이상의 연구 성과가 개원 이후 20여 년간 축적된 결과라면, 이 장에서는 그 축적 위에서 현재 연구원이 설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1) 향후 연구사업 계획

첫 번째 방향은 도정(道政)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구의 추진이다. 국가유산청 공모 선정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백제 연구 및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도정과 연계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충남문화관광재단·충남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콘텐츠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역사문화 콘텐츠의 공동 기획 및 제작 고도화, 전문지식의 공유와 공론화, 자원 공유 및 협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과 거버넌스 구축이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사와 문화콘텐츠의 결합이라는 흐름에 대해 연구기관이 취한 제도적 대응으로 읽을 수 있다. 학술 연구기관이 콘텐츠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는 방식은, 연구가 콘텐츠 제작에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막고 고증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규 사업으로는 세 가지가 착수되었다. 첫째는 백제사대계 후속연구로서의 백제역사문화 책자 편찬사업이다. 3개년에 걸쳐 총 12권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3권의 집필진 확정과 세부 작성 방식 협의가

진행된다. 앞서 검토한『백제문화사대계』의 학술적 성과를 대중적 서술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 둘째는 백제사찰 고증 및 디지털 재현 프로젝트로, 충남 소재 백제 중요 사찰지 16개소에 대한 문헌 자료와 발굴조사기관별 원천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문헌 고증과 발굴 성과를 디지털 재현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다. 셋째는 충남 역사인물 발굴 및 학술총서 발간 사업으로, 충남 인물 1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번암 채제공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우선 추진한다.

이 밖에 민선9기 공약을 반영한 공공기관 협의체 협력사업 발굴, 충남도와 일본 나라현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유산의 현재와 미래' 학술회의 개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도민 공개행사 등이 추진된다.

두 번째 방향은 충남 역사문화의 원형 발굴과 독립운동 연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활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역사문화 원형 발굴 분야에서는 도내 금석문 기초조사가 공주·보령·태안·서산·홍성 5개 시군550건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에 대한 구술 기록화 사업이 후손과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예정된 5천여 장의 기록물에 대한 번역·해제가 진행된다. 금석문과 구술, 근현대 기록물이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근현대 영역의 확대 경향을 뒷받침한다.

독립운동 연구 분야에서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현양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은 이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2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양 출신 미서훈 독립운동가 340명을 발굴하여 그 가운데 238명에 대한 서훈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천 출신 이상재 선생의 서훈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전문가 포럼이 병행된다. 기존의 미서훈자 발굴에 더하여 이미 서훈된 인물의 등급 재평가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유산화 추진 분야에서는 조선왕실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시도되고 있다. 태실은 여러 광역단체에 분포하는 유산이므로 광역실무회와 광역단체 협의회 공동학술회의를 통한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한국의 읍성'을 주제로 한2026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에서 서산 해미읍성의 연구 예산이 확보되었다. 앞 장에서 확인한 해미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2011)과 역사문화 공간정보자원 개발연구(2013) 이래의 조사·연구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내포문화 분야에서는 충남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시군 순회 포럼이 8회에 걸쳐 운영되고, 가야산 역사문화권 포럼의 민관협의체 회의와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세 번째 방향은 문화유산 기초조사를 통해 충남형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백제왕도 발굴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연구성과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보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도지정 문화유산 139개소에 대한 정기조사와 무형유산 10종목에 대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기록도서 1종목과 영상기록화3종목이 제작되고 전승기반 정책연구가 병행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연유산 잠재자원 기초조사의 착수이다. 1,316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지정 잠재력 평가, 지정계획 수립이1차년도 과제로 설정되었는데, 역사문화 중심이던 연구원의 조사 범위가 자연유산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발굴·보존·정비 분야에서는 예산 임존성 성벽 현황조사와 보존등급 검토, 서천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천읍성은 2025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어, 지정 이후의 정비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유산 조사에서는 백제 왕도인 공주 옥녀봉성과 지역 치소인 서천 남산성·부성산성이 대상이 되며, 천안 천흥사지의 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개최된다. 홍주읍성과 공산성 등의 매장유산 활용 현장공개는 4건에 약1,000명이 방문하였다. 이 밖에 금석문 기초조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네 번째 방향은 도민 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충남역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상설 체험프로그램과 충청감영 측우기를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한제국 황실과 충청의 명가' 특별전을 비롯한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유물 수집도 지속되어 상반기에만 국내외 소재 문화유산 431건 986점이 기증·기탁되었다.
도민 참여형 활용사업으로는 도내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을 전면 공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성과로 매장유산 조사현장 공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받았다. 한산모시축제와 연계한 서천 성곽유적 활용 프로그램, 공주 수촌리 고분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연구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추사 김정희 탄신240주년 기념 한·중 국제 학술포럼, 백제 연구기관 공동 학술세미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의 공동 순회전시가 추진되며, 등재학술지『충청학과 충청문화』는 제40집 발간과 함께 한국연구재단 등재 자격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방향은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조사·환수와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다. 최근에는 일본 미야타이즈미 소장품을 비롯한 국외소재 문화유산 61건 173점이 무상 기증 형태로 환수되었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경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정밀 복제품이 제작되어 부석사 봉안식과 박물관 특별전시가 이어졌다. 실물의 반환이 어려운 유산에 대해 복제·복원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이다. 같은 맥락에서 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에 포함된 공주 출토 반가사유상의 복제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지조사와 복제 허가를 거쳐 고화질 이미지 및3D 스캔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3D 프린팅을 완료하였으며 정밀주조와 고색처리를 거쳐 전시할 예정이다.
조사·연구 측면에서는 일본 간사이 지역(교토·나라·오사카) 국공립기관 소장 충남 문화유산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마곡사 본말재산대장의 번역을 통해 불법 반출의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또한 국외 경매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가 운영되어'경술중추명 앙부일구'의 구입 대상 유물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소장자 사정으로 경매가 보류되어 재경매 시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외 문화유산 저널을 통한 환수 광고, 국외소재문화유산환수협의회 정례회의 참여, 기증자 예우를 위한 초청강연과 기념행사가 추진된다.

2) 향후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지역학의 학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현재의 지역학 연구는 대체로 '지역사' 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만을 대상으로 지역학을 연구할 경우 지역민의 삶과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다수 발생한다. 지역 주민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들—산업 구조의 변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촌 소멸, 교육과 복지의 격차는 지역학의 이름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학 연구는 접근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과거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연결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현재 지역민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 환경과 생태, 문화와 예술에서 우선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그것이 과거와 연결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역사에서 찾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역사 연구의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연구 문제의 설정 지점을 현재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역학은 정의에서 표방한 '학제적 연구'와 '실천적 학문'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대중화 방식의 전환이다. 현재 지역학 연구는 전문 연구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보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연구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을 주민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쉽다는 점이다. 정체성은 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은 지역학이 지향하는 목표와 어긋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연구의 입력 단계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질적·양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역민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학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연구의 출력 단계에서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학술 세미나 개최, 대중서 발간, 아카데미 운영 등이 일방향적 지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쌍방향적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문화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도민의 접근성 향상'과 '도민의 배움 기회 확대'를 전략과제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관건은 이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로 구현하는 일이다.

세 번째 과제는 난립한 대학 지역학 연구소의 기능 조정이다. 앞서 확인하였듯 충남 지역 대학 부설 연구소 사이에는 연구 범위의 중복이 존재한다. 백제 관련 연구소가 충남대와 공주대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충남 역사문화 관련 연구소가 충남대와 건양대에 중복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소재 대학의 통폐합 국면에서 대학 및 학과의 통폐합은 별개의 문제로 두더라도, 연구소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와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의 관계 설정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각 시군에 소재한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의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지역학의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주대 공주학연구원(2014년)과 청운대 홍성학연구소(2020년)의 사례는 이러한 방향의 선례로 참고할 만하다.

이 문제에서 광역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 연구소 간의 조정은 개별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 다만 광역 차원의 연구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연구 의제가 조율된다면, 중복을 피하고 상호 보완하는 분업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여지가 있다.

또한 지역학 기관 사이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전국의 광역 지자체에는 지역학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며, 충남·대전·세종만 하더라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전학연구센터, 세종학연구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유사한 과제—지역 정체성의 규명, 자료의 수집과 아카이빙, 대중화 방안의 모색, 전문 인력의 확보—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상호 교류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연계협력이 필요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공유와 표준화이다. 각 기관이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상호 연동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개별 기관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므로, 메타데이터 표준의 공유와 통합 검색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연구 의제의 조율이다. 인접 지역이 공유하는 주제—금강 수계, 내포 지역, 충청감영, 해양 교류—는 공동 연구로 접근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셋째, 인력 교류와 공동 교육이다.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조건에서 기관 간 인력 교류와 공동 아카데미 운영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조사 방법과 대중화 프로그램의 성공·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연구 네트워크 내실화'를 전략과제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를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네트워크는 선언만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공동 사업과 정기적 협의체 운영이라는 구체적 형식을 통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네 번째 과제는 연구 분야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충남 지역학 연구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연구는 백제사, 조선시대사, 근대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편중은 세 가지 공백을 낳았다. 먼저,

해양사와 포구문화의 공백이다. 충남의 경우 서해안을 비롯하여 금강과 삽교천 등 하천이 넓게 분포하여 해양사와 포구문화가 존재하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최근 내포문화연구부가 해양문화 연구를 담당하고『충남해양문화 자료집』과『태안 안흥진성』,『태안 태안읍성』,『서산 해미읍성』등 충청도 수군진 자료집』이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 축적의 초기 단계에 있다. 다음으로 근대사 연구의 편중이다. 근대사의 경우 인물사와 독립운동에 치우쳐 있어 제도사, 경제사, 사회사 등의 연구가 미진하다. 식민지기 충남 지역의 행정 제도와 재정 구조, 농업 경영과 상업 유통, 도시 형성과 사회 계층의 변화 등은 독립운동사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이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지역 근대사 연구가 '민족운동사'의 틀 안에서 주로 다루어져 온 한국 근대사학계의 일반적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끝으로 현대사 연구 기반의 취약성이다. 현대사의 경우 현재 충남대 출신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진이 부족하여 충남 현대사를 조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해방 이후 충남 지역의 정치·사회 변동,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 지역 사회운동의 전개 등은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함에도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현대사는 구술 자료의 확보가 시급한 영역이기도 하다. 연구원이'현대인의 기억을 기록하는 구술채록'을 백제충청학연구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충남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는 일이다. 그 대상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이다. 태실, 봉수제도, 한국의 읍성, 계룡산 복합유산, 천주교 공동체 유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개별 유산으로는 이미 알려져 있으나 연속유산(serial property)이나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대상들이다. 등재 추진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유적 중심 연구를 제도사·경관사의 시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 활용과 연계한 학술연구의 추진이다. 학술연구의 고증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역사성을 담보하는 방향이다. 앞서 살펴본 대 로2010년대 이후 지역사와 콘텐츠의 결합은 불가역적인 흐름이 되었다. 문제는 콘텐츠 제작이 학술적 검증 없이 진행될 경우 역사 왜곡이나 근거 없는 서사가 지역 정체성으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관이 고증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성을 보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연구 인력의 양성이다. 현재 충남 지역의 경우 대학원 유입 인원 감소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문화 관련 학과에 입학하더라도 전문 인력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원의 연구직 결원(3명)도 이러한 구조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국립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학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과정과 연구기관의 연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제도의 체계화, 연구보조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학위 취득 후 진로와 연결되는 경력 경로의 설계가 검토될 수 있다. 연구원이 2015년 공주대 사학과와 특성화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시도의 하나이나, 개별 협약을 넘어선 제도적 틀과「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조항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기초자료의 집성부터 학술 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발굴, 그리고 대중적 활용까지 아우르며 충남 지역학 연구를 선도하는 종합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도지 및 시군지 편찬과『백제문화사대계』간행을 통해 지역사 연구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사업 등을 통해 학문의 실천적 가치를 훌륭히 증명해 냈다. 특히 학술적인 발굴 및 고증 성과가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콘텐츠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은, 광역 지역학 기관으로서 거둔 가장 뜻깊은 성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충남 지역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시대 역사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해양사 및 근현대사는 물론 현재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영역까지 학문적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체성을 주입하기보다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중화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난립한 대학 연구소 및 인접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문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면, 충남 지역학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든든한 토대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적된 가야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 가야 문화유산의 대중적 활용과
고고역사 공간 조성의 결합 -

홍밝음

축적된 가야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 가야 문화유산의 대중적 활용과 고고역사 공간 조성의 결합 -

홍밝음

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배경 및 목적

1. 가야사 복원의 국가적 과제와 필요성

1) 고대문화의 한 축으로서의 가야사 가치 재조명

한반도의 고대사는 오랜 기간 고구려·백제·신라 중심의 삼국시대로 서술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야의 역사적 실체와 독자적인 문화적 성과는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가야는 신라, 백제와 병립하며 독자적인 정치 체제와 고도화된 철기 문화, 국제 교역망을 발전시켰던 한반도 고대사의 핵심 주체였다. 특히 가야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의 고고학적 유적은 특정 행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영호남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고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동서 화합과 교류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지표이다.

2) 국가적 가야사 복원 정책의 추진 동력

기존의 미진했던 연구 환경을 극복하고 고대사 연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가야사 복원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제67번]으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을 선정하여 가야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과 정비를 국가적 의무로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합하여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의 관련 조사 및 연구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었다. 국가지정문화재 조사·연구·보수정비 예산은 2016년도 기준 118.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145.5억 원, 2018년 22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853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었다. 이는 2016년 대비 약 619.8%가 확대된 규모로서, 국가가 가야사 복원 사업에 투영한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추진 의지를 실증하는 지표이다.

3) 영호남 통합적 연구 및 체계적 규명의 필요성

가야권역의 고고•역사 문화자원은 여러 광역지자체에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관리·정비되어 왔다.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가야고분군 7개소가 보여주듯, 가야의 문화유산은 영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단일 지자체의 개별적인 접근만으로는 가야 역사의 통합적 맥락을 온전히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원천 자료와 고고학적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2. 기존 연구·보존 인프라의 한계와 당면 과제

1) 신라·백제 문화권 대비 전담 지원 체계의 구조적 결핍

경주 황룡사 복원 사업이나 백제역사유적지구 정비 사례에서 확인되듯, 신라문화권(경주 중심)과 백제문화권(공주·부여·익산 중심)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 국가급 전담 연구 기관과 체계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장기간 대규모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가야문화권은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고고학적 성과 규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전담 연구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미흡하였다. 즉, 가야문화권 연구를 총괄할 국가 중심의 물리적 거점이 부재함에 따라, 일관된 정책 수립과 연구 생태계 조성에 심각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2) 가야권역 역사 문화자원의 산발적 분산 및 보존 공백

수십 년간 축적된 가야 유적 발굴 성과물과 사진, 도면, 발굴일지 등의 핵심 고고학적 원천자료(Raw Data)들은 국가 차원의 단일 규격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개별 발굴기관과 대학 박물관 등의 서고에 분산되어 보관되어 왔다. 특히 유물 자체뿐만 아니라 발굴 과정의 정밀한 기록물이 손상되거나 소실될 경우, 고고학적 원천 사료의 영구적 가치가 상실되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천자료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면서 이와 동시에, 이를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보존 모델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3) 지역 대학박물관 폐관 등에 따른 '역사 문화자원 유실 위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재정 위기는 가야 역사 문화자원 보존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가야권역 발굴조사를 주도하고 유물을 소장해 온 주요 지역 대학 박물관들이 발굴 중단 및 대학박물관 폐관 이라는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핵심 비전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위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인프라 공백을 메워 가야사 복원의 중심 거점이 되고자 건립되었다. 센터의 건립 목적 및 핵심 비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권역 역사 문화자원의 중앙 집중형 통합 관리 거점(Management)

센터는 발굴기관과 대학박물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가야 유적 출토 유물과 비귀속유물, 나아가 유산의 역사성을 증명해 줄 발굴 기록물(사진, 도면, 현장 일지 등)을 중앙 집중형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학 박물관에서 인수한 유물의 인수·훈증 소독, 과학적 보존 처리, 그리고 수장고 보관에 이르는 통합 이관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보존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2) 가야사 아카이브 허브 구축 및 연구 생태계 지원(Archive)

분산 보관되던 가야의 모든 원천 사료를 국가 표준 아카이브로 통합하여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는 단순 유물 보존을 넘어 가야문화권 내에 분포한 박물관, 발굴법인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학술 연구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원천 자료를 무상 공유·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가야사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3) 대국민 역사문화 서비스 및 지역 상생 가치 창출(Service)

센터는 기존의 엄숙하고 폐쇄적인 수장 및 자료실 모델에서 탈피하여, 국민 누구나 고도로 가공된 가야의 역사 사료와 기록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문화 향유권 확대) 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각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 문화 취약 계층이 일상 속에서 가야의 역사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free) 서비스 및 고품질의 문화 향유 환경을 구현한다.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 김해시 장유 지역에 건립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영·호남 가야 유적 관광의 연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김해공방마을•고성청년예술촌 등 지역 예술·공예 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과 협업 전시,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밀착형 문화 생태계 활성화한다.

Ⅱ.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공간 구성 전략

1. 라키비움(Larchiveum) 모델의 도입 취지 및 혁신 가치

1)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유기적 혁신 통합

센터는 단순 유물 진열 위주였던 기존 역사 전시 공간의 패러다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라키비움(Larchiveum) 모델을 도입하였다.

도서관(Library) 영역: 가야 관련 전문 연구 서적, 고고학 학술지, 역사 교양 도서 제공 및 시민들을 위한 아늑하고 편안한 개방형 독서 공간인 책방의 기능을 수행한다.

기록관(Archive) 영역: 유물의 가치와 유적지의 역사적 맥락을 증명하는 발굴 도면, 현장 사진, 발굴 조사 일지 등 방대하게 축적된 가야사 조사 성과 및 기록 원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물관(Museum) 영역: 실물 발굴 유물과 가야고분군 디지털 해설자료 등 실감형 디지털 연출 기술을 융합하여 가야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대국민 전시·체험 환경을 구현한다.

2) 공급자·보존 중심에서 이용자·활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거의 고고학 아카이브는 주로 소수의 전문 연구자를 위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자료의 원형 보존'에 편중되었다. 그러나 센터는 국민 누구나 가야사에 쉽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개방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즉, 관람객이 단순히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 주체에서 벗어나, 통합 데이터 검색 및 디지털 체험을 통해 가야사 기록을 직접 탐색하고 자신만의 '가야의 기억'을 생성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쌍방향적인 경험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3) 보존의 폐쇄성과 활용의 개방성의 조화로운 통합 연계

라키비움 공간 구축의 핵심 작동 원리는 '보존의 폐쇄성'과 '활용의 개방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치를 가장 안정적인 구조적 연계를 통해 구현하는 데 있다. 즉, 항온·항습 및 방충·방균 등 최적의 환경 속에서 출토 유물과 원본 발굴 기록물들을 안전하게 영구 보호하는 '폐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집된 모든 역사 문화자원과 데이터베이스에 누구나 물리적·온라인 장벽 없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접점을 고도로 개방하는 조화로운 공간 구조를 설계하였다.

2. 공간 구성의 3대 핵심 영역 및 세부 기능

센터의 라키비움 공간은 물리적 배치와 건축적 관점에서 ① 역사자원 통합 관리 공간, ② 아카이브 공간, ③ 대국민 서비스 공간의 3대 핵심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특화된 학술 및 공공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역사 문화자원 통합 관리 공간

역사 문화자원 통합 관리 공간은 실제 가야 문화유산의 손상이나 멸실 위기에 놓인 가야권역의 원천 유물 자료를 보존•복원하며, 전문적인 고고학적 연구 프로세스를 일반 관람객에게 입체적으로 공개하는 특화된 학술·보존 구역이다. 이 영역은 지하 수장고에 해당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운영난 등으로 인해 발굴조사 중단 대학기관 박물관은 9개소에 달한다. 이 공간은 해당 박물관이 소장한 422개 조사 유적지 출토 가야 유물 총 10,128박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아카이브하기 위한 최첨단 보존·이관 전문 시설로 기능한다.

센터는 1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유물 이송 및 아카이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 동의대 유물 700여박스가 이관되었으며, 2026년 현재 이에 대한 보존처리 및 아카이브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1> 가야권역 역사자원 통합관리 프로세스

2) 아카이브 공간

아카이브 공간은 산재한 가야 역사 관련 원천 자료를 통합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지식 플랫폼 공간이다. 이 공간은 3층에 위치한 아카이브실 Ⅰ, 아카이브실 Ⅱ, 아카이브실 Ⅲ 및 아카이브등록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현재 국내외 연구자 기증도서 10만권에 대한 도서 등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병행하여, 2025년 기준 대학박물관 발굴보고서 78권 DB완료 및 29,147건의 통합 메타데이터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총 29,147건의 통합 메타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직관적인 검색엔진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원천 사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및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데이터 개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3) 대국민 서비스 공간

대국민 서비스 공간은 가야사 연구 성과물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환원하고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 개방형 문화 공간이다. 본 영역은 지상 1층(전시실, 로비, 강당)과 2층(열린수장고, 고고학자의 방, 책방), 별관(가야배움터)을 아우른다.

‘전시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7개소의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는 동시에 뛰어난 철기 무장 능력을 자랑했던 고대 가야의 상징인 함안 말이산 고분군 8호분 출토 ‘말갑옷 재현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로비’는 단순한 이동 통로의 기능을 넘어 시민과 예술이 교차하는 문화적 연결망으로 기능한다. 김해시 가야 공예 단체와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기획한《RE:make 가야 기억을 잇는 사람들》팝업 전시,《상상 발굴: 예술의 층위》미니 갤러리 등 다양한 가변적 기획 특별전이 상시적으로 전개되는 현대적 감각의 문화 공간이다.

‘강당’은 대중 대상의 가야사 시민 아카데미, 인풀루언서 가야 북콘서트, 전문 연구자 중심의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학술•문화 행사와 전통 공연이 개최되는 다목적 공간이다.

‘별관(가야배움터)’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역사교육 및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2026년 현재 가야 토기 탐구교실, 고인골 고고학 탐정교실, 작가와 함께하는 도예교실 등이 정기 운영되고 있다.

‘열린수장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던 기존의 폐쇄적 수장 구조에서 탈피하여, 관람객들이 전면의 강화 유리벽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장된 가야 토기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고고학자의 방’은 1990년대 (구)창원문화재연구소 개소 이후 축적된 발굴 기록물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간으로, 1995년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발굴조사 한 실제 연구자의 연구실을 모티브로 연출된 전시 공간이다.

‘책방’은 기존의 정적인 도서관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가야사 학술 도서, 고고학 전문 학술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이는 지식 탐색 및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본 공간들의 자세한 운영 현황 및 세부 내용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상술한다.

III. 복합문화공간《Re:가야》기획 의도 및 공간•전시 디자인

1. 복합문화공간《Re:가야》기획 의도와 철학

1) 과거와 현재의 연결: 박제된 역사에서 살아 숨 쉬는 일상으로

《Re:가야》의 핵심 기획 의도는 수천 년 전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던 가야의 역사적 원천 자료를 현대 시민의 일상 영역으로 연계하여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역사 전시가 유물의 파편을 유리 쇼케이스 안에 진열하여 관람객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발생시키는 '단절된 보존'에 머물렀다면,《Re:가야》는 단절되고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시민들의 삶 속에서 영감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2) 대표 이미지 선정 배경: 가야의 정체성과 건축적 미학의 결합

기존의 일반적인 박물관들은 주로 완형의 국보급 명품 유물을 전면에 내세워 정형화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방식은 당대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담고 있는 유물들의 고고학적 가치를 온전히 조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센터는 기존의 획일화된 유물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표 이미지에 완벽한 형태의 유물 대신 형태가 변형된 이른바 '찌그러진 토기'를 선정하였다. 센터는 이 상징적인 시각물을 통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귀속유물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문화유산 보존의 의지를 담고자 하였다. 즉,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비귀속유물까지 모두 아우르며 가야의 모든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기록 하겠다는 기관의 설립 취지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토기 이미지는 유물의 외형적 완결성보다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역사적 정보의 온전한 기록에 가치를 두는 센터의 건립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작용한다.

3) 다감각적 경험 설계

《Re:가야》는 관람객이 공간을 온전히 내면화할 수 있도록 시각, 후각, 청각을 아우르는 '다감각적 입체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Re:가야》의 도입부에 위치한 미디워월은 고고학적 학술 정보를 단순 전달하기보다, 밝고 화사한 색채를 통해 고고학이 지닌 탐구와 해석의 감각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영상 구성은 발굴조사 현장의 그리드, 수장고의 구조적 프레임, 연구실의 책장 등 '고고학적 환경'을 상징하는 사각형 구조를 기본 틀로 삼았다. 나아가 이 사각형 구조 안에 가야 토기, 발굴조사 도구와 같은 실제 사물뿐만 아니라 꽃, 날씨 등의 아이콘 등도 함께 배치하여, 고고학자의 작업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 감각과 해석의 영역까지 확장됨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공간의 분위기와 기억을 직관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후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김해지역 조향사와 협업하여, 가야 토기를 구성하는 물•불•흙•바람이라는 자연적 요소를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향의 콘셉트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열린수장고'의 향기는 가야 토기의 제작 과정인 환원염 소성 방식에서 개념적 영감을 받아 향기의 이름을 <환원還元, 되돌아 다시보다>로 명명하였다.

아울러 '열린수장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어두운 실내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시•청각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이를 위해 미디어월에서 송출되는 영상 콘텐츠의 흐름에 맞추어 공간 내 배경음악을 밝은 음조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청각적 연출은 시각적인 어두움을 효과적으로 상쇄시켜 공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결과적으로 자칫 무겁고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수장고의 물리적 환계를 극복하고, 대중에게

친숙하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궁극적으로 관람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관람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 것이다.

2. 세부 공간 디자인 전략 및 정밀 분석

1) '열린수장고' 디자인 전략

과거의 수장고가 유물의 안전과 밀폐된 관리만을 지향하였다면, 2층의 '열린수장고'는 최적의 항온항습 환경을 충족하면서도 관람객이 유물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전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전시 기획 단계에서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되어 미공개 상태였던 가야 토기를 단순한 고고자료로 제시하기보다 형태와 질감, 색감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미감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전시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야 토기와 현대 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구성이 기획되었다. 다소 호흡이 길었던 검토 과정을 거쳐, 가야 토기와 물성이 유사한 현대 도예 작품을 나란히 전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의 도예 작품을 대비시킴으로써 가야 토기의 조형성과 미감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야 토기를 현대적 시선으로 재해석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도예가 진윤희 작가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즉, '열린수장고'는 고대의 가야 토기와 현대의 도예 작품이 나란히 전시되며, 서로 다른 시대의 조형 감각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연속성을 구현하도록 조성되었다.



열린수장고 내부 모습



미디워월



가야 토기와 현대작품의 병치



<환원還元> 향수

<그림2> 열린수장고

2) '고고학자의 방' 디자인 전략: 몰입형 아날로그 감성

'고고학자의 방'은 한 분야에 평생을 헌신한 고고학 연구자의 치열한 연구 궤적과 아날로그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이다. 이는 1995년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발굴조사한 실제 (구)창원문화재연구소 고고학자의 연구실을 모티브로 재현되었다.

고전적인 아치 형태의 게이트와 어두운 톤의 목재 인테리어는 고고학자의 학술적 깊이와 정숙한 연구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은은한 조도의 녹색 스탠드와 붉은 벨벳 커튼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연구자가 방금 자리를 비운 듯한 현장감을 극대화하여 전시 공간에 대한 몰입을 유도한다.

'고고학자 방' 내부에는 실제 발굴 현장에서 사용되는 트라울과 붓, 정밀 유물 실측을 위한 캘리퍼스와 실측자, 탁본 도구 등이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어, 고고학자의 업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림3> 고고학자의 방

특히 기록물은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연구 활동의 흐름과 데이터 축적양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배열되었다. 이를 통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단일한 발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기록과 분석의 축적을 통해 완성되는 체계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3) '책방' 디자인 전략: 지식 탐색과 휴식이 융합된 디자인

'책방'은 엄숙하고 경직된 일반 도서관의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지식의 탐구와 개인의 휴식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외부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차경(借景)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에 개방감과 밝은 분위기를 더하고, 전시 공간에서 유발된 관람객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바닥에서 천장까지 맞춤형 원목 서가를 조성하여, 전문 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학술적 신뢰감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서가에는 고고학 전문 학술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용 가야사 관련 인문서를 계단식 및 정면 배치 기법으로 진열하여, 도서 자체가 시각적 오브제로서 기능하도록 연출하였다.

특히 이곳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가 기증받은 10만여 권의 도서 중 약 3천여 권을 선별 및 공개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서재에 머물던 자료들은 기증을 통해 공공의 연구 자산으로 확장되었고, 책방은 이러한 축적의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림4> 책방

4) 테라스 디자인 전략: 김해의 자연을 품는 배려의 공간

테라스는 책방의 창밖 풍경을 완성하는 동시에, 실내 공간과 외부 자연을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하는 매개 공간이다. 건축물 내•외부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회색 대리석의 차가운 인상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석의 견고함과 온기, 철재 개비온(Gabion) 화분의 구조적 질감, 그리고 사계절 생동감을 더하는 수목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연의 풍경이 실내 경험으로 확장되는 따뜻하고 조화로운 테라스 공간을 구현하였다.

IV.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1. 대국민 가야사 대중화 및 시민 소통 프로그램

센터는 학술 연구와 보존 영역에만 국한되었던 가야사를 일반 대중의 수준에 맞춰 재해석하는 다양한 소통 중심의 공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대 가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역사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강좌: 《고대사 속의 가야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대중이 가야의 역사적 실체와 학술적 가치를 고고학 원천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즉 일회성 행사를 넘어 2026년 상반기 정기 강좌로 운영하여 지역 내 상설 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가야 유산을 보유한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 기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026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1> 가야사 아카데미 세부내용

연번	주 제	강 연	소 속	일 시	주요내용
1	해상왕국 가야	김일규	부산대학교	2026. 02. 25.	해상무역 해상교류
2	가야의 도성체계	김지연	국립가야 문화유산연구소	2026. 03. 25.	가야 왕성 가야 방어체계

연번	주 제	강 연	소 속	일 시	주요내용
3	가야의 상형토기	박승규	가야문물연구원	2026. 04. 29.	가야 토기 상형 토기
4	가야의 장례문화	김수환	경상남도 전문위원	2026. 05. 27.	가야의 무덤 가야의 장례
5	가야의 생활문화	이성미	국립가야 문화유산연구소	2026. 06. 24.	고인골 동물뼈

2) 책과 함께하는 가야 지식의 나눔:《북콘서트》

북콘서트는 가야사의 인문학적 스토리텔링과 센터의 플랫폼화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즉, 딱딱한 학술 강연에서 벗어나 책, 강연, 대화가 결합된 인문학적 토크쇼 형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가야 문화유산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책으로만 접하던 저자와 직접 소통하며 독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반 대중이 가야사에 친숙함을 느끼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9월 초 기준) 2회차가 개최되었으며, 100석 규모의 강당이 모두 만석이 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표2> 북콘서트 세부내용

연번	주 제	강 연	소 속	일 시	비 고
1	건국신화 _가야 건국 신화의 이면	조현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26. 07. 29.	
2	세계유산 고분 이야기 _가야 고분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	2026. 08. 26.	
3	우리 고전 비틀기 _고전이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	유광수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2026. 09. 30.	
4	미디어로 보는 역사 _영화나 드라마 속 가야	김재원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26. 10. 28.	
5	한국 토종 괴물이야기 _가야, 괴물이야기	곽재식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2026. 11. 25.	

3) 무대에서 피어나는 가야의 숨결: 전통 및 퓨전 공악공연

국악공연은 지역 청년 및 국악인에게 지속적인 무대 경험을 제공하여 전통예술의 맥을 잇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즉, 지역 청년 국악인의 참여를 통해 신진 예술인에게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을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현재 3월과 6월에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 가야배움터(별관) 특화 에듀테인먼트

센터는 대국민 체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맞춤형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3> 체험학습 세부내용

주 제	일 시	장 소	대 상	체험인원	체험시간
가야 토기 탐구교실	4~11월 (월1회/6회)	가야배움터	어린이 장애인	20명 내외	90분
고인골 고고학 탐정교실	7~8월 (월1회/2회)	가야배움터	청소년	20명 내외	120분
『도예작가와 함께하는 도예교실』	분기별 (분기별/4회)	가야배움터	전국민	20명 내외	150분
『고고학자의 신비한 유물 사전』	상시 (9월~)	Re: 가야 연계	전국민	-	40분



<그림5> 체험학습 포스터

<가야 토기 탐구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및 장애인 등 문화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가야의 깨진 토기 조각들을 직접 접합해보는 '나도 복원 전문가' 실습과 가야 토기를 재미있게 이해하는 '재미있는 탐구 활동' 학습을 병행하여, 가야 토기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인골 고고학 탐정 교실>은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단순한 유물 관람을 넘어 발굴된 가야인의 인골인 고인골(Ancient Human Bone)을 바탕으로 고대인의 삶을 추적하는 형질인류학 기반의 융복합 고고학 수사 교육을 시행하였다.

<작가와 함께하는 도예교실>은 실제 《Re:가야》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동참한 청년 도예가 진윤희 작가와 협업하여, 분기별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가야 토기 고유의 섬세한 제작 공정을 체험하는 심층 도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고고학자의 신비한 유물 사전>은 《Re:가야》 복합문화공간 내 전시된 토기와 같이 배치된 QR코드를 스캔하여 탐색하는 체험이다. 아동 및 동반 가족 관람객은 가야의 토기 캐릭터들이 설명해주는 모바일 퀴즈 게임을 수행하며, 자칫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높은 몰입감으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이외에도 전시 연계 체험학습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3. 시민 참여형 공모전 운영

1) 가야탐험대 캐릭터 공모전

캐릭터 공모전은 고고학 자료가 주는 특유의 경직되고 난해한 인식을 불식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대국민 친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확보하고자 기획되었다. 공모전 결과 총 288명이 출품하여, 최종 3점의 캐릭터가 전문가 심사에 의해 선정되었다. 또한 이중 1~3위의 순위는 총 1820명의 대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그림5> 공모전 투표결과

2) 서랍 속 추억 사진첩 세계유산 가야 고분 사진 공모전 개최

사진 공모전은 근현대(18~19세기) 옛 사진 발굴을 통해 훼손되거나 변형되기 전의 가야 고분 원형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공모전은 현재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하고 있으며, 최종 심사 결과 발표는 1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4. 지역 예술 창생을 이끄는 개방형 미니 갤러리 운영

센터는 1층 로비의 가변식 동선을 지역 시민 사회와 예술 단체를 위한 무상 기획 전시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3~4월에는《RE:make 가야,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김해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미니갤러리를 조성하였고, 이어 5~7월에는 9명의 지역 청년 작가들과 협업하여《상상 발굴: 예술의 층위》라는 기획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전시는 현대 공예품을 센터 내에 배치함으로써, 고고학적 발굴과 보존이라는 과거의 '시간의 층위'와 오늘날의 창조적 '예술적 층위'가 공간 속에서 유기적으로 교차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문화의 주체이자 창작자로서 센터의 라키비움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양방향 상생 사례이다. 또한 나아가 전시 기간 중 참여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총 24회 운영하여, 대중의 예술적 이해도와 참여도를 크게 증진시켰다.



<그림5> 미니 갤러리 리플렛 및 안내자료

제5장 새로운 역사문화센터의 표준 모델 제시 및 미래 비전

1. 성과의 종합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2024년 9월 준공 및 개관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화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공간 조성 방식과 라키비움 운영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가야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 및 복원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였으나, 국정과제 채택 및 센터 건립을 통해 결과적으로 영·호남 전역에 산재한 가야사 연구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학술적으로 본 센터는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의 경계를 허물고 이를 단일 공간에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방형 라키비움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지닌다.

수장고의 일부를 관람 영역으로 확장한 '열린수장고', 1990년대 발굴 현장의 긴장감과 연구 과정을 아카이브 형태로 재현한 '고고학자의 방', 기증 도서 3천 여 권을 기반으로 차경(借景) 미학을 도입한 '책방' 등은 보존의 폐쇄성과 활용의 개방성을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공간 디자인의 집약체이다. 이러한 유기적 공간 결합은 단순한 유물 진열 위주의 기존 박물관 전시 방식을 탈피하여, 유물이 발굴되고 기록으로 구축되는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선진적 문화 향유 환경을 정립하였다.

2. 단순 보존을 넘어선 'Living Archive(살아있는 아카이브)'로의 전환

본 센터의 핵심 미래 비전은 과거의 유물과 문서를 박제된 상태로 동결·보관하는 기존의 수장고에서 벗어나,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Living Archive(살아있는 아카이브)'를 실현하는 데 있다.

'가야사 시민아카데미', '북 콘서트', '체험학습' 등의 상설 교육 모듈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지식의 수혜자에서 기록의 능동적 주체로 격상한다. 또한 김해공방마을, 고성청년예술촌 등 지역 기반 예술단체 및 청년 작가들과 연계한 '미니 갤러리'는 가야의 역사적 원천 소스를 현대적 예술로 재해석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나아가 당선된 대국민 공모전 캐릭터와 유물 기반의 창작물들은 실용적인 2차 저작물(문화상품, Goods)로 재생산되어 일상 속에서 가야 문화가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3.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글로벌 확산 및 디지털 영토 확장

2025년 사업으로 구축한 DB(발굴조사보고서 78권 및 29,147건에 달하는 유물·유구·원천자료의 표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합 검색 및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며, 나아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시범 구축하여 향후 다국어 큐레이션 서비스 및 AI 기반 해설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

4. 새로운 역사문화센터의 표준 모델(Standard Model) 제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성공적인 공간 조성 성과와 운영 매뉴얼은 향후 국내 곳곳에 건립될 유관 역사문화 거점들의 선도적인 롤모델 기능한다.

현재 순차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조달청 심의 등을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한역사문화센터(전남 영암)'와 '후백제역사문화센터(전북 전주)'가 기획·건립 단계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단순한 학술성과나 유물의 진열을 넘어,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상호 교감하는 '열린 문화 플랫폼'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이다. 1,500년 전 고대 가야인들이 흙과 철에 남긴 삶의 흔적들은 이제 첨단 디지털 기술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현대적 예술이자 사회적 자산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되며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센터의 공간적 독창성과 시민 지향적 라키비움 거버넌스는 미래형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표준적 기준으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글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20,『2020년 가야역사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2026,『Project Re. 가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2026,「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제주역사 국제 포럼

“ 지역의 기억, 공동의 지평으로 ”

The International Forum of Jeju History,
“Memories of the Local, Toward the Shared Horizon”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제주학연구센터
발행일 2026년 10월 3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51 제주시 동광로 23길 1, 3층
www.jst.re.kr
제작 디자인리더 pas0907@daum.net

* 이 책에 수록한 내용은 출처를 밝혀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